

신앙과 학문

Faith & Scholarship

제29권 제4호 (통권 101호) / 2024. 12

신앙과 학문

제29권 제4호 (통권 101호), 2024년 12월호

발행일 2024년 12월 31일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 김태황 (명지대학교)

편집인 박해일 (경희대학교)

디자인 이지은

인쇄 (주) 에스제이피앤비

등록 141-81-36939

주소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910호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 02-3272-4967

팩스 0303-0272-4967

전자우편 gihakyeon@gmail.com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ISSN 1226-9425

정가 15,000원

■ 일반 논문

- 005 21세기 기독교대학의 이념 - 칸트와 흄스를 넘어서 | 이국운
The Idea of Christian University in the 21st Century | Kukwoon Lee
- 031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의 비교연구 | 김대인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nd the Theory of Sphere Sovereignty | Daein Kim
- 061 진젠도르프의 성경적 세계관과 사역에 관한 고찰 | 최용준
A Research on Zinzendorf's Biblical Worldview and Work | Yong Joon (John) Choi
- 079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 개념분석 | 박정숙 / 손원미
Concept Analysis of Postpartum Depression in
Marriage Immigrant Women | Jung Suk Park / Won Mi Son
- 101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의 인간관계 경험 | 손수경 / 이은하 / 허진선 / 이수목 / 손원미 / 이현애
Interpersonal Relationship Experiences of Pastors' Wives in Small Churches
Sue-Kyung Sohn / Eun-ha Lee / Jin-Seon Heo / Soo-Mok Lee/ Won-Mi Son / Hyeon-Ae Lee
- 131 이 시대 고아, 과부, 거류민은? : 성경과 센(Sen)의 관점을 중심으로 | 조규봉
Who are the Orphans, Widows, and Sojourners of Our Time? :
A Focus on the Perspectives of the Bible and Amartya Sen | Kyu Bong Cho
- 155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참여한 Anti-Christian 어머니의 경험과 변화 | 방은영
Anti-Christian Mother's Experience and Changes in Infant Bible Rhythm Play Class | Eunyoung Bang
- 177 생성형 AI 시대, 헤르만 바빙크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신앙과 학문의 통합 연구 | 서미경
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Based on
Herman Bavinck's Worldview in the Era of Generative AI | Mikyoung Seo
- 209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 개념분석 | 최은정 / 정유진 / 조현미
Concept Analysis of Hope of Community Dwelling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Eun Jung Choi / Yu Jin Jung / Hyun-Mee Cho
- 231 조선을 섬긴 서서평선교사의 삶과 유아교육적 함의 | 하연희 / 김초롱 / 정병탁 / 권미량
The Lif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Implications of
Seo, Seo-Pyeong Missionary who Served Joseon
Yeonhee Ha / Cholong Kim / Byungtak Jeon / Mee Ryang Kweon
- 253 한국판 단축형 하나님 이미지 척도 개발 연구 | 심정연 / 김 준
Development of Korean Brief Version of God's Image Scale | Jung Yeon Shim / Jun Kim
- 273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의 위험성과 개혁주의 신학적 대안 | 김진규
The Dangers of the Claim “Theology Is Not an Academic Discipline”
and Reformed Theological Alternatives | Jinkyu Kim
- 301 기독교 국제주의와 윤치호의 국제인식: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를 중심으로 | 김호수
Christian Internationalism and Yun, Chi-ho's International Thoughts: Focusing on the 1910
Edinburgh World Missionary Conference | Hosoo Kim

21세기 기독교대학의 이념 - 칸트와 흄스를 넘어서*

The Idea of Christian University in the 21st Century

이국운 (Kukwoon Lee)**

ABSTRACT

While presupposing the time-space specificity of Korea in 2025, this article aims to go beyond the constraints as much as possible and suggest the direction Christian university should move forward after the 21st century. The author seeks to find the origin of the university system in Christian optimism, which stems from the belief of the ultimate compatibility of the system of faith and reason, and tries to confirm whether it can adequately respond to the challenges of extremes that threaten such a stance. To this end, he searches what kind of structure medieval European universities created to achieve a dynamic balance of faith and reason and how the structure transformed after the modern era of the West under the rule of the Roman Catholic Church. Moreover he explores the achievements of Immanuel Kant's theory of university reform and, as a result, how distorted it was, by reviewing the reality of the university movement, which has fallen into a so-called research-oriented “multiversity” at the mid-20th century. And he considers the suggestion of Arthur Holmes, who advocated a new Christian university model, especially focusing on liberal arts education at the undergraduate university level. Finally, he demonstrates the need for a new perspective of Christian universities beyond the design of Kant and Holmes in terms of the university movement based on Christian optimism.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21st-century university movement for a dynamic balance between faith and reason, transcendence and secularity.

Key words: Christian university, university movement, origin of university, history of university, university reform, Immanuel Kant, Arthur Holmes

* 2024년 11월 4일 접수, 11월 25일 게재확정

** 한동대학교(Handong University) 법학부 교수, 경상북도 포항시 한동로 558, lkwoon@handong.edu

- I. 대학의 기원과 기독교적 낙관론
- II. 중세 유럽 대학의 구조와 그 변형
- III. 칸트식 대학의 융성과 왜곡
- IV. 아서 홈스의 긴급 처방과 서구 기독교대학의 현재
- V. 21세기 기독교대학의 이념

I. 대학의 기원과 기독교적 낙관론

이 글은 2025년의 대한민국이라는 시공간적 특수성을 전제하면서도, 가능한 한 그 제약을 뛰어넘어, 21세기 이후 기독교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념적 차원에서 제시해 보려는 시도이다. 지식인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커다란 학문적 과제가 분명하지만, 앞으로 활발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론적 수준에서나마 용기를 내보고자 한다. 논의의 출발점은 대학이라는 제도의 기원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역사적 맥락에서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대학이라는 고등교육·학술기관의 기원은 중세 유럽의 기독교 문명에 소급된다. 다른 지역, 다른 시대, 다른 종교가 배경인 문명들 가운데도 오늘날의 대학에 비견할만한 제도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인류 문명이 가지고 있는 대학이라는 제도가 중세 유럽의 기독교 문명에서 발생했고, 많은 변화 속에서도 연속성을 유지해 왔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역사적 기원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학이라는 제도의 발상에 다른 종교 또는 다른 세계관적 태도와 구분되는 특별한 기독교적 태도 또는 접근방식이 전제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약간 도발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는 오늘날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대학이라는 제도가 기독교적 기원을 가진다는 주장인 셈이다.

오늘날 서구 문명의 많은 국가에서 대학은 세속주의(secularism)의 온상이자 침병이 되어 있다. 심지어 이 세속주의는 상황에 따라 권력이나 금력과 결탁하여 대학을 관료적 차원이나 상업적 차원으로 타락시키기까지 한다. 이러한 형편에서 방금 제기한 주장, 즉 대학이라는 제도가 기독교적 기원을 가진다는 명제는 시대착오적 판단으로 간단히 무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과감하게 생각을 정반대로 바꾸면, 현재 상황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평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서구의 대학이 세속주의의 온상이자 침병이 된 역사적 과정 및 그 인과관계, 그리고 그 대응책에 관해서는 지난 세기 이래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Jaspers, 이수동 역, 1997 ; Shils, 안계춘 역, 1992 ; 김영식, 2007 ; Lewis, 허명수 외 역, 2008 ; 박영신, 2022 등). 범위를 동아시아를 포함한 비

서구의 대학까지 넓히면 논의의 층위 및 심도는 쉽사리 정돈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하고 깊어진다(김정인 2018 ; 天野郁夫, 박광현·정종현 역, 2017 등). 이와 같은 논의 전체에서 뚜렷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전제는 대학이라는 제도가 종교의 범주에서 벗어나 세속의 범주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내가 제기하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이러한 평가가 중세 유럽에서 대학이라는 제도가 발생했던 지적·역사적 맥락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는가이다. 만약 중세 유럽 대학이 오로지 종교의 범주에 속한 것으로만 치부되기 어려운 또 다른 특징을 내포하고 있었다면, 그러한 평가는 대학의 변화 및 장래 전망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추론을 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구 지성사에서 세속주의나 무신론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초월적 신앙이나 유신론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안티테제로서 등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Copson 2019, 특히 2장). 이 때문에 세속주의나 무신론의 지적·역사적 맥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면, 그것과 일종의 대당(對當)관계에 놓여 온 초월적 신앙이나 유신론의 지적·역사적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이는 오늘날처럼 세속주의나 무신론이 초월적 신앙이나 유신론의 안티테제의 차원을 넘어 급기야 유사 종교적 차원까지 고양된 상황에서는 더욱 요청될 수밖에 없는 접근이다(맥그래스 2012).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살필 때, 서구의 대학이 세속주의의 온상이자 침병이 된 오늘의 상황은 대학이라는 제도를 오로지 기독교라는 종교의 범주에서 이해하고자 했던 과거의 흐름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내가 제기하고 싶은 두 번째 질문은 대학이라는 제도의 기원을 종교나 세속 중 어느 한 범주에 환원하여 설명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이다. 이 두 번째 질문은 맨 처음에 제기했던 약간 도발적인 주장, 즉 대학이라는 제도 자체가 기독교적 기원을 가진다는 주장과 모순되는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 기독교는 어디까지나 세속이라는 범주에 맞서는 종교라는 범주에서만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 두 번째 질문은 이와 같은 이분법적인 구도 자체가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핵심 원인이며, 이를 해체하지 않고는 오늘날 종교와 세속의 다양한 관계 양상을 합당하게 이해할 수 없으리라는 전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대학의 기독교적 기원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과도한 도식화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나는 이 글에서 종교와 세속의 이분법보다는 양자의 관계 짓기를 중심으로 조금 색다른 접근방식을 채택해 보고 싶다. 이를 위하여 일단 이론적으로 모든 종교 안에는 진리 추구에 있어서 신앙과 이성의 관계 맺음에 관한 특정한 대립 구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자 한다. 그다음, 그와 같은 대립 구도에서 출발하여 종교와 세속의 다양한 관계 양상을 다시 검토해 보려고 한다. 이 글에서 내가 활용하려는 것은 비교적 단순한 논리이다.

모든 종교는 원초적으로 신앙의 체계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성의 체계와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다. 신앙 자체의 이해와 설명을 위해서도 그러하고, 심지어 이성이 궁극적으로 신앙의 하위 범주에 지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그러하며, 본격적인 진리 추구에 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관계 맺음과 관련하여 신앙의 체계로서 모든 종교가 근본적으로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고 전제할 수 있다. 하나는 신앙의 체계가 이성의 체계와 마지막까지 양립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신앙의 체계가 이성의 체계를 굴복시킬 수밖에 없다고 믿는 태도이다. 이 양자를 편의상 ‘종교적 낙관론(또는 포용론)’과 ‘종교적 비관론(또는 배타론)’으로 부른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기독교적 낙관론(또는 포용론)과 기독교적 비관론 역시 대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구도는,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에도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큰 적실성을 가진다.

그러면 중세 유럽에서 대학의 기독교적 기원을 이룬 접근방식은 어느 쪽일까? 과문(寡聞)하지만, 종교의 세계에서 종교적 낙관론은 실천적으로 매우 드문 태도가 아닌가 싶다. 기복적 주술 종교에서부터 초월적 고등종교에 이르기까지 종교 대다수가 취하는 태도는 어떻게든 이성의 범주를 신앙의 하위 범주로 편입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이성의 체계의 독자적 가치와 중요성을 신앙의 체계가 오롯이 긍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좀체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세 유럽의 기독교 문명은 종교적 낙관론이 세력을 얻었던 매우 희소한 사례에 속한다. 예를 들어, 중세 유럽의 극성기에 최고의 지성을 대표하던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의 작품 『이교도대전』에 남긴 다음과 같은 언명은 이를 대표하고 있다(Aquinas 1955-57, c. 3, par. 2).

“우리가 신에 대해 고백하는 진리의 양식은 이중적이다. 신에 대한 진리 중에는 인간 이성의 모든 능력을 초월하는 것들이 있다…하지만 자연적 이성으로 도달이 가능한 다른 진리들도 존재한다.”

실제로 중세 유럽 대학에서 기독교적 낙관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 특히 자연철학과 형이상학 및 그 주석서들에 관한 강의와 토론의 자유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관철되었다(이석우, 1998). 이를 옹호하는 아퀴나스의 위의 언명으로부터 다른 종교적 문명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학이라는 특이한 제도의 기원까지는 그리 거리가 멀지 않다. 그렇다면 중세 유럽의 기독교 문명이 내세웠던 종교적 낙관론을 대학이라는 제도의 기독교적 기원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대학이라는 제도의 발상에는 이렇듯 다른 종교 또는 다른 세계관적 태도와 구분되는 특별한 기독교적 태도 또는 접근방식으로서 기독교적 낙관론이 전제되어 있다. 아퀴나스는 그 자신이 파리대학의 핵심 구성

원이었다.

물론 기독교적 낙관론에 입각한 대학의 형성만으로 신앙과 이성의 체계적 양립이 실제로 완결되지는 않는다. 중세 유럽의 기독교 문명 이후 대학의 역사는 오히려 신앙의 체계와 이성의 체계 사이의 치열한 투쟁으로 점철되었으며, 양자의 길항작용은 서구의 기독교 문명을 이끈 에너지 원천 중 하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독교 문명 내부에 종교적 낙관론과 경쟁하는 종교적 비판론 역시 뚜렷한 흐름을 형성해 왔고 그 또한 제도적 표현을 확보해 왔다는 점이다. 대학 운동 또는 대학을 통한 학술 운동보다 더욱 강렬한 모습으로 제도적 교회 조직의 안팎을 넘나들며 기독교 문명을 이끌어 온 수도원 운동 또는 수도원을 통한 수도 운동은 기독교적 비판론의 단적인 표현일 것이다(Frank, 최형걸 역, 2018). 물론 현실에서 대학 운동과 수도원 운동은 때때로 중첩되거나 혼용되기도 했고, 그 결과 수도원 운동이 학술 운동을 주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잘 알려져 있듯, 아퀴나스는 도미니칸 수도회의 수도사이기도 했고, 파리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탁발 교단 출신 교수들 문제로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이석우, 1998: 184-94, 247-49).

이 글은 대학이라는 제도의 기원을 신앙의 체계와 이성의 체계의 궁극적 양립을 지향하는 기독교적 낙관론에서 찾으면서, 대학의 실존 가능성을 그와 같은 기초를 위협하는 양극단의 도전에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이성의 체계만을 극단적으로 내세우는 세속주의의 도전이나 신앙의 체계만을 극단적으로 내세우는 기독교적 비판론의 도전을 뿌리치고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역동적인 균형을 확보하는 경우에만 대학은 실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 운동 또는 대학을 통한 학술 운동은 이와 같은 역동적 균형을 지향하며, 이른바 대학 정신은 바로 이 역동적 균형을 찾고 유지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 대학에 관한 공적 담론에는 이른바 ‘대학의 몰락’을 탄식하는 논의가 적지 않다(김종인, 2004 ; 서보명, 2011; 고부웅, 2018 등). 이러한 문제 제기에는 경청할 바가 적지 않으나, 대학이 몰락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더욱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권력과 자본의 논리에 휩싸여 대학이 대학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진단은 정확한 듯하면서도 약간 핵심을 비껴가는 느낌을 자아낸다. 그 이유는 이 글이 지향하는 바처럼 신앙과 이성, 초월과 세속 사이의 역동적 균형, 그리고 이를 목표로 삼는 기독교적 낙관론에 관한 통찰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대학의 몰락’ 논의에 담긴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지점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하지만 그 위기의식을 한껏 증폭하기보다는 대학의 기독교적 기원이 중세 유럽의 기독교적 낙관론이었음을 재확인하고 이로부터 신앙의 체계와 이성의 체계가 합당한 수준의 역동적 균형을 회복해야만 한다는 원칙으로 먼저 돌아가고자 한다(Malik, 신정숙 역, 1988).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일단 로마 가톨릭교회의 보편 통치 아래서 중세 유

립 대학이 신앙과 이성의 역동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구조를 창설했으며, 그 구조가 서구의 근대 이후 어떻게 변형되었는지를 살피고(Ⅱ), 그와 같은 변형을 대학 운동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임마누엘 칸트가 제시했던 대학개혁론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고, 또 결과적으로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Ⅲ). 나아가, 20세기 중반의 시점에서 이른바 연구 중심의 ‘멀티버시티’(mutiversity)로 전략한 대학 운동의 현실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특히 학부 대학 차원의 자유인문교양교육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독교대학의 모델을 제창했던 아서 홈스의 기획을 재검토해 보려고 한다(Ⅳ). 마지막으로 2024년의 대한민국 또는 동아시아라는 시공간적 조건 속으로 돌아와 기독교적 낙관론에 입각한 대학 운동의 차원에서 칸트와 홈스의 디자인을 넘어서는 기독교대학의 새로운 전망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증하고 간략하게나마 그 이념을 제시해 볼 것이다. 이는 신앙과 이성, 초월과 세속 사이의 역동적 균형을 지향하며 21세기 대학 운동의 방향을 제안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II. 중세 유럽 대학의 구조와 그 변형

신앙의 체계와 이성의 체계를 양립시키기 위하여 중세 유럽 대학은 다른 무엇보다 제도적 독립을 토대로 삼았다. 대학사 연구가 일반적으로 지적하듯이, 중세 유럽 대학은 학생들의 길드가 중심이 되어 강사를 초빙한 뒤 교육을 진행하던 유형(볼로냐 대학)과 연구자들의 길드가 중심이 되어 학생들을 선발한 뒤 교육을 진행하던 유형(파리대학)으로 나뉘어 발전했다(이석우, 1988: 제3장과 제4장). 하지만 이 두 유형은 일정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학생들의 길드 또는 연구자들의 길드가 대학의 학사 운영, 인사와 재정, 내부 질서 유지에 관하여 로마 가톨릭교회나 세속적 정치권력, 그리고 그 밖의 각종 사회세력으로부터 제도적 독립을 얻기 위하여 투쟁했던 점이었다. 그 결과 중세 유럽에서 대학은 ‘하나의 체도로서’(as a corpus),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로마 가톨릭교회와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신성로마제국 사이에서 특이하게도 독립과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러한 성취는 ‘대학의 자치’라는 독자적인 이념으로 고양되었다.¹ 대학의 자치에 기반한 중세 유럽 대학의 특권으로는 신성로마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1세의 법령으로 확보된 교수와 학생에 대한 병역·부역·세금의 면제권, 독자적인 사법권, 자유로운 여행 및 신분에 대한 보장(이석우, 1988: 75-9)과 함

1) “중세 대학의 본질과 특색은 무엇보다도 교수와 학생이 누린 ‘자치’에 있다. 속권이나 교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이 ‘자치’야말로 유럽 대학이 제도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일관해 추구한 대학의 본질이며, 특정한 종파나 국가 권력에 의해 세워지고 그 권력의 ‘기관’이던 다른 문명권의 고등교육과 유럽 대학을 엄연히 구별 짓는 본질이다.” (이광주 2024)

계, 시대와 지역에 따른 변이는 존재하나, 교과과정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자율권, 학사·석사·박사 학위의 수여권, 교과과정 및 학위 수여를 총괄하는 학장·총장 등의 선출권, 그리고 학문의 자유가 침범되었을 경우의 맹휴권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중세 유럽 대학은 교회, 국가, 사회로부터 제도적 독립 및 자치권을 얻은 대가로 무엇을 제공할 수 있었는가? 오늘날 대학사 연구는 이 점에 관한 언급을 우회한 채, 대체로 대학의 구조에 대한 해명에 집중하곤 한다. 이에 따르면, 중세 유럽 대학은 신학부(faculty of theology), 법학부(faculty of law), 의학부(faculty of medicine), 그리고 교양학부(faculty of arts)로 구성되었고, 앞의 세 학부는 상급 학부를, 뒤의 한 학부는 기초 학부를 형성했다. 주지하듯, 신학, 법학, 의학의 학문적 위상이나 상호관계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고, 다음 장에서 다룰 칸트의 대학개혁론도 이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하지만 이를 제쳐두더라도 그와 같은 대학의 내부 구조가 실천적으로 교회, 국가, 사회에 대한 기여와 연계되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중세 유럽 대학은 교회를 위해서 신학부를 통해 사제를 공급하고, 국가를 위해서 법학부를 통해 법률가(관료)를 공급하며, 사회를 위해서 의학부를 통해 의사를 공급했다. 세 상급 학부는 중세 유럽의 상황에서 일종의 (고급) 직업 교육(vocational training) 기능을 수행했다고도 볼 수 있다.²

이처럼 중세 유럽 대학이 누렸던 제도적 독립과 자치권을 인재의 양성 및 공급을 통한 교회, 국가, 사회와의 상호관계(reciprocal relation)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할 때,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교회, 국가, 사회를 위한 기여 말고 대학 자체의 유지와 번영을 위한 인재의 양성 및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중세 유럽 대학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교양학부(기초 학부)가 담당한 독특한 기능에서 찾아야 한다. 교양학부는 일차적으로 지성적 언어의 연마를 위한 세 가지 학문(三學, trivium: 논리, 문법, 수사학) 및 물상의 수와 양을 계측하기 위한 네 가지 기예(四科, quadrivium: 수학, 음악, 기하, 천문)를 가르쳐서 학생들에게 세 개의 상급 학부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시키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교양학부는 장기적으로 신학부와 함께 상급 학부 전체를 아울러 대학으로서의 진리에 대한 이성적 증언을 감당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여기에는 중세 유럽 대학이 교육과 연구에 적용했던 스콜라적 방법, 즉 모든 인식의 토대가 되는 일반 원리를 담은 소수의 ‘권위서’들을 함께 강독하고, 그 주해(註解) 과정에서 문제들을 찾아내고 사례를 검토하여 체계적인 토론을 거쳐 교수가 내리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학술적 방식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논리학과 수사학의 ‘권위서’인 아리스토텔레스의 텍스트들은 교양학부와 상급 학부를

2) 중세 유럽 대학의 구조와 운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의 네 학부 및 그 상호관계 말고도 예컨대 학장(chancellor), 대학 조합(universitas), 대학조합장(rector), 교수단(collegeia doctorum), 동향단(nation), 동향단장(proctor), 칼리지(college) 등에 관한 설명이 필수적이지만 이 글의 문제의식 및 범위를 고려하여 이 점들에 관한 논의는 부득이 생략한다.

관통하여 학문 전체를 체계화하는 방법론적 기초를 제공했고, 이를 통해 중세 유럽 대학에서 교양 학부는 인간과 세계의 근원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부(faculty of philosophy)의 역할을 담당했다.³ 중세 유럽 대학에서 교양학부의 위치는 교양학부를 마치지 않고 상급 학부에 진학하여 박사학위를 얻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 잘 드러난다(Daileader, 2020).

“유럽의 주요 중세 대학들은 교양학부, 법학부, 의학부, 그리고 신학부의 네 개의 다른 학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학생이 법학, 의학, 그리고 신학의 상급 학부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교양학부를 통과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이는 그 학생이 교양학부를 마쳤을 때, 그가 다른 세 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⁴

중세 유럽 대학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의 취득과정은 시대와 각 대학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면모를 보였지만, 공통적으로는 앞서 말한 ‘권위서’의 강독과 토론을 거쳐 교수단의 판정을 얻어야 학사가 될 수 있었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얻기 위해서도 정해진 공개 토론에 일정 기간 참여하여 답변하거나 논지를 주장한 뒤, 생활과 품성과 학문에 대한 교수단의 심사를 통과해야 했다.⁵ 바로 이러한 전통이 이어진 덕분에 오늘날 많은 대학에서 철학이나 과학 분야는 물론 신학, 법학, 의학 분야까지도 철학박사의 학위 명칭(philosophical doctor)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⁶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중세 유럽 대학의 발생 및 성장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보편 통치가 유럽 전체에 실질적으로 관철되는 가운데 벌어졌다. 하지만 십자군 운동의 실패 및 페스트의 대유행이 도

5)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로는 교양학부에서 가르치던 윌리엄 오컴이 석사학위가 없어 정교수가 되지 못했음에도 놀라운 학식으로 ‘Venerabilis Inceptor(가경(可驚)한 초임 강사)’의 칭호를 얻었던 것을 들 수 있다.

4) 그러나 이 말은 상급 학부에 진학하기 위하여 반드시 교양학부를 마쳐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법학부와 의학부는 신학의 우월성과 경쟁하지 않으면서도 나름의 지적 존엄성을 얻었고, 세속적이고 돈벌이가 되는 특성에 따라 교양학부를 거치지 않은 학생들이 진학하기도 했으나, 이 과정에서 파리대학의 경우처럼 시민법의 교육이 금지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샤를 외 1999:46)

5) 다만 이들 학위는 오늘날의 석박사학위와는 다르다.(샤를 외 1999:52) 이석우에 따르면, 중세 옥스퍼드 대학의 학위제도는 교양학부에서 4~6년을 공부한 다음 학사(bachelor)가 되기 위해서는 제1시험(responsion)을 통과해야 한다. 여기서 합격하면 판정(determination)을 얻게 되는데, 이 판정을 받으면 일단 학사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판정은 사순절 동안 행해지는 40여 일간의 토론을 거치면 완전한 자격(full-fledged bachelor)이 된다. 학사가 교사자격증(licentia doendi)을 얻기 위해서는 소정의 강의과정과 연구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수 아래서 적어도 2년 이상의 강의와 연구 수련을 거친 다음에 석사학위(master's degree) 또는 교사자격증을 얻기 위한 후보로 인정받게 된다. 그 이후 또 다른 기간의 강의와 연구를 거친 다음에 교수조합에 입단(inception)하게 된다. 중세에는 선생을 마기스테르(magister), 독도르(doctor), 교수(professor) 등으로 불렀는데, 이들은 공통으로 교사 또는 교수를 칭하는 용어이다. 교수자격 및 교수단 가입 절차는 따로 있다. (이석우 1998:325-7)

6) 법학 분야에 한정해서 보자면, 학위 체계의 명칭 계보는 학문 체계에서 철학과 법학의 관계를 보여 주는 측면이 있다. 대학에서 철학부와 관련하여 형성된 최종학위가 법학 분야의 철학박사(Ph.D in law)라면, 법률가길드의 강력한 영향 아래 주로 실정법의 해석적 체계화에 시종한 전통에서는 최종학위의 명칭이 말 그대로 법리박사(Doctor of laws, LL.D), 즉 시민법과 교회법의 양법 박사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한동일 2013:196-8)

래한 중세 말엽에 이르러 대학 운동에는 커다란 도전이 제기되었다. 기실, 중세 유럽 대학은 스콜라적 방법에 집착한 까닭에 마이스터 엑크하르트 등이 주창한 신비주의 신앙 운동을 수용하지도 못했고, 노동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실험과학을 발전시키지도 않았으며, 인문주의가 주장하듯 일상어로 표현된 문학이나 관습법을 학문의 대상으로 포괄하는 데도 소극적이었다. 비록 “대학의 존재 이유는 상실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학교육, 특히 상급 학부들의 교육과 사회적인 (그리고 곧이어 정치권력들이 대신 제기한) 기대 사이의 간극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문제는 분명하게 제기되었다.” (Charle & Verger, 1999: 60)

이러한 상황에서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이 초래한 유럽 사회의 분열은 결과적으로 중세 유럽 대학의 구조에 상당한 변형을 가져왔다. 유럽 사회 자체가 로마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진영으로 양분되면서 대학들은 점차 로마가톨릭 대학과 프로테스탄트 대학으로 구분되었고, 나아가 종교적 내전을 거쳐 1648년의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 이후 이른바 주권국가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대학에 대한 주권적 국가 권력의 통제는 갈수록 노골화되었다. 대학의 제도적 독립에 대한 위협은 특히 새로운 대학이 정치권력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기존 대학이 정치권력에 의하여 공인되는 맥락에서, 더욱 강력하게 관철되었다. 이러한 시기를 거치면서 그동안 유지되었던 중세 유럽 대학의 외면적 동일성은 “다양한 지역적 관행들과 국가적 특성들에 의하여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Charle & Verger, 1999: 64) 여전히 학부 단위의 중세적 조직이 강하게 남아 있던 대학들도 있었지만, 독일처럼 ‘강좌 단위의 교수직 체계’가 성공한 대학들도 있었고, 영국의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처럼 교수와 학생과 직원이 모두 소속되는 다양한 성향의 기숙학교, 즉 칼리지(college)들이 모여 하나의 대학을 형성하는 대학들도 있었다. 이 가운데는 아일랜드의 트리니티 칼리지가나 아메리카 식민지의 칼리지들처럼 하나의 칼리지가 하나의 대학을 이루는(one university, one college) 대학 모델도 생겼다(Charle & Verger, 1999:64-5).

이처럼 중세 유럽 대학의 구조에 변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대학 운동의 안팎에 제도로서의 대학과는 별개로 다수의 교육기관이 생겨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우선 신학 분야에서는 로마 가톨릭교회나 프로테스탄트 종파들이 앞서 말한 칼리지들과 함께 사제 양성을 위한 신학교(seminary)를 대학과 별개로 개설했고, 새롭게 등장한 과학 분야에서는 대학을 우회하여 예컨대 과학자들의 왕립 협회 등이 운영하는 과학아카데미의 모델이 생겼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법학 분야에서 교회법과 로마법을 가르치는 대학과 커먼로(Common law)의 도제식 교육을 담당하는 법학원(inns of court)이 상호 경쟁하는 체제가 꾸러졌다.⁷ 대학 입학 이전의 단계에도 예컨대 글라스고우 대

7) 영국의 경우에는 법실무가들이 장악하기 마련인 길드가 실정법, 즉 커먼로의 도제식 교육에 시종한 반면, 옥스퍼드를 비롯한 대학은 오로지 교회법과 로마법의 교육과 연구에 집중했다. 양자의 통합은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매우 불완전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국운 1999)

학의 논리학 교수이던 아담 스미스가 귀족 자제들의 튜터로 이직한 것에서 보듯이, 이른바 ‘그랜드 투어’(grand tour)를 포함한 가정교사 교육이 성행했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 공교육 체제가 형성되면서 앞서 말한 칼리지들이 대학의 교양학부 및 19세기 유럽에서 리세(lycée) 또는 김나지움(gymnasium) 등으로 이어질 고급 중등교육기관으로 분리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여기에 더하여 프랑스의 경험에서 잘 나타나듯, 시민혁명의 추진 주체가 주권국가로 귀결된 이후에는 국가 스스로 과학적 합리주의를 앞세워 종래의 대학들과 별개로 직접 고급 관료·과학자·교사·지식인의 양성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그랑제콜’(grandes écoles) 체제가 출범하기도 했다(Charle & Verger, 1999: 67-9). 이와 같은 변화 전체가 대학 운동의 존립, 특히 그 제도적 독립의 확보에 근본적인 위협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III. 칸트식 대학의 융성과 왜곡

임마누엘 칸트는 과학적 합리주의의 오용 및 극단화에 맞서서 인간 이성의 가능성 및 한계를 그 선형적·초월적 본질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철학적으로 논구했다(대표적으로 회폐 1997 등). 칸트의 마지막 저서인 ‘학부들의 논쟁’은 그와 같은 철학적 논구를 대학의 구조 및 교육에 투영한 작품으로서, 이 책에서 그는 서구의 근대에 밀어닥친 대학 운동에 대한 위협, 특히 대학에 대한 국가 권력의 통제에 대항하여 뚜렷한 대안을 제시한다. 잘 알려진 대로 칸트의 핵심 주장은 교양학부를 오로지 진리에만 봉사하는 철학부로서 대학의 중심에 배치하여 강화하려는 것이다.

칸트는 우선 국가 권력의 통제와 관련하여 하위 학부, 즉 교양학부가 세 개의 상위 학부와 구분될 수밖에 없음을 논증한다(Kant, 2012: 28-9).

“...정부는 대부분 정부로 하여금 인민에 대해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해주는 학문적 관심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이 상위 학부들의 대상이다. 그래서 정부는 상위 학부들의 교설들 자체를 승인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학자 공동존재를 위해 단연코 대학에는 자신들의 교설들과 관련하여 명령을 내리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판정하도록 정부의 명령으로부터 독립하여 학문적 관심, 즉 이성이 공적으로 말할 권리를 지녀야만 하는 진리에 관계하는 자유를 가지는 또 하나의 학부가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하나의 학부가 없으면 (정부 자체를 손상시키는) 진리는 드러나지 않겠지만, 이성은 자신의 본성상 자유롭고 어떤 무엇을 참으로 간주하는 (믿어라crede가 아니라, 단지 하나의 자유로운 믿음credo[나는 믿는다]일 뿐인)

명령을 수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어서 칸트는 정부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동인들을 각 개인의 영원한 안녕,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의 안녕, 그리고 신체의 안녕(장수와 건강)으로 구분하면서, 이를 각각 신학부, 법학부, 의학부의 목적에 연결한다. 그에 따르면 이 세 학부의 서열은 이성에 따를 것이냐 자연 본능에 따를 것이냐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전자에 따르면 신학부-법학부-의학부의 전통적인 순서이지만, 후자에 따르면 정반대가 된다(Kant, 2012: 32). 이 가운데 의학부는 “최고 권위를 통해 승인된 책들이 아니라 자연에 기인하여 만들어진 책들만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다른 두 상위 학부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철학부의 아주 가까운 친척이다(Kant, 2012: 40).

칸트가 보기에 철학부를 움직이는 동인은 위에서 말한 정부의 동인과 달리 스스로 받아들이거나 승인하는 교설들이 진리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바로 그러한 한에서 칸트는 철학부가 자유롭게 이성의 입법 아래에만 있어야 하며, 정부의 입법 아래에는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Kant, 2012:41). 그에 따르면, 철학부는 상위 학부들을 검사하고 이를 통해 상위 학부들을 유익하게 한다. 왜냐하면 학식 일반의 본질적이고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진리이며, 이 진리가 모든 것의 관건이기 때문이다(Kant, 2012:43).

“...그러므로 철학부는 모든 교설들을 그것들의 진리를 검사하기 위해 요구할 수 있다. 정부가 자신의 본래적이며 본질적인 의도를 거슬러 행하지 않는 한, 철학부는 이 정부로부터 하나의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없고, 상위 학부들은 철학부가 공적으로 제기하는 이의들과 의심들을 감수해야만 하는데...왜냐하면 그러한 비판자 없이는 저 상위 학부들이 어떤 호칭 하에 있든지 간에 일반 차지하고 있는 그들의 점유상태에 방해받지 않고 머무를 수 있고, 그때 또한 전제적으로 명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칸트는 철학부를 새로운 대학의 중심에 놓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언젠가는 분명히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즉 나중인 자들이 처음인 자들이(하위 학부가 상위 학부로 될 것인데) 될 것인데, 물론 권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철학부의 자유와 그로부터 성장하는 철학부의 통찰 속에서 정부의 고유한 절대적 권위에서보다 더 낮게 정부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발견하도록 정부를 권고함에 있어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근대 서구의 대학사에서 이와 같은 칸트의 제안은 과학적 합리주의가 계몽적 전제주의와 상호결탁하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항하여 신앙과 이성, 초월과 세속 사이의 역동적 균형을 재건함으로써 대학 운동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의미가 있었다. 대학의 구조와 관련하여 살필 때, 이러한 생각에는 이른바 ‘문리과 대학’(College of Liberal Art & Science)을 대학 전체의 새로운 중심으로 세우고, 상위 학부로 대표되는 (고급) 직업 교육을 대학 구조의 주변부로 재배치하려는 기획이 내포되어 있었다. 이러한 기획의 배후에 계몽에 대한 칸트식 이해의 핵심인 ‘자율로서의 자유’라는 이념, 그리고 ‘진리를 향한 끝없는 자기 주도적 자기 형성(self-formation)과정으로서의 교육’이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Marginson, 2019: 60).

실제로 칸트의 제안은 독일의 경우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초반까지 빙켈만, 레싱, 헤르더, 괴테, 실러 등에 의하여 펼쳐진 신인문주의(Neuhumanismus) 문화 운동 속에서 ‘전인교육’(bildung)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 되었다(안성찬, 2009). 대학 운동의 맥락에서 이 흐름을 대표하는 빌헬름 폰 훔볼트는 전인교육을 인간의 유일무이한 고유성,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힘의 능동성과 자발성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하면서, 원리적으로 타인에 의해 지도될 수 없으며, 그 어떤 상위 목적의 수단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전인교육의 핵심은 백과사전적인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자신과 세계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자유로운 결단에 따라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질 줄 아는 판단력을 함양하는 것이다(안성찬, 2009: 118).

1809년 프로이센의 교육책임자로 임명된 훔볼트는 보편적 전인교육이 특수한 직업 교육(ausbildung)에 선행해야 한다는 원칙과 국가의 목적에 따라 국민을 교육해서는 아니 되고 오로지 개별적 인간의 자유로운 성장을 보장하는 법적 기관의 역할만 해야 한다는 원칙에 더 잡아 고급 중등교육기관인 김나지움과 대학의 철학부, 즉 문리과 대학, 그리고 상위 학부를 차례로 연계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프로이센의 국립대학으로 베를린 대학(오늘날의 훔볼트 대학)이 창립되었고, 그로부터 특히 고전어 교육에 바탕을 둔 김나지움의 교양교육과 독창적이고 비판적인 사유 능력을 강조하는 문리과 대학의 학문 연구, 그리고 상위 학부의 고급 직업 교육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19세기 독일 대학 특유의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졌다. 이 모델은 시간이 갈수록 유럽과 북미는 물론 비유럽 각국의 신생 대학들에도 전해졌고, 그 과정에서 독일 대학은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대학 운동의 중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안성찬, 2009: 120 이하).

칸트식 대학의 세계적 융성 과정을 추적한 사이몬 마긴슨에 따르면, 칸트식 대학은 ①독립된 대학 법인 ②스스로 자기를 형성하는 학생 ③지식을 생산하는 교수단이라는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로 구성된다.⁸ 이 가운데 두 번째 요소는 앞서 말한 대로 칸트-훔볼트를 잇는 ‘전인교육’의 이념 및

8) “Kantian reform made university an autonomous institution in society with a combination of three essential elements: the corporate institution, the self-forming student, the knowledge-making faculty.” (Marginson 2019:61)

문리과 대학의 중심화로 상당 부분 구현되었고, 칸트식 대학의 핵심으로 지속적인 찬사가 이루어졌다. 반면 칸트식 대학의 세계적 융성 과정에서 다른 두 가지 요소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최근의 대학사 연구에서 충분히 주목되지 않았다. 흥미롭게도 이 조명되지 못한 측면은 19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는 동안 대학이라는 제도가 유럽과 북미에서 세계 전역으로 수출되는 과정에서 칸트식 대학의 체계적인 왜곡을 낳았다.

우선 칸트식 대학의 독립성은, 독립된 대학 법인이라는 칸트식 대학의 제도적 외관에도 불구하고, 점차 그러한 제도적 외관을 창설하고 보증하는 국가 권력 자체가 대학의 독립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19세기 이후 유럽과 북미의 국가 권력이, 앞서 보았던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 이후의 종교적 국가 권력과 달리, 스스로 계몽주의·합리주의·과학주의·실증주의를 표상하는 세속주의 국가 권력으로 변모했다는 사실이다. 칸트식 대학의 독립성을 침해한 19세기 이후의 국가 권력은 일체의 종교적 색채를 배격하거나 종교적 중립성을 내세우는 세속주의 국가 권력이었으며, 심지어 유일한 공적 권위의 표상임을 전면에 내거는 국가주의적 국가 권력으로 그 자체를 고양하기까지 했다. 이는 칸트식 대학의 효시를 이루었던 베를린 대학 자체가 세속주의 국가 권력이 설립한 대학이었고, 19세기 중반 이후 유럽과 북미는 물론 그 바깥의 지역에서까지 세속주의 국가 권력이 설립한 국립 대학들이 붐을 이루었던 점에서 잘 나타난다. 독일식 교육개혁 모델을 수입한 대일본제국이 1886년 도쿄제국대학을 설립한 이래 불과 수십 년 만에 강고한 제국대학 체제를 수립한 것이야말로 단적인 예일 것이다(天野郁夫, 박광현·정종현 역, 2017).

역사적 맥락에서 세속주의 국가 권력에 의한 대학의 예측을 심화시킨 핵심 고리는 애당초 국민국가의 건설에 긴요한 인재 양성, 특히 관료와 지식인의 양성이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세속주의 국가 권력에 의한 대학의 예측은 앞서 언급한 칸트식 대학의 세 번째 요소인 ‘지식을 생산하는 교수단’과 더욱 긴밀한 연계를 맺게 된다. 이른바 총력전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속주의 국가 권력은 대학의 교수단에 대하여 전쟁 수행의 전 분야를 포괄하는 ‘연구와 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을 요구했으며, 이를 위하여 그 이전 세대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수준의 대규모 연구비를 투여했다. 이 과정에서 교양학부(철학부), 즉 종래의 문리과 대학은 급속하게 대학의 중심에서 밀려났고, 그 자리를 세속주의 국가 권력의 주문에 따라 주로 이공학 및 응용학문 분야에서 연구와 개발을 수행하는 대학원이 차지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대규모 대학들에서 벌어진 이와 같은 변화는 20세기 후반에 이르자 전 세계를 무대로 일반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세속주의 국가 권력이 닦아 놓은 대학의 예측은 세계적 규모의 군산복합체나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예측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했

고, 대학의 연구개발역량은 대학 자체만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대표하는 지표가 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칸트식 대학의 ‘전인교육’, 즉 ‘진리를 향한 끝없는 자기 주도적 자기 형성과정으로서의 교육’을 표상하던 학·석·박사 학위는 대규모 연구·개발 시스템 속에서 자격과 지위를 정하는 교육적 기표로 전락했고, 주요 국가의 연구중심대학들은 글로벌 규모의 지식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권력 센터가 되었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유럽과 북미, 그리고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그 외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학들은, 그 각각 하나의 세계를 형성하고 표상한다는 의미에서 ‘유니버시티’가 아니라 세속주의 국가 권력과 자본주의 시장 권력, 그리고 그 밖의 다양한 사회적 권력들을 대규모의 연구와 개발을 통해 그때그때 매개하고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그야말로 ‘멀티버시티’로 변모했다.

이 과정에서 중세 유럽 대학의 구조는 더 이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변형 또는 왜곡되었다. 칸트의 기대와 달리 대규모 연구중심대학들의 경우 교양학부(철학부)는 확실히 대학 전체의 중심으로부터 밀려났고, 법학부와 의학부 역시 대학의 제도적 정체성에 관여할만한 위상을 잃어버린 채, 세속주의 국가 권력의 수요에 따라 행정 및 사법관료 또는 의료전문가를 양성하여 공급하는(고급) 직업 교육기관으로 전문화되었다. 신학부의 사정은 더욱 딱해서 대학 운동의 흐름으로부터 확연히 고립되거나, 사제 양성을 위한 신학교로 변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중세 유럽 대학의 구조가 변형, 왜곡되고 대학 운동의 중심이 비어버리자, 앞서 말했듯 세속주의 국가 권력과 자본주의 시장 권력의 주문에 따라 주로 이공학 및 응용학문 분야에서 연구와 개발을 수행하는 대학원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IV. 아서 흄스의 긴급 처방과 서구 기독교대학의 현재

1960년대 후반 유럽과 북미의 대학에서는 특히 학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학생운동’(student movement)이 대규모로 시작되었다. 흔히 ’68혁명으로 지칭되는 이 현상에 관해서는 그동안 여러 관점에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 글이 주목하는 대학 운동의 맥락에서는 앞서 언급한 대학의 멀티버시티화, 즉 칸트식 대학의 왜곡에 대한 저항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저항이 실제로 대학의 개혁으로 이어져 대학 운동을 이끌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는지는 매우 의문이다. 1960년대의 학부 학생들이 기성세대에 편입된 1980년대 이후 지구상에서 선진 지역에 자리 잡은 주요 대학들은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글로벌리제이션과 자본주의의 디지털화, 그리고 이른바 ‘메타버스’(metaverse)의 출현이라는 격동 속에서 대규모의 연구와 개발 역량을 토대

삼아 세계적 규모의 지식·권력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지구상의 선진 지역에 자리 잡은 주요 대학들에서 대학 운동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학생운동’은 자취를 찾기 어려워졌다. 반면, 매스미디어와 지식인 사회에는 여전히 지식·권력의 본질적 연계론에 입각한 비판적 시각이 강력하며, 이는 주요 대학들이 ‘대학 운동’의 주축이 아님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1970년대 중반 미국의 기독교대학 중 일각으로부터 대학 운동의 본래 흐름을 되살리려는 진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던 것은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대표적으로 북음주의 기독교대학인 휘튼 칼리지(Wheaton College)에서 40년 넘게 철학 교수로 봉직했던 아서 흄스는 기독교대학에서 학부 과정을 중심으로 자유인문교양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흄스는 19세기 중반 영어권에서 그리스 이래의 자유인문교양교육에 내포된 합리주의적 경향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종교교육의 필수불가결성을 내세웠던 존 헨리 뉴먼의 입론(Newman, 1852/2008)⁹을 이어받아 ‘모든 지식은 하나의 총체를 이룬다’는 관점에서 자유인문교양교육을 정의하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러한 정의를 재음미한다(Holmes, 박진경 역, 1990: 36).

“...교양교육이 노동자 혹은 전문인 심지어 학자로서의 어떠한 특수한 기능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격으로서의 사람들에게 적당한 교육이다...교양교육에 대한 이러한 단서를 인간에 대한 기독교적 개념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우리는 모든 창조적 활동과 문화적 실존과 인간성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한다. 인간성을 완전히 발현시켜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명이다. 그러므로 인간성을 개발하는 교양교육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며 그 교육적인 전개 속에 창조의 소명이 드러난다...”

이어서 흄스는 인간을 ‘반성적이고, 사고하는 존재’, ‘가치 평가적 존재’, ‘책임 있는 존재’로 이해하면서, 자유인문교양교육을 “인류의 일원으로서 인간 사회에 참여하며 보다 완전한 인간이 되게 하는 초대”라고 정의한다(Holmes, 박진경 역, 1990: 44).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적 교양과정교육을 하나님의 자기계시적 견지에서 행함으로써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하는 대로 가치를 평가해야 하며, 책임성 있게 행동해야 한다.”(Holmes, 박진경 역, 1990: 45)

흥미로운 것은 흄스의 이러한 주장이 칸트가 말하는 ‘오로지 진리의 편에서 있는 철학부’의 이상

9) 뉴먼은 그리스 이래의 자유인문교양교육과 기독교교부철학에 입각한 종교교육을 결합하여 ‘양심의 현상학’과 ‘신앙의 현상학’을 함께 내세웠다. (이태하, 2011: 279-304)

보다는 이 글에서 대학이라는 제도의 세계관적 기원으로 주목하는 기독교적 낙관론, 즉 신앙의 체계가 이성의 체계와 마지막까지 양립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와 매우 흡사한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All truth is God’s truth)’라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명제를 이어받아,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기독교대학의 이념으로 전면으로 내세운다(Holmes, 박진경 역, 1990: 16).

“그렇다면 기독교대학은 왜 필요한가? 그 뚜렷한 목적은 신앙과 학문, 그리고 신앙과 문화의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통합을 가능케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고등교육에 있어서 기독교대학만이 가지는 독특한 과업이다. 그 통합의 현실성은 종종 완전히 이상적인 합일이라기 보다는 신앙과 학문의 상호작용, 즉 대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경건과 학문, 신앙과 이성, 종교와 과학, 기독 정신과 예술, 신학과 철학, 또는 그 외 다른 준거기준의 차이점들 사이의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대학은 마치 세속적인 것과 신성한 것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심연이 있는 것처럼 세속적인 학문과 과학문화에 대하여 호전적인 논쟁을 하기 위해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인 까닭에 그것이 어디서 발견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북미 영어권의 기독교대학으로 범위를 한정할 경우, 아서 홈스의 이와 같은 주장은 20세기 말에 이르러 상당한 공감과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특히 휘튼 칼리지와 칼빈 칼리지(Calvin College)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기독교대학들은 홈스의 입론을 바탕으로 성경교육과 실무적 직업교육을 곧장 연결해 온 성경 대학(Bible colleges)들과 다양한 교단 배경을 가진 소위 명목적 기독교대학들 사이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지향하는 자유인문교양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정체성 확립을 시도할 수 있었다(대표적으로 Benne, 2001 등). 새로운 세기 들어 이 흐름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북미 영어권 바깥의 기독교대학들로 확대되고 있다(예를 들어, 조용훈 2009 ; Carpenter, 2014 등).

그러나 이러한 나름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아서 홈스의 주장은 대학 운동 자체의 흐름을 뒤바꾸기보다는 칸트식 대학의 왜곡에 대한 과도기적이고 국지적인 긴급 처방에 그친 것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한 데, 첫째는 홈스의 대학혁신론이 대학 운동 자체 또는 대학인 전체가 아니라 기독교대학인 또는 기독교대학으로 청중을 제한하는 점이다. 이는 기독교적 낙관론이라는 대학 운동의 에토스를 기독교대학의 범위로만 부당하게 한정하는 측면이 있다. 범위를 더 좁히면, 홈스의 주장은 주로 로마가톨릭 진영을 배경 삼아 종교교육과 자유교양교육의 결합을 주장

했던 존 헨리 뉴먼의 노선을 그동안 로마가톨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세속주의에 우호적이었던 북음주의 프로테스탄트 진영으로 범위를 좁혀서 학부 대학을 무대 삼아 재현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둘째는 흄스의 대학혁신론이 기독교적 자유인문교양교육을 넘어 대학의 조직과 구조에 대한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이다. 칸트식 대학의 왜곡으로 세속주의 국가 권력과 자본주의 시장 권력의 주문에 따라 주로 이공학 및 응용학문 분야에서 연구와 개발을 수행하는 대학원이 대학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는 흄스의 주장이 ‘대학 운동’ 자체의 새로운 동력을 형성하는 차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로 인하여 그의 주장은 기독교대학의 범위 안에서조차 심지어 단순한 학부강화론으로 축소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아서 흄스의 이처럼 나름대로 적실한 주장이 기독교대학의 범위를 넘어 대학 운동 전체에서 기대만큼의 공감과 반향을 얻기 어려웠던 까닭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 이유는 19세기에 이미 세속주의의 온상이자 침병으로 전락했던 유럽 대학들의 뒤를 따라 북미의 기독교대학들조차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세속주의의 흐름에 압도당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 세대 전에 조지 마스텐이 미국 대학의 영혼을 논하면서 단적으로 피력했듯이, 원래 프로테스탄티즘의 토대 위에서 설립된 미국의 대학 운동은 20세기 동안 확립된(established) 불신앙으로 그 토대를 옮겨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이다(Marsden, 1994). 기독교적 낙관론을 대학 운동의 에토스로 이해하는 이 글의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는 마스텐의 표현처럼 미국 대학의 영혼이 사라졌거나 일종의 국교화된 불신앙으로 대체되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실 이와 같은 변화는 미국이나 북미의 대학 운동 차원에서만 벌어진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스탠리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그 핵심은 멀리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래 서구에서 계속되었던 ‘기독교 정체’(Christendom)의 종말이다(Hauerwas, 1999/2019). 이러한 관점에 설 경우, 유럽과 북미를 포함한 서구에서 기독교대학은 21세기 현재 지난 천 년 동안 이어졌던 대학 운동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울타리를 급속하게 상실하고 종전에는 알지 못하던 전혀 새로운 환경에 들어서는 중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중세 유럽 대학의 배경을 이루었던 로마 가톨릭교회의 보편 통치는 이미 재현 불가능하게 된 지 오래고, 북미의 경우 프로테스탄티즘이 “한때 문화적으로 국교의 지위를 가졌으나 아직 그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어색한 중간 단계”(Lindbeck, 1984 ; Hauerwas, 2019: 37 재인용)도 실질적으로 종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V. 21세기 기독교대학의 이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21세기 이후 기독교대학의 이념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오늘날의 세계에서 신앙과 이성, 초월과 세속 사이의 역동적 균형은 어떻게 정초될 수 있을까? 어떤 경우에도 대학 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은 ‘대학은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명제로부터 찾아야 한다(Charle & Verger, 김정인 역, 1999: 85). 이 관점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함께 경험해 온 ‘기독교 정체’는 보편적 현상이 아니라 오로지 유럽과 북미의 서구 기독교인들에게 발생했던 국지적 현상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부당하게 보편화하지는 말아야 한다. 비서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서구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낮은 ‘탈-기독교 정체’ 또는 ‘콘스탄틴 체제 이전의 상황’이야말로 오히려 보편적 현상이다.

나아가 서구 기독교인들이 국지적으로 경험해 온 ‘기독교 정체’를 너무 박하게 평가하는 것도 옳당하지 않다. 무엇보다 하나의 문명이 총체적으로 기독교 정신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숙성시킨 여러 가지 문명적 성취는 간단히 저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 이래의 민주주의 정치실험의 역사 및 그 결과 얻어진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여러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완하여 발전시킬만한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여기에 그 이전 로마 가톨릭교회의 보편 통치를 배경으로 발생한 문명적 성취 중 하나를 꼽으라면, 이 글의 입장에서는 단연 대학 운동의 정신과 제도적 틀을 지목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나는 지난 천 년 동안 대학 운동을 이끌어 온 정신을 신앙의 체계와 이성의 체계가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다고 믿는 기독교적 낙관론이라고 지목했다. 그리고 이를 담는 제도적 틀로는, 비록 20세기 중반 이후 들어 세속주의 국가 권력과 자본주의 시장 권력의 참입으로 인해 많이 허물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대학의 자치’라는 이념을 첫 손에 꼽아야 할 것이다. 대학 운동에서 이 두 가지 핵심 요인은 ‘기독교 정체’이건 ‘탈-기독교 정체’이건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를 전제로 21세기의 대학 운동은 어떻게 신앙과 이성, 초월과 세속 사이의 역동적 균형을 지향하며 지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독교대학은 어떠한 이념을 내세워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관하여 몇 가지 기본적인 방향을 제언하는 것으로 논의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앞서 언급한 하우어워스의 ‘탈-기독교 정체’론을 참조하더라도, 21세기 대학 운동의 새로운 동력이 ‘기독교 정체’라는 국지적 현상의 경계선 안팎에 존재하는 기독교대학들에서 정초될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북미나 유럽처럼 이미 세속주의의 압도로 인하여 사실상 와해 되어버린 ‘기독교 정체’의 핵심 지역이나, 새롭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 기독교적 문명의 역사와 성숙도가 일천한 새로운 지역에서, 21세기 기독교대학의 이념이나 대학 운동의 새로운 동력

이 형성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서구보다는 서구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정체’의 경계선 안팎에 놓인 기독교대학들의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판단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바로 이 경계선 안팎에서 대학 운동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자 하는 기독교대학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나는 이 기독교대학들이 무엇보다 ‘대학의 자치’라는 이념을 전면으로 내세워 세속주의 국가 권력이나 자본주의 시장 권력의 대학에 대한 개입을 비판하고, 때로는 학술적·도덕적 차원에서 정면으로 맞서는 기개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나 시장보다는 제도적 교회를 포함하여 크리스천들이 이끄는 시민사회(Christian society)와 항상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탈-기독교 정체’의 상황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적 낙관론과 경쟁해 온 기독교적 비판론 및 이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베네딕트 수도 전통 등과도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Dreher, 이종인 역, 2019). 다만, 그 경우에도 제도로서 기독교대학들의 판단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다시 말하건대 ‘대학의 자치’여야 할 것이다. 국가나 시장이나 제도적 교회나 수도 운동과 관계를 맺을 때, 기독교대학들은 ‘대학의 자치’라는 핵심 이념을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기독교대학들은 단지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거나 수호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대학 운동의 규범적 토대를 재확인하고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도 기독교적 낙관론의 정당성을 학술적인 방식으로 주창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진리의 인식과 추구와 실현으로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가 신앙과 이성, 초월과 세속 사이의 역동적 균형 없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기독교 학문만이 아니라) 학문 세계 전체와(기독교대학만이 아니라) 대학 전체에 학술적인 방식으로 천명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강영안, 2018).

기독교적 낙관론에 입각한 새로운 대학 운동의 무대로서 ‘학부 대학’이나 ‘자유인문교양교육’은 매우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세속주의를 앞세운 ‘대학의 멀티버시티화’가 대학 운동의 근거를 뒤흔들었던 지난 세기의 경험에 비추어 진지한 기독교대학들은 ‘학부 대학’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지향하는 자유인문교양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정체성 확립해야 할 필요를 마주하고 있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은 어디까지나 칸트식 대학의 왜곡에 대한 과도기적이고 부분적인 긴급 처방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미 대학의 중심이 연구와 개발을 통해 지식을 생산하는 대학원으로 옮겨진 상황에서, ‘학부 대학’이나 ‘자유인문교양교육’만을 고수하다가 자칫 기독교대학 전체가 현시대의 지식 생산 메커니즘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버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대학들은 경쟁력이 있는 영역에서부터 대학원을 통한 연구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독교적 낙관론의 관점에서 학문 세계 전체를 살피면서 종래와 같은 세속주의의 압도적 위세 속에서도 이른바 ‘탈-세속주의’(post-secularism)의 요청이 강력해지고 있는 분야들을 택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처럼 대학원의 강화를 통해 기독교대학들이 지식 생산의 첨단을 경험하는 것은 ‘학부 대학의 자유인문교양교육’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 낙관론의 관점에서 자유인문교양교육은 진리에 대한 학술적인 고백과 그 한계를 동시에 가르침으로써 믿음과 의심의 끝 없는 대화를 촉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이 두서없는 소론을 마치기 전에, 나는 이 글의 주제인 21세기 기독교대학의 이념을 떠올리게 된 개인적인 계기를 짧게 기록함으로써 전체적인 논지를 다시금 분명하게 하고자 한다. 오래전 에밀 부른너가 진리를 우연한 마주침(Wahrheit als Begegnung)으로 설명했던 것이 연상될 만큼, 그것은 내 인생에서 학문과 대학의 이념을 기독교적으로 성찰하는 출발점이 되었던 하나의 벽 그림과의 조우(遭遇), 즉 아주 우연한 개인적 마주침이었다.¹⁰

1996년 여름 나는 박사학위논문의 자료조사차 독일의 마인츠대학에 머물고 있었다. 도서관에서 자료 복사가 어려운 주말이 되면 이곳저곳으로 기차여행을 다녔는데, 마침 피아노 전공의 후배가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에 있어 처음으로 그곳을 방문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이 중세 도시를 쏘다니다가 나는 잘츠부르크 대학 건물의 벽면에서 1623년에 설립된 이 대학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벽 그림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앞에서 나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에 빠졌고, 한국에 돌아와 박사학위를 받고 기독교대학의 법학 교수가 되어 지내는 동안 드문 드문 그 생각을 이어갔다. 이하는 그 벽 그림에 대한 나의 간략한 해석이다.

우선 벽 그림의 위쪽 가운데에는 신의 모상이 있고, 아래에는 좌우로 고통당하는 인간이 그려져 있다. 이는 진리의 인식과 추구와 실현을 목적해야 하는 대학은 본질적으로 이 두 차원 사이에 놓여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 벽 그림에서 신과 인간의 사이 공간에는 중세 유럽 대학을 이루었던 4개의 학부 또는 학문 분과가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그 배치는 앞서 이 글에서 설명한 중세 유럽 대학의 구조나 칸트식 대학의 구조와 상당히 다르다. 우선 신과 인간의 사이에서 위쪽 부분을 보면, 왼편에는 신학(theologia)이 있고, 오른편에는 철학(philosophia)이 있으며, 그림에서 양자의 높이는 동등하게 배치되어 있다. 그 아래쪽에는 다시 왼편에 의학(medicine)이, 오른편에 법학(jurisprudentia)이 있다. 이 둘 역시 그림으로는 높이가 같지만, 각각의 명칭은 위치가 다르다. 의학은 더 아래쪽, 그러니까 인간과 더 가까운 쪽이고, 법학은 그보다 위쪽, 그러니까 신에 가까운 쪽

10) <https://www.dreamstime.com/solarclock-located-salzburg-university-facade-austria-image123486497>

이다.

전체적으로 이 벽 그림은 4개의 학부 또는 학문 분과가 총체적이고 통전적인 하나의 진리 또는 진리 그 자체를 추구하며, 그 경우에 진리는 신과 인간 사이의 현상일 수밖에 없음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에 더하여 각 학문의 명칭과 함께 그려진 작은 그림들로 미루어 볼 때, 이 벽 그림은 4개의 학부 또는 학문 분과 사이에 일정한 분업 또는 순환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시적 진리는 신학을 통해 그 대강이 밝혀지고 의학을 통해 고통받는 인간을 치유하나, 인간의 삶은 여전히 갈등과 분쟁 속에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학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고, 법학으로 대처할 수 없는 궁극적인 질문들에 관하여는 철학이 시작될 수밖에 없으며, 그 질문들은 철학이 내놓은 부족한 답들과 함께 다시 신 앞으로 나와 계시적 진리의 조명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벽 그림 앞에서 내가 처음 떠올렸던 것은 이처럼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순환이나,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향, 다른 방식의 순환 또한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나는 이 흥미로운 벽 그림 하나에 이 글에서 대학의 기원으로 지목했던 기독교적 낙관론의 관점은 물론, 21세기 기독교대학의 이념이자 대학 운동의 지향점 또한 농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모쪼록 잘츠부르크를 방문하는 크리스천 학자들은 시간을 내어 이 벽 그림 앞에서 보시기를 권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영안 (2018). **믿는다는 것-묻고 응답하고 실천하는 믿음**. 서울: 복 있는 사람.
- 고부응 (2018). **대학의 기업화**. 서울: 한울.
- 김영식 (2007). **과학, 인문학, 그리고 대학**. 서울: 생각의 나무.
- 김정인 역 (1999). **대학의 역사**. Charle, C. & Verger, J. (1989). *Histoire des université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서울: 한길크세주.
- 김정인 (2018). **대학과 권력-한국 대학 100년의 역사**. 서울: 휴머니스트.
- 김종인 (2004). **한국의 대학과 지식인은 왜 몰락하는가?**. 서울: 집문당.
- 박광현·정종현 역 (2017). **제국대학-근대 일본의 엘리트 육성 장치**. 天野郁夫 (2007). *帝國大學—近代日本のエリート育成装置*, 中央公論新社. 서울: 산치림.
- 박영신 (2022). 대학의 소명: '자기 물음'을 위한 큰 배움터로, *현상과 인식*, 46(1). 25-50.
- 박진경 역 (1990). **기독교대학의 이념**, Holmes, A. F. (1987). *The Idea of Christian College*, Eerdmans(revised edition), 서울: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출판부.
- 백석기독교학회 (2002). **한국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백석저널 창간호.
- 백지윤 역 (2019). **교회의 정치학-기독교 세계 이후 교회의 형성과 실천**. Hauerwas, S. (1991). *After Christendom: How the Church Is to Behave If Freedom, Justice, and a Christian Nation Are Bad Ideas*, Abingdon Press. 서울: IVP
- 서보명 (2011). **대학의 몰락**. 서울: 동연출판사.
- 서원모 역 (1991).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Holmes, A. F. (1977). *All Truth Is God's Truth*, Eerdmans,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신정숙 역 (1988). **대학의 위기-기독교적 비판과 대안**. Malik, C. H. (1982). *A Christian Critique of the University*, InterVarsity Press. 서울: 성경읽기사.
- 안계춘 역 (1992). **대학의 이념과 학문의 윤리**. Shils, E. (1983), *The Academic Ethic: The Report of a Study Group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the Future of the Universi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서울: 나남.
- 안성찬 (2009). 전인교육으로서의 인문학-독일 신인문주의의 '교양(Bildung)' 사상, **인문논총**, 62, 99-126.
- 오진석 역 (2012). **학부들의 논쟁-세 편으로 이루어진 학부들의 논쟁**. Kant, I. (2005). *Der Streit der Fakultäten*, Hrsg. von Horst D. Brandt und Piero Giordanetti, Felix Meiner Verlag, 서울: 도서출판 b.
- 이광주 (2024). 대학의 역사 시리즈-1, 유럽 대학의 역사, **경북대 신문** 2024년 4월 9일 자.

- 이국운 (1999). 영국 법률가집단의 형성과정: 15세기~18세기, *법사학연구*, 20, 57-81.
- 이상현 역 (1997). **임마누엘 칸트**. Höffe, O. (2020), *Immauel Kant*, C.H.Beck(9. Auflage). 서울: 문예출판사.
- 이석우 (1998). **대학의 역사**. 서울: 한길사.
- 이수동 역 (1997). **대학의 이념**, Jaspers, K. (1980), *Die Idee der Universität*, Springer. 서울: 학지사.
- 이종인 역 (2019). **베네딕트 옵션-탈 기독교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선택**. Dreher, R. (2017). *The Benedict Option: A Strategy for Christians in a Post-Christian Nation*, Sentinel. 서울: IVP.
- 이철민 역 (2012). **신 없는 사람들-우리 시대 무신론의 오만과 편견**. McGrath, A. E. (2011). *Why God Won't Go Away-Engaging with the New Atheism*, Society for Promoting Christia. 서울: IVP.
- 이태하 (2011). 뉴먼의 신 존재 증명과 신앙의 합리성, *철학연구*, 119, 279-304.
- 조용훈 (2009). **기독교대학-한국 기독교지성의 현실과 미래**.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최형길 역 (2018). **기독교 수도원의 역사**. Frank, K. S. (2010). *Geschichte des christilichen Mönchtums*, Primus in Herder. 서울: 은성.
- 한남대학교 기독교문화연구소 (2005). **미국 기독교 대학의 교훈과 도전**. 대전: 한남대학교 출판부.
- 한동일 (2013). **유럽법의 기원**, 문예림.
- 허명수·김영길·임동철 역 (2008). **하버드가 잃어버린 교육-대학 교육의 미래는?**. Lewis, H. R. (2007). *Excellence Without a Soul: Does Liberal Education Have a Future?*, Public Affairs. 포항: 한동교육개발센터.
- Aquinas, T. (1955-57). *Contra Gentiles Book One: God*. Trans. Anton, C. Pegis, Hanover House, c. 3, par. 2
- Benne, R. (2001). *Quality with Soul-How Six Premier Colleges and Universities Keep Faith with Their Religious Traditions*, Grandrapids: Eerdman.
- Carpenter, J., Glanzer, P. & Lantinga, N. (Ed.) (2014). *Christian Higher Education: A Global Reconnaissance*, Grandrapids: Eerdman.
- Copson, A. (2019). *Secularism-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aileader, P. (2020). The Medieval Universities of Paris and Bologna: Structure and Operations, *WondriumDaily*, Oct. 1, 2020
- Hauerwas, S. (1999). *After Christendom?: How the Church is to Behave, If Freedom, Justice, and a Christian Nation are Bad Ideas*, Nashville: Abingdon Press(2nd edition).
- Henry, D. V. & Beaty M. D. (Ed.) (2006). *Christianity and the Soul of the University-Faith as a*

- Foundation for Intellectual Community*, New York: Baker Academics.
- Lindbeck, G. (1984). *The Nature of Doctrine-Religion and Theology in a Postliberal Ag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Marginson, S. (2019). Kantian University-Worldwide triumph and growing insecurity, *Australian University's Review* 61(1)
- Marsden, G. (1994). *The Soul of the American University-From Protestant Establishment to Established Nonbelief*,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ewman, J. H. (1852/2008). *The Idea of a University Defined and Illustrated: In Nine Discourses Delivered to the Catholics of Dublin*, The Project Gutenberg EBook, 2008. 2. 5.(released).

21세기 기독교대학의 이념 - 칸트와 흄스를 넘어서

The Idea of Christian University in the 21st Century

이 국 운 (한동대학교)

논문초록

이 글은 2025년의 대한민국이라는 시공간적 특수성을 전제하면서도, 가능한 한 그 제약을 뛰어넘어, 21세기 이후 기독교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념적 차원에서 제시해 보려는 시도이다. 저자는 대학이라는 제도의 기원을 신앙의 체계와 이성의 체계의 궁극적 양립을 지향하는 기독교적 낙관론에서 찾으면서, 대학의 실존 가능성을 그와 같은 기초를 위협하는 양극단의 도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가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일단 로마 가톨릭교회의 보편 통치 아래서 중세 유럽 대학이 신앙과 이성의 역동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구조를 창설했으며, 그 구조가 서구의 근대 이후 어떻게 변형되었는지를 살피고, 그와 같은 변형을 대학 운동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임마누엘 칸트가 제시했던 대학개혁론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고, 또 결과적으로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탐색한다. 나아가, 20세기 중반의 시점에서 이른바 연구 중심의 ‘멀티버시티’(mutiversity)로 전략한 대학 운동의 현실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특히 학부 대학 차원의 자유인문교양교육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독교대학의 모델을 제창했던 아서 흄스의 기획을 재검토한다. 마지막으로 2024년의 대한민국 또는 동아시아라는 시공간적 조건 속으로 돌아와 기독교적 낙관론에 입각한 대학 운동의 차원에서 칸트와 흄스의 디자인을 넘어서는 기독교대학의 새로운 전망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증하고 간략하게나마 그 이념을 제시한다. 이는 신앙과 이성, 초월과 세속 사이의 역동적 균형을 지향하며 21세기 대학 운동의 방향을 제안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주제어: 기독교대학, 대학 운동, 대학의 기원, 대학의 역사, 대학개혁론, 임마누엘 칸트, 아서 흄스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nd the Theory of Sphere Sovereignty

김대인 (Daein Kim)**

ABSTRACT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which originated from the thought of Thomas Aquinas and the Catholic social doctrine, states that a larger entity (typically the state) should intervene to fulfill a task only when an individual or smaller entity is unable to accomplish it on its own. Next, the ‘theory of sphere sovereignty’, developed by Dutch Calvinist thinkers such as Abraham Kuyper and Herman Dooyeweerd, refers to the idea that only God, the Creator, exercises sovereign rule over all spheres, such as church, states, universities, businesses, and families, so that each sphere has its own independent sovereignty and is not subordinate to any other institution.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nd the theory of sphere sovereignty show follow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oth principles have a sense of balance that avoids both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ursues diversity in society, and seeks to control the abuse of power by the state.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envisioned a hierarchical social order, while the theory of sphere sovereignty envisioned a horizontal social order.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e precise place of these principles in the overall picture of Catholic and Calvinist social thought from which they originated. In Catholic social thought, we need to see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n relation to concepts such as human dignity, solidarity, and the common good, and in Calvinist social thought, we need to see the theory of sphere sovereignty in relation to concepts such as human sinfulness and the

* 2024년 11월 4일 접수, 11월 25일 게재확정
이 글은 2023년 이화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았다.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daeinkim@ewha.ac.kr

sovereignty of God.

In considering these aspects,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nd the theory of sphere sovereignty should be seen as complementary. First,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ends to view all groups as belonging to a holistic order called the state, which has the limitation of not fully accounting for the diversity of social spheres. The theory of sphere sovereignty has the advantage of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by viewing the state as just one of many spheres. Second, the theory of sphere sovereignty does not fully account for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governing orders, s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has the advantage of explaining the primacy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exceptional interven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Thus,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nd the theory of sphere sovereignty, which are complementary with each other, gives various implications for contemporary law.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has particular implications for local government law and social welfare law, and the theory of sphere sovereignty has implications for ecclesiastical law, higher education law, and social economic law.

Key words: principle of subsidiarity, theory of sphere sovereignty, Catholic social thought, Calvinist social thought, Abraham Kuyper, Herman Dooyweerd

I. 서론

‘보충성 원리’(principle of subsidiarity)는 개인이나 더 작은 단체가 자신의 힘만으로 자신의 과제를 완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더 큰 단체(대표적으로 국가)가 그 과제의 수행에 착수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홍성방, 2007:601). 이러한 보충성 원리는 우리나라 법체계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지방자치법」 제11조 제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는 규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제1항) 등이 보충성 원리가 반영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충성 원리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헌법 분야의 연구(홍완식, 2000 ; 정극원, 2006 ; 홍성방, 2007 ; 홍석한, 2019), 지방자치법 분야의 연구(한귀현, 2012 ; 노진철, 2019), 사회복지법제 분야의 연구(안봉근, 2009 ; 원소연, 2012 ; 노기현, 2021) 등을 들 수 있다. 유럽법(EU law)상 보충성 원리에 대한 연구(장경원, 2007)도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보충성 원리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그 사상적 기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보충성 원리는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사상과 그 영역을 받은 가톨릭의 사회교리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홍완식, 2000: 175 ; 장경원, 2007: 302 ; 홍성방, 2007: 604). 특히 보충성 원리는 교황 레오 13세의 사회문제에 대한 회칙인 ‘노동현장’(Rerum Novarum: 1891) 및 교황 비오 11세의 사회문제에 대한 회칙인 ‘사십 주년’(Quadragesimo Anno: 1931)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이처럼 가톨릭의 사회교리에서 보충성 원리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기원이 갖는 의미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보충성 원리와 비교해서 볼 이론으로 ‘영역주권론’(theory of sphere sovereignty)이 있다. 영역주권론은 네덜란드의 칼뱅주의 사상가들인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및 헤르만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 등에 의해 정립된 것으로 창조주인 하나님이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 대학, 기업, 가정 등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주권적인 통치를 행사하기 때문에 각 영역은 자신의 독립적인 권위를 가지며 다른 기관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사상을 말한다(최용준, 2022: 189). 이러한 영역주권론은 주로 개신교 신학 및 기독교철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이상원, 2011 ; 유태화, 2020 ; 최용준, 2022), 헌법학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이국

운, 2013).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을 비교하여 상호보완점을 찾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점이 선행연구에서 언급되고 있으나(이국운, 2013: 149), 양자를 비교분석한 국내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외국에서 양자를 비교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고 할 수 있다(McIlroy, 2003 ; Cochran, 2006 ; Van Til, 2008 ; Strauss, 2013 ; Weinberger, 2014). 이 글은 이러한 연구공백을 메우고 양자를 비교·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이 현대법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우선 보충성 원리의 가톨릭 사회교리적 기원을 살펴본 다음(II), 영역주권론의 칼뱅주의적 기원을 살펴보도록 한다(III). 다음으로 양 원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IV), 이어서 양 원리가 현대법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해보도록 한다(V). 마지막으로 이상의 검토내용을 토대로 결론을 제시한다(VI).

II. 보충성 원리의 가톨릭 사회교리적 기원

1. 개관

보충성 원리의 기원은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영향을 받은 중세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퀴나스는 질서가 없는 다원성은 혼동만을 낳게 된다고 보면서, 공동체의 내부구조를 결정하는 질서원리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질서는 수평적인(horizontal) 것과 수직적인(vertical) 것, 즉 조정(coordination)과 종속(subordination)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수평적인 질서가 유기체적 질서라고 한다면, 수직적인 질서는 위계적인 질서라고 할 수 있다(Mueller, 1943: 146).

아퀴나스는 이처럼 전체질서를 강조하면서 국가가 자연의 영역 속에 있는 전체적, 전포괄적 공동체라고 주장하였다. 모든 다른 삶의 영역들은 국가의 하위부분들이었다. 그러므로 아퀴나스는 전체-부분의 관계에 따라 국가와 삶의 다른 자연적 영역들 간의 관계를 이해했다. 아퀴나스는 국가는 계층질서 속에서 아래로부터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하급 공동체에 의해 적절하게 규제될 수 있는 것은 상급 공동체에 의해 간섭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Dooyeweerd, 문석호 역, 1996: 173-174). 이러한 점을 보면 아퀴나스는 수평적 질서와 수직적 질서 모두를 이야기하면서도 수직적 질서를 상대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아퀴나스의 사상은 가톨릭 사회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보충성 원리는 특히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인 ‘노동헌장(1891년)’, 그리고 교황 비오 11세의 ‘사십주년(1931년)’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2. ‘노동헌장(Rerum Novarum)’

가톨릭 사회교리 속에서 보충성 원리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레오 13세의 회칙(encyclical)인 ‘노동헌장(Rerum Novarum, 1891)’을 들 수 있다. ‘노동헌장’에서는 크게 네 가지의 주제가 다루어졌는데, 사유재산, 가정, 국가의 역할, 그리고 결사체의 중요성이 그것이다. 이 회칙은 사유재산에 대한 논쟁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사유재산이 인간의 본성에 부합한다는 점을 지적한다(Rerum Novarum, 1891: para. 6). 이는 가톨릭 사회교리가 사회주의(socialism)와 거리를 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할 수 있다(Moreland, 2018: 68).

‘노동헌장’은 이러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가정과 연결하여 설명한다. 가정의 우두머리인 가장은 사유재산권을 토대로 가족을 구성하는데, 이러한 가정은 국가에 선행하고 국가보다 더 중요한 사회라고 본다. 국가가 가정의 신성한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어떤 가정이 극심한 곤경에 처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그 곤궁에서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고 한다. 가정은 국가를 형성하는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Rerum Novarum, 1891: para. 12-14). ‘노동헌장’은 이어서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충성 원리도 이 맥락에서 언급한다. 이 부분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작은 단체들(lesser societies)과 큰 단체(larger society) 사이에는 각기 그 직접적인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국가는 공동선을 위해서 존재한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 일반에 관심을 가지는데, 동시에 개별적인 이익들이 적절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데에도 관심을 갖는다. 이 때문에 국가는 ‘공적 단체’(public society)라 불린다...(중략)...반면에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형성되는 사적 단체들은 그 구성원들만의 사사로운 이익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적 단체’(private society)라 불린다...(중략)...그런데 이 사적 단체들이 정체(body politics) 안에서 형성되고 국가의 많은 부분으로서 존재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또 단적으로 말해서 공권력이 그 결성을 금지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권리가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는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없애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국가가 시민들의 단체 결성을 금지한다면, 이는 명백히 국가의 존재 자체에 모순을 초래한다. 다른 사회단체

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유래도 바로 사회성이라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Rerum Novarum, 1891: para. 51).

이상과 같은 보충성 원리와 관련된 ‘노동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서로 다른 역량에 따라 차별과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빈곤의 조건을 낳고 있다. 둘째, 가난한 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셋째, 노동자들의 결사체는 국가의 역할을 보완하는 수단이 된다(Moreland, 2018: 71).

‘노동헌장’은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마르크시즘적인 집단주의 모두에 대한 대안으로 보충성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된다. 보충성 원리는 개인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개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단체(가정, 종교단체, 노동조합, 기업, 자선단체, 지방정부) 등이 역시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Cochran, 2006: 304-305). 또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국가에 대항하는 맥락에서 보충성이 제시된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보충성 원리는 국가의 주권(sovcreignty)사상에 대항하는 측면을 갖는다고 지적된다(Cahill, 2016: 111).

3. ‘사십 주년(Quadragesimo Anno)’

이러한 보충성 원리는 교황 비오 11세의 회칙인 ‘사십 주년(Quadragesimo Anno: 1931)’에서 더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십 주년’은 ‘노동헌장’의 반포 40주년을 맞이하여 사회질서의 재건을 추구하고자 발표된 것이다.

본인이 지금까지 재화의 정당한 분배와 임금의 공정한 수준에 관하여 말한 것은 개인과 직접 관련되며 사회질서와는 간접적으로만 관련된다. 그런데 사회질서에 대해서는 본인의 선임자인 교황 레오 13세가 건전한 철학의 원리와 복음의 탁월한 가르침에 따라 그것을 재건하고 완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심혈을 기울였다.

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말할 때 본인은 주로 국가를 마음에 두고 있다. 물론 모든 구원을 국가의 개입에서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른바 개인주의의 폐해 때문에 사태는 급격히 변하여, 한때 번창하면서 서로 돕던 각종 제도 안에서 꽃피며 크게 발달된 사회생활이 손상되었고 거의 파괴되어, 사실상 개인과 국가만이 남게 되었고 국가에게는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다. 국가는 보충적 사회 구조를 잃고 이제는 사라진 조직이 한때 말던 모든 짐을 떠맡은 결과, 한없는 업무와 책임에 짓눌려 허덕이게 되었다.

역사가 명백히 보여주듯이, 사회 상황의 변화 때문에 이전에는 소규모 집단이 수행하던 많은 일이 지금은 대규모 조직체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의 창의와 노력으로 완수될 수 있는 것을 개인에게서 빼앗아 사회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은 확고부동한 사회철학의 근본 원리이다. 따라서 한층 더 작은 하위의 조직체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더 큰 상위의 집단으로 옮기는 것은 불의이고 중대한 해악이며, 올바른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다. 모든 사회 활동은 본질적으로 사회 구성체의 성원을 돕는 것이므로 그 성원들을 파괴하거나 흡수해서는 안 된다.

국가 권력은, 자신에게 중대한 혼란의 원천이 되며 중요성이 적은 사업과 활동의 수행을 다른 조직체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국가는 고유하게 국가에 속하고 국가만이 수행할 수 있는 임무를, 상황이 제안하고 필요가 요청하는 대로, 지도하고 감독하고 격려하고 억제하면서 더 자유롭고 힘차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권력자들은 이 보충성의 원리를 더욱 충실히 따르고 다양한 조직체간의 위계질서가 널리 받아들여질수록, 사회의 권위와 능률이 더욱 높아지고 국가의 상태는 더욱 행복하고 번영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Quadragesimo Anno, 1931: para. 35).

이러한 보충성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모든 상위질서의 사회는 하위질서의 사회들에 대하여 지원, 증진과 발전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 중간단체들은 그들 고유의 임무를 다른 상급 단체들에게 부당하게 양도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제 임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보충성의 원리는 특정 형태의 중앙집권화와 이에 따른 복지지원을 반대하고, 또 공적 기능에 대한 국가의 부당하고 과도한 개입을 반대한다(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2006: 155-156).

4. 보충성 원리에 대한 평가

이러한 보충성 원리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있는데, 우선 보충성 원리에 대한 신학적인 비판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보충성 원리의 유용성(usefulness)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신학적 비판을 보자. 비오 12세는 1946년 2월 20일에 추기경단(College of Cardinals)에 새로 들어온 신임추기경들에게 보충성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보충성 원리를 성도에게 주어진 은사(gift)의 다양성을 언급하고 있는 에베소서 4:11-16 및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도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성경의 이 규정들만으로 보충성 원리를 도출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 성경구절들은 교회의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에 따라 섬기는 것을 강조

하는 데에 있지, 교회의 질서가 민주주의적이거나 위계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견해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하더니”(로마서 3:23)라는 성경구절을 근거로 하여 모두가 죄성(sinfulness)을 가지고 있는데, 더 작은 집단이 더 큰 집단에 비해서 죄성이 작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본다. 다음으로 보충성 원리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보충성 원리가 큰 정부에 대한 효과적인 제한으로 작동한다고 보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보충성 원리에서 사회의 어떤 특정 기능이 더 낮은 집단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중앙집권화된 권한을 제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Montgomery, 2002: 50-53).

이러한 두 가지 비판견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재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신학적인 비판에 대한 재비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권력구조가 죄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더 많은 권한을 가진 권력구조가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더 큰 것은 사실이다. 둘째, 인간의 존엄성은 보충성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부여했다. 그러나 결정이 중앙집권식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러한 선택의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구약성경까지 종합적으로 볼 경우 인간의 평등, 민족의 다양성, 작은 정부가 성경의 원리라고 볼 수 있고, 보충성 원리는 이러한 성경의 원리와도 부합한다는 것이다(McIlroy, 2003: 742-749).

다음으로 보충성 원리의 유용성에 대한 비판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가 있다. 유럽법에서 보충성 원리의 위상을 보면 유럽통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극적인 원리로만 인정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보충성 원리가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다만 보충성 원리가 중간그룹(intermediate group)의 역할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역주권론이 이러한 보충성 원리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McIlroy, 2003: 749-751).

보충성 원리에 대한 또 다른 비판견해는 보충성 원리가 또 다른 가톨릭 사회사상의 핵심개념인 ‘공동선’(common good)과 연결되어서 국가의 개입을 가능토록 하고 있는 점을 문제삼는다. 가톨릭 사회사상인 공동선은 인간의 번영(human flourishing)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의 삶의 양식을 의미하는데, 이는 선(good)에 대한 다원주의적 사고가 존재하는 현대사회와 조화를 이루기 힘들다는 것이다(Føllesdal, 2014: 218).

III. 영역주권론의 칼뱅주의적 기원

1. 개관

영역주권론의 지성사적 뿌리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성경원리, 하나님의 창조세계 내에서의 다양성, 인간의 죄성, 다양한 세속기관들의 서로 다른 책임들을 들 수 있다. 이로부터 가정, 교회, 시민정부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상이 나왔는데, 이러한 사상은 교회사에서 다양한 사상가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었다. 대표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국론』에서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을 구별한 것을 들 수 있다(Costa, 2019; 13-14). 특히 종교개혁가인 칼뱅(John Calvin)의 영향을 받은 개혁신학(reformed theology)에서 국가와 교회 모두의 권한에 제한을 부여하려고 시도하였는데, 특히 칼뱅주의자였던 요하네스 알투스지우스(Johannes Althusius)가 인간사회내에서 다양한 관할권을 중시한 것은 영역주권론이 발전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Weinberger, 2014: 50). 이에 반해 영역주권론은 카이퍼의 발명품으로 보아야 하며 칼뱅이나 알투스지우스의 영향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Harinck, 2020: 265). 그러나 카이퍼 자신이 『영역주권』에서 칼뱅의 영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영역주권론은 네덜란드의 신칼뱅주의자들인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도예베르트에 의해서 구체화되었다. 카이퍼는 당시의 두 가지 사회모델, 즉 개인을 중시하는 프랑스로델과 국가를 중시하는 프로이센 모델 모두를 지양하면서 영역주권론을 제시하였고(Keene, 2016: 66), 도예베르트는 이를 계승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카이퍼와 도예베르트의 이론을 살펴보도록 한다.

2. 카이퍼의 영역주권론

아브라함 카이퍼는 1880년 10월 20일 네덜란드 자유대학(Vrije Universiteit)의 개교연설에서 영역주권론을 제시하였다. 카이퍼의 영역주권론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강조는 모든 그리스도교 전통에 공통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은 특히 칼뱅주의 전통에서 강조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카이퍼에 따르면 영역주권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개념인데, 그에 의하면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질 수 있고 인간은 이러한 주권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주권을 인간에게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권한을 인간에게 위임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분할되어 위임되며 어

떠한 인간이나 인간의 기관도 모든 영역에 걸치는 권한을 갖지는 못한다(Weinberger, 2014: 53-54). 영역주권(sphere sovereignty)은 네덜란드어(soevereiniteit in eigen kring)에 대한 번역어인데, 여기서 “kring(크링)”은 사이클(cycle), 즉 원(圓)을 의미한다. 원이란 반드시 중심이 있다. 모든 원에 중심이 없다면 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와 같이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역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역을 그의 주권으로 다스리신다. 그리고 각 영역은 고유의 주권이 있고, 그 주권은 다른 주권을 침범할 수 없다(정성구, 2020: 261). 이러한 영역주권 원리는 국가주권에 대항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카이퍼의 견해를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영역주권은 국가의 주권에 대항해 자신을 방어합니다. 이것은 이미 메시아적 주권이 선포되기 이전에 나타난 세상역사의 짧은 경과입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의 왕자는 이 영역주권을 자신의 방패로 보호했지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주권은 옛날부터 존재했습니다. 이 주권은 창조의 질서 속에, 우리 인간 삶의 계획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주권이 생겨나기 전에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등장한 국가의 주권은 삶의 고유한 영역주권을 끊임없는 대적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영역들 자체 내에서 자신의 삶을 법칙을 어김으로써, 즉 죄로 인해 자신의 저항능력이 약화되었습니다(Kuyper, 박태현 역, 2020: 36).

이러한 영역주권론은 헌법에서의 권력분립(separation of power)의 원리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권력분립의 원리가 ‘국가’ 내에서의 권력분립의 문제라고 한다면, 영역주권은 ‘사회전체’에서의 권력분립의 문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카이퍼는 국가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우려했는데, 국가가 모든 권한을 자신에게 통합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카이퍼는 가족, 교회, 시장체제 등이 국가로부터 존재할 권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존재한다는 생각에 반대하려고 했다. 국가는 이와 같은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오히려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도록 명령받았다. 가족, 교회, 시장체제 등이 존재하는 것은 이들이 창조 그 자체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Mouw, 강성호 역, 2015: 50-51).

카이퍼는 국가의 권한 남용 뿐만 아니라 교회의 권한 남용도 우려했다. 즉, 교회가 자신의 범위를 넘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다. 카이퍼가 새롭게 개교하는 대학의 이름을 ‘자유대학’으로 이름을 붙인 것도 국가로부터도, 교회로부터도 자유로운 학문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관이 되기를 희망했기 때문이다(Weinberger, 2014: 54-55; 박태현, 2020: 101). 카이퍼는 이러한 맥락에서 학문영역에서의 자유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제가 확고하게 견지하는 바, 이 학문은 여전히 자기 영역의 주권자이며, 국가의 보호나 교회의 감독 하에서 그 성격이 변질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학문은 고유한 삶의 영역을 형성하는데 거기서 진리는 주권자이며, 학문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삶의 법칙을 위배하거나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침해하는 행위는 학문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것입니다...(중략)...그러므로 필사적으로 옹호해야 할 사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결코 자신의 수위성을 학문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중략)...전적으로 똑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거의 동일한 것을 국가에 대해 언급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여전히 학문의 영역을 위해서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중략)...단지 이 국가의 권세가 해체되는 것은, 이 권세가 경계를 넘어 학문의 영토로 진입할 때 공손히 자신의 신발을 벗고 그 영역에서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주권을 내려놓을 때입니다(Kuyper, 2020: 49-52).

위 내용을 보면 카이퍼가 국가와 교회로부터 학문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1) ‘국가’의 학문에 대한 개입과 2) ‘교회’의 학문에 대한 개입 모두를 경계하면서도 양자의 차이점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는 대학제도의 보호를 통해 학문의 자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도 담당하기 때문이다.

카이퍼의 영역주권론은 그의 일반은혜(common grace)론과 연결된다. 그에 따르면 타락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죄를 억제하는 소극적인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선을 증진시키는 적극적인 기능이다. 이러한 일반은혜는, 타락한 인간도 좋은 통치를 추구하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지식을 획득하게 만든다. 이러한 카이퍼의 일반은혜론은 영역주권론의 기초가 된다(Harvey, 2016: 56 ; Bratt, 1998: 462).

3. 도예베르트의 영역주권론

도예베르트는 서구 문명의 발전 속에 있는 종교적 근본 동인(ground motive)들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1) 형상-질료(form-matter)라는 고대 그리스의 근본 동인, 2) 창조(creation), 타락(fall),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redemption)이라는 기독교의 성경적 근본 동인, 3) 위의 두 동인의 결합을 추구하는 자연-은혜(nature-grace)라는 로마 가톨릭의 근본 동인, 4) 위의 세 가지 동인을 인간 인격성의 가치에 집중된 종교적 종합으로 인도하려고 시도하는 자연-자유(nature-freedom)라는 근대 휴머니즘의 근본 동인이 그것이다(Dooyeweerd, 문석호 역, 1996: 37).

도예베르트는 영역주권을 이 중에서 기독교의 성경적 근본 동인의 맥락에서, 그 중에서도 ‘창조’의 맥락에서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이 부분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피조적 실재는 시간질서 속에서 존재의 무수한 국면들이나 양상들을 보여준다. 이 국면들은 피조물의 영적, 종교적 근본 통일성을 풍성한 색깔들로 분산시킨다. 그것은 마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무지개 색조를 반사시키는 것과 같다. 수, 공간, 운동, 유기체적 생명, 정서적 감정, 논리적 구별, 문화의 역사적 발전, 상징적 표시화, 사회적 교제, 경제적 가치, 심미적 조화, 법, 도덕적 평가 그리고 신앙의 확실성 등이 실재의 양상(modality)들을 형성하고 있다...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이러한 국면들의 참된 근원과 종교적 근본 통일성을 알기 때문에, 한 국면을 절대화하지도 않고, 다른 양상들로 환원시키지 않으며, 그 내적 본질과 그 고유 법칙의 기초 위에서 각 국면을 주목한다...각각의 국면들은 다른 것들과 관련된 주권적 영역을 소유한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것을 영역주권이라고 부른다(Dooyeweerd, 문석호 역, 1996: 72-73).

도예베르트는 이처럼 카이퍼의 영역주권 이론을 계승하면서도 이를 그의 양상론(modality theory)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김종원, 2016: 69). 도예베르트는 카이퍼가 영역주권을 창조원리로 이해한 최초의 인물로서 평가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카이퍼가 이 개념을 형성하던 최초의 시기에는 영역주권을 네덜란드의 역사 속에 있는 도시적, 지방적 자율성과 혼동한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도예베르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도시들과 지방들은 주권 영역 자체는 아니고, ‘자치’(autonomy)의 영역으로서, 이러한 자율성은 전체의 필요, 곧 공공선의 필요에 의해 경계지워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Dooyeweerd, 문석호 역, 1996: 87).

4. 영역주권론에 대한 평가

카이퍼의 영역주권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를 때 무엇이 ‘영역’에 속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카이퍼가 ‘영역’이라고 본 영역은 크게 6가지이다. 1) 가정(family), 2) 교회(church), 3) 과학과 예술(science and art), 4) 경제생활(economic life), 5) 사회조직(social organization), 6) 국가(state)가 그것이다(McIlroy, 2003: 753). 그런데 이들을 동일한 위상으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가정과 교회는 사회실체(social entity)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지만, 과학과 예술, 경제생활 등은 사회의 한 측면에 불과하고, 이들이 특정조직을 통해

행사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를 조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Van der Vyder, 2001, Chapter 32: 10). 또한 카이퍼가 영역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본 나머지 어디까지를 독자적인 주권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볼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독서클럽을 독자적인 주권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Weinberger, 2014: 56 ; Van Til, 2005: 282).

다음으로 카이퍼의 국가(state)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한 점도 지적되고 있다. 카이퍼가 사회의 주된 조직들을 국가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한 것은 분명하지만, 국가의 개념이 지방정부를 포함시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카이퍼가 때로는 지방정부를 국가로부터 분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정부가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카이퍼가 국가(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분배를 선호한 것으로 보이는 하지만 각각의 영역에 영역주권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도예베르트는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다른 사회실체간 상호관계(inter-relations)에 적용되는 ‘영역주권’과 단일의 사회실체내 상호관계(intra-relation)에 적용되는 ‘자치’(autonomy)의 개념을 구별하였다. 이러한 도예베르트의 개념에 입각하여 보면 카이퍼의 영역주권은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모두 포함하는)와 다른 조직간의 관계를 다루는 개념이 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는 보충성 원리가 적용되는 영역이 된다고 할 수 있다(McIlroy, 2003: 754).

다음으로 영역주권론에 입각할 때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카이퍼는 국가의 역할로 1) 각 주권영역의 승인(recognition), 2) 각 주권영역의 지원(support), 3) 각 주권영역간의 분쟁의 해결(resolution of conflict)을 들고 있다(Kuyper, 박태현 역, 2020: 44-45). 그런데 총리로서의 카이퍼는 경제개입과 사회정의실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는데, 이것이 그가 주장한 영역주권론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위의 세 가지만이 국가의 역할로 보아야 하는데, 카이퍼는 이 범위를 넘어서는 국가의 역할을 실제로는 인정해서 이론과 실천의 괴리를 낳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는데, 가정이나 교회가 영역주권에 따른 큰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일정한 안전망을 제공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McIlroy, 2003: 755).

다음으로 ‘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권이라는 개념은 칼뱅주의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권한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권이라는 개념을 세속조직에 적용하다 보면 각 조직에게 각 영역내에서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 주권사상의 신학적인 핵심은 전적으로 그와 반대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모든 인간의 권력은 하나님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영역주권’이라고 부르기도

다는 ‘영역권한’(sphere authority)라고 부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된다. ‘주권’이라는 용어가 책임성(accountability)의 결여를 내포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권한’이라는 용어는 책임성 있는 권력의 행사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McIlroy, 2003: 758).

세속주의가 강해지는 유럽의 맥락에서 보면 영역주권론이 이러한 세속주의를 오히려 강화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견해도 있다(Harvey, 2016: 62). 영역주권론이 교회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제한하는 논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신학적인 관점에서의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나온 영역주권론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 아이러니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V.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의 비교

1. 공통점과 차이점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의 공통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된다. 1) 양자 모두 그리스도교 신학에 기초를 둔 사회이론이라는 점, 2) 양자 모두 사회적 다원주의(social pluralist) 전통에 서 있다는 점, 3) 19세기 후반이라는 동일한 시기에 형성되었다는 점, 4) 유럽이 산업화의 시기에 경험하고 있었던 사회적·정치적 격변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이론이라는 점, 5) 양자 모두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와 지나치게 집단주의적인 사회주의라는 양 극단을 중도적인 입장을 찾는 가운데 나온 이론이라는 점 등이 그것이다(Harvey, 2016: 62).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은 모두 개인과 국가 사이의 중간단체(intermediate community)가 인간의 번영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점, 국가의 권력남용을 제어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는 지적도 있다(Cochran, 2006: 304-305).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의 차이점도 지적된다. 1) 양자가 서로 다른 신학적 배경에서 나왔다는 점(보충성 원리는 가톨릭, 영역주권론은 칼뱅주의), 2) 양자가 사회영역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서로 다른 비전을 대변한다는 점(보충성 원리는 수직적인 관계, 영역주권론은 수평적인 관계) 등이 그것이다(Weinberger, 2014: 50). 다음으로 그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보충성 원리는 다양한 수준의 단체 상호간의 ‘상호작용’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영역주권론은 다양한 단체들의 ‘자율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Cochran, 2006: 305-306).

영역주권론은 권한의 적절한 분배라는 실체적인(substantive)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보충성 원리는 어느 층위에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른 원리들과 형량이 이루어지는 절차적인(procedural)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차이점도 지적된다. 또한 보충성 원칙은 중앙집권화된 국가 패러다임 하에서 국가로부터 유래하는 권력이 가능한 한 밑으로 이양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취하는 반면에, 영역주권론은 서로 다른 사회실체들이 자신의 전통적인 구조로부터 나오는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를 취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McIlroy, 2003: 761-762).

보충성 원리는 모든 하위조직이 국가의 일부라고 보는 반면, 영역주권론은 국가는 여러 영역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지적된다(Strauss, 2013: 102). 이는 보충성 원리가 전체질서의 통일성, 특히 수직적 질서를 강조하는 아퀴나스 사회사상의 영향을 받은 측면이 강한 반면, 영역주권론은 프랑스 사회모델 및 프로이센 사회모델 모두를 지양하면서 국가 중심의 사회모델을 벗어나려고 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양자의 관계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의 관계에 대해서는¹ 양자가 서로 대립적인 이론이고 조화되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와 2) 상호보완적인 이론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나누어진다. 우선 양자가 서로 대립적인 이론이고 조화되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는 보충성 원리는 사회의 위계적인 질서를 염두에 두고 있으나, 영역주권론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회영역들이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이론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도예베르트는 가톨릭의 보충성 원리는 아퀴나스의 사회사상에서 유래했다고 보면서 영역주권과의 차이점을 다음과 강조한다. 아퀴나스는 개인과 하부 사회공동체를 공히 전체의 부분들로서 곧 국가의 부분들로서 자연적 영역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영역주권 원리는 본질상 획립적인 이러한 아퀴나스의 사회관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고유의 본성에 따라 만물을 창조하셨고, 종류상 완전히 다른 두 부분은 결코 동일한 전체의 부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Dooyeweerd, 문석호 역, 1996: 175).

양자가 상호보완적 이론이 될 수 있다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한다. 보충성 원리가 하향식(top-down) 사회질서를 지향하는 것은 전혀 아니며 오히려 상향식(bottom-up) 사회질서를 지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나 교회의 권한 남용을 강조하는 영역주권론과 오히려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Weinberger, 2014: 58).

1) 여기에서 국가의 권력남용의 제어는 민법에서 말하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는 구별된다. 민법에서의 권리남용금지는 주로 사인 상호간의 관계에서 문제되지만, 국가의 권력남용은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에서 문제되기 때문이다.

보충성의 원리를 영역주권론이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드는 견해가 있다. 교회내의 분쟁 유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a) 교인 중에 성경적인 원리에 부합하지 않은 행위를 하여 권징을 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교인이 불복하려는 경우, (b) 교회의 당회가 위임목사에게 교리적인 문제로 해임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목사가 불복하려는 경우, (c) 교회에서 목사가 교인에게 성범죄를 가했고 이에 대해서 교인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보충성 원리에서는 (a)과 (b)의 경우 최대한 교회내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c)의 경우 국가의 개입이 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한다 (Weinberger, 2014: 59-60).

그러나 영역주권론에 입각할 때 국가와 교회의 구분을 인정하면서도 양자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교회에 개입할 수 있는 경우가 인정될 수 있다. 카이퍼에 의하면 국가는 세 가지 권한을 갖는데, 첫째, 각 영역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영역들의 경계를 지워주는 역할을 하고, 둘째, 각 영역에서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며, 셋째, 국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인적, 재정적 부담을 지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위의 (c)의 경우, 즉 목사가 교인에게 성범죄를 가한 사안은 각 영역에서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주는 경우로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이처럼 영역주권론을 통해 보충성 원리를 보완할 수 있는 지점들이 존재한다고 본다(Weinberger, 2014: 60).

다음으로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을 조금씩 수정하면 상호보완적으로 권력과 권한의 분배에 대한 보다 온전한 이론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된다. 우선 보충성 원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에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즉 보충성 원리는 국가와 다른 사회조직간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점은 이미 가톨릭의 사회교리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레오 13세의 ‘노동헌장’에서는 가톨릭 노동조합이 국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영역‘주권’의 개념 대신에 영역‘권한’의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국가의 개입권한을 적절하게 인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본다. 교회나 가정의 각 영역이 권한을 남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충성 원리에 따라가 국가가 다른 영역에 개입할 경우에는 개입의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입증책임은 지지만, 영역권한의 개념에 입각하여 볼 때 각 영역에서 권한을 명백히 남용한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McIlroy, 2003: 763).

다음으로 미국법의 맥락에서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은 상호보완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된다. 첫째,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양극단을 지양하는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장점이 있으며, 다양한 범주의 단체들의 필요성, 그리고 자유와 책임간의 균형의 필요성을 승인한다. 그리고 개인, 중간단체, 더 넓은 공동체의 역할을 볼 수 있게 한다. 둘째, 토크빌이 말했듯이 미국인은 단체를 창설하고 이에 참여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중간단체의 존재는 역동적으로 개혁지향적인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은 이를 뒷받침한다. 셋째, 보충성, 영역주권, 연방제도 등은 인간은 모두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며 자신이 갖는 권력을 남용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러한 원리들은 사법자제(judicial restraint)를 통해 사법부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것을 지향한다는 점에도 공통점을 갖는 것이다(Cochran, 2006: 306).

3. 평가

양자의 관계에 대한 위와 같은 서로 다른 견해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톨릭 사회사상과 칼뱅주의 사회사상 전체 맥락에서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이 각각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 모두 국가의 권력남용을 피하고 제한된 정부를 추구한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측면만이 강조될 경우에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추구했던 ‘작은 정부’ 및 ‘기업의 자유’만을 지지하는 보수적인 원리로 오해되기가 쉽다. 실제로 미국의 조지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가 보충성의 원리를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논거로 활용된 바 있는데, 이는 보충성 원리를 오해한 것으로 평가된다(Vischer, 2001: 104-107). 그러나 보충성 원리는 작은 단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임무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가톨릭 사회사상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의 권리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보충성 원리가 등장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역주권론에서도 각 영역의 관할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보충성 원리는 가톨릭 사회사상의 또 다른 중요개념들인 ‘인간의 존엄성’(human dignity), ‘연대성’(solidarity), ‘공동선’(common good) 등의 개념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가톨릭 사회사상에서는 작은 사회단위의 자율성을 존중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고, 작은 단위들이 연대하여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Hittinger, 2008: 120-125 ; Van Til, 2008: 619). 이처럼 가톨릭 사회사상의 주요개념들을 종합적으로 함께 볼 때 보충성 원리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영역주권론도 칼뱅주의 사회사상의 전체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홍기원, 2007 ; 김대인,

2021). 칼뱅주의 사회사상의 핵심개념은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볼 수 있다. 카이퍼가 영역주권을 강조한 것도 국가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권력을 남용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McGoldrick, 2000: 69).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를 비롯한 인간의 어떠한 제도들도 다른 제도에 비해 높은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신정주의(theocracy)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원주의(pluralism)를 지지하는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양 이론은 상호보완적 관계로 보는 견해가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첫째, 보충성 원리는 모든 단체를 국가라는 전체 질서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측면이 강하는데 이는 사회영역의 다양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영역주권론은 국가는 여러 영역들 중에 하나로 불과한 것으로 봄으로써 보충성 원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또는 보충성 원리는 언제 국가가 작은 단위에 개입을 할 수 있는지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영역주권론은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존재한다.

둘째, 영역주권론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와 같이 통치질서 상호간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보충성 원리는 지방정부의 우선성과 중앙정부의 예외적인 개입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은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양자의 관계를 이처럼 이해할 때 양 이론이 현대법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해주는지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V.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이 현대법에 주는 시사점

1. 개관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이 현대법에 주는 시사점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양자의 법적 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자를 단순한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연유한 사상적 개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적 위상까지 가진 개념으로 볼 것인지 하는 점이다. 다음으로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이 구체적으로 현대법 질서에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충성 원리의 경우 지방자치법, 사회복지법 분야에

그동안 많은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영역주권론은 교회법, 대학의 자율성, 사회조직의 자율성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한다.

2.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 원리의 법적 위상

우선 보충성 원리를 헌법상의 원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답이 있다. 보충성 원리를 헌법상 원리로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보충성 원리의 소극적 측면인 국가 개입의 원칙적 금지를 강조하면서 보충성 원리를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적 한계로 파악한다(홍완식, 2000: 183; 홍성방, 2007: 616). 이에 대해서는 보충성 원리를 일반적인 헌법원리로 인정하고 위헌심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곤란하다는 반론이 있다. 첫째, 보충성 원리의 내용으로 대규모 단위의 개입과 관련한 금지와 명령이 작동하기 위한 조건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 둘째, 헌법상 최소 단위로서의 개인과 최대 단위로서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각 사회적 단위가 갖는 규모의 작고 크거나 상하관계를 일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셋째, 다양한 사회적 단위들 사이의 기능과 역할의 분담은 각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규범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보충성은 그 개념 자체가 지나치게 개방적이고 불확정적이라는 점 등이 그것이다(홍석한, 2019: 18-20).

보충성 원리의 내용에 불명확한 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판규범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힘들다. 과잉금지원칙 등 많은 헌법상 원칙들이 판례를 통해 그 구체적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명확성만을 이유로 재판규범성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향후 보충성 원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찾아가야 하는 과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충성 원리를 헌법상 원리로 인정하는 것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특히 보충성 원리는 지방자치법, 사회복지법 등의 입법지침으로서도 이미 작용하고 있고,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통해 법률해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헌법상 위상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보충성 원리는 법적 위상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역주권론의 법적 위상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영역주권론이 아직 법학적인 개념으로까지는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영역주권론으로부터 도출되는 다원주의적 사고는 이미 우리의 법질서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헌법상 채택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이 대표적인 예이고, 교단헌법이나 정관과 같은 ‘자치규범’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영역주권론적 사고가 일부 반영된 예로 볼 수 있다.

영역주권론에 대해서 헌법적 지위가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헌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을 해석할 때에 영역주권론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지방자치법 및 사회복지법

보충성 원리가 적용되어 온 대표적인 법분야로 우선 지방자치법 영역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처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5조 제5호).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조사업무가 증가하자, 이 조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검토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조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5조 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것인지가 문제된 바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제5호의 적용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하는 점이다. 이 규정은 헌법상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보충성 원리에 부합하게 최대한 축소하여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규정에서 “근로기준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라고 할 때에는 좁은 의미의 근로기준만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조사업무 전체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산업안전과 관련한 조사업무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성이 높은 업무라고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기업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더 적합한 조사업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처럼 보충성 원리와 인간의 존엄성 등의 조화의 관점에서 볼 때 산업안전과 관련된 조사업무가 국가에게 전적으로 속한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보충성의 원리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을 해석하는 방향성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법 분야에서 보충성 원리의 위상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살펴본다. 보충성 원리를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가 있다. 보충성 원리는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전광석, 2019: 14). 이러한 견해는 충분히 경청의 필요성이 있지만, 복지국가의 확대에 의한 관료제 등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복지법 분야에서 보충성 원리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보충성 원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국가가 작은 단위에 개입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소극적 측면과 국가가 개입을 해야 하는 적극적 측면이 그것이다(홍석한, 2019: 12 ; 노기현, 2021: 306). 보충성 원리를 사회복지법

분야의 원리로 이해하는 데에 부정적인 견해는 이 두 가지 측면 중 소극적 측면만이 부각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적극적인 측면을 함께 본다면 이러한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법 분야의 입법과정에서는 헌법재판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과소보호금지의 원칙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소보호금지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보호 의무를 수행하는 데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 여부를 심사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은 국가에게 일정한 경우 개입의무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보충성 원리 중 적극적 측면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헌법상 원리로 인정되고 있는 사회국가원리도 보충성 원리 중 적극적 측면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보충성 원리를 헌법상 원리로 인정하는 것은 다양한 헌법원리와의 형량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복지법의 입법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등 민간단체에 의해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각자의 장점을 살리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사회단체의 역할을 중시하는 보충성 원리가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것이다.

4. 교회법, 고등교육법, 사회경제조직 관련법

영역주권론이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법분야로는 우선 교회법 분야를 들 수 있다. 교회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 교단 내의 재판제도를 원칙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단 내의 재판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일반법정에서의 재판제도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한다. 영역주권론은 해당 영역(예를 들어 교회)의 주권을 존중하면서도, 관할권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국가의 개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 사안에서 언제 국가가 개입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영역주권론은 인간의 죄성,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칼뱅주의 신학의 맥락에서 함께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교회내에도 인간의 죄성이 작동할 수 있고 불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교회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경우로 볼 수 있고, 일반법정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법의 기초가 되는 대학의 자율성도 영역주권론이 작동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 입학정원통제 등을 통해 실질적으

로 자율성이 매우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카이퍼가 영역주권론을 대학설립 개교연설에서 밝혔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가가 지원은 하되, 개입은 최소화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교육법질서를 구축해나가는 데에 영역주권론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종교계 대학들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종교계 학교들의 설립취지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이 부분은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와 조화가 필요한데, 입학할 대학에 대한 선택권이 학생들에게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선택권이 현저히 제한되는 중고등학교와는 차이가 크다고 보아야 한다.

다양한 사회경제조직과 관련된 법도 영역주권론의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의 다양성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경제조직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가의 재정지원에 의존할 경우에는 진정한 사회적 경제의 발전에는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사회경제조직이 자신의 관할권을 넘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관할권 범위내에서 활동할 경우에는 그 자율성을 존중해줌으로써 다양성이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이론적으로 보면 다원주의적 법질서하에서 사회영역내에서의 규범(이를 ‘사회헌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립이 중시되고 있는 것(양천수, 2008; 김연식, 2018)은 영역주권론과 연결될 수 있다. 다만 영역주권론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현대법의 다원주의 논의와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사상이 신정주의(theocracy)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전제하에 헌정주의(constitutionalism)를 추구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하면 충분히 현대법에서도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영역주권론은 현대법에서의 다원주의 논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가톨릭 사회사상에서 발전된 보충성 원리와 칼뱅주의 사회사상에서 발전된 영역주권론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는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모두를 지양하는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사회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국가의 권력남용을 제어하고자 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은 국가의 권력남용을 제어하고자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는 오늘날 헌법상 논의되고 있는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헌법상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주로 입법-행정-사법의 관계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사회단체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사회이론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은 헌법상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까지 볼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의 차이점으로는 보충성 원리가 수직적인 사회질서를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에 영역주권론은 수평적인 사회질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 보충성 원리가 적절한 층위에서의 권한행사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영역주권론은 권한의 배분이라는 실체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보충성 원리는 다른 사회조직을 국가의 하위조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영역주권론은 국가를 다른 사회조직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 인지는 공법학의 주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이해는 대륙법계 전통과 영미법계 전통에 차이가 있는데,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은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다.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은 그 기원이 되는 가톨릭 사회사상과 칼뱅주의 사회사상의 전체상 속에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톨릭 사회사상에는 인간의 존엄성, 연대성, 공동선 등의 개념과의 관계에서 보충성 원리를 볼 필요가 있으며, 칼뱅주의 사회사상에서는 인간의 죄성, 하나님의 주권 등의 개념과의 관계에서 영역주권론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을 이해하게 되면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보다 풍성한 다원주의 사상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인간중심적 다원주의 사상과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이다.

또한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은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첫째, 보충성 원리는 모든 단체를 국가라는 전체질서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측면이 강한데 이는 사회영역의 다양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영역주권론은 국가를 여러 영역들 중에 하나로 불과한 것으로 봄으로써 보충성 원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둘째, 영역주권론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와 같이 통치질서 상호간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보충성 원리는 지방정부의 우선성과 중앙정부의 예외적인 개입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이처럼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은 상호보완적으로 현대법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보충성 원리는 지방자치법 및 사회복지법 분야에, 영역주권론은 교회법, 고등교육법, 사회적 경제법 등의 영역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은 오늘날 대표적인 사회이론 중의 하나인 루만(Niklas Luhmann)의 체계이론(Systemtheorie)과 연결해볼 수 있는 지점이 존재한다. 보충성 원리와 체계이론을 접목한 연구(노진철, 2019)가 나오고 있는 것이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체계이론은 국가 중심적인 법이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영역주권론과도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향후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성호 역 (2015). **리차드 마우가 개인적으로 간략하게 소개하는 아브라함 카이퍼**. Mouw, R. (2011). Abraham Kuyper: A Short and Personal Introduction. 서울: SFC.
-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2006). **간추린 사회교리(개정판)**.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김대인 (2021). 칼뱅의 자연법사상과 그 세속법상 함의. **신앙과 학문**, 26(2), 163-191.
- 김연식 (2018). 사회 헌법론: 국가-정치 헌법에서 초국가적 사회 헌법으로. **법철학연구**, 21(1), 111-164.
- 김종원 (2016). 개혁주의 세계관에 바탕을 둔 도예베르트 철학에서 국가 개념 연구 -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인가 아니면 죄의 결과인가? -. **신앙과 학문**, 21(3), 2016, 61-89.
- 노기현 (20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재검토 - 자율과 지원에 관한 조건정비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2(3), 297-324.
- 노진철 (2019). 사회 위기의 극복전략으로서 지방분권과 보충성 원리 - 자기준거적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지역사회학**, 20(3), 65-102.
- 문석호 역 (1996). **서양문화의 뿌리**. Dooyeweerd, H. (2012) Roots of Western Culture. 파주: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박태현 (2020). 아브라함 카이퍼와 자유대학교, 박태현 역, **영역주권**. Kuyper, A. (1880). Sphere Sovereignty. 군포: 다함.
- 박태현 역 (2020). **영역주권**. Kuyper, A. (1880). Sphere Sovereignty. 군포: 다함.
- 안봉근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원리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3), 5-28.
- 양천수 (2008). 초국가적 법다원주의 -개념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을 중심으로 하여-. **법철학연구**, 11(2), 391-426.
- 원소연 (2012). 복지다원주의와 보충성원칙 - 독일의 노인요양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1(3), 441-461.
- 유태화 (2020).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과 『정치강령』 사이의 신학적 인식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개혁논총**, 54, 77-103.
- 이국운 (2013). 아브라함 카이퍼 정치사상의 한국적 수용 - 영역주권론을 중심으로 -, **신앙과 학문**, 18(3), 127-155.
- 이상원 (2011). 아브라함 카이퍼의 하나님 주권사상 실천과정, 오늘날의 의미, **개혁주의 이론과 실천**, 1, 63-102.
- 장경원 (2007). EU행정법의 작동원리로서 보충성의 원칙. **행정법연구**, 17, 313-336.
- 전광석 (2019). 사회보장법의 현황과 과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재단법인 동천(편), **사회복지법연구**. 파주: 경인문화사, 1-35.

- 정극원 (2006). 헌법상 보충성의 원리. **헌법학연구**, 12(3), 187-213,
- 정성구 (2020).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용인: 킹덤북스.
- 최용준 (2022).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 사상이 주는 사회윤리적 함의에 관한 고찰. **신앙과 학문**, 27(3), 187-205.
- 한귀현 (2012). 지방자치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13(3), 245-274.
- 홍기원 (2007). 초기 칼비니즘의 정치사상 연구서설 - 신법과 인법, 그리고 최선의 정부형태 -. **법사학연구**, 36, 277-304.
- 홍석한 (2019). 보충성의 원리에 대한 헌법적 고찰. **법학논문집(중앙대)**, 43(1), 5-38.
- 홍성방 (2007). 헌법상 보충성의 원리. **공법연구**, 36(1), 601-623.
- 홍완식 (2000). 헌법과 사회보장법에 있어서의 보충성의 원리. **공법연구**, 28(4-2), 173-189.
- Bratt, J. (1998). *Abraham Kuyper: A Centennial Reader*. Grand Rapids: Eerdmans.
- Cahill, M. (2016). Sovereignty, Liberalism and the Intelligibility of Attraction to Subsidiarity. *American Journal of Jurisprudence*, 61(1), 109-132.
- Cochran, R. (2006). Catholic and Evangelical Supreme Court Justices: A Theological Analysis. *University of St. Thomas Law Journal*, 4(2), 296-311.
- Costa, R. (2019). A Sphere Sovereignty Theory of the State: Looking Back and Looking Forward.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3(1), 13-19.
- Føllesdal, A. (2014). Competing Conceptions of Subsidiarity. in Fleming, J. & Levy, J. (Ed.) (2014). *Federalism and Subsidiarit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Harinck, G. (2020). I Look Through My Window Into Life: Kuyper's Notion of Sphere Sovereignty (1870-1880). *Journal of Markets & Morality*, 23(2), 265-284.
- Harvey, T. (2016). Sphere Sovereignty, Civil Society and the Pursuit of Holistic Transformation in Asia. *Transformation*, 33(1), 50-64.
- Henderson, R. (2017). The Development of the Principle of Distributed Authority, or Sphere Sovereignty. *Philosophia Reformata*, 82(1), 74-99.
- Hittinger, R. (2008). The Coherence of the Four Basic Principles of Catholic Social Doctrines: An Interpretation. *Pontifical Academy of Social Sciences*, 14, 75-123.
- Keene, T. (2016). Kuyper and Dooyeweerd: Sphere Sovereignty and Modal Aspects. *Transformation*, 33(1), 65-79.
- McIlroy, D. (2003). Subsidiarity and Sphere Sovereignty: Christian Reflections on the Size, Shape and Scope of Government. *Journal of Church and State*, 45(4), 739-763.

-
- McGoldrick, J. (2000). *Abraham Kuyper: God's Renaissance Man*. Auburn: Evangelical Press.
- Montgomery, J. (2002). Subsidiarity as a Jurisprudential and Canonical Theory. *Law & Justice - The Christian Law Review*, 148, 46-53.
- Moreland, M. (2018). The Pre-History of Subsidiarity in Leo XIII. *Journal of Catholic Legal Studies*, 56(1), 63-76.
- Mueller, F. (1943).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n the Christian Tradition. *The American Catholic Review*, 4(3), 144-157.
- Strauss, D. F. M. (2013). Sphere-Sovereignty, Solidarity and Subsidiarity. *Tydskrif vir Christelike Wetenskap (Journal of Christian Science)*, 2013-3de Kwartaal, 93-123.
- Van der Vyder, J. (2001). Sphere Sovereignty of Religious Institutions: A Contemporary Calvinistic Theory of Church-State Relations. in Robbers, G. (Ed.) (2001). *Church Autonomy: A Comparative Survey*.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Chapter 32: 1-40.
- Van Til, K. (2005). Abraham Kuyper and Michael Walzer: The Justice of the Spheres. *Calvin Theological Journal*, 40, 267-289.
- Van Til, K. (2008). Subsidiarity and Sphere-Sovereignty: A Match Made in...?. *Theological Studies*, 69(3), 610-636.
- Vischer, R. (2001). Subsidiarity as a Principle of Governance: Beyond Devolution. *Indiana Law Review*, 35, 103-142.
- Weinberger, L.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Sphere Sovereignty and Subsidiarity. in Evans, M. & Zimmerman, A. (Ed.) (2014). *Global Perspectives in Subsidiarity*, Heidelberg: Springer, 49-63.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nd the Theory of Sphere Sovereignty

김대인(이화여자대학교)

논문초록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사상과 그 영역을 받은 가톨릭의 사회교리로부터 기원한 ‘보충성 원리’(principle of subsidiarity)는 개인이나 더 작은 단체가 자신의 힘만으로 자신의 과제를 완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더 큰 단체(대표적으로 국가)가 그 과제의 수행에 착수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다음으로 네덜란드의 칼뱅주의 사상가들인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및 헤르만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 등에 의해 정립된 ‘영역주권론’(theory of sphere sovereignty)은 창조주인 하나님이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 대학, 기업, 가정 등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주권적인 통치를 행사하기 때문에, 각 영역은 자신의 독립적인 권위를 가지며 다른 기관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사상을 말한다.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우선 공통점으로는 양 원리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모두 지양한다는 점, 사회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국가의 권력남용을 제어하고자 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차이점으로는 보충성 원리가 위계적인 사회질서를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에, 영역주권 원리는 수평적인 사회질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은 그 기원이 되는 가톨릭 사회사상과 칼뱅주의 사회사상의 전체상 속에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톨릭 사회사상에는 인간의 존엄성, 연대성, 공동선 등의 개념과의 관계에서 보충성 원리를 볼 필요가 있으며, 칼뱅주의 사회사상에서는 인간의 죄성, 하나님의 주권 등의 개념과의 관계에서 영역주권론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은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보충성 원리는 모든 단체를 국가라는 전체질서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측면이 강한데 이는 사회영역의 다양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영역주권론은 국가를 여러 영역들 중에

하나로 불과한 것으로 봄으로써 보충성 원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둘째, 영역주권론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와 같이 통치질서 상호간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보충성 원리는 지방정부의 우선성과 중앙정부의 예외적인 개입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이처럼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은 상호보완적으로 현대법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보충성 원리는 지방자치법 및 사회복지법 분야에, 영역주권론은 교회법, 고등교육법, 사회적 경제법 등의 영역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주제어: 보충성 원리, 영역주권론, 가톨릭 사회사상, 칼뱅주의 사회사상,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도예베르트

진젠도르프의 성경적 세계관과 사역에 관한 고찰*

A Research on Zinzendorf's Biblical Worldview and Work

최용준 (Yong Joon (John) Choi)**

ABSTRACT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biblical worldview and work of Count Nikolaus L. von Zinzendorf. He was one of the representing leaders of the pietism movement in Germany who transformed the world in the 18th century. First, he accepted refugees who were persecuted in Bohemia and Moravia into his land. Then he changed them and finally bore precious fruits contributing to world mission. His faith had the vitality that prioritized the relationship with the living Lord in heart, not the theology and rationality. He deeply realized the importance of the Bible and created the so-called 'losungen' movement worldwide so that people can meditate on the Word of God every day. Believing in the power of prayer, he created a prayer chain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and started an intercessory prayer movement which continued 100 years. Furthermore, his ministry was very creative and innovative, such as developing various music ministries. In addition, he pursued the unity of church transcending denominations and was a pioneer who opened women's ministry. Therefore, after examining these points in detail, in conclusion, the implications of his legacy for the modern Korean Christians are presented.

Key words: Zinzendorf, Herrnhut, losung, prayer, world mission

* 2024년 11월 4일 접수, 11월 25일 최종수정, 11월 27일 게재확정.

이 연구는 한동대학교 교내연구 지원 사업 제202400710001호에 의한 것임.

** 한동대학교(Handong Global University) ICT 창업학부 교수, 경북 포항시 북구 한동로 558, crosspower@handong.edu

I. 서론

니콜라우스 루드비히 진젠도르프(Nikolaus Ludwig von Zinzendorf, 1700-1760)는 독일의 경건주의자로 헤른후터 형제교회(Herrnhuter Brüdergemeine)의 설립자다. 원래 정부의 법률 고문관이었으나 젊어서 신앙생활에 헌신하였고 체코지역에서 박해당하여 독일로 피난 온 개신교 신자들을 자신의 영지로 영접하여 그 지역을 헤른후트(Herrnhut: ‘주님의 피난처’라는 뜻)라고 불렀다. 그 후 한동안 분열된 이들을 하나 되게 하려고 그는 관직을 내려놓았다. 한때 오해를 받아 작센 지방에서 추방되자 그는 영국으로 간 후 다시 스위스, 미국, 캐나다 등지를 순회하며 전도하였다. 추방령이 해제되자 그는 다시 귀국하여 헤른후트에 거주하면서 세계 선교에 힘썼다. 그의 영향을 받은 칼 귀츨라프(Karl F. A. Gützlaff, 1803-1851)는 1832년에 최초로 조선을 방문한 선교사였다(오현기, 2012: 237-278; 2014; 2024). 진젠도르프는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연합운동, 기도 사역을 통한 부흥, 성경 묵상, 음악 사역, 여성 사역 그리고 세계 선교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공헌을 한 인물이다.

본 논문은 경건한 신앙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킨 진젠도르프의 성경적 세계관과 사역에 관한 고찰이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독일어와 영어로 된 다양한 문헌이 많이 있으나(Brecht & Peucker, 2005; Breul, 2023; Ense, 2019; Faix, 2012; Geiger, 2009; Herzler, 2010; Ludwig, 2010; Lückel, 2016; Meyer, 2009; Pfister, 2019; Reimann, 2019; Richter, 2018; Smaby, 2011) 국내 학술 문헌으로 그에 관한 일반적 소개(정준기, 1992)나 헤른후트 공동체의 선교(김현진, 2019: 213-252)와 소그룹 방향성(백현덕, 2023) 외에는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그의 성경적 세계관과 사역은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 따라서 그의 사상과 사역을 관련 문헌들을 통해 고찰한 후 그의 유산을 살펴보고 그의 기독교 세계관과 사역이 현대 한국 그리스도인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 결론에서 제시하겠다.

II. 진젠도르프의 성경적 세계관과 사역에 관한 고찰

1. 진젠도르프의 생애

진젠도르프는 독일 드레스덴(Dresden)에서 게오르그 진젠도르프 백작(Georg Ludwig (Reichs-) Graf von Zinzendorf und Pottendorf, 1662-1700)과 샬로테 게르스도르프(Charlotte Justine Freiin von Gersdorff, 1675-1763)의 아들로 1700년에 태어났다. 부친은 그가 태어난 지 6주 만에

소천하여 모친은 1704년 두비슬라브 나즈메르(Dubislav Gneomar von Natzmer)와 재혼했다. 그 후 그는 외할머니 슬하에서 자라났는데 그녀는 불어, 이태리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시리아어 등에 능통하여 성경을 원어로 읽었으며 독일 경건주의의 창시자인 슈페너(Philipp Jacob Spener, 1635-1705)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슈페너와 그를 이은 프랑케(August Hermann Francke, 1663-1727)가 종종 방문하여 니콜라우스는 이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며 자랐다. 3세부터 6세까지 그의 가정교사였던 에델링(Christian Edeling)의 경건한 교육으로 그는 이미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다. 스웨덴 군대가 1706년에 작센을 침공하였는데 어린 니콜라우스가 경건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하였다고 한다(Weinlick, 1956: 19ff).

1710년부터 1715년까지 그는 할레(Halle)에 있는 프랑케 학교(Franckesche Pädagogium)에 다녔으며 거기서 가장 높은 귀족 출신이었으므로 프랑케 부부 사이에 앉아 식사하며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학교생활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는 특히 남인도 최초의 선교사였던 플뤼트차우(Heinrich Plütschau, 1676-1752)와 지겐발크(Bartholomäus Ziegenbalg, 1682-1719)로부터 큰 도전을 받았다. 1715년경 그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겨자씨 모임(Senfkorner-Orden)’을 설립했는데 그 목적은 회원들이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었다. 성인이 되자 그는 이 모임을 다시 활성화했고 많은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합류했는데 그중에는 덴마크 왕, 캔터베리 대주교 그리고 파리 대주교도 있었다.

1716년에 그는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 비텐베르크(Wittenberg) 대학에 입학했다. 3년 후, 그는 1719년부터 1720년까지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만나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신앙의 폭을 넓혔다. 여행 중, 그는 뒤셀도르프의 한 미술관을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화가 도메니코 페티(Domenico Fetti, 1589-1624)의 작품인 에케호모(Ecce Homo: “이 사람을 보라”)를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 그 그림은 다음과 같고 그 밑에는 아래와 같은 말이 라틴어로 적혀 있었다:

나는 너를 위해 고난 겪었다.
(Ego pro te haec passus sum)



그림-1. 도메니코 페티(Domenico Fetti)의 에케호모(Ecce Homo, “이 사람을 보라”) zinzendorf.com/pages/data/uploads/domenico.jpg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Tu vero quid fecisti pro me)

(zinzendorf.com/pages/index.php?id=ecce-homo)

이 그림을 본 후 진젠도르프는 오랫동안 그분을 사랑했지만 실제로 그분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이제부터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온전히 순종할 것을 헌신했다고 한다. 나아가 여행 중에 그는 드 노아유(Louis-Antoine de Noailles, 1651-1729) 프랑스 추기경을 포함해 다른 교파 사람들과도 우정을 쌓았는데(Schneider, 2004: 691-697) 이것은 나중에 그가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

1721년부터 1732년까지 그는 드레스덴에서 아우구스투스 대왕(August der Starke, 1670-1733)을 섬기는 법원과 사법부에서 일하면서 1722년 에르트무트(Erdmuthe D. Gräfin Reuß-Ebersdorf)와 결혼했다. 이 부부는 슬하에 12명의 자녀가 있었으나 네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1722년 6월에 그는 체코에서 온 개신교 난민을 받아들여 그의 영지였던 베르텔스도르프(Berthelsdorf) 근처에 헤른후트라는 정착지를 제공했다. 이곳의 회중은 독립된 형제교회로 성장해 1727년 8월 13일 모라비안 교회로 독립했다.

1734년에 진젠도르프는 루터교 신학자로 안수받았지만 1736년에는 그의 형제교회가 너무 독립적으로 되면서 통일된 국가교회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져 작센에서 추방되었다. 그러자 그는 아내에게 영지를 이양한 후 헤센(Hessen)주의 베틀라우(Wetterau)로 가서 1736년에 마리엔보른(Marienborn), 1738년에는 헤른하그(Herrnhag: ‘주님의 숲’이라는 뜻)에 공동체를 설립했는데 당시 이곳의 규모는 헤른후트보다 더 컸다. 1737년에 그는 마리엔보른에서 형제 교단의 주교(Bischof der Brüder-Unität)로 선임되었다.

그 후 몇 년간 그는 리보니아(Livonia)¹, 영국, 북미, 서인도 제도에 있는 성 토마스 섬 등지에 설교자로 여행하며 선교했다. 나아가 그는 아메리카 원주민 안내자 와이저(Conrad Weiser)와 함께 여행하면서 여러 부족의 추장을 만나 전도했다. 1747년에 그는 다시 작센으로 돌아오도록 허락받았고 1749년에는 모라비안 교회를 위한 설교의 자유와 작센 주교회와 연결된 교회로 인정받았다. 1750년부터 그는 주로 런던에 거주하다가 1755년부터는 다시 베르텔스도르프에서 살았다. 1760년 소천하기까지 마지막 20년간 그는 여러 비판도 받았으나 이에 대해 그의 후계자였던 슈팡엔베르그(August Gottlieb Spangenberg, 1704-1792)는 그를 변호하는 전기를 썼다(Spangenberg, 1772-1775).

1) 현재 라트비아의 동북부에서 에스토니아 남부에 걸친 지역의 명칭이다.

2. 연합운동의 선구자

1722년에 진젠도르프가 체코지역에서 박해받던 개신교 난민을 받아 헤른후트에 거주하도록 허락하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하지만 1727년에는 이곳에 모인 사람들 간에 심각한 갈등이 생겼다. 그러자 그는 공직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이 공동체 사역에 헌신하여 각 가정을 방문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성경을 공부했다. 그러자 그들은 사랑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았고 분열은 주님의 뜻에 어긋남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헤른후트 공동체는 자발적 규율인 ‘형제 협약(Brüderlicher Vertrag)’으로 알려진 문서를 작성했다. 이 문서와 함께 그가 제정한 일련의 규칙에 1727년 5월 12일 구성원 모두 서명했다. 수년에 걸쳐 개정된 이 문서는 오늘날 “모라비아 언약”으로 알려져 있으며 모라비안 교회는 특정 신조보다 그리스도인의 행동 규범을 강조하는 몇 안 되는 교단 중 하나이다(Freeman, 1998: 234-35). 이날 그는 그리스도인의 일치가 주는 축복에 대해 세 시간 동안 설교했고 회중은 과거의 다툼을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사랑과 소박함으로 살 것을 다짐했다. 그리하여 헤른후트는 살아 있는 그리스도의 회중이 되었고 평화와 사랑이 넘쳤다.

1735년부터 공개 저술에서 그는 아우크스부르크의 루터파 고백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지만, 사적인 편지에서는 어떤 고백에도 무관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파 그리고 루터파 교회를 “분파”라고 부르면서 어떤 특정 교리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이고 살아 있는 교제와 그의 교회를 중심으로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를 방문하여 독일 개신교도들이 분열된 것을 보고 그들을 통합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연합 운동의 선구자(the ecumenical pioneer)라고 불린다(zinzendorf.com). 이것은 그가 20대 초반에 유럽의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다양한 교파와 교단의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짝튼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점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필자는 교단 분열로 얼룩진 한국 교회에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며 이 점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최용준, 2006).

3. 기도를 통한 부흥

1727년 8월 10일, 베르텔스도르프의 루터교회 로테(Johann A. Rothe, 1688-1758) 목사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압도되어 기도하면서 땅에 엎드려 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회개의 언어로 부르짖었다. 그러자 회중도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자정까지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 후 8월 13일 수요일 저녁에 로테 목사는 베르텔스도르프 인근 회중과의 합동 성찬식에 헤른후트 공동체를 초대했다. 예배에 모인 성도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신과 아직

박해받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지속적인 연합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진젠도르프도 참회의 고백을 했다. 그러자 모두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다. “모라비안의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헤른후트 공동체에 새로운 부흥의 시작이었다.

그 후 헤른후트 공동체는 더욱 영적으로 하나 되었고 그의 지속적인 소그룹(Banden) 성경공부와 기도 사역은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2주 후, 이 공동체는 24명의 남자와 24명의 여자가 회중과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밤낮으로 매일 한 시간씩 기도하기로 서약했다. 그 결과 다음 그림과 같이 1827년까지 100년간 이들은 쉬지 않고 중보기도를 계속했다.

헤른후트 성도들의 모든 사역은 기도와 금식으로 시작되고 진행되었으며 완성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행복한 백성”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이것은 진젠도르프의 성경적 사상에 의한 기독교인의 공동체적 삶에 대한 급진적 실험의 시작이었다(Taylor, 1967: 32-33). 그 결과 18세기 미국과 영국의 부흥 운동은 이들의 헌신과 기도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영국의 모라비안 선교사 뵐러(Peter Boehler, 1712-1775)는 영국 부흥의 지도자였던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를 만나 그의 개종을 이끌었다(Curtis, 2011: zinzendorf.com/pages/index.php?id=a-golden-summer). 이러한 중보기도 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www.24-7prayer.com) 이들이 온종일 기도 체인을 통해 100년간 중보기도 사역을 이어갔다는 것은 진정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새벽기도와 통성기도로 알려진 한국 교회는 이 부분에서도 도전을 받아 더욱 기도로 부흥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4. 진젠도르프의 성경적 세계관

그는 먼저 지성적인 신앙보다 인격적이고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강조했다. 당시 계몽주의가 이성을 강조하며 기독교를 도덕화하는 것과 동시에 프랑케가 경건주의적 율법주의, 즉 특정 유형의 회심을 진정한 기독교의 표징으로 인정하려 했던 방식도 그는 거부했다. 그는 새 생명의 기원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며 복음의 핵심은 구세주와의 인격적 관계라고 보았고 이것을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중심으로 삼았다. 그는 하나님에 관해 지성으로 아는 사람은 결국 무신론자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분 자신을 마음으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사역에 있어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는 이해하면서(요 1:1-18, 골 1:15-20, 히 1:1-3)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각자를 창조하셔서 우리와 함께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기 위함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주로서 세상에 태어난 각 사람을 아시며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가능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급진적 은둔주의와 수동적

경건주의 모두 반대하면서 신앙에 입각한 즐거운 공동체적 삶을 강조했다. 이것은 지나친 지성주의도 아니며 감성주의도 아닌 머리와 마음의 균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양자를 함께 주신 창조주의 뜻은 우리가 이 두 기능을 적절히 조화시켜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으로 그는 보았다(zinzendorf.com/pages/index.php?id=zinzendorfs-theology).

이와 관련하여 그는 특별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창에 찢린 옆구리의 상처(Seitenhöhlchen)를 깊이 묵상하며 강조했다(Zinzendorf, 1751). 그는 이 상처가 영적 탄생의 기관이며, 죽음에서 영생으로 전환하는 곳으로 보았다. 나아가 그는 이곳과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창조된 것 사이에 유사점을 보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잠들었을 때, 그의 옆구리가 열렸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잠자는 아담의 옆구리를 열어 하와를 꺼내신 것처럼 옆구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꺼내셨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 상처는 그리스도께서 가장 많은 피를 흘린 곳으로 여러 찬양에 등장했으며 그리스도인들이 자고, 먹고, 일하고, 산책하는 보호의 피난처로 묵상되었다. 이처럼 이것은 그의 구속적 세계관의 ‘중심점’으로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마무리 짓는 동시에 개인적 신앙의 소망을 나타내는 주된 상징이었다(Vogt, 2006: 175-212).

둘째로 그는 공동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믿음이란 인격적인 교제가 풍성한 공동체 안에서 성장한다고 보았다. 그는 개인을 강조하는 당시의 시대사조도 인정하면서 신앙은 개인적으로 가져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 인격이 성장하지만 동시에 각 개인은 주변 형제자매들의 도움과 교정이 필요하고 교회는 불신에 대한 유일한 증거라고 보았다. 그는 교회란 기관이나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요 교제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어 “Gemeine”(현대 독일어는 “Gemeinde”)는 그가 교회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용어이다. 그의 신학에 관해 세 권을 저술한 헤르만 플리트(Hermann Plitt)은 구세주의 제자들, 초대교회 및 교부들로부터 현재까지 교회의 교제에 대한 이해의 발전을 추적하면서(Plitt, 1869-71) 교회의 본질을 영적이고 영원하며, 구성원들이 믿음과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서로 간에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 형태는 필연적으로 인간관계, 지역 및 시간에 종속된다고 보았다. 즉 공동체란 지역적인 동시에 보편적이며 영적 실재인 살아 있는 유기체를 의미했다. 각자는 자신의 교파에 머물지만, 그에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유하는 유대이다. 따라서 1790년까지 모라비안 교회는 루터파, 개혁파 그리고 모라비안적 정체성을 함께 유지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영적 분별도 강조하며 모든 성향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개방성과 함께 한계도 보았다. 가령 그는 록(Johann F. Rock, 1678-1749)²의 카리스마 넘치는 공동체에서 쓰러져, 떨고, 예언하고, 방언하는 열정적인 경건주의자들을 만났다. 그는 록을 존경하고 그런 현상을 무시하진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회의적으로 되었고 더 많은 비성경적 관행

2) 독일의 경건주의자이자 신비주의자였으며 분리주의적 영감 운동의 가장 잘 알려진 대표자였다.

이 신성한 권위로 설명되자 그들과는 거리를 두었다.

나아가 그는 지상 교회와 천상 교회 모두 한 공동체로 보았다. 이런 의미에서 헤른후트 성도들은 한 지체가 소천하면 지위에 무관하게 교회 옆 묘지인 하나님의 밭(Gottesacker)에 평등하게 묻힌다. 그리고 부활절이 되면 이곳에 함께 모여 묘지를 둘러싸고 장차 나타날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린다. 이런 그의 생각은 교회의 유기체성을 강조한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의 입장과 유사하며(최용준, 2012: 229-254) 한국 교회도 이런 생명력 있는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말년에 그는 ‘진젠도르프 백작’보다 단지 ‘루드비히 형제’로 불리기 원했으며 모라비안 교회를 형제교회(Brüdergemeinde)로 불렀다는 점에서 그의 겸손한 인격과 함께 루터의 만인제사장설에 기초한 성경적 평등사상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유교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 직분을 자칫 계급으로 인식하는 한국 교회에 경종을 울린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로 그는 성경의 각 책은 저자의 상황에서 쓰여 역사적으로 조건 지어져 있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말씀하기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하나님은 각 저자에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 이는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 주신 것과 다르며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모든 것을 알기를 기대하지 않으신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사람과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다양한 상호작용의 풍성함을 발견하며, 따라서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읽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기본 진리는 명확하게 주신 반면 성찬이나 종말적 사건들은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신비로 남겨 두시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찾는 지 알아야 한다. 우리는 기본 진리를 찾고 지식을 더 얻으려 노력할 수 있지만, 성경은 지식보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것이며 따라서 성경에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그는 강조한다(Freeman, 2011, zinzendorf.com/pages/index.php?id=zinzendorfs-theology).

이런 의미에서 그는 성경 묵상을 위해 1728년 5월 3일 소위 로중(Die Losungen) 사역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매일 성경 한 구절을 묵상하다가 나중에는 구약 및 신약에서 각각 관련 있는 한 구절을 제비뽑아 만드는데 1731년에 첫 인쇄본이 출판되었고 지금도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온라인으로도 검색할 수 있다(losungen.de). 현재 대부분 독일 개신교회와 기독교 단체는 경건의 시간에 이것을 사용하는데 한국 교회도 이를 더욱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5. 헤른후트 공동체의 발전

헤른후트 공동체가 발전하면서 진젠도르프는 초기 보헤미안 교회의 헌법인 권징 조례(Ratio

Disciplinae) 사본을 받게 되었다. 이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그는 형제 연합(Unitas Fratrum)의 신학과 헤른후트 교단 사이에 깊은 유사성을 발견하고 놀랐다. 그는 체코 출신의 저명한 기독교 교육학자인 코메니우스(John Amos Comenius, 1592-1670)의 글에 매우 공감했고 초기 공동체 연합에 그의 많은 생각을 적용했다(Taylor, 1967: 32). 그는 삶의 각 단계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영적인 필요가 있으며 구주와 교체하는 정도도 다름을 인정했다(Freeman, 1998: 262). 직분으로는 장로, 교사, 조력자, 감독자, 훈계자, 하인, 간호사, 자선 노동자, 경제 감독자 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직분 개념의 민주화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동 봉사하도록 참여시켰다. 그는 1741년까지 이 공동체의 대표로 섬겼으나 나중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심을 선포하였고 그 이후부터 식사 시간에 항상 주님의 자리를 비우는 관습이 있다. 나아가 세족식도 정기적으로 행하여 주님의 겸손과 섬김을 실천했다. 또한, 이 공동체는 “베들레헴의 별”을 만드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별은 지금까지도 독일 전역에 대림절부터 성탄절 기간 동안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상가에 걸려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재 이 공동체는 전 세계로 흩어져 소위 ‘모라비안 교회’로 불리며 백만여 명의 회원이 있다(www.moravian.org).

6. 음악 사역

진젠도르프는 예배시 음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약 2천 곡의 찬송을 작사했다(Zinzendorf, 1735). 따라서 모라비안 성도들의 찬송은 그들 신앙의 가장 특징적인 표현이다. 추가된 찬송가는 주로 18세기와 19세기 초에 작곡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모라비안 음악”이라고 부른다. 모라비안 교회당에는 제단이나 스테인드글라스 등 시각적으로 주의를 끄는 것이 없다. 전체 예배당이 흰색이며 회중이 앉는 의자와 뒤쪽에 있는 오르간이 전부이다. 따라서 그는 로마 가톨릭교회가 강조하는 시각적 요소보다 음악을 통한 청각적 요소를 더 강조했다. 이것은 그의 성경적 세계관이 반영된 것으로 아트우드(Craig Atwood)는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에서 “진젠도르프는 마음 종교의 진정한 언어는 노래라고 주장했다.... 그와 형제교회에게... 기독교 진리는 조직 신학과 논쟁이 아니라 시와 노래에서 가장 잘 전달된다”고 적절히 지적했다(Atwood, 1995: 136f). 모라비안 공동체 예배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찬양 시간이다. 대부분 찬송가로 구성된 예배는 다양한 찬송이 함께 짜여 그날 또는 행사의 특정 주제를 발전시켜 찬양 자체가 “노래로 된 설교”였다. 애찬식은 실제로 간단한 식사가 포함된 찬양이며 모라비안 성만찬은 성찬을 포함하는 찬양이 있다.

진젠도르프가 지은 많은 찬송가 중 대표적인 것 하나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Christi Blut und Gerechtigkeit)”이다. 그는 머리와 마음을 모두 사용하여 감동적인 가사를 생각해내었다. 즉, 그는

루터교적인 이성을 사용한 신학과 모라비안적 “마음의 종교”를 결합한 것이다. 그의 영향력이 현재 까지 모라비아 교회에서 계속되는 것은 예배를 위한 찬송가와 신앙적 가사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음악 때문이다. 18세기부터 지금까지 모라비안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찬송가 들과 성악곡을 만들어 왔다. 따라서 그들의 신앙은 이 찬송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며 진젠도르프 는 이를 통해 공동체에 더욱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이는 현대에도 음악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각성시켜 준다.

7. 여성 사역

진젠도르프는 교회에서 여성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했고 그 결과 비판도 받았다. 가령 초기 모라비안 성도 중 안나 니츠만(Anna Nitschmann, 1715-1760)은 1727년 8월 13일의 부흥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당시 12살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고 젊은 여성들을 모아 예배와 사역을 위한 모임을 조직했다. 그러자 그녀는 지도자들의 주목을 받아 18세에 리더로 지명되었고 그녀는 18명의 독신 자매가 결혼도 미룰 정도로 그리스도께 철저히 헌신하도록 이끌었으며 그 결과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용감한 선교사들이 되었다. 안나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가서 베들레헬과 나사렛이라는 도시의 건립을 도왔으며 다양한 원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선교했다(zinzendorf.com/pages/index.php?id= moravian-women).

여성을 찬송가 작가로 간주하지 않던 시대에 그녀는 모라비안 독일 찬송가에 30곡 이상을 썼다. 그녀는 결혼 제안을 두 번 거부했으나 진젠도르프의 아내가 소천한 지 1년 후, 그가 청혼하자 동의했다. 그녀는 평민이었고 진젠도르프는 귀족이었지만 헤른후트 공동체 내에서는 모두가 평등했고 이들은 1757년 6월에 결혼했다.

하이트(Johann Valentin Haidt)가 그린 아래 1750년 헤른후트에서 열린 총회 그림은 당시 여성의 역할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준다. 중앙에는 여성을 포함한 주요 지도자들이 테이블 주위에 모여 있다. 진젠도르프의 첫 번째 아내가 옆에 있는데 그녀는 재정 업무를 담당했고 안나는 그녀 왼쪽에 있으며 교회의 여성 지도자가 되었다. 안나의 왼쪽에 있는 피취(Anna Johanna Pietsch)는 독신 자매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처럼 여성들도 모라비안 교회 총회의 회원으로 토론과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여성들도 집사, 장로와 사역자로 선임되어 예배를 인도하고 합창단을 위해 설교도 했다. 이처럼 여성 사역이 가능하게 한 것은 진젠도르프의 성경적 세계관 때문이었다. 하지만 남성이 여성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했다는 것도 분명한데 중앙 테이블에 앉은 24명 중 여성은 6명뿐이었고 그는 중앙에 있다.



그림-2 하이트(Johann Valentin Haidt)의 그림: 헤른후트 총회
zinzendorf.com/pages/data/uploads/decree_lg.jpg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종교적 필요를 가졌다고 그는 보았다. 1730년대부터 그들은 “합창단”을 결성하되 단원들을 어린 소년 소녀, 나이 많은 소년 소녀, 독신 형제와 자매, 기혼 형제와 자매, 홀아비와 과부 그룹으로 나누었다. 각 합창단의 예배는 단원에게 가장 적합한 구주의 삶을 강조했다. 가령, 아이들은 예수의 어렸을 때 모습에 대해 배웠고 독신 형제는 독신인 예수께 초점을 맞췄다. 자매 합창단은 예수를 영적 남편으로, 마리아를 그리스도가 인간이 된 때체로 강조했다. 이것은 합창단원들의 영적 성장을 격려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고 그 결과 구성원이 여성이면 지도자도 여성이어야 했다. 여성 지도력이 필요한 이유는 영적 성장을 위해 목회자와 신자 사이에 요구되는 친밀감과 동시에 부적절한 관계가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교회 여성들은 이것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여 리더를 존경하고 사랑했으며 리더 자신도 중요한 책임을 수행할 기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주었다. 그들은 맡은 직책을 넘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의 모델로 공동체를 섬겼다(zinzendorf.com/pages/index.php?id=moravian-women).

진젠도르프는 여성이 남성보다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일 가능성은 적고 구주와의 관계에서 기쁨과 사랑을 느낄 가능성은 더 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여성의 본성에 관해서는 여성이 속이는 원죄를 가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았다. 그는 남자도 원죄가 있지만, 여자보다 덜 해롭다고 생각했는데 정욕은 너무나 명백한 죄악이어서 남자들이 구세주의 도움을 구해야 하지만, 여자들은 자신이 선하다고 착각하도록 스스로 속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zinzendorf.com/pages/index.php?id=moravian-women).

여성의 지도력에 대한 그의 옹호는 전적으로 신앙적 필요성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그가 여성의 역할을 지나치게 장려하여 교회 내외적으로 비판도 받았다. 그리하여 1760년 그가 소천한 후 여성의 지도력과 이를 지원하는 관행은 없어졌다. 하지만 그의 여성 사역에 관한 입장은 매우 창의적이고 혁신적이었으며 시대를 앞서갔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 교회 내에서도 아직 여성의 사역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필자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더욱더 개방된 자세와 여성을 평등한 동역자로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8. 세계선교사역

헤른후트 공동체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면서 1727년에는 형제들이 예나(Jena)와 덴마크로, 1728년에는 런던으로 파견되었다. 1731년에 진젠도르프는 덴마크 국왕 크리스치안 6세(Christian VI, 1699-1746)의 대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코펜하겐을 방문하였는데 거기서 만난 서인도 제도의 성 토마스(St. Thomas) 섬에서 온 노예 앤토니 울리히(Anthony Ulrich)를 헤른후트로 데려왔다. 그 섬에 관한 보고를 듣고 그는 1732년에 요한 도버(Johann Leonhard Dober)와 데이비드 니츠만(David Nitschmann)을 선교사로 파송하였는데 그들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노예가 되는 ‘성육신적 선교’ 모델을 보여주었다. 1735년에는 북미의 조지아와 남미 수리남, 1737년에는 남아프리카와 서부 아프리카 골드 코스트 그리고 1754년에는 자메이카에도 선교사를 파송했다. 이처럼 이들은 부흥을 경험한 후 15년 이내 복음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 가서 선교하여 전 세계 28개 지역에 선교부를 세웠다. 진젠도르프도 1736년 작센에서 추방당하자 성 토마스 섬을, 1741년에는 펜실베이니아를 방문하여 원주민인 이로쿼이족 지도자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고 그 지역에서 모라비아 선교사들의 자유로운 이동에 합의했다.

1760년 진젠도르프가 소천할 때 헤른후트 공동체는 약 300명으로 창립된 지 38년, 첫 선교사를 파송한 지 28년 만에 226명의 선교사를 파견하고 3,000명 이상의 개종자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것은 당시에 가장 큰 개신교 선교사역이었으며 그의 모든 관심은 선교와 갱신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모라비안 성도를 별도의 교단이 아니라 기존 교단을 활성화하고 선교 분야에서 새로운 사역을 창출하는 역동적 도구로 보았다. 그 결과 펜실베이니아에서 그들은 정착민과 아메리카 원주민을 위한 교회와 학교를 시작한 후 루터교회, 개혁교회 또는 그 지역에 가장 강력한 교단에 넘긴 경우가 많았다.

“난민에서 선교사로”. 필자는 진젠도르프가 섬긴 헤른후트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고향을 떠난 이후 그들은 참회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했고 계속해서 말

숨과 기도로 깨어있자 성령께서는 결국 초대교회처럼 그들을 흠어 땅끝으로 보내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교단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모습은 한국의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도전을 주고 있다.

9. 진젠도르프의 유산과 평가

진젠도르프가 소천한 후 모라비아 교회는 1764년 헤른후트에 있는 성과 영지를 인수했으며 그들 중 일부는 이미 1737년 현재 베를린의 노이퀼른(Neukölln) 지역인 뵘미슈-릭스도르프(Böhmisch-Rixdorf)로 이사했다. 그는 덴마크의 키르케고르(Søren A. Kierkegaard), 독일의 노발리스(Novalis)³, 레싱(Gotthold E. Lessing),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헤르더(Johann G. Herder) 및 슈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와 같은 신학자들과 시인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19세기 유럽의 부흥 운동에 큰 자극을 주었다. 그 결과 그는 5월 10일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에 의해 찬송가 작가이자 교회의 갱신자로 기념되고 있다. 나아가 독일에는 그의 이름을 딴 거리명이 헌정되었으며 일부 교회 및 학교도 그의 이름을 인용했다. 2000년에는 그의 탄생 300주년 기념 우표가 독일에서 발행되었고 지금까지도 그의 성경적 세계관과 사역은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 또한, 2024년 7월 26일 헤른후트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그도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가 당시의 사회 구조를 비판 없이 수용한 것이다. 가령, 그가 모든 특권과 권력을 가진 귀족 가문에 태어난 것을 신적 섭리로 여기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충실히 사용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평민은 그들의 운명에 따라 태어났고, 그것 또한 신적 계획이며 노예도 마찬가지로 주인에게 가능한 한 최고의 노예가 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신앙이 있는 아프리카 노예나 아메리카 원주민을 영적으로는 동등하게 대하면서도 - 이것 또한 당시에는 매우 급진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 그는 노예 제도 자체를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다. 만약 그렇게 할 경우, 모라비아 선교사들이 카리브해의 노예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 모라비아 선교사들은 노예 제도에 반대하기 위해 비밀리에 활동하면서 영국에서 노예제 폐지에 헌신한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와 다른 폐지론자들에게 노예 생활이 어땠는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zinzendorf.com/content/who-was-count-zinzendorf/).

3) 노발리스(Novalis, 1772-1801)는 독일의 시인이자 철학자이다. “노발리스”는 필명으로, 그의 본명은 게오르크 폰 하르텐베르크 남작(Georg Friedrich Freiherr von Hardenberg)이다. 그의 작품들은 초기 낭만주의의 대표적 작품으로 평가된다.

III. 결론

진젠도르프는 슈페너 및 프랑케와 함께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로 18세기에 세상을 변화시킨 믿음의 지도자였다. 무엇보다 먼저 그는 박해받던 개신교 난민을 자신의 영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는 귀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겸손히 섬겨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고 마침내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귀한 열매를 맺었다. 그의 신앙은 신학과 이성 중심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살아 있는 주님과 관계를 가장 우선하는 생명력이 있었다. 그는 성경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소위 ‘로중(losung)’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켰다. 또한, 그가 기도의 능력을 믿어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체인을 만들어 중보기도 운동을 100년 동안 지속했다는 것은 놀라운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그는 음악 사역에 깊은 조예를 가지고 발전시켰는데 그의 사역은 여러 면에서 매우 독창적이며 혁신적이었다. 특히 그는 교파를 초월하여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추구하였으며 여성 사역에 대해서도 열린 시대의 선구자였다.

그의 사상과 사역은 현재 한국의 교회에도 깊은 교훈을 준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 교단과 교파로 분열된 한국 교회가 화해하고 일치하도록 그는 계속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아울러 난민들을 자신의 영지로 받아들인 그의 관용과 사랑 그리고 섬김은 우리도 기억하면서 본받아 주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난민들에게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 적용하는 운동을 일으켜 이원론적 세계관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100년간 지속해서 기도한 모범을 기억하면서 한국 교회에 기도의 등불이 식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헤른후트의 형제자매들이 전 세계로 나가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그 지역 사회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한국 교회 또한 복음을 총체적으로 전하는 사역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아쉬운 점은 그가 프랑케가 힘쓴 교육 사역에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이다(최용준, 2017: 245-270). 그는 찬송가나 설교집(Zinzendorf, 1749) 이외에 많은 학문적 저작을 남겼으며(Zinzendorf, 1741, 1749) 초등학교를 세워 가난한 어린이들과 여학생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주었고 나중에는 김나지움도 세웠으나 프랑케처럼 대학 같은 고등교육기관을 통해 청년들을 주님의 일군으로 키우지는 못한 것이 아쉽다. 또한, 그의 딸인 베니나(Benigna)가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베들레헴에 모라비안 대학을 세웠고 지금은 모라비안 대학교로 발전했지만, 그가 유럽에서도 이러한 교육 사역을 발전시켰다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의 사후에 헤른후트 공동체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했다. 한국 교회도 이 기독교 교육 사역을 등한히 한다면 다음 세대

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할 때 한국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이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김현진 (2019). 독일 헤른후트 공동체의 선교 연구. 선교신학, 제56호, 213-252.
- 백현덕 (2023). 헤른후트(Herrnhut) 공동체를 통해 본 한국교회 소그룹 방향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 오현기 (2012). 귀츨라프의 선교신학에 나타난 진젠도르프의 헤른후트주의의 영향에 관한 연구. **복음과 선교**, 제20권 4호, 237-278.
- 오현기 (2014). **굿 모닝, 귀츨라프: 한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서울: 북코리아.
- 오현기 (2024). **귀츨라프 ON 고대도: 1832년 한국 개신교 최초 선교지 찾기 프로젝트**. 서울: 북코리아.
- 정준기 (1992). 니콜라스 진젠도르프에 관한 연구. **광신논단**, Vol. 4 No.- [1992], 187-203.
- 최용준 (2006). **하나됨의 비전**. 서울: IVP.
- 최용준 (2012). 아브라함 카이퍼의 교회관. **신앙과 학문**, 제17권 2호 (통권 51호), 229-254.
- 최용준 (2017). A. H. 프란케의 교육사상과 그 영향에 관한 고찰. **신앙과 학문**, 제22권 1호 (통권 70호), 245-270.
- Atwood, C. (1995). *Blood, Sex, and Death: Life and Liturgy in Zinzendorf's Bethlehem*, Doctoral Dissertation.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 Brecht, M. und Peucker, P. (2005). (Hrsg.) *Neue Aspekte der Zinzendorf-Forschun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 Breul, W. (2023). *Die Herrnhuter Brüdergemeine im 18. und 19. Jahrhundert: Theologie - Geschichte - Wirkung* (Arbeiten zur Geschichte des Pietismus) Gebundene Ausgabe, Vandenhoeck & Ruprecht
- Ense, K. A. V. von. (2019). *Leben des Grafen Ludwig von Zinzendorf*. Bremen: Inktank.
- Faix, W. (2012). *Zinzendorf-Glaube und Identität eines Querdenkers*. Marburg: Francke.

- Freeman, A. J. (1998). *An Ecumenical Theology of the Heart*. Bethlehem, PA: Moravian Church in America.
- Freeman, A. J. (2011). Zinzendorf's Theology: A Gift to Enable Life. *Moravian History Magazine* No. 18, ed. By J. and E. Cooper, Glengormley, Co. Antrim, N. Ireland.
Retrieved from <http://zinzendorf.com/pages/index.php?id=zinzendorfs-theology>
- Geiger, E. (2009). *Nikolaus Ludwig Graf von Zinzendorf*. 4. Auflage. Holzgerlingen: SCM Hänssler.
- Herzler, H. (2010). *Der das Herz der Liebe hat. Nikolaus Ludwig Graf von Zinzendorf - der "Vater" der Losungen*. Biografisches Hörbuch auf 2 CDs, ca. 150 Minuten, Gerth Medien, Februar.
- Ludwig, R. (2010). *Der Herrnhuter. Wie Nikolaus von Zinzendorf die Losungen erfand*. Berlin: Wichern Verlag.
- Lückel, U. (2016). *Adel und Frömmigkeit. Die Berleburger Grafen und der Pietismus in ihren Territorien*. Siegen: Verlag Vorländer.
- Meyer, D. (2009). *Zinzendorf und die Herrnhuter Brüdergemeinde. 1700-2000*.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 Peucker, P. (2021). *Herrnhut 1722-1732: Entstehung und Entwicklung einer philadelphischen Gemeinschaft* (Arbeiten zur Geschichte des Pietismus) Paderborn: Brill Deutschland.
- Plitt, H. (1869-71). *Zinzendorfs Theologie*, Volume 1-3. Gotha: Perthes.
- Pfister, O. (2019). *Die Frömmigkeit des Grafen Ludwig von Zinzendorf*. Bremen: Inktank.
- Reimann, C. (2019). *Die Tagebücher des Grafen Casimir zu Sayn-Wittgenstein-Berleburg (1687-1741) als Selbstzeugnis eines pietistischen Landesherrn*. Dissertation 2017 Kassel: Kassel University Press.
- Richter, P. (2018). *Graf Nikolaus Ludwig von Zinzendorf 1700-1760: Kurzbiografie*. Langerwehe: Folgen Verlag.
- Schneider, H. (2004). *Zinzendorf.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Band 36. Berlin/New York: De Gruyter, 691-697.
- Smaby, B. P. (2011). "Moravian Women during the Eighteenth Century"
<http://zinzendorf.com/pages/index.php?id=moravian-women>
- Spangenberg, A. G. (1772-1775). *Leben des Herrn Nicolaus Ludwig Zinzendorf*, Barby.

Taylor, H. J. & Hamilton, K. G. (1967). *The History of the Moravian Church*. Bethlehem, PA: Moravian Church in America.

Vogt, P. (2006). Gloria Pleurae! Die Seitenwunde Jesu in der Theologie des Grafen von Zinzendorf. *Pietismus und Neuzeit*. 175-212.

Weinlick, J. (1956). *Count Zinzendorf*. New York and Nashville: Abingdon Press.

Zinzendorf, N. L. von. (1735). *Teutscher Gedichte Erster Theil*. Herrnuth: Waisenhaus.

Zinzendorf, N. L. von. (1741). *Neueste Theologische Bedencken*, Schreiben und Kirchliche Urkunden. Leipzig: Fuchs.

Zinzendorf, N. L. von. (1749). *Zweiunddreißig einzelne Homilien oder Gemeinere den in den Jahren 1744-46*. Görlitz.

Zinzendorf, N. L. von. (1749). *Der Evangelisch-Mährischen Kirchen-Diener Abgenöthigte Gewissens-Rüge für den Verstand und Willen dererjenigen unter ihren Gegnern, welche sich zur Evangelischen Religion bekennen, und die Brüder so bitter anfeinden*. Leipzig und Görlitz: Marcheschen Buchhandlung.

Zinzendorf, N. L. von. (1751). *Verliebtheit eines Sünders gegen die Wunden Jesu*. Görlitz.

losungen.de (2024년 11월 20일 검색)

www.24-7prayer.com (2024년 11월 19일 검색)

www.moravian.org (2024년 11월 21일 검색)

zinzendorf.com (2024년 11월 22일 검색)

zinzendorf.com/pages/data/uploads/domenico.jpg (2024년 11월 21일 검색)

zinzendorf.com/pages/index.php?id=ecce-homo (2024년 11월 22일 검색)

zinzendorf.com/pages/data/uploads/decree_lg.jpg (2024년 11월 22일 검색)

zinzendorf.com/content/who-was-count-zinzendorf (2024년 11월 23일 검색)

zinzendorf.com/pages/index.php?id= moravian-women (2024년 11월 23일 검색)

진젠도르프의 성경적 세계관과 사역에 관한 고찰

A Research on Zinzendorf's Biblical Worldview and Work

최용준 (한동대학교)

논문초록

본 논문은 진젠도르프 백작의 성경적 세계관과 사역에 관한 고찰이다. 그는 슈페너 및 프랑케와 함께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로 18세기에 세상을 변화시킨 신앙의 지도자였다. 먼저 그는 박해받던 체코의 개신교 난민들을 자신의 영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분열을 극복하고 연합하게 한 후 마침내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는 귀한 열매를 맺었다. 그의 신앙은 신학과 이성 중심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살아 있는 주님과와의 관계를 가장 우선하는 생명력(vitality)이 있었다. 그는 성경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소위 '로중(losung)'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켰으며 동시에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에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기도 체인을 만들어 중보기도 하는 운동을 100년 동안 지속했다. 나아가 음악 사역에 깊은 조예를 가지고 발 전시키는 등 그의 사역은 매우 창의적이었고 혁신적이었다. 또한, 그는 교파를 초월하여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추구하였으며 여성 사역에 대해서도 일찍 눈을 뜬 시대의 선구자였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결론적으로 그의 유산이 현대 한국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 제시한다.

주제어: 진젠도르프, 헤른후트, 로중, 기도, 세계 선교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 개념분석*

Concept Analysis of Postpartum Depression in Marriage Immigrant Women

박정숙 (Jung Suk Park)**

손원미 (Won Mi Son)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clarify its meaning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ncept of postpartum depression of marriage migrant women, and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analysis method of Walker and Avant. Postpartum depression of marriage migrant women had decisive attributes such as 'negative thoughts and emotions caused by lonely childbirth in unfamiliar countries', 'physical symptoms caused by emotional instability,' 'psychological pressure caused by cultural differences', and 'a sense of isolation caused by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with the support system'. It was confirmed that they had a psychological burden of parenting due to other cultures, felt alienated and isolated from their surroundings, and experienced mental stress caused by changes in the burden and role of newborn care after childbirth. Through the attributes of postpartum depression of marriage migrant women derived from this study, basic data were presented for the development of terms in the field of maternal health in the community, and it was found that marriage migrant women need to understand their lives about postpartum depression. In addition, it is significant that it can be used to establish policies for the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maternal health in the community as well as for marriage migrant women who have difficulty expressing their feelings.

Key words: marriage immigrant women, postpartum depression, concept analysis

* 2024년 11월 4일 접수, 11월 28일 최종수정일, 11월 28일 게재 확정.
이 연구는 2024년 고신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고신대학교(Kosin University) 간호대학 부교수, 부산 서구 감천로 262, cooler1978@kosin.ac.kr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부산 서구 감천로 262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sonwm13@naver.com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인구 약 5,200만 명 중 체류 외국인은 약 259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4.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결혼이민자 체류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67,643명, 2021년 168,711명, 2024년 176,971명으로 보고되며 결혼이민자 176,971명 중 여성이 142,116명(80.3%), 남성은 34,855명(19.7%)으로 결혼이민자의 대다수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이민자 증가로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 데 여성 결혼이민의 유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안나·강영신, 2020).

결혼이주여성은 이주와 동시에 바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며 이주 후 평균 1년 3개월 만에 첫 자녀를 출산한다(김순옥 외, 2016). 이들은 잇따라 육아와 타문화 적응이라는 이중고를 겪고(배타마라, 2021) 아내와 며느리 역할까지 감당하며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을 갖는다. 이러한 다양한 부담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은 정서적 스트레스나 우울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양옥경·김연수, 2007). 이는 자존감 상실로 이어져 결혼생활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한다(강현준·박천만, 2019).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서 임신, 출산, 육아를 경험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과 스트레스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 나아가 우리 사회에도 직접적 및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사회를 맞이한 우리 사회의 보건 문제로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조원섭·유승현, 2017).

한편, 산후우울은 출산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정서장애이며, 가벼운 산후우울(postpartum blues)에서 산후우울증(postpartum depression), 산후정신병(Postpartum psychosis), 그리고 조현병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산후우울증은 대개 발병 3~6개월 후면 호전되나 약 30.6%에서 2년 넘게 지속된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적절히 예방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적인 우울증으로 악화될 수 있다(Horowitz et al, 2010). 이에 비교적 경한 산후우울감이라 할지라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은 신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며,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신다. 크리스천들은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이웃의 고통을 이해하고 돕는 책임이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고립될 수 있어, 교회와 크리스천 공동체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산후우울에 대한 1990년대 연구 결과들을 메타 분석한 Beck(2001)에 따르면, 산전 우울, 자아존중감, 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산전 불안, 생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결혼 관계, 과거의 우울 경험, 영아 기질, 어머니의 우울감, 결혼 상태, 사회경제적 요인, 원하지 않았거나 계획하지 않은 임신 등이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 한국에서 이루어진 Park외의 연구(2004)에서는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지지가 산후우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Yeo(2006)에 따르면 배우자 지지, 모성자존감, 결혼적응도 등이 출산 6개월 후의 산후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 중 산후우울에 관해서 살펴보는 것은 결혼이주여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모성 건강관리 및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 (2011)의 개념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에 대한 개념과 속성을 파악하고 정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개념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지역사회 모성건강분야의 실무와 연구수행 및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수립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산후우울의 개념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Walker와 Avant(2011)의 개념분석 방법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에 관한 결정적 속성을 규명하고 그 의미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모성건강 및 상담분야 등의 진단과 실무 및 용어 개발을 비롯해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인 지역사회로의 통합된 산후우울에 필요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문헌연구와 분석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의 활용을 확인한다.
- 2)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의 결정적 속성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모델사례를 기술한다.
- 3)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에 대한 선행요건과 결과를 규명한다.
- 4)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에 대한 경험적 준거의 진술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 개념의 속성이 실제적 유형으로 존재하는지 인증해 보인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문헌과 선행연구 조사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 개념 분석을 위해 Walker와 Avant(2011)의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그 개념이 가진 속성을 규명하고자 수행된 개념분석 연구이다. 본 연구 방법은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실재를 대변할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해 주며 현존하는 개념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이론적 정의 규명에 도움이 되어(Walker & Avant, 2011) 실무적 진단과 이론의 개발, 정책 수립의 개념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에 본 연구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문헌조사 범위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표된 한국의 ‘결혼이주여성’ 또는 ‘다문화가정’과 ‘산후우울’에 관한 사전적 정의, 이론적 정의 및 선행 연구들이다. 인터넷 베이스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4u.net)을 활용해서 검색된 학회지 게재 논문 및 학위논문들을 분석에 이용하고 CINAHL과 PubMed에서 제공하는 DB를 이용하여 검색된 문헌들을 고찰하여 연구에 이용 하였다. 검색된 문헌들 중 연구가 한국어와 영어 외의 언어로 쓰였거나 원문이 검색되지 않는 출판물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산후우울을 주제로 하더라도 한국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비롯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산전 우울 등을 다룬 연구 등 주제와 관련성이 낮거나 특정 주제를 다룬 논문은 분석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문헌은 한국의 학위논문 4편, 학술지 논문 1편, 한국을 제외한 외국 논문 6편이 선정되었다(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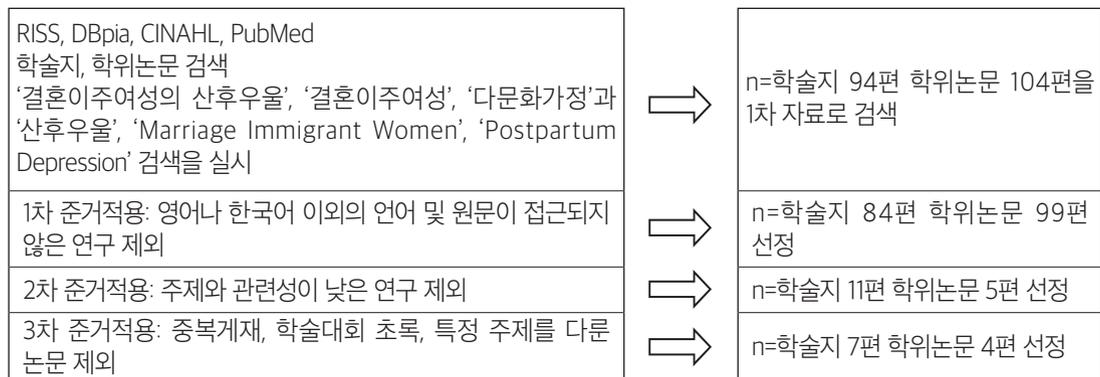


Figure 1. Flow chart of study selection.

3. 개념분석 과정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의 개념적 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념과 관련된 문헌고찰을 통해 문헌에서 나타나는 개념의 특징들을 분류하고 확인하였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개념 선정
- 개념분석을 하는 목적 결정
- 가능한 모든 범위 내에서의 개념사용을 확인
- 개념에 대한 결정적 속성의 추출
- 개념의 모델사례, 반대사례, 유사사례, 연관사례를 제시
- 개념의 선행요건과 결과를 규명
- 경험적 증거 결정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론 및 개념 분석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2명의 연구원이 자료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자료 내에서의 맥락적 의미, 개념의 의미와 속성, 활용 등에 대해 논의하고 분석하며 의미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그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에 대한 주제어를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산후우울’, ‘Marriage Immigrant Women’, ‘Postpartum Depression’으로 선정하여 검색하였다. 그 다음으로 개념 분석을 시도하는 목적에 대해 다시 떠올려 보고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이라는 개념이 여러 사회문제와 연관되어 주목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그 의미가 희석되거나 다양하고 불분명한 정의적 속성으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그 후 선정된 개념의 사용을 확인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문헌을 검토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에 대한 속성을 추출할 수 없는 것들은 분석 자료에서 제외한 후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다음 단계로 최종 선정된 자료들의 내용을 연구자들이 검토한 후 각 분야별로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의 속성을 분석하고 그 속성을 기반으로 개념을 명확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념의 필수 양상을 이해시키며, 유사한 개념사용과 혼돈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델, 반대, 경계, 관련된 사례를 제시하였다(Walker & Avant, 2011). 또한 선정된 자료들의 분석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에 관한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를 규명하고 경험적 증거를 확인한 후 정의를 제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의 연구는 Walker와 Avant(2011)가 제시한 것과 같이 대상개념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파악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편견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에 대한 개념 사용 확인

1) 사전적 정의

결혼이주여성의 개념의 구성 단어인 ‘결혼’ ‘이주’ ‘여성’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결혼(結婚, marriage)’은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음을 뜻하고 ‘이주(移住, Immigration)’는 본래 살던 집에서 다른 집으로 거처를 옮김, 개인이나 종족, 민족 따위의 집단이 본래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정착함을 뜻하며 ‘여성(女性, woman)’은 성(性)의 측면에서 여자를 이르는 말로 정의되어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복합적인 단어로 세 단어의 사전적 의미만을 조합해 보면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어 본래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정착한 여성’으로 정의할 수 있었다. ‘결혼이주여성(結婚移住女性, Marriage Immigrant Women)’은 우리말샘에 따르면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여 본래 살던 국가를 떠나 한국에 정착한 여성’으로 정의되고 있다(국립국어원, 2024).

산후우울의 개념의 구성 단어인 ‘산후’와 ‘우울’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산후(産後, Postpartum),’ 아이를 낳은 뒤를 뜻하며 ‘우울(憂鬱, Depression)’은 근심스럽거나 답답하여 활기가 없음, 반성과 공상이 따르는 가벼운 슬픔으로 정의되어 있다(국립국어원, 2024). ‘산후우울(産後憂鬱, Postpartum Depression)’은 복합적인 단어로 두 단어의 사전적 의미만을 조합해 보면 ‘아이 를 낳은 뒤 근심스럽거나 답답하여 활기가 없음, 반성과 공상이 따르는 가벼운 슬픔’이라 정의할 수 있었다. ‘산후우울(産後憂鬱, Postpartum Depression)’은 우리말샘에 따르면 산후 3~6일 이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비교적 가볍고 일시적인 우울증상으로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쉽게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양상을 보이며 여성의 85%가 경험한다고 하였다.

2) 타 학문에서의 개념 사용

산후우울 대한 사용 범위는 여러 영역에서 그 의미를 정의하고, 그 의미를 이용하여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종교적 관점에서는 산후우울은 단순한 질환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 일반적으로 산후 우울증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기분 장애로 정의되지만, 성경에서는 이러한 감정 상태를 보다 깊이 있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레미야 4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결과로 나타나는 고통과 심판을 다루며, 이는 인간의 악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예레미야의 슬픔은 멸망하는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산후우울의 증상과 유사한 감정을 겪지만, 이는 죄악의 결과나 긍휼의 마음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요게벳이 모세를 낳으며 겪었던 고통(출애굽기 2:1-10)은 결국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종교적 관점에서 산후우울은 개인의 죄악의 결과, 긍휼에서 비롯된 마음의 상태,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감정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질병이 아닌 복의 과정으로 여겨져야 한다(홍석현, 2007).

사회학에서 출산 후 발생하는 산후우울은 산후우울감(postpartum blues)과 산후우울증(postpartum depression)으로 구분되며 산후우울감은 산후 우울증에 가장 약한 형태로 약 85%의 산모가 경험하는데 특히 경산모에 비해 초산모가 더욱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하였다(Newport et al, 2002). 산후우울감은 대체로 분만 2~4일 내에 시작되어 4일째에 최고조에 다다르고, 10일이 지난 후 나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산후 우울증(postpartum depression)은 출산 후 4주 이내에 심해지는 우울감과 관련된 증상으로, 정서적 기분 변화부터 심각한 정신적 장애인 근심, 침울함, 실패감, 무력감 및 무가치감 등을 포함한다. 산후 우울감과는 달리,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할 경우 영아 살해에 대한 강박적인 생각이나 심한 불안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을 필요로 할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다. 산후 기간(postnatal period) 또는 산욕기(puerperium)는 일반적으로 분만 후 6주간으로 정의되며, 이 시기는 여성이 임신 및 분만으로 변화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과정이다(이소영 외 2015). 따라서 산후우울을 경험하는 기간은 최소 출산 후 6주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역학적 관점에서 산후우울증은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며(Wisner·Piontek, 2002), 출산 후 6개월 이내의 우울장애로 정의되기도 한다(Forty et al. 2006). 최근 전문가들은 산후우울증을 출산 후 1년 이내에 나타나는 우울장애로 정의하며(Stuart-Parrigon·Stuart, 2014),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산후 1년 동안의 산모를 대상으로 예방 및 치료 개입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산후우울증의 발생 기간이 출산 후 12개월(박영주 외, 2004)에서 24개월(안영미·김정현, 2003)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의학에서 산후우울은 출산 이후에 우울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산후우울감(postpartum blues), 산후우울증(postpartum depression), 산후정신병(postpartum psychosis)으로 분류된다.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제5판 (DSM-5)에서 산후우울(Postpartum Depression, PPD)을 우

울장애(Depressive Disorders)의 하위범주인 명시되지 않은 우울장애(Unspecified Depressive Disorders)에 포함되는 ‘주산기 발병 동반 명시자’로 구별하였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산후우울감은 40~80%의 산모가 경험하는 흔하고 경미하고 일시적인 기분 장애로 산후우울의 가장 약한 형태이다(Buttner et al, 2012). 일반적으로 분만 후 2~5일 내에 시작될 수 있으며 보통 10~14일 이내에 자연적으로 호전되어 산모의 역할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산후우울증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Newport et al, 2002).

3) 간호문헌에서의 개념 사용

간호학에서 산후우울은 출산 후 어머니가 경험할 수 있는 감정 변화로, 가벼운 기분 변화부터 심각한 근심, 침울함, 실패감, 무력감 및 무가치감까지 포함된다(Cox et al, 1987). 이는 산욕기 여성과 그 가족에게 중요한 건강 문제로 여겨지며(김윤미·안숙희, 2015), 여러 변수에 따라 산후 우울감, 산후 우울증, 산후 정신병으로 나눌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산후우울감은 대다수의 산모(50~70%)가 경험하는 우울한 기분으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로 간주한다. 산후우울증은 중증도에서 심각한 정도까지 이르며, 산모와 영아 간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후 정신병은 우울, 망상, 그리고 아거나 자신에게 해를 가하려는 생각을 특징으로 하며, 자살이나 아기를 해치려는 생각을 가진 산모는 이러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여성건강간호교과연구회편, 2016).

문헌고찰 결과 산후우울은 종교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조명되었고, 출산 이후 산모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차원에서 경험되며 사회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산후우울에 관해 질병이 아닌 산후우울을 겪는 산모에게 중점을 두면서 전인적인 접근이 필요한 요소임을 드러내고 가벼운 기분 변화부터 심각한 정신적 장애인 근심, 침울함, 실패감, 무력감 및 무가치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서, 신체적 증상, 사회적 고립감, 부정적 사고를 내포하여 전체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4) 결혼이주여성 관련 연구에서의 개념 사용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에 관한 연구(최은영 외 2011)에서는 베트남 여성과 한국 여성의 인구학적 및 산과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산후우울 비교 시 동거가족 형태만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 여성은 시부모와의 거주 및 언어 소통 문제로 우울이 유발될 수 있다. 산후우울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결혼형태, 남편과의 관계, 임신 중 정서 상태 등이 있으며,

베트남 여성의 한국어 능력이나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국여성은 산후우울 도구인 EPDS(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의 특정 문항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반면 베트남 여성은 정서적 슬픔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 여성과 베트남 여성 모두 전반적으로 산후우울의 발생률이 높았으며 산후우울을 겪는 여성의 30% 이상이 중등도 이상의 우울 증상을 보였다. 연구에서는 임신 중 정서 상태가 산후우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출산 후 6개월 이하의 베트남 여성이 한국 여성보다 우울 경향이 높았다(최은영 외, 2011).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 초기 차별과 혼란을 겪으며 이방인으로서 소외를 느끼고 경제적 안정과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국제결혼을 선택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망했다. 남편과 시부모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속에서 무시당하기도 하고 이웃으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으며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신체적 고통과 정서적 불안정이 결혼이주여성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하였다(임현숙, 2011).

2.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에 대한 잠정적 기준 목록과 속성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 개념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문헌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잠정적 기준 목록과 속성이 확인되었다.

1)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에 대한 잠정적 기준 목록

- (1) 출산으로 인해 침울함과 슬픔을 경험하는 것이다(최은영 외, 2011 ; 오애영, 2011 ; 차효성, 2019).
- (2) 낯선 타국에서 외로운 출산 후 막막하고 불안을 경험하는 것이다(최은영 외, 2011 ; 오애영, 2011; 차효성, 2019).
- (3) 감정적 변화와 더불어 입맛이 없고 피로하며 불면을 경험하는 것이다(오애영, 2011 ; 차효성, 2019 ; Chen, Chien, 2020).
- (4) 다른 문화로 인해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는 것이다(최은영 외, 2011 ; 오애영, 2011 ; 차효성, 2019 ; Chen et al, 2022).
- (5)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 주변으로부터 소외감과 고립감을 경험하는 것이다(오애영, 2011 ; 이원심, 2013 ; 차효성, 2019 ; Chen et al, 2022 ; Chen et al, 2016).
- (6) 출산 후 아기 돌봄의 부담과 역할변화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이다(오애영, 2011 ; 이원심, 2013 ; 차효성, 2019 ; Thu, 2021).

2)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 개념의 결정적 속성 확인

Walker와 Avant(2011)에 따르면 속성을 정의하는 것은 개념을 설명할 때 자주 드러나는 현상과 특징이며 이것은 타 개념과 구분하는 것을 돕는다고 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문헌을 고찰한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은 낯선 타국에서 외로운 출산으로 인해 침울함과 슬픔, 막막함과 불안을 경험하며 감정적인 변화와 더불어 입맛이 없고 피로하며 불면 등 다양한 신체적인 증상을 경험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문화로 인해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며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 주변으로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끼며 출산 후 신생아 돌봄의 부담과 역할변화로 인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파악된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에 대한 속성은 다음과 같다.

- (1) 낯선 타국에서 외로운 출산으로 인한 부정적 사고와 감정 (잠정적 기준목록 (1), (2))
- (2)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 (잠정적 기준목록 (1), (2), (3), (4))
- (3) 문화적 차이로 인한 심리적 중압감 (잠정적 기준목록 (2), (4), (6))
- (4) 지지체계와의 소통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고립감 (잠정적 기준목록 (2), (5), (6))

3. 개념의 사례 개발

1) 모델 사례(Model Case)

모델 사례란 개념의 주요 속성들을 모두 포함하는 사례를 말하며, 그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Walker & Avant, 2011). 다음은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에 관한 중요한 4가지 속성 낯선 타국에서 외로운 출산으로 인한 부정적 사고와 감정,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심리적 중압감, 지지체계와의 소통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고립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의 모델 사례이다.

A씨는 20대 초반 베트남 여성으로 1년 전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이주했다. 한국 생활과 문화에 적응하기에 전에 임신하게 되었고, 출산 시 친정어머니는 외국에 계셔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남편이 있었지만, 친정가족의 지원과 도움 없이 혼자서 출산을 맞이해야 했다. 아이 출산 후 A씨는 친정엄마를 보고 싶지만 만날 수 없고 슬픔과 무기력함을 느끼며, 종종 멍하니 눈물을 흘리곤 했다(낯선 타국에서 외로운 출산으로 인한 부정적 사고와 감정). 그녀는 나아가 수면장애와 식욕이 감소되어 잘 먹지 못하며 피로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아이의 건강을 돌보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꼈다(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 A씨는 베트남 음식

을 간절히 먹고 싶었지만, 필요한 식재료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먹지 못했다. 족발과 닭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것이 산모와 아이에게 좋지 않다고 말하며 매일 미역국을 끓여 주셨다. 그러나 A씨는 미역국을 가장 싫어해 매일 먹는 것이 마치 숙제처럼 느꼈다(문화적 차이로 인한 심리적 중압감). A씨는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다. 산후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들도 뒤늦게 알게 되어 신청하고자 했으나 베트남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다 결국 남편이 신청하게 되었다(지지체계와의 소통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고립감).

2) 반대 사례(Contrary Case)

반대 사례는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 개념이 아닌 것에 대한 분명한 예시이며 개념의 결정적 속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례이다(Walker & Avant, 2011).

B씨는 25세 중국 여성으로 2년 전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정착했다. 그녀는 한국드라마를 보며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접했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와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였다. 출산을 앞두고 B씨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남편과 시댁도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또한, 출산 예정일에 맞춰 친정어머니도 한국으로 들어와 B씨와 함께할 준비를 하였다. 출산 당일, B씨는 병원에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를 낳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다. 이러한 지지 덕분에 B씨는 출산 후에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었다. 산후 회복 과정에서도 B씨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남편이 집안일을 전반적으로 다하며 아이도 돌보았다. B씨는 한국의 전통 음식인 미역국을 즐기며, 이 음식이 자신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또한 그녀의 친정어머니가 만들어주는 다양한 중국 음식도 먹으며 행복하게 몸과 마음을 회복하였다. B씨는 시댁 식구의 영향으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국어를 잘 배우고, 교회에서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다른 성도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이러한 소통 덕분에 그녀는 지역사회에서의 지지체계를 확립하였고, 친구와 이웃들이 자주 찾아와 아이를 보살펴주기도 했다.

이 사례에서 B씨는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출산을 하여 낯선 타국에서 외로운 출산으로 인한 부정적 사고와 감정이 없었고,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인 증상도 없었다. 문화적 차이를 받아들이는 사고의 전환으로 인해 심리적 중압감을 느끼지 않았고 교회라는 지지체계를 통해 한국어도 배우고 소통을 하고 있고 도움을 받았다. B씨는 가족과의 지지 속에서 긍정적인 출산 경험을 하였고, 안정된 정서 상태를 유지하며 건강한 회복 과정을 거쳤다.

3) 경계 사례(Borderline Case)

경계 사례는 유사 사례라고도 불리며 개념의 결정적 속성 중 일부만 포함하고 있어 그 개념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이다(Walker & Avant, 2011). 본 연구에서는 한국여성이 경험하는 산후우울의 예를 통해 모델 사례가 될 수 없는 이유를 파악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 개념을 더욱 명확히 확인하고자 하였다.

C씨는 34세 여성으로 최근에 출산을 하였다. 양가 가족들의 관심 속에서 C씨는 무사히 출산하였다. C씨는 첫 출산이라 다소 두려웠지만 아이를 안고 너무 기뻐다(낳선 타국에서 외로운 출산으로 인한 부정적 사고와 감정 부재). 하지만 시일이 지나 아이에게 모든 관심이 쏠리게 되자 C씨는 자신이 소외된 느낌을 받기 시작했고 우울감이 몰려왔다. 남편에게 짜증도 많이 나고 화를 내는 일이 잦아지며 자신의 감정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이 점차 늘어나고 매일 아이를 돌보는 것도 지쳐가며 이전에는 편하게 즐겼던 일상을 할 수 없다는 점에 무기력함을 느끼며 이전에 없던 두통도 생겼다(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 미역국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삼시세끼 먹기엔 너무 부담으로 느껴져 식사를 거르기 일쑤였다. C씨가 무엇보다 힘든 것은 주일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 묵상이나 기도과 같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죄책감이 커졌다(지지체계와의 소통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고립감).

4) 관련 사례(Related Case)

관련 사례는 연관사례로 불리기도 하며 분석 대상이 되는 개념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고 유사하게 보이거나 중요한 속성이 포함되지 않고 그 의미가 다른 사례이다(Walker & Avant, 2011).

D씨는 28세의 필리핀 여성으로, 1년 전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이주하였다. D씨는 출산을 앞두고 기대와 설렘을 느꼈고, 친정 부모님 부재 속에서도 남편과 시어머니의 지원을 받아 무사히 아기를 낳았다. 출산 후 초기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기쁨이 컸고, 아이를 돌보는 일도 즐거운 경험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D씨는 아이의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였다. 남편이 바쁘게 일하는 동안 홀로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D씨는 점차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분이 가라앉고 피로가 쌓이면서 짜증이 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D씨는 자신의 감정을 친구들과 나누기보다는 혼자 해결하려 하였다. 출산 후 D씨는 좋아하는 필리핀 음식이 그리웠다. 시어머니가 준비해주는 한국 음식을 먹는 데 부담을 느꼈다. 이 과정에서 D씨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전통적인 한국 회복식인 미역국에 대한 압박감도 느꼈다. 하지만 이

러한 감정이 심각한 우울증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D씨는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남편과의 관계도 원활하였다. 그러나 출산 후 지역사회와의 연결이 약해지면서 조금씩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처럼 D씨는 산후우울의 증상을 경험하였으나, 고립감이 깊지 않고 가족의 지지 덕분에 심각한 감정적 불안정에 빠지지는 않았다.

이 사례에서 D씨는 출산 당시 친정 부모님의 부재로 인해 낯선 타국에서 외로운 출산을 경험하였으나 남편과 시어머니의 지원 덕분에 부정적 사고와 감정은 겪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아이의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이고 홀로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고립감과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또한 산후조리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한국 음식을 먹는 데 압박감도 느끼기도 했지만,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 심각한 우울증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D씨는 지역사회와의 연결이 약해져 고립감을 다소 느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의 지지 덕분에 긍정적인 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에서 D씨의 사례는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과는 일부만 유사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경험의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과는 차이가 있는 관련 사례로 볼 수 있다.

4.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

선행요인은 개념의 발생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일들을 말하며, 결과는 그 개념의 결과로 발생하는 일이나 사건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것은 그 개념의 속성을 더욱 명확하게 분석하는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 문헌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의 선행요인은 출산 후 여성호르몬의 급격한 변화, 낯선 타국에서의 출산과 문화적 차이, 육아에서 오는 스트레스, 역할변화에 대한 중압감, 가족 간의 갈등으로 나타났다(최은영 외, 2011 ; 오애영, 2011 ; 차효성, 2019). 그리고 결과는 산후우울이 높아지면 증상악화로 인한 정신질환 발생 가능성 및 신체건강문제 발현, 아기와의 정서적 유대감 감소로 모성애의 저하, 아기의 정서적 및 인지 발달에 부정적 영향, 가족 내 갈등으로 가족해체위기, 주변과의 소통부재로 사회적 고립이 있다(오애영, 2011 ; 이원심, 2013 ; 차효성, 2019 ; Chen et al, 2022 ; Chen et al, 2016 ; Thu, 2021).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한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의 선행요인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ur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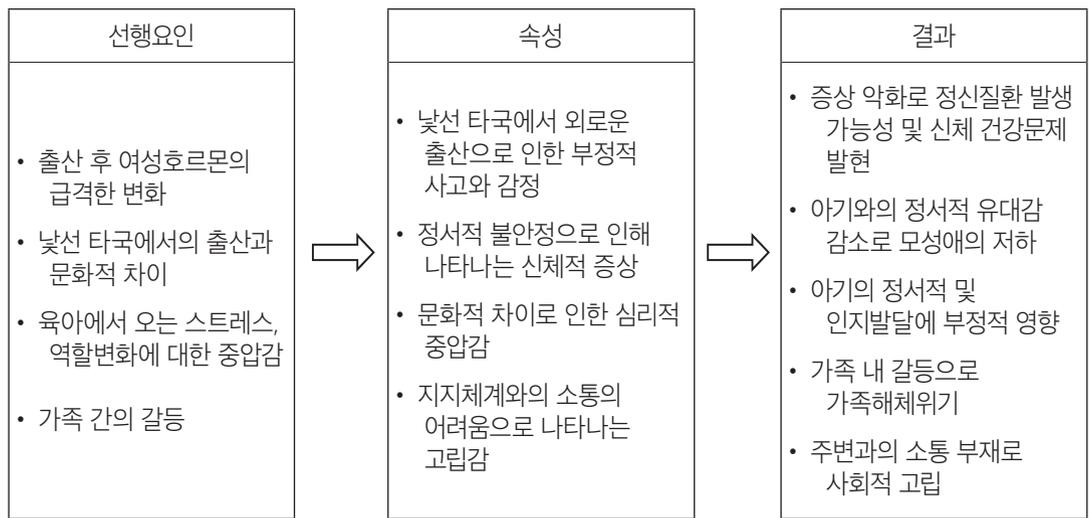


Figure 2. The antecedents, attributes, and consequences of Postpartum Depression in Marriage Immigrant Women

5. 경험적 증거 확인

개념분석의 마지막 단계인 경험적 증거는 Walker와 Avant(2011)가 제시한 개념의 속성이 실제적 유형으로서 존재하는지를 입증해 보여주는 개념분석의 최종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낯선 타국에서 외로운 출산으로 인한 부정적 사고와 감정’,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심리적 중압감’, ‘지지체계와의 소통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고립감’의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 속성으로 도출되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산후우울에 대한 개념분석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은 ‘낯선 타국에서 외로운 출산으로 인한 부정적 사고와 감정’,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심리적 중압감’, ‘지지체계와의 소통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고립감’을 속성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은 결혼 후 첫 임신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6.6개월로(Jeong et al, 2009)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임신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특히 대부분이 첫 임신인 만큼 출산과정에 대한 이해와 자기간호능력이 부족

하여 출산 후 한국인 여성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최은영 외, 2011). 출산 후 건강관리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아기 양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며, 가족의 무관심, 경제적 문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 등이며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과 관련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은 이들의 정신 건강을 저하시켜 우울감과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이는 자아존중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 아기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정서적 고통은 가족 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가족의 전반적인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 나아가,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결혼이주여성들은 도움을 받을 기회를 잃고, 이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지원을 요청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산후우울은 이들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의 증상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신전문가와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환경을 조성하며 임신과 출산, 나아가 아기 양육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언어교육을 제공하여 산후 우울감을 겪는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적 위축을 감소시키며 지역사회와 가족들의 지지를 통해 고립감을 줄이는 노력을 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이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개념분석의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의 첫 번째 속성은 ‘낯선 타국에서 외로운 출산으로 인한 부정적 사고와 감정’이다.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가족이나 이웃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첫 출산을 맞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한국 여성들은 출산 시 친정어머니나 가족 또는 전문 산후도우미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반면, 결혼이주여성들은 산후조리와 출산한 아기 양육을 도와줄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 게다가 경제적 및 기타 이유로 고국의 가족 방문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오애영, 2011) 이로 인한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은 기본적인 우울감에 더해 타국에서의 출산으로 인한 외로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의 두 번째 속성은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이다. 산후우울은 뚜렷한 이유 없이 기분이 침체되고 자꾸만 울고 싶어지며 실제도 울기도 하며, 불안하고 허전하며 슬프고 안절부절못하고 집중이 잘 안되며 배우자에게 적대감을 갖는 부정적인 감정뿐 아니라 나아가 불면증과 피로감 겪고 식욕이 떨어지기도 한다(최은영 외, 2011). 개인의 희망이나 요구보다 가족이나 사회에 기능에 중점을 둔 문화를 가진 베트남인의 경우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감정표현이 금기시 된다(Tran et al, 2011). 그로 인해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우울

과 같은 심리적 증상을 표현하기 보다는 오심, 두통, 불면 등의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차효성, 2019).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의 세 번째 속성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심리적 중압감’이다. 임신과 출산은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의례이자 사건이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여러 갈등과 어려움에 직면한다. 특히 임신과 출산, 산후 문화는 한국의 전통과 깊은 관련이 있어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에서 알던 지식과 다른 경험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남부현·오정아, 2013). 설동훈 외(2006)는 결혼이주여성이 임신 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본국 음식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가장 크다고 하였다. 이처럼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신체의 변화는 물론 출산과 산육의 고통 속에서 육아를 병행해야 하며 익숙한 본국의 음식과 친정 가족의 지원이 결여된 상황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고립감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중 시켜 우울감이 심화 될 수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출산 후 시댁 가족들이 아기를 돌보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가 갈등을 초래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차효성, 2019).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의 마지막 속성은 ‘지지체계와의 소통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고립감’이다. 최은영 외의 연구(2011)에서 산후우울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 중 하나는 동거가족의 형태였다. 이는 베트남 여성들이 시댁 가족과 함께 살면서 언어 소통이 잘 되지 않은 상태로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가족관계 형성이 우울의 한 원인인 것을 알 수 있다. 함께 거주하면서 가족들로부터 초기 육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상대도 없고 고국의 가족에게는 어려운 상황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지역사회에서는 여전히 외국인으로 여겨져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오애영, 2011). 언어적 의사소통 장벽은 소통에서 오해와 갈등, 어색함을 초래하여 결국 마음과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답답함을 느끼게 한다. 결혼이주여성이 출산 전후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와 지역사회 서비스를 요청할 때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데,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임신, 출산, 자녀의 양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에 제한적이며 이들의 여성건강 및 건강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를 통한 마리아의 출산 경험은 결혼이주여성의 출산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누가복음 1장 26-38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 아들을 잉태할 소식을 전할 때 마리아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주며 자신이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임신한다는 사실을 받아드리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요셉과의 관계에도 갈등이 있었다.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비밀리에 그녀를 버리려 하였으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마리아를 아내로 맞으라 하였고(마태복음 1:18-25) 그 과정에서 마리아는 사회의 시선과 비난을 두려워했고 그로 인한 심리적 압박도 많이 느꼈을 것이다. 누가복음 2장 1-6절 말씀을 보면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와 요셉이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의

명령으로 모든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떠났다. 누가복음 2장 7절 ‘그녀가 첫 아들을 낳아 싸서 구유에 놓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라는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태어난 환경은 평범하지 않았고 여관에 자리 없어 말구유에 놓였다는 점은 고립감과 외로움을 상징한다. 결혼이주여성도 낯선 환경에서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게 되면 이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더욱이 지원체계가 부족한 경우 자신의 겪는 감정이나 상황을 이해받지 못하는 고립감 역시 경험할 수 있다. 예수님의 출생이 소외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듯 결혼이주여성들도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출산 후 어려움을 겪고 산후우울을 겪을 수 있다. 마리아처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 서로 연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성경은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시편 127:3).”라고 말씀하고 있다. 해산의 고통을 겪은 이후 자녀가 출산하여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이다. 해산의 고통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복이며, 상급이며 이러한 성경적 사고방식은 마음의 원망과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은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 공동체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기도와 성경 말씀을 통해 영적 위로를 전하며, 필요한 자원과 한국어 교육, 문화 적응을 돕는 등의 사회적 지원을 통해 중요한 영적, 사회적, 정서적 지지망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산후우울을 이해하고 이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하며 출산의 기쁨과 자녀의 축복이라는 긍정적인 감정을 좀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관을 통한 직간접적 지원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산후우울의 개념과 속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은 결혼이주여성과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모성건강분야의 실무와 연구수행 등에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2011)의 개념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에 대한 개념과 속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정의를 규명하며 결정적 속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연의 의미가 희석된 용어들의 명료화를 도와 관련 분야의 진단과 실무 및 지역사회 모성건강 분야의 용어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에 대해 그들의 삶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이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산후우울에 대한 보다 섬세한 이해를 도모하여 증상의 회복을 돕고 결혼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모성건강 관리 및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산후우울 연구가 부족하여 많은 자료를 통해 분석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산후우울에 대한 사회, 문화적 분위기에 따라 산후우울에 대해 판단하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이 산후우울을 경험하게 되는 속성 또한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 개념을 다루거나 세부 속성을 다루는 연구를 할 경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의 속성을 고려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산후우울의 측정 도구를 수정 및 보완의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의 속성을 활용해 볼 것을 제언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 함.”

참 고 문 헌

- 강현준·박천만 (2019). 자녀를 가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보건과 복지**, 21(4), 287-312.
- 김순옥·임현숙·정구철 (2013).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지지, 가족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1), 221-235.
- 김윤미·안숙희 (2015). 산후 우울의 고찰 정신신경면역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1(2), 106-114.
- 남부현·오정아 (2013).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임신과 출산에 따른 가족관계경험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1), 131-154.
- 박영주·신현정·유호신·천숙희·문소현 (2004). 산후우울 예측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4(5), 722-728.
- 배타마라 (2021).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응이 자녀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 설동훈·이혜정·조성남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 안영미·김정현 (2003). 일반아모와 추후관리를 받은 저출생체중아모의 모성자존감, 산후우울, 가족기능의 비료. **대한간호학회지**, 33(5), 580-590.
- 양옥경·김연수 (2007). **서울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6(1), 79-110.
- 여성건강간호교과연구회 (2016). **여성건강간호학II**. 서울: 수문사, 1102-1111.
- 오애영 (2011). **다문화가정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이소영·이상림·조성호·최인선 (2015). **산후조리원 적정 운영 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 이안나·강영신 (2020).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491-521.
- 이원심 (2013).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건강관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임현숙 (2011). **결혼이주 여성의 임신·출산을 통한 삶의 전환 체험**.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조원섭·유승현 (2017).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스트레스 증상과 그 영향 요인.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4(1), 47-65.
- 차효성 (2019). **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 되기 영향요인**.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최은영·이은희·최정숙·최선하 (2011).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여성의 산후우울 비교.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7(1), 39-51.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4).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3월호**.

- 홍석현 (2007). *산후 우울증에 대한 성경적 상담*.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Thu, T. H. N. (2021). *영유아기 자녀를 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한 자녀양육의 어려움 탐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USA.
- Beck, C. T. (2001). Predictors of postpartum depression: An update. *Nursing Research*, 50(5), 275-283.
- Buttner, M. M., O'Hara, M. W. & Watson, D. (2012). The structure of women's mood in the early postpartum. *Assessment*, 19(2), 247-256.
- Chen, H. H., Hwang, F. M., Tai, C. J. & Chien, L. Y. (2013). The interrelationships among acculturation, social support, and postpartum depression symptoms among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in Taiwan: A cohort study. *Journal of Immigrant & Minority Health*, 15(1), 17-23. <https://doi.org/10.1007/s10903-012-9697-0>.
- Chen, H. H. & Chien, L. Y. (2020). A comparative study of domestic decision-making power and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postpartum depressive and physical symptoms between immigrant and native-born women. *PLoS One*, 15(4), e0231340.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31340>.
- Chen, H. H., Hwang, F. M., Lin, L. J., Han, K. C., Lin, C. L. & Chien, L. Y. (2016).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trajectories during 1 year postpartum among marriage-based immigrant mothers in Taiwan.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30(3), 350-355. <https://doi.org/10.1016/j.apnu.2015.12.008>.
- Chen, H. H., Lai, J. C., Hwang, F. M. & Chien, L. Y. (2022). Bi-dimensional acculturation and depressive symptom trajectories from pregnancy to 1 year postpartum in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in Taiwan. *Psychological Medicine*, 52(12), 2290-2298. <https://doi.org/10.1017/s0033291720004195>.
- Chen, H. H., Lai, J. C., Wang, K. L. & Chien, L. Y. (2022). Bi-dimensional acculturation and social support on perinatal depression in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41, 227-233. <https://doi.org/10.1016/j.apnu.2022.08.001>.
- Chen, T. L., Tai, C. J., Wu, T. W., Chiang, C. P. & Chien, L. Y. (2012). Postpartum cultural practices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among Chinese and Vietnamese immigrant mothers married to Taiwanese men. *Women's Health*, 52(6), 536-552. <https://doi.org/10.1080/03630242.2012.697109>.
- Cox, J. L., Holden, J. M. & Sagovsky, R. (1987). Detection of postnatal depression: Development

- of the 10-item 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0(6), 782-786.
- Forty, L., Jones, L., Mactretor, S., Caesar, S., Cooper, C., Hough, A., Dean, L., Dave, S., Farmer, A., McGuffin, P., Brewster, S., Craddock, N. & Jones, I. (2006). Familiarity of postpartum depression in unipolar disorder: results of a family study. *Am J Psychiatry*, 163(9), 1549-1553.
- Horowitz, J. A., Murphy, C. A., Gregory, K. E. & Wojcik, J. (2010). A community-based screening initiative to identify mothers at risk for postpartum depression.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and Neonatal Nursing*. <https://doi.org/10.1111/j.1552-6909.2010.01199.x>.
- Jeong, G. H., Koh, H. J., Kim, K. S., Kim, S. H., Kim, J. H., Park, H. S., Lee, Y. S., Han, Y. R. & Kim, K. W. (2009). A survey on health management of during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ostpartum of immigrant women in a multi-cultural family.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5(4), 261-269.
- Newport, D. J., Hostetter, A., Arnold, A. & Stowe, Z. N. (2002). Treatment of postpartum depression: Minimizing infant exposures.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3, 31-44.
- Park, Y. J., Shin, H. J., Ryu, H., Cheon, S. H., & Moon, S. H. (2004). The predictors of postpartum depress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4(5), 722-728.
- Stuart-Parrigon, K. & Stuart, S. (2014). Perinatal depression: an update and overview. *Current Psychiatry Reports*, 16(9), 1-15.
- Tran, T. D., Tran, T., La, B., Lee, D., Rosenthal, D. & Fisher, J. (2011). Screening for perinatal common mental disorders in women in the north of Vietnam: a comparison of three psychometric instrument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33(1-2), 281-293. doi:10.1016/j.jad.2011.03.038.
- Walker, L. O. & Avant, K. C. (2011) *Strategies for theory construction in nursing*. Trans. Oh, K., Lee, I. S. & Joe, S. Y. Boston: Prentice Hall.
- Wisner, K. L., Parry, B. L. & Piontek, C. M. (2002). Clinical practice: Postpartum depression.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47(3), 194-199.
- Yeo, J. H. (2006). Postpartum depression and its predictors at six months postpartum.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2(4), 355-362.
- 국립국어원 2024.10.31.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b3f75cce00ee4080bad61236e524f3e9> (검색일 2024.10.31.).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 개념분석

Concept Analysis of Postpartum Depression in Marriage Immigrant Women

박정숙 (고신대학교)

손원미 (고신대학교/교신저자)

논문초록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 개념분석을 통해 그 의미를 명료화하기 위해 시도 되었으며 Walker와 Avant의 연구 방법에 따라 분석 방법에 따라 진행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은 ‘낯선 타국에서 외로운 출산으로 인한 부정적 사고와 감정’,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심리적 중압감’, ‘지지체계와의 소통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고립감’을 결정적 속성으로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은 낯선 타국에서 외로운 출산으로 인해 침울함과 슬픔, 막막함과 불안을 경험하며 감정적인 변화와 더불어 입맛이 없고 피로하며 불면 등 다양한 신체적인 증상을 경험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문화로 인해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며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 주변으로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끼며 출산 후 신생아 돌봄의 부담과 역할변화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의 속성을 통해 지역사회 모성건강분야의 용어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에 대해 그들의 삶에 대한 이해의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마리아처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운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 서로 연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결혼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모성건강 관리 및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결혼이주여성, 산후우울, 개념분석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의 인간관계 경험*

Interpersonal Relationship Experiences of Pastors' Wives in Small Churches

손수경 (Sue-Kyung Sohn)**

이은하 (Eun-ha Lee)***

허진선 (Jin-Seon Heo)****

이수목 (Soo-Mok Lee)*****

손원미 (Won-Mi Son)*****

이현애 (Hyeon-Ae Lee)(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is study is a qualitative research conducted to deeply understand and explore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experiences of the pastor's wives of small churches and to describe the essential meaning of their experiences. The data was obtained through one-on-one in-depth interviews with 10 pastor's wives of small churches, who have more than three years of experience, from churches with fewer than 300 members located in the Busan and Gyeongnam areas. Data analyzed using experiential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suggested by Colaizzi(1978).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a total of six themes: 'Feeling heartbroken and painful due to disrespectful attitudes and words of church members', 'Sorrow due to departing church members', 'A life of self-denial and carrying the burde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inding a breakthrough in the midst of pain', 'Regaining the lost self and deepening trust in God', 'The growth of the church and oneself encountered on the journey of calling'. This study provides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interpersonal experiences of pastors' wives in small churches. Based on these findings,

* 2024년 11월 4일 접수, 11월 29일 최종수정, 11월 29일 게재확정

** 고신대학교(Kosin University) 간호대학 교수, 부산 서구 감천로 262, sue@kosin.ac.kr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부산 서구 감천로 262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podong36@naver.com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부산 서구 감천로 262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hur4503@hanmail.net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부산 서구 감천로 262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leeduddl02@naver.com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부산 서구 감천로 262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sonwm13@naver.com

***** 동의과학대학교(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조교수, 부산 부산진구 양지로 54, hawh35@gmail.com

the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holistic programs aimed at improv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fostering the personal growth of pastors' wives in small churches, as well as the growth of church members.

Key words: pastors' wives, interpersonal relationship experience, qualitative research, small church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 규모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소속 교인 수가 수만 명에 이르는 초대형 교회로부터 교인이 수십 명에 불과하여 재정적 자립이 어려운 소형교회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정금선·양혜원, 2015). 목회 사회학연구소는 한국교회를 소형교회(300명 이하), 중형교회(300~1,000명), 대형교회(1,000명 이상)로 분류하고 소형교회 안에 미자립교회를 포함했고(뉴스앤조이, 2017), 한국교회의 70~80%는 소형교회에 속한다(국민일보, 2023). 이렇게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형교회들은 사역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여 담임 목회자와 사모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의 비중이 매우 높을 것이다(전현옥, 2018).

목회자는 교회를 맡아 설교하거나 신자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목회자 사모는 목회자의 부인을 지칭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4). 목회자 사모는 신학을 전공하고 목회자로 훈련받으며 준비된 남편과 달리 결혼으로 갑작스럽게 사모라는 직분과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지만, 이들도 남편을 도와 전문적인 목회를 하기에 준비된 사람으로 간주한다. (김나미, 2015). 또한 목회자 사모는 성도와 교회를 돌보는 어머니 역할과 남편의 사역을 보이지 않게 뒤에서 돕는 조력자로서 많은 역할을 한다(송경화, 2020). 그리고 성도와 교회가 기대하는 목회자 사모의 역할은 자상한 영적 어머니로서 항상 온유하며 친절하고 모든 것을 품어주는 것이다(김영수, 2016 ; 손민정, 2014). 즉, 목회자 사모의 위치나 존재는 교회의 한 구성원인 동시에 목회자의 인생 동반자로서 목회 현장에서 비중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김계명·유재성, 2012).

목회자 사모의 사역은 교회 영역과 그 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회 내에서는 목회자 사역 지원, 예배 지원, 성도 관리, 행사관리, 재정관리, 식당 봉사, 성가대 등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다(윤미래, 2018). 그러나 특정한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나미, 2016). 또한 가정에서는 아내, 어머니, 며느리와 딸 등의 많은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목회자 사모들은 교회 내외의 다양한 활동들로 인해 다재다능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들보다 훨씬 과중한 업무를 견뎌내고 있다(윤미래, 2018).

특히,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가 겪는 어려움 중 심리적 현상에는 주로 관계에서 느껴지는 거절감, 교회 공동체에서의 소외감, 정체성 혼란, 역할 갈등, 현실에서의 괴리감과 허탈감, 엄마로서 죄책감 등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한 불안정한 심리상태는 심계항진 및 면역 저하 등의 신체화 증상

으로도 나타났다(송경화, 2020). 또한 교회공동체에서 고립감을 느낄 때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전현옥, 2018). 따라서 목회자 사모의 심리적인 지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들이 경험하는 인간관계 전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간관계는 직·간접적인 접촉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내면적, 감정적인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김광수, 2011). 즉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경험이 많을수록 자존감, 행복감과 삶의 질이 높아진다(Commeey et al., 2023). 목회자 사모의 인간관계는 교회공동체에서 긍정적 경험보다 부정적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남편이 목사이기 때문에 갈등이나 다툼이 있어도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억압하는 경우가 많고, 나의 남편이 아니라 성도 전체를 대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때로는 공사를 구분하지 못해 존중받지 못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송경화, 2020). 또한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인품과 영성도 갖추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경우 사모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소외감을 느끼기도 한다(전현옥, 2018). 따라서 목회자 사모가 겪는 인간관계 어려움을 돕고 지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회자 사모의 인간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내 양적 연구로는 중소 도시에 위치한 교회의 사모들이 대인관계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보였으며(김승국, 2009), 목회자 사모의 긍정적인 대인관계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나미, 2015). 국내 질적 연구로는 목회자 사모의 심리 현상에 대한 연구(전현옥, 2018), 직장생활 경험에 대한 연구 등 다수 진행되었으나, 그중 목회자 사모를 대상으로 인간관계를 주요 주제로 다룬 연구는 없었다. 목회자 사모의 역할 경험에 관한 2편의 연구에서는 인간관계가 내용 일부에 포함되어 보고되었다(김보림·김미경, 2020 ; 송경화, 2020). 그리고 목회자 사모 1인을 대상으로 교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소진과 회복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이병애·구자경, 2023)가 수행되었다. 국외의 양적 연구에서 목회자 사모의 인간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었으나, 멘토링 중재연구 프로그램에서 목회자 사모의 인간관계를 다루었고(Commeey et al., 2023),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교회사역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국외 질적 연구는 목회자 사모의 외로움 경험(Davis, 2007), 역할 경험(Luedtke & Sneed, 2018), 스트레스 대처 경험(McMinn et al., 2008) 등의 연구가 있었으나 인간관계를 주요 주제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목회자 사모들이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인간관계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특히 소형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 사모의 스트레스는 대형교회의 목회자 사모보다 그 정도가 더 높다고 하였으므로(김승국, 2009)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의 인간관계 경험에 대한 심층 이

해를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생생한 경험의 의미를 바탕으로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의 인간관계 어려움을 파악하여 사모를 위한 정신 건강 증진 간호 프로그램 개발 및 긍정적인 갈등 해소 전략 등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현상학적 연구는 인간 경험을 기술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실재에 접촉하는 총체적인 접근을 할 수 있어 인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행동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다(Omery, 1983). 특히 간호학에서 현상학적 방법은 간호 대상인 인간을 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경험의 의미를 규명할 수 있어 매우 적합하다(이윤정·김귀분, 2008) 그 중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참여자들이 경험한 생생한 체험 현상 자체로 돌아가 그 현상의 보편적 의미를 발굴해 내고 연구 참여자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방법으로(이남인, 2005)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의 인간관계 경험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의 인간관계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고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이들이 겪는 인간관계 어려움을 돕기 위한 간호 중재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의 참여자는 부산, 경남지역에 소재한 성도 300명 이하의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로서 교회사역을 3년 이상 경험한 자로 하였다. 연구의 참여자를 3년 이상 사역을 경험한 자로 제한한 근거는 매년 개척하는 교회 중 60% 이상의 교회가 3년 이내 현실적인 문제로 문을 닫는 상황으로 나타났으며(조은희, 2018), 3년이 지나면 이러한 시기를 극복하여 안정적인 상태에 접어들어 그들의 경험을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사역 경험이 3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 모집을 위하여 지역 노회 목회자 단체 채팅방에 대상자 모집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의해 목적적 표본추출과 눈덩이 표집법에 따라 모집하였다. 연구의 자료가 포화 된 시점에 최종적으로 10명의 참여자가 포함되었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진행되었고, 참여자와의 개별 면담은 1~2회로 진행하였으며, 1회 면담은 1~3시간이 소요되었다. 면담 장소는 교회 내 상담실, 참여자의 집 근처 카페 등으로 조용한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 후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의 인간관계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개방형 질문으로 심층 면담을 시작하였다. 참

여자의 진술 중 연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는 후속 질문을 통해 심층적으로 접근하였다. 주요 면담 질문은 1) 목회자 사모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2) 목회자 사모 사역 중 성도와의 관계 경험은 무엇입니까? 3) 목회자 사모 사역 중 가족과의 관계 경험은 무엇입니까? 4) 목회자 사모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인간관계는 무엇입니까? 이었다.

연구 자료는 참여자에게 미리 동의를 구하고 동의서를 받은 뒤 녹음하였다. 자료수집 시 참여자의 언어뿐만 아니라 시선, 몸짓, 웃음, 울음, 표정 변화 등을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면담 후 녹음 자료를 연구자가 반복하여 들으면서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 필사하였고, 필사 자료를 여러 번 읽으면서 참여자들이 말한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필사 내용을 읽으면서 질문이 누락 되었거나 명확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다음 면담 시 보완하여 질문하였다. 면담 시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으나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사역의 과정 동안 힘들었던 기억으로 울먹이거나, 한동안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는 등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다.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후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하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Colaizzi(1978)가 제시한 현상학적 접근방법 절차에 따라 연구자가 직접 코딩 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은 아래 순서로 진행되었다. 1)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의 인간관계 경험을 개별 심층 면담을 통해 녹음한 후 이를 필사하였다. 참여자의 진술에 대한 느낌을 얻기 위해 참여자의 진술을 반복해서 듣고 읽었다. 2)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의 인간관계 경험을 나타내는 현상을 포함하는 문장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찾아서 밑줄을 긋고, 비슷한 의미의 진술들과 중복되는 진술을 추출하여 정리하였다. 3) 추출된 문장의 진술들을 연구자의 언어로 재진술하여 의미 단위를 도출하였다. 4) 도출된 의미 단위들을 공통된 주제로 분류하였다. 5) 주제를 비슷한 것끼리 모아 좀 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주제 모음으로 구성하였다. 6) 주제 모음을 타당화하기 위해 원자료와 비교하면서 확인하는 과정을 가졌다. 7) 분석된 내용들을 하나의 기술로 통합한 후 연구 현상의 본질적인 구조에 대한 총체적 기술을 하였다.

5. 연구자의 준비 및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자들은 간호학 박사과정에서 질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분석론 교과목을 이수하였으며, 현상학적 연구 워크숍, 질적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 학술 세미나 등에 참여하여 질적 연구 방법과 자료 분석 방법을 훈련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를 수행하면서 질적연구방법

전문가의 지도하에 심층 면담과 자료 분석을 하였다.

본 질적 연구의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Guba와 Lincoln(1989)이 제시한 평가 기준에 따라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 가능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사실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선정 기준에 적합한 자를 참여자로 하였으며,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여 자료가 누락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면담 중 연구자의 감정표현을 자제하여 참여자에게 연구자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면담 직후 필사를 진행하여 자료의 왜곡 및 누락을 최소화하였다. 더하여 참여자 1인에게 필사한 내용과 분석 결과가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받았다. 적용 가능성 확보를 위해 목적적 표출법으로 참여자를 선정하였고, 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Colaizzi(1978)의 분석 방법 절차에 충실하였으며, 자료를 분석하는 동안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 교수 2인과 토의를 통해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여 자료 분석에서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연구 전 과정에서 연구자의 관점이나 선입견을 배제하여 연구 현상의 왜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전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연구심의(KU IRB 2023-0027)를 거쳤다. 참여자들에게는 자료수집 전 연구 목적과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진행 중 참여 철회가 가능함을 알렸다. 면담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비밀이 보장되고, 면담자료는 연구가 종료된 후에 폐기 된다는 것도 설명하였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면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코드화하였고, 문서 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서류함에, 파일 자료는 비밀번호가 설정된 연구자 개인 컴퓨터에 보관하였다. 참여자에게는 면담 후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II.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는 총 10명이었다. 참여자의 평균 나이는 50.7세로 40대 4명, 50대 3명, 60대 3명이었다.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 경력은 최단 3년에서 최장 35년이었다(Table 1). 10명의 참여자로부터 얻은 필사 자료는 A4용지 204쪽 분량이었고 자료에서 총 61개의 의미 단위(meaning unit)를 추출

하였다. 이를 토대로 원자료와 관련성을 재확인하면서 의미 단위들을 통합, 분류하여 19개의 주제(theme)로 구성하였으며, 다시 공통된 주제를 통합하여 6개의 주제 모음(theme clusters)으로 도출하였다(Table 2).

Table 1 .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연구 참여자 (Research participant)	나이 (Age/year)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 경력 (Small church pastor's wife's career/year)
연구 참여자 1	41	6
연구 참여자 2	50	7
연구 참여자 3	48	5
연구 참여자 4	62	35
연구 참여자 5	60	30
연구 참여자 6	60	17
연구 참여자 7	52	18
연구 참여자 8	40	3
연구 참여자 9	51	5
연구 참여자 10	43	3

Table 2. Meaning unit, theme, and theme clusters

주제 모음 (theme clusters)	주제 (theme)	의미 단위 (meaning unit)
성도의 무례한 태도와 언사로 마음이 쓰리고 아픔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는 태도에 부아가 치밀어 오름	화를 내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에 당황스러움
		예의 없는 교역자 사모로 인해 스트레스받음
		성도의 이간질에 흔들린 다른 성도들이 나를 불신하는 모습에 힘든 마음
	성도의 무례한 언사로 열통이 터짐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으로 힘이 듦
		성도의 태도가 싸늘하게 변해 마음이 힘들
		강하고 직설적인 성도의 무례한 말에 열불천불이 남

떠나가는 성도로 인해 비통함	갑자기 성도가 떠날 때의 충격과 상실감	성도들이 나갈 때 느끼는 충격과 상실감
		오래된 성도가 나가면서 멘붕
		역경을 함께 견딘 전우가 떠나 마음이 아픔
	떠난 성도로 인해 남아있는 성도가 교회를 떠날까봐 불안함	남은 성도들이 동요해서 떠날까봐 불안함
자신을 억압하고 관계의 십자가를 지는 삶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해서 답답함	관계가 깨지고 안 먹힐 것 같아 반박 못 하는 아쉬움
		참고 듣기만 하는 게 힘들
		말 못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스트레스
	타인을 의식해 행동을 조심해야 함	예의 없는 사모에게 상처 줄까봐 참고 지켜봄
		타인을 의식하면서 행동을 조심해야 함
		관계를 위해 성도의 말에 맞추고 수긍하려 함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없음
	강요된 좋은 관계를 위해 짊어져야 하는 부담감	성도와의 관계에서 항상 긴장됨
		새 신자에게 다가갈 때 부담됨
		무조건 수용하고 웃고 넘겨야 하는 것이 힘들
		맞지 않거나 싫은 사람도 관계를 맺어야 함
	나를 잃어버려 마음의 병이 생김	사람이 싫어짐
나를 잃어버림		
마음의 병이 생김.		
고통 속에 찾아낸 돌파구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 숨 쉴 구멍	남편과 함께함으로써 스트레스 해소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함
	취미생활로 몸과 마음을 치유함	마라톤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함.
		말씀캘리그래피로 치유와 안정을 얻음
	행복을 소망하며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감	행복한 신앙생활을 원함
		힘든 일은 지나갈 것이라 믿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됨	기도로 이겨내며 응답에 감사함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복됨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관계의 지혜를 깨닫고 적용함	관계를 잘하려고 말을 아끼게 됨
		성도와 나의 사이에 선을 지켜야 함
자신감이 생김		

잃어버린 자아를 찾으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	온전한 나로서 존재하기로 결심함	나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음	
		상처받지 않기로 결심함	
		상대방에게 휘둘리지 않고 맞추지 않기로 함	
		무조건 참지 않음	
	나를 위해 살아가기 시작함	잃어버린 내 인생의 길을 가기로 함	
		싫은 사람은 마음에서 비워내기	
		이전에 못 하던 말을 하기 시작함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함	남들이 무엇이라고 하던지 내 마음 지키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감	
		진심을 다했으니 언젠가는 알아줄 것으로 생각함	
		하나님이 아시니 그것으로 됐다고 여김	
소명의 여정에서 만난 나와 교회의 성장	성도들에게 위로받고 고마움을 느낌	선한 마음으로 성실히 걷다 보면 하나님이 다음 단계를 이루실 것을 믿음	
		영적 세계가 넓고 깊어짐	성도의 진실된 마음을 알게 되어 감동함
			마음을 알아주어 위로받고 고마움
			나의 수고를 알아주고 존중받고 인정받음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어 돌아보고 챙김
			성도들 덕분에 즐거움
	힘들지만 보람됨		
	교회의 성장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 자유하게 됨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함.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됨	
		영적 유익이 있음	
		새 신자를 만나는 것이 기대됨	
		교회 영적 분위기가 변해 기쁨을 느낌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에 감사함	
		나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로 인해 감사함	
새 신자의 변화에 기쁨을 경험함			

1. 성도의 무례한 태도와 언사로 마음이 쓰리고 아픔

이 주제 모음은 참여자들이 교회 내 인간관계에서 무례한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성도들로부터 경험한 생각과 감정에 대한 것이다. 참여자 대부분은 목회자 사모로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좋은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 노력하였고, 관계를 잘 이어 나가고자 애를 썼다. 그러나 그런 자기 행동이 오히려 오해를 사게 되고 변명의 기회도 없이 무례한 말과 행동으로 참여자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모습에 속상하고 힘든 마음의 고통을 겪었다.

1)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는 태도에 부아가 치밀어 오름

참여자 대부분은 좋은 마음으로 성도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친근한 태도로 성도들을 대하였으나 이러한 태도를 일방적으로 오해하고, 때로는 함부로 대하는 성도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이 솔직한 자신의 의견을 말했을 때 성도들이 차갑게 돌아서기도 하였고, 오랫동안 서로 신뢰를 쌓아왔다고 믿었던 성도들이 등을 돌리며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간질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아픈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 분위기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기센 성도로 인해 마음 졸이기도 하였으며, 같은 입장이라 생각했던 부목사 사모의 예의 없는 행동들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내고 있었다.

“저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모님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그렇게 아는 체를 하고 나대냐!” 하면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때 좀 너무 함부로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참여자 3)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바로 잡아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좀 싸늘하게 이렇게 바뀌시고 직원들이 싸늘하게 바뀌시고 갑자기 돌변할 때 그때 되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 것 때문에 살갑게 대했던 정도인데 갑자기 싸늘하게 이렇게 차갑게 대할 때가 그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1)

“개척 교회를 힘들게 하시는 분들은 그 개척 교회를 휘어잡으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개척 교회를 찾아다니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오시면 많이 힘들죠.” (참여자 10)

2) 성도의 무례한 언사로 열통이 터짐

참여자들은 자신이 성도들을 위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애써 노력한 일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무례한 말로 하찮게 여기는 성도로 인해 화가 나고 황당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자신을 무례히 대하는 성도에게 목회자 사모의 입장에서 따질 수 없기에 참아야만 했고, 이로 인해 속상한 마음에 몇 날 며칠 잠 못 이루며 속이 들끓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다.

“정말 강한 분이요 또 직설적인 분이요 자기표현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힘들었죠…
(주일날 열심히 준비해서 반찬을 냈는데) 이거 어제 먹다 남은 반찬이에요? 이러는 거라… 나 진짜 황당하더라고… 얼마나 이거 고민해서 목사님하고 레시피를 어찌 해가지고 맛있게 할까 유튜브 보면서 그레 만들었는데요. 근데 그 말이 계속 생각나면서 막 속에 열불이 천불이 올라온 거야.” (참여자 5)

2. 떠나가는 성도로 인해 비통함

이 주제 모음은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성도가 교회를 떠나갈 때 겪게 된 상실감과 마음의 고통에 대한 경험이다. 참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함께 동고동락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커다란 상실감과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였다. 특별히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성도가 떠날 때는 섭섭함을 넘어서 내 속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간 것 같은 크나큰 상실감과 절망감마저 느꼈다.

1) 갑자기 성도가 떠날 때의 충격과 상실감

참여자 대부분은 성도가 교회를 떠날 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상실감을 경험하였다. 마음으로 의지하던 교회의 중직자나 일꾼이라 할 수 있는 성실한 성도가 나갈 때는 절망감이 느껴질 만큼 커다란 상실감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고, 사모도 목회도 다 그만두고 싶을 만큼 마음이 크게 흔들리기도 하였다.

“청년이 한 명 나갔고 어느 집사님이 나갔는데 다 10년 20년 가까이 됐던 사람들인데 나가면서 그때 제일 크게 맨붕이 이제 뽕뽕 친 거지… 청년이 나가고 내가 일주일 2주일 너무 우울하고 너무 힘들어 가지고 지금 너무 목회하기 싫고 나 사모 너무 하기 싫고 나 다 때려치우고 싶고 다 접고 그냥 목회 다 때려치우자.” (참여자 5)

“제일 힘든 거는 일꾼들이 빠져나갈 때 그렇죠… 중직 자일 경우… 그때는 그냥 막 몸 안에 뭐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엄청난 뭐라고 해야 하나 그 절망감이라고 해야 하나… 상다리가 4개가 있는데 하나가 폭 빠지면 확 기울잖아요… 그때는 너무 힘들죠.”(참여자 6)

2) 떠난 성도로 인해 남아있는 성도가 교회를 떠날까봐 불안함

목회자 사모는 성도가 떠나갈 때 상실감과 함께 남아있는 성도들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이 컸다. 소형교회는 한 사람이 떠난 빈자리가 크고, 그만큼 표시가 많이 나기 때문에 떠난 성도로 인해 남아있는 성도들이 동요하여 교회를 모두 떠나 버리게 될까봐 불안한 마음까지 들었다.

“걱정이 확 드는 거죠… 자꾸 그냥 그 현상만 보기보다는 그렇게 딱 일어났었을 때 그 이후에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을 돌려서 다 나가면 어떡하지… 그런 인간적인 약간 이제 불안함들이…” (참여자 10)

3. 자신을 억압하고 관계의 십자가를 지는 삶

이 주제 모음은 참여자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면서 느낀 인식과 태도에 대한 것이다. 대부분 참여자는 성도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만 했고, 타인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항상 긴장감을 느꼈고, 싫은 사람과도 표면상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모든 관계를 원만하게 해야 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에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살아내야 했으므로 나다운 나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 마음의 병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1)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해서 답답함

참여자들은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만 해서 답답함을 느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반론을 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나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 반박하지 못하였고, 공감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참고 듣기만 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성도와 관계 속에서 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듣기와 수용만을 하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고, 말 못 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하고 싶은 변론이나 반론 있잖아요. 하고 싶은 변명이나… 하고 싶은데 그런 걸 참 못한다는 게 아쉽지… (중략). 따지면 관계가 깨지고 성도가 나가고… 그 성도의 마음도 상하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3)

“사모의 입장이니까 이게 뭘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중략). 갑자기 내가 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좀 참아야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답답함이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들 것 같은데… 순종하면서 걸어가야죠.” (참여자 1)

2) 타인을 의식해 행동을 조심해야 함

사모는 기본적으로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으로 참여자들은 항상 타인을 의식하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조용히 있게 되었다. 내가 좋지 않은 얘기를 하면 상처를 주게 될까봐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원만한 관계를 위해 성도의 말에 무조건 수긍하고 맞추어 주어야만 했다. 내 모습대로 살고 싶지만, 타인에게 비치는 모습을 의식해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없어 참여자들은 답답함을 느꼈다.

“모든 사모님들이 행동을 조심하고, 저도 행동을 조심하거든요. 항상 말을 조심하게 돼요. (중략). 나도 말할 줄 아는데 그런 말을 해버리면 부담이 될까 봐 얘기를 안 하고 그다음에 행동도 조금 조심해지게 되고 조용히 있게 되고 그렇죠.” (참여자 1)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냥 무조건 따라갔지. 그 사이가 어색해지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분위기 좋게 하려고 그 사람 의견을 따라주고 그것이 좋고 나쁘고 크게 판단도 안 하고 대부분 그렇게 따라가 줬지.” (참여자 5)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성격과 제 그 모든 은사와 그런 것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지내고 싶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은 자숙은 해야 하겠죠… (중략).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지만, 하지만 상황이나 그런 여건에 따라서는 그래도 자숙할 때가 훨씬 많죠.” (참여자 10)

3) 강요된 좋은 관계를 위해 짊어져야 하는 부담감

참여자들은 성도와의 관계에서 항상 긴장감을 느꼈고, 특히 새 신자에게 처음 다가갈 때 부담감이 크게 다가왔다. 성도들을 무조건 수용하고 헤아려 줘야만 하였고, 나에게 잔소리하는 성도들로

인해 마음 상황 때도 있지만 웃고 넘겨야 하는 현실이 힘들었다. 악한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지만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도 관계를 맺어야 하고, 모든 인간관계를 잘해야 하는 것이 사모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싫어도 짊어져야 하는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했다.

“처음에 다가갈 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다기보다는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을 내가 친근감 있게, 이분도 어색하지 않게 저도 다가가 줘야 하는데 제 성향이 그런 걸 못 하는 성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참여자 9)

“모든 사람들과 다 잘 지내야 한다는 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랑 맞지 않고 아니지만 그래도 만나야 하고 관계를 또 잘 맺어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참여자 10)

“모든 인간관계를 힘들지만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잡고 가야 하는 거 그게 가장 사모의 십자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여자 10)

4) 나를 잃어버려 마음의 병이 생김

참여자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자신을 학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사람을 좋아했던 내가 사모가 되면서 사람이 싫어지게 되었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게 되어버렸다. 이로 인해 마음의 병이 생기고 영적으로 침체하여 예배의 기쁨도 사라지고 말씀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말해야 하는데 내가 섭섭하면 섭섭하다 이건 아닌 것 같으면 아니다 이거 못하겠으면 못 하겠다 이랬어야 하는데. (중략) 남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안 되는 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학대한 거죠.” (참여자 5)

“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 평생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온 편이었는데 난 그게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참여자 5)

“내가 병이 생기고 내 안에 기쁨이 없고 하나도 성령의 기쁨이 없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완전히 바닥을 치더라고 막 영적으로도 다운되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왜 이러지 내가 사는 데 왜 이러지 영적으로도 아무 기쁨이 없고 이런 예배의 기쁨도 없고 그냥 목사님 설교도 막 지겨워지고…”(참여자 5)

4. 고통 속에 찾아낸 돌파구

이 주제 모음은 참여자들이 어려운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자신만의 돌파구를 찾은 경험에 관한 것이다. 참여자들은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였고, 나만의 취미생활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며 안정을 얻게 되었다. 현재는 고통 속에 있지만 나아질 미래를 생각하며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들의 영육이 서서히 회복되었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행복과 기쁨을 느꼈다. 참여자들은 대인관계의 어려움도 있지만 극복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사역에 적용하기도 하였다.

1)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 숨 쉴 구멍

참여자들은 힘들 때마다 편하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였다. 일부 참여자는 남편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하였고, 또 다른 참여자는 같은 일을 하는 타 교회 사모를 만나거나 친한 친구와 얘기할 때 속이 시원함을 느꼈다. 이처럼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내가 마음 터놓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목사님이랑 같이 있으면서 진짜 아직도 좋거든요. 저는 금실이 좋아서 항상 밥 먹고 바람 쐬러 가고 너무 기분이 안 좋고 스트레스 받는다 이러면 둘이 그냥 바람 쐬러 밥 먹으러 가고 그렇게 저는 스트레스를 풀고… 풀리는 것 같아요.”(참여자 1)

“그나마 저랑 친한 친구가 우리 교회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랑 약간 상담 아닌 상담 약간 투정 아닌 투정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게 되면 이제 같이 둘이 떡볶이 먹으면서 힘들다 이러면서 그러면 약간 그렇게 하면서 하고…”(참여자 10)

2) 취미생활로 몸과 마음을 치유함

참여자들은 스트레스가 많으니 해소할 수 있는 자기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각자 나만의 취미생활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다. 일부 참여자는 마라톤을 하면 몸도 좋아지고 정서적으로도 좋아진다고 하였고, 또 다른 참여자는 캘리그래피를 배우면서 행복감을 느꼈으며 성경 말씀 캘리그래피와 성경을 필사하는 것으로 치유와 안정감을 얻었다.

“내가 글자를 쓸 때 행복감을 느꼈던 것이 생각났어. 그래서 캘리그래피를 배우기 시작했지. 배우면서 내가 힐링이 되는 거라…”(참여자 5)

“마라톤은 근데 참 좋은 운동이네. 돈도 안 들지… 몸도 좋아지고 몸을 움직이니까 정서적으로도 좋고 그거 하고 나면은 조금 뭐라고 해야 하나 힐링 된다고 해야 하나…”(참여자 6)

3) 행복을 소망하며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감

참여자들은 신앙생활은 평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야 한다고 하였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남편도 아이들도 교인들도 모두 행복해지는 것으로 생각했다. 앞으로 힘든 일이 계속 있겠지만 신앙생활과 목사 사모로서 삶은 평생 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인내하며 살아왔으며, 앞으로 만나게 되는 힘든 일과 시간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하나님 앞에 제가 행복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행복해야 우리 남편도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고 우리 교인들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또 힘든 일이 있겠죠.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 또한 항상 그때 그랬거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또 힘든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또 믿어야죠. 뭐 어찌겠어요? 저희는 이게 놓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참여자 10)

4)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됨

참여자들은 힘들고 답답할 때 기도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럴 때 평안한 마음과 건강함을 달라고 기도했으며,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꼈다. 더하여 기도하면서 더욱 깊은 영적 체험을 하기도 했고,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차츰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기도해도 당장은 그때 답은 안 나왔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당시로는 힘드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참여자 10)

“나는 너무 갑갑한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성도들은 하는데 나는 또 와 이러노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러면서 금요 기도회 때 이제 방언이 터지면서… 방언이 터지면서 그 이후로 영적으로 이제 많이 깊어졌죠. 방언 받은 이후로 이제 기도가 되는 거야.”(참여자 5)

5)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관계의 지혜를 깨닫고 적용함

참여자들은 인간관계의 고통 속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오히려 말을 아끼는 것이 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지혜를 얻었다. 사람들을 대할 때 말하지 않고 기다려 주기, 성도와 갈등이 표출될 것 같을 때는 더 이상 말하지 않기, 미묘한 감정이 생기면 말 대신 SNS로 감정 표현하기 등의 방법을 적용하며 인간관계를 이어 나가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성도와 사이에 아무리 친분이 깊은 관계라도 적절한 선을 지켜야 함을 깨닫게 되었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시행착오의 경험에서 얻은 지혜로 점점 사역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다.

“인간관계를 잘하려면요… 일단 말을 안 해야 해요.”(참여자 3)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선을 지켜요.”(참여자 7)

“내가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 들다가 그거 한 번 또 보면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이제는 그런 마음이 좀 생겨요.”(참여자 5)

5. 잃어버린 자아를 찾으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

이 주제 모음은 참여자가 심리적으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실천과 행동에 대한 경험에 관한 것이다. 참여자들은 성도와 타인들을 자신보다 먼저 돌보고 마음을 써야 했기에 힘들조차 내색할 수 없었지만, 우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사모로서의 더 나은 삶을 살아내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참여자들은 성도에게 쏟은 노력을 포함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의지로 주가 이끌어

주시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1) 온전한 나로서 존재하기로 결심함

참여자들은 사모로서의 역할을 감내하기 위해 자신보다는 성도들을 먼저 챙기고 돌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으며, 성도들로 인해 상처받으면서도 그들에게 맞추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삶이 지속되면서 지친 참여자들은 이제부터는 자신도 돌아보고 사랑하기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즉,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고, 무조건 참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걸어 나가야겠다고 마음을 다잡기 시작하였다.

“다른 사람 생각... 다른 사람 마음 안 중요해요. 저는 뭐냐 하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지금 내 마음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거기서 흔들려서 내가 신앙 잃고, 내 사랑하는 마음 까먹고 내가 원래 사랑했던 게 교회인데 내가 원래 행복했었던 장소가 이곳인데 이곳을 잃어버리는 거는 더 불행할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거고 끝까지 이곳을 사랑하고 남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말든 나는 사랑할 거예요. 옛날에는 다른 사람 시선에 옛날에는 예민했었어요. 엄청 날카롭고 예민하고, 굉장히 예민하고 막 그랬어요.” (참여자 5)

“마음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냥 지금은 그냥 별 마음을 안 가지려고 해요. 그때는 이제 약간 마음이 화나기도 하고 좀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냥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꿔주시기를 제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닌 것 같고...” (참여자 10)

2) 나를 위해 살아가기 시작함

참여자들은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함을 느꼈고,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했다.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성격이지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용기 내어서 하기도 했고, 남들이 무엇이래 해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것이라고 굳건히 마음을 다졌다. 타인의 마음만을 헤아리지만 우선 나의 마음을 헤아려 가며 묵묵히 자신의 삶을 그리며 걸어가기로 하였다.

“그때 아팠던 것도 하나님이 선하신 거죠. 왜 그랬냐고 나는 하나님 만나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게 내가 레테의 강을 건너는 것처럼 있잖아요. 우리가 강을 건너는 것 같이 믿음의 후퇴가 없더라고요. 뒤로 빠져 침윤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그냥 나는 묵묵히 걸어가는 거

조 한 걸음씩이요.” (참여자 4)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절대 남한테 싫은 소리 진짜 못하는 성격인데, 그게 너무 내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하면서 조금씩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여자 5)

3)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함

참여자들은 사모로서 성도와의 관계가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진심으로 성도와 좋은 관계를 위한 노력을 하였기에, 옳고 그름, 즉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의탁하였다. 지금 사모로서 역할을 선한 마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다음 단계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성도 때문에 화나고 해도 이럴 필요가 뭐 있나 생각이 들고 이런 정의와 판단은 주님이 하시고 심판도 주님이 하시고 그냥 나는 예배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들이 옳다 하시더라고요. 됐다. 그래서 그냥 됐어요.” (참여자 4)

6. 소명의 여정에서 만난 나와 교회의 성장

이 주제 모음은 사모로서 경험하면서 얻게 된 자신과 교회의 성장에 관한 것이다. 참여자들은 성도와의 관계 속에 만족함을 경험하고, 영적 세계가 넓고 깊어졌으며 나아가 교회의 성장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를 느꼈다.

1) 성도들에게 위로받고 고마움을 느낌

참여자들은 힘들게 하는 성도도 있었지만, 자신의 수고와 마음을 알아주는 성도들을 통해 위로받고 고마움을 느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자와 성도들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사소한 것이라도 챙겨주려 노력하는 성도의 진실한 마음을 알게 되어 감동했다. 참여자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본인의 마음을 알아주는 성도들 덕분에 힘들지만 보람을 느끼고 즐겁게 사역에 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마음을 알아준다 이거지 뭐 특별히 뭐 어떻게 다른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한마디 말이나 한마디 하나의 행동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사람 진심이 느껴져서 이렇게 그 마음이 좀 내

가 위로받고 좀 그래 되는 거지 특별한 뭐 어떻게 뭐 거창한 이런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냥 마음을 알아주는 그 마음이 그냥 고맙다 그냥 이 정도로 느끼는 거지.” (참여자 5)

“같이 함께하는 교인들이 서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이제 모든 일을 다 같이 하고 있고, (중략) 그분들이 음식 해 놔주니까 와서 먹고 가라고 초대를 받아 가서 보면 식탁이나 이런 거 없이 바닥에 신문지 깔아놓고 저희 오니까 대접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또 소소하게 하면서 감사하게 먹거든요. 대접해 주니까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한 게 보여요. 그 마음을 아니까 또 저도 뭐라도 챙겨주고 싶고 들어주고 싶고 하는 마음이 들죠.” (참여자 7)

2) 영적 세계가 넓고 깊어짐

참여자들은 인간관계의 고통이 있었지만 반면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알게 되었다.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선택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영적, 심리적으로는 더욱 자유하게 되었고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었다.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사모의 길이지만 뒤돌아보면 결국 자신이 성장하게 되었고,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가서 첫 면회를 갔는데 자살할 것 같은 거야. (중략) 그런데 딱 집에 왔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중략) 화장실에 앉아서 볼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딱 하는데 내가 천국하고 이걸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베스트를 허락하신다. (중략) 천국과 내가 맞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죠. 그러면서 내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참여자 4)

“사모하길 잘했다 막 이런 생각도 안 드는데 한 번씩 어떤 생각 하나면 사모가 안 됐으면 영적인 세계를 정말 몰랐을 거다. (중략) 어떤 교회든지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야 하고 가르쳐야 하니까 내가 영적으로 안 되면 아무 케어가 안 되고 너무 갑갑하고 답답하고 아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하고 말씀 공부해야 하고 하다 보니 내가 영적으로 섰다. 안 그러면 영적인 경험 성령의 체험 이런 거 아무것도 못 했겠죠. (중략) 그래서 영적으로 유익함은 정말 많았다. 근데 우리 사모로 꼭 살아야 하나... (웃음) 다시 사모하라면 절대 안 하지.” (참여자 5)

3) 교회의 성장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

참여자들은 교회에 새 신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과 기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성숙해지고 좋은 분위기로 변화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기쁨과 행복감을 느꼈다. 종종 나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사모로서 존재 이유와 보람을 느끼게 되었고 감사함을 느꼈다. 특히, 새 신자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사역하는 사모로서 큰 기쁨이었다. 참여자들은 인간관계의 긍정적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점차 사람을 대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게 되었고, 새 신자를 만나는 것을 오히려 기대하게 되었다.

“이게 모든 기쁨은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너무 행복하고 기쁘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분위기가 차가웠어요. 어느 순간 되게 뜨겁게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게 느껴져서 분위기가 변한 게 보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중략) 하나님이 우리 교회 빠르지는 않지만, 차츰차츰 그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중략) 어느 날은 엘리베이터에서 성도님들이 새신자실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새신자분들이 조금 생기고 사람들이 많아져서 되게 기쁘고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또 기분이 좋아지고 (중략) 하나님 응답이 제일 기쁘죠. 교회가 변화되는 게 조금조금 보이니까” (참여자 1)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어머니가 이제 저의 영향으로 교회를 이제 나가신대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않아도 이렇게 몇 분이 계셨거든요. 그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그렇지,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잖아.” (참여자 2)

III. 논의

본 연구는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의 인간관계 경험의 본질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생생한 체험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제 모음을 중심으로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의 인간관계 경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주제 모음인 ‘성도의 무례한 태도와 언사로 마음이 쓰리고 아픔’은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을 무례하게 대하는 성도들로 인해 겪어내야 했던 고통에 관한 내용이다. 성도들은 목회자 사모가 모든 것을 풀어주는 온유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김영수, 2016; 손민정, 2014)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경우 사모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전현옥,

2018) 성도들의 무례한 태도에도 목회자의 사모이기 때문에 참아내야만 하는 현실 속에 있었다. 따라서 많은 목회자 사모가 교회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의 인간관계를 이어 나가면서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된다(송경화, 2020). 특히, 소형교회에서는 성도 간에 관계의 폭이 좁아 사모의 사역 범위가 넓고 성도들과 접촉점이 많아서 성도의 무례한 태도와 언사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자 사모 역시 한 사람의 성도이자 사역자로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인식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회 차원에서 인간관계 훈련과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성도와 사역자 간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주제 모음인 ‘떠나가는 성도로 인해 비통함’은 사모 역시 사역자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생길 때 겪어야 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에 관한 내용이다. 소형교회는 목회자 사모의 역할 비중이 매우 큰 만큼(전현옥, 2018)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관리하며 교회 안에서 어머니와도 같은 역할을 도맡고 있기 때문에(윤미래, 2018) 더더욱 성도들이 떠나갈 때 겪는 상실감과 허탈감 그리고 마음의 공허함은 클 수밖에 없다. 이는 대다수의 목회자 사모는 대인관계의 외로움과 영적 공동체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Ashley, 2020). 따라서 목회자 사모가 겪는 심리 정서적 고통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정서적인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형교회 사모를 대상으로 한 지지 모임을 운영하여 서로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소형교회 사모들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역에 대한 동기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세 번째 주제 모음인 ‘자신을 억압하고 관계의 십자가를 지는 삶’은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들이 교회에서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느낀 심리적 현상이다.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들은 성도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참고 듣기만 하는 것이 힘들었고 심적으로 고통스러웠다. 성도와의 관계에서 항상 긴장감과 부담감을 느꼈으며 성도들을 무조건 수용해야만 했다. 선행연구에서도 목회자 사모는 성도와의 관계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낀다고 하였고(전현옥, 2018), 특히 심리적 어려움은 주로 관계에서 느낀 거절감, 소외감 등으로 나타났다(송경화, 2020). 하지만 모든 인간관계를 잘해 나가야 하는 것이 사모의 책임인 ‘십자가’라고 생각했고 싫어도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사모이기 이전에 본연의 자기 모습을 점점 잃어가며 영적 침체도 경험하였는데, 이는 심리적 안녕감이 영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김나미, 2015). 그러므로 목회자 사모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대처하고자 방어기제로서 지속적인 억압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신·심리적 불건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신·심리적 간호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확

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네 번째 주제 모음 ‘고통 속에 찾아낸 돌파구’에서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들은 교회 내의 인간관계 갈등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소형교회 사모들은 본인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지인이나 남편과 대화하거나, 다양한 취미생활, 인내와 소망, 기도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갔다. 선행연구에서 목회자 사모들이 성도와의 갈등 스트레스를 하나님을 의뢰하며 이겨내려 애쓰고, 취미생활이나 공부, 운동 등으로 해소하며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얻어 스트레스를 극복한다는 결과(남민영, 2024)와 목회자 사모 대부분은 가족과 사회적지지, 기도를 통해 스트레스를 대처한다는 연구 결과(Chan & Wong, 2018)는 본 연구의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에서도 나타났다. 따라서 인간관계 스트레스로 소진될 수 있는 소형교회 사모를 위해 교회 및 교단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노회 중심으로 소형교회 사모를 위한 정기적인 치유세미나 등을 운영하거나 심리적 영적 건강증진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들이 사역으로 인한 소진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실재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다섯 번째 주제 모음 ‘잃어버린 자아를 찾으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에서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들은 그들의 역할을 감내하며 교회 사역 가운데 함몰되고 지친 자신을 발견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현재와 미래의 인간관계를 의탁하며 더욱 영적으로 깊어지는 성숙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결과는 사모로서 힘든 시간이 지나고 자신의 삶을 수용하고 사역으로 힘을 얻게 되는 선행연구(윤미래, 2018)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의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들은 자기 발견과 영적 회복을 통한 심리적 영적 성숙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개선된 방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 사모는 본인 스스로는 상담을 받지 못하고 주로 상담해 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송경화, 2020). 그러므로 목회자 사모의 자기 이해를 돕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목회자 사모들이 겪는 인간관계로 인한 시행착오는 물론 그로 인한 심적 고통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더하여 목회자의 사모로서 교회사역 가운데 특히 성도들과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여섯 번째 주제 모음인 ‘소명의 여정에서 만난 나와 교회의 성장’은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로 지내며 얻게 된 자신과 교회의 성장에 관한 내용이다. 사모들은 자신의 수고와 마음을 알아주는 성도를 통해 위로받고 고마움을 느끼며 사역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만족함을 경험하였다. 이는 개인이 주위로부터 받은 사회적지지는 개인의 정신건강과 인생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Quamma & Greeberg, 1994) 목회자 사모로서 사역하며 자아실현과 성장을 하였다는 연구 결과(Brunette-Hill, 1991)와 맥락을 같이 한다. 전현옥(2018)의 연구에서도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도 사회적지지 속에서 자기의 정체감을 가지고 사모가 잘하는 일을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안아주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목회자인 남편과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들의 사모 역할에 대한 재정의와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재정의된 사모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와 교육 및 행·재정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들은 교회사역 중 힘든 인간관계를 통하여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지만,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심리적 자기 탐구와 더불어 영적 갈망을 채울 수 있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것은 김병오(2012)의 연구에서 목회자 사모들은 영적 성숙을 향한 간절한 의지와 적극적인 신앙적 실천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고자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유해룡(2002)은 영성은 자아가 영적인 세계로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재해석되어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들도 인간관계의 시행착오와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남으로 현재의 삶을 재해석하고 개인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을 체험하면서 행복,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하였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이 신학교육을 지속해서 받으면서 목회 현장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과 같이 목회자 사모를 위해서도 신학 및 목회 상담 등의 교육을 제공하고 지속해서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소형교회 사모를 위하여 공동체 또는 지지 모임을 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들의 인간관계 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회 및 교단적인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IV. 결론

본 연구는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의 인간관계 경험에 대한 본질과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성도 300명 이하의 소형교회 담임 목회자 사모로서 3년 이상 사역을 경험한 10명이었다. 연구 결과,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의 인간관계 경험은 6개의 주제 모음과 19개의 주제, 61개의 의미 단위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숨은 사역자로 불리는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가 사역 과정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관한 인식, 태도, 느낌 등을 탐색하고 드러내어 이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의 인간관계 개선과 향상을 위한 간호 중재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는 사역 과정 중 인간관계를 겪으며 심리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전환을 위해 교회 차원에서 성도와 사역자 간의 상호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인간관계 훈련과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긍정적인 갈등 해소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목회자 사모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교단 차원에서 지속적인 교육 및 재정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더하여 이들의 심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프로그램 및 심리 치유 간호 중재를 제공하고, 노회 중심으로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를 위한 정기적인 치유세미나 등을 운영하여 심리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를 대상으로 한 공동체와 지지 모임을 운영하여 서로의 어려움을 나눌 기회를 제공하고, 사역에 대한 동기를 새롭게 하여 심리적, 영적 성숙을 도와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인간관계 어려움에 대한 문제를 지속해서 사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간호를 제공하고 인간관계 역량 향상을 위해 교회 및 교단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향후 본 연구의 구체적 결과를 반영하여 자기 이해, 대인관계 기술 및 상담 기술 및 영성을 향상하게 시킬 수 있도록 고안한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를 대상으로 대인관계 역량 향상을 위한 전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 참여자를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여 연구 결과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타 지역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를 대상으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김계명·유재성 (2012). 글쓰기 치료를 통한 목회자 아내의 전인적 안녕 제고. **한국 기독교 상담학회지**, 23(2), 9-30.
- 김광수 (2011). **인간관계론**. 서울: 도서 출판 청람.
- 김나미 (2015). 목회자 사모의 정신건강과 영적 안녕감의 관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5(2), 252-261.
- 김나미 (2016). 목회자 사모의 심리적 안녕감이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과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6(2), 673-685.
- 김병오 (2012). 상처와 슬픔의 치유. 서울: 도서 출판 대서
- 김보림·김미경 (2020). ‘목회자 사모가 되어가기’에 관한 내러티브탐구. **복음과 상담**, 28(1), 85-118.
- 김승국 (2009). **한국 재림교회 목회자 사모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 방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삼육대학교.
- 김영수 (2016). 소도시의 소형교회 사모들의 사역과 역할에 대한 질적 연구. **신학과 실천**, (51), 223-250.
- 남민영 (2024). **목회자 사모의 신자와의 관계갈등과 극복과정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손민정 (2014). **목회자 사모의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검증**. 박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 송경화 (2020). 목회자 사모의 경험 이해를 위한 현상학적 연구: 기독교 상담적 관점에서. **복음과 상담**, 28(1), 147-181.
- 유해룡 (2002). **하나님 체험과 영성 수련**.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윤미래 (2018). **중년기 목회자 사모의 우울 경험**. 박사학위논문. 수도권제대대학원대학교.
- 이남인 (2010). 현상학과 질적연구방법. **대한 질적 연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9, 91-121.
- 이병애·구자경 (2023). 목회자 사모가 교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소진과 회복에 대한 내러티브탐구. **한국 기독교 상담학회지**, 34(2), 75-106.
- 이윤정·김귀분 (2008). 임상간호사의 이직 경험.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2), 248-257.
- 전현옥 (2018). **미자립교회 목회자 아내가 경험하는 심리 현상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정금선·양혜원 (2015). 소형교회 목회자와 목회자 아내의 복지사역 참여 경험에 대한 연구. **신앙과 학문**, 20(4), 161-196.
- Ashley, E. R. (2020). *Thriving Holistically as a Woman Married to a Minister: A Spiritual Formation Model to Support Women in the United States in the Role of Pastor's Wife*.

- Doctoral Dissertation. George Fox University.
- Brunette-Hill, S. (1991). *His job, her life: a survey of pastors' wives*. Masters Dissertation. Marquette University.
- Chan, K. & Wong, M. (2018). Experience of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among pastors' wives in China. *Journal of pastoral care & counseling*, 72(3), 163-171.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ommey, I. T., Ninnoni, J. P. K., Asamoah Ampofo, E. & Miezah, D. (2023). Living with Schizophrenia: the rol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Discover Psychology*, 3(1), 13.
- Davis, J. L. (2007). *Alone in a crowd: A phenomenological inquiry into loneliness as experienced by pastors' wives*. Liberty University.
- Guba E. G. & Lincoln Y. S. (1989).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1st ed.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Luedtke, A. C. & Sneed, K. J. (2018). Voice of the clergy wife: A phenomenological study. *Journal of Pastoral Care & Counseling*, 72(1), 63-72.
- McMinn, M. R., Kerrick, S. P., Duma, S. J., Campbell, E. R. & Jung, J. B. (2008). Positive coping among wives of male Christian clergy. *Pastoral Psychology*, 56, 445-457.
- Omery, A. (1983). Phenomenology: A method for nursing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5(2), 49-64.
- Quamma, J. P. & Greenberg, M. T.(1994). Children's experience of life stress: the role of family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as protective factor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3(3), 295-305.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4.11.27.). “목회자”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 국민일보 (2023.03.27.). “소형교회 목회자들 은퇴 후의 삶이 위태롭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93660>.
- 뉴스앤조이 (2017.11.01.) “중형교회의 위기, 기독교 생태계 위협.”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4097>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의 인간관계 경험

Interpersonal Relationship Experiences of Pastors' Wives in Small Churches

손수경 (고신대학교)

이은하 (고신대학교)

허진선 (고신대학교)

이수목 (고신대학교)

손원미 (고신대학교)

이현애 (동의과학대학교/교신저자)

논문초록

본 연구는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를 중심으로 인간관계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탐색하여 그들의 경험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기술하기 위해 실시한 질적연구이다. 연구 방법은 부산, 경남 지역에 소재한 성도 300명 이하의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로 3년 이상 경험한 자 1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경험을 심층면담을 통해 제시하고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도의 무례한 태도와 언사로 마음이 쓰리고 아픔', '떠나가는 성도로 인해 비통함', '자신을 억압하고 관계의 십자가를 지는 삶', '고통 속에 찾아낸 돌파구', '잃어버린 자아를 찾으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 '소명의 여정에서 만난 나와 교회의 성장'으로 총 6개의 주제모음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의 인간관계 경험에 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의 자기성장과 성도들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인간관계 개선과 이를 위한 전인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목회자 사모, 인간관계 경험, 질적연구, 소형교회

이 시대 고아, 과부, 거류민은? : 성경과 센(Sen)의 관점을 중심으로*

**Who are the Orphans, Widows, and Sojourners of Our Time? :
A Focus on the Perspectives of the Bible and Amartya Sen**

조규봉 (Kyu Bong Cho)**

ABSTRACT

With economic polarization gaining prominence in Korean society, there is increasing societal interest in the plight of the impoverished. This study analyzes the historical meanings of orphans, widows, and sojourners as representative vulnerable groups in ancient Israel to derive the criteria for poverty as outlined in the Bible. The findings reveal that poverty in the Bible is not solely defined by low income levels but also by a lack of the right to land ownership (heritage of family), which leads to a heightened systematic risk of poverty and significant obstacles to escaping impoverishment. Furthermore, the study compares the biblical criteria for poverty with Sen's approach, which redefines poverty through essential functionings and capabilities. This comparison uncovers substantial similarities between the notion of poverty in the Bible and Sen's concept of sustained capability deprivation. Building on this understanding, the study identifies the elderly as a primary impoverished group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However, it is premature to conclude that the elderly are caught in a vicious cycle of impoverishment due to ongoing capability deprivation. This study underscores the need for timely social attention to the elderly and recommends that government support focus on maintaining their health and enabling economic independence in an increasingly digitalized environment, particularly through targeted digital education.

Key words: poverty, functionings, capabilities

* 2024년 11월 4일 접수, 11월 29일 최종수정, 12월 2일 게재확정

** 한동대학교(Handong Global University) 경영경제학부 교수, 경북 포항시 북구 한동로 558, kbcho1@handong.edu

1. 서론

한국 사회에서 양극화 문제는 가장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다.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소득은 6,762만원, 처분가능소득은 5,482만원이며, 순자산은 53,540만원이다. 전년도에 비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순자산은 4.5% 감소하고 평균 소득은 4.5% 증가하였음에도 분배 지표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대표적인 소득 불평등 지수인 소득 5분위 배율¹을 보면 시장소득 기준(2022년)으로는 11에 근접하고 있으며 처분가능소득 기준(2022년)으로는 5.76으로 6에 근접한 값을 나타낸다. 게다가 근래 물가 상승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분위별로 소비가중치를 달리 적용하여 체감 물가상승률을 구해 보면 근래 저소득층의 소비 비중이 높은 식료품 등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여 저소득 가계의 체감 물가상승률이 고소득 가계보다 높게 나타났다(박성욱·장민, 2021).

이러한 경제적 현실을 두고 빈곤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금년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원과 주거급여의 수급자 범위를 확대하고 중증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빈곤층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빈곤 문제가 성별, 연령대별로 어떠한 특색을 지니는지, 지역별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빈곤층에 대한 정책 지원이나 연구는 대부분 개인 또는 가구의 소득이 특정 수준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달리 말하면 보편적인 빈곤의 기준이 소득의 높고 낮음인 셈이다. 소득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감안해 보면 소득 수준을 잣대로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티아 센(Amartya Sen)과 같이 소득 수준만을 기준으로 하여 빈곤층을 설정하고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학자들도 있다. 센은 빈곤을 단순히 소득이 낮은 상황으로 보지 않고 상호 관계 속에서 개인의 기본적인 역량(capabilities)이 지속적으로 상실된 상황으로 인식한다. 이 같은 빈곤에 대한 인식 전환은 빈곤층을 어떻게 설정할지부터 정부의 지원이 어떤 대상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

성경에서도 빈곤은 중요한 주제이다. 특히 구약성경에서는 토라에서부터 예언서에 이르기까지 빈곤층에 대한 공동체적 지원이 주된 관심사로 등장한다. 신명기 15장 4절에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기록되

1) 소득 5분위 배율이란 5분위 계층(최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1분위 계층(최하위 20%)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어 있다. 해당 구절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관을 보여주는 면제년(안식년) 규례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 근동지방의 다산과 풍요를 바라는 풍습을 좇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명령을 따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빈곤의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만큼 빈곤 문제 해결은 당대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중대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성경의 인식을 바탕으로 성경에서 지목하는 대표적 빈곤층인 고아, 과부, 그리고 거류민(나그네)이 당대에 가지는 의미를 면밀히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성경에서 제시하는 빈곤의 개념을 이끌어 내었다. 그 결과 성경에서 제시하는 빈곤의 기준이 낮은 소득 수준을 포함하여 표면적인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토지(기업)의 소유권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의 유무, 즉 토지의 소유권을 갖지 못해 빈곤에 처하기도 쉽고 빈곤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성경적 빈곤관이 빈곤 개념을 새로이 확장한 센의 접근방식과는 유사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센이 제시한 핵심적인 기능들(functionings)과 역량을 중심으로 빈곤을 정의해 보면 성경을 통해 추론한 빈곤 개념이 이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새로이 설정한 빈곤 개념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빈곤층이 누구인지 분석해 본 결과 노인 계층이 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노인 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정부의 지원 방향이 그들의 건강 수준이 현저히 낮아지지 않도록, 적절한 디지털 교육을 통해 디지털화된 환경 속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는 이전의 정부 발표나 다양한 분야의 연구 결과와 일관됨을 알 수 있다(김태환, 2023 ; 신정하·전주성, 2024 ; 이승희, 2023).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까지 빈곤 관련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빈곤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심리적 문제와 함께 그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응책에 초점을 맞춰 왔다. 하지만 빈곤 개념 자체에 대해 성경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찾아 보고, 현대 경제학계에 새로운 빈곤 관점을 제시한 센의 기준과 성경의 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양자 간에 유사성을 밝혀 보려는 시도는 본 연구가 처음이다. 더욱이 새로운 빈곤 기준을 토대로 한국 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빈곤층을 찾아 그들에 대한 지원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시행해야 할지 찾아보려는 시도 또한 의미있는 연구의 시발점이라 생각된다.

본 고는 서론 이후 다음과 같은 구성을 취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구약성경에서 예시한 대표적 빈곤층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통해 빈곤의 기준을 추론해 볼 것이다. 이어서 센이 제시한 새로운 빈곤 기준을 설명하고 센의 기준과 구약성경 기준과의 유사성을 짚어볼 것이다. 뒤이어 한국 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빈곤층을 찾아 보고 해당 계층이 성경과 센이 제시한 빈곤 기준에 부합하는지 분석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의미와 한계를 밝힌 후 본 논문을 결론짓고자 한다.

II. 구약성경에서 빈곤층과 빈곤의 기준

성경, 특히 구약성경에서 사회 취약계층으로 반복해서 언급하는 대상이 고아, 과부, 그리고 거류민(나그네)이다. 모세오경(토라)를 비롯한 구약성경에서는 이들에 대해 사회적 배려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안식년에 발생한 생산물을 이들이 자유로이 수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추수 때 가난한 자들의 몫을 남겨두라는 명령이다. 이렇게 공동체가 고아, 과부, 거류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라고 거듭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표적 빈곤층이었기 때문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당대에 고아, 과부, 그리고 거류민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며, 이들이 공유하는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제시하는 빈곤의 기준을 찾기 위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1. 고아(야툼)

구약성경에서 ‘야툼’으로 기록된 단어는 통상 영어로 ‘orphan’, 우리말로는 ‘고아’로 번역한다. 우리 사회에서 고아는 부모가 없는 아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야툼’이라는 히브리어 또한 부모 없는 아이로 해석하기 쉽다. 하지만 구약성경에서의 용례를 살펴보면 가정에서 아버지가 죽으면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의 자녀들은 ‘야토밈(야툼의 복수)’이 된다. 따라서 고대 근동지방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야툼’은 부모가 없는 아이라기 보다 아버지 없는 아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이샤야, 2009). 아울러 ‘야툼’은 장성하여 과부인 어머니를 부양할 만한 나이가 아니라 여전히 어머니에게 의존해야 하는 미성년자로 추정된다(강은희, 2015). 결과적으로 구약성경에서 고아로 번역된 ‘야툼’이라는 단어는 부모가 없는 사람을 통칭하기 보다는 아버지를 여의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성인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아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2. 과부(알마나)

그렇다면 구약성경에서 과부를 지칭하는 히브리어 ‘알마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알마나’는 과부의 의미인 남편과 사별한 여성을 가리키는 단어로 봐도 무방하다. 문제는 구약성경에 ‘알마나’ 외에도 과부를 의미하는 용어로 ‘이샤 알마나’, ‘에셋 하멧’이라는 함께 사용된다는 점이다. 강은희(2015)에 따르면 학자들은 대체로 이 세 용어의 차이에 크게 주목하지 않지만, 일부 학자는 성경에서 사용된 맥락을 볼 때 특별히 ‘알마나’는 남편의 사별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 삶의 고난을 내포하는 용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슈타인버그는 과부를 의미하는 세 히브리어에 대해 구

약성경의 용례를 근거로 의미상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강은희, 2015). ‘이샤 알마나’는 상속 재산과 아들을 가진 과부를 지칭하고(왕상 7:14, 11:26, 17:9~20; 삼하 14:7), ‘에셋 하멧’은 룯과 다 말(창 38)의 사례에서 보듯 아들 없이 남편과 사별했으나 남편 일가와의 재혼을 통해 아들을 낳고 사별한 남편의 재산을 상속한 경우를 가리킨다. 반면, ‘알마나’는 남편과 사별 후 경제적 부양을 담당할 주체가 전혀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약성경에 다른 용례를 추가로 분석해 보면 ‘알마나’가 경제적 상황을 기준으로 다른 용어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는 힘들다(강은희, 2015). 오히려 경제적 상황 자체보다는, 고대 근동지방에서 가장의 죽음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남은 가족들의 무력함과 타인의 공격 대상이 되기 쉬운 위험성을 감안하여 남편이라는 보호막이 없는 여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3. 거류민(게르)

마지막으로 거류민 혹은 나그네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게르’가 가진 의미를 살펴보자. 디터 켈러만에 따르면, ‘게르’는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상속 자산 등 가계로부터의 경제적 보호막이나 특권이 없는 이들이다(강은희, 2015). 즉 ‘게르’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에 따른 구분 기준이라기보다는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거주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에 정착하여 살고자 하는 이주민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스피나와 고웬 같은 일부 학자들은 ‘게르’를 ‘이민자’로 번역하는 것이 현대적 의미에서는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강은희(2015)는 현대 세계에서 이민이라는 제도로 인해 연상되는 법적, 제도적 의미 때문에 ‘게르’를 ‘이민자’로 번역하는 것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게르’가 가지는 의미를 왜곡할 수 있어 적절한 번역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이런 맥락에서 단순히 외국인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인 ‘노크리’와 ‘게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노크리’는 거주 지역 공동체 내에서 외부인으로 인식되는 반면, ‘게르’는 공동체 영역 내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자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자신의 연고지를 떠나 다른 지파의 땅에서 살고 있는 경우도 ‘게르’에 포함될 수 있다. 정중호(2004)에 의하면 고대 근동지역에서 기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게르’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 볼 때 ‘게르’의 경제적 지위는 토지 등 자신의 경제적 자산을 가지지 못하고 일용 노동자(신 24:14)나 나무를 자르고 물을 길는 사람(신 29:10), 또는 석수나 짐꾼(대하 2:16) 등 공동체 내에서 단순한 노역을 담당하는, 가난한 노동자 계층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강은희, 2015).

4. 사회적 지원 대상으로 빈곤의 기준

앞서 살펴보았던 ‘야툼’, ‘알마나’, 그리고 ‘게르’, 이들 세 부류의 공통점은 당시 사회에서 낮은 소득 수준의 경제적 취약층이라는 점이다. 이들이 경제적 취약층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상속지(기업)의 부계 계승이 원칙이었던 당대에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농경사회에서 토지가 없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취약하다는 의미다. 이를 감안해 볼 때 ‘야툼’, ‘알마나’, ‘게르’는 빈곤에 처하기도 쉽고 빈곤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닌 계층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구약성경에서 공동체의 대표적 배려 대상으로 지목한 이들 세 부류는 저소득층이라는 공통점과 더불어 그들이 지닌 사회 구조적 취약성 또한 성경에서 빈곤층을 가르는 기준으로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구약성경에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사회·경제적 지원은 일차적으로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더 나아가 당시 생산의 토대가 되었던 토지로부터의 혜택을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가 없었던 이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안식년에 발생한 생산물을 이들이 자유로이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생각해 보자. 이러한 지원책은 안식년이 도래하여 휴경 중인 농지에서 자생적으로 산출된 곡물이 그 농지의 소유주만의 몫이 아니라 농지가 있는 지역에 거하는 고아, 과부, 거류민 등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어야 할 몫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출 23:11 ; 레 25:3~7). 추수할 때 밭 귀퉁이는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이나 열매는 줍지 말며, 감람나무를 떼 후에 가지에 남은 것은 수확하지 말라는 명령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II. 센(Sen)의 빈곤 기준과의 비교

구약성경에서 빈곤층을 가르는 기준이 소득의 많고 적음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취약성 또한 중요한 부분임을 살펴보았다. 현대 경제학에서도 빈곤층을 설정하고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일차적인 기준이 소득이겠지만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학자들이 있다(Alkire, 2002 ; Stiglitz, 2010 ; Banerjee & Duflo, 2011 ; Deaton, 2013). 그 대표적인 학자가 앞서 언급한 센이다. 센은 빈곤 개념을 역량 개념을 중심으로 재정의하였으며 개발경제학(development economics) 분야의 여러 학자들뿐 아니라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기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구약성경에서 제시한 기준의 연장선에서 센이 기존의 빈곤층 설정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인 부분은 무엇이며, 센이 빈곤층을 설정하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한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센이 제시한 기준과 구약성경에서 대표적 빈곤층으로 제시한 고아, 과부, 거류민의 공통적 특성에 어떠한 유사성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1. 센의 빈곤에 대한 기준

센은 빈곤을 낮은 소득 수준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개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용하더라도 사회 전체의 빈곤 수준을 적정 소득 이하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한다(Sen, 1976). 아울러 현재 경제학 이론은 소득, 효용에 기반해서 개인의 행동을 분석하지만, 실제 경제적 주체의 선택을 보면 금전적인 소득이나 자산 가치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자유와 인권 등 기본적인 덕목 또한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제도적으로도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 빈곤 여부에 기본적인 덕목이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Visard, 2006).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소득은 하나의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뿐이며 소득이 낮다는 것은 역량의 상실(capability deprivation)로 인한 결과에 불과하다. 결국 센에 따르면 빈곤은 단순히 낮은 소득 수준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역량의 상실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센이 제시한 빈곤 개념과 기존의 소득 중심 빈곤 개념을 간단히 비교해 보면 <표 1>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1> 기존 빈곤 개념과 센의 빈곤 개념

항목	기존 빈곤 개념 (소득 중심)	센의 빈곤 개념 (역량 접근법)
정의	소득이나 물질적 부의 부족	역량의 지속적인 상실
목적	물질적 자원의 확보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
해결 방안	소득 증대, 재분배 정책	다차원적 접근(교육, 보건, 사회적 기회 제공)

이제 센이 새롭게 제시한 빈곤의 기준은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센은 빈곤을 정의할 때 역량의 지속적인 상실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그렇다면 역량은 무엇인가? 역량을 설명하기 위해 센은 ‘기능(functioning)’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여기서 기능은 삶의 특정한 상태를 의미하며, 개인의 전반적인 삶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기능의 벡터(vector)로 설명 가능하다. 개인의 역량을 하나의 집합으로 본다면 실현 가능한 기능 벡터들의 집합(the set of feasible vectors)이 곧 역량의 집합(capability set)이 되며, 역량의 집합은 개인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지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조규봉, 2020). 결국 센의 역량 개념에서는 기능 벡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센이 제시한 주요 기능으로는 건강한 상태(being healthy), 교육 수혜(being educated), 정치 참여(being able to participate in the life of the community) 등이 있다. 따라서 센이 정의한 빈곤, 즉 기본적인 역량의 지속적인 상실은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필수적인 주요 기능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형성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센은 앞서 밝힌 것처럼 기초적인 자유와 인권 등 기본적인 덕목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센의 빈곤 관점을 자유, 인권 등 기본적인 덕목과 연관지어 보면 개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삶(또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부족한 상태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것 또한 빈곤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센은 특히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자유는 단순히 기능(개인의 특정한 삶의 상태)의 한 형태가 아니라 역량 자체에 가깝다고 본다. 왜냐하면 실현 가능한 기능의 집합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 또한 개인의 중요한 역량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정치적 자유나 교육을 적절히 누릴 수 없다면, 그들은 본인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을 추구하는 데 필수적인 역량을 상실한 '빈곤 상태'에 있는 것이다. 센은 또한 빈곤과 인권을 연관 지으며, 기초적인 의료, 교육 및 고용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복지(well-being)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사람들이 이러한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면 그들의 역량 수준이 낮아져서 당장에 소득 기반 지표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빈곤 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센은 기초적인 의료, 교육 및 고용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면 이 또한 빈곤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궁극적으로 센의 접근법은 빈곤을 본인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자유의 결핍으로 재정의할 수 있다. 센에게 있어 빈곤 문제의 해결은 전통적인 소득 지표가 간과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의 부족을 포함하여 결핍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 센의 기준으로 개발된 빈곤 지수 예시

센의 빈곤 기준은 이론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국제기구의 빈곤 측정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비록 제한적인 기능들을 반영하여 역량 지표를 추정하기는 하지만 United Nations(UN)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기존에 활용하던 빈곤지수 외에 새로운 지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UN 내 특별 기구인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에서는 Human Development Index(HDI)를 개발하여 활용 중에 있다. HDI는 기대 수명, 교육, 소득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지표인데 센이 강조한 주요 기능을 토대로 사회 전반의 역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UNDP는 옥스퍼드대학 내에 있는 Oxford Poverty and Human Development Initiative(OPHI)와 공동으

로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MPI) 지표도 개발하였다. MPI는 건강(영양상태, 아동사망률 등을 포함), 교육(교육기간, 학교출석률 등을 포함),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수준(요리 연료, 위생, 식수, 전기, 주택, 기본 자산 등의 수준을 포함)의 3가지 측면을 모두 감안하여 산출한 지표이다. 새로이 개발된 지표들은 기존에 특정 국가의 빈곤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주로 사용해왔던 1인당 국내총생산(GDP per capita)이나 소득 기준 빈곤선(poverty line)²을 활용하여 산출한 절대 빈곤율을 보완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HDI나 MPI가 기존 지표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국가의 상대적인 빈곤 정도를 보여주긴 하지만, 기능과 역량 관점에서 국내 계층별 빈곤 정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는 않기 때문에 국내의 구체적인 문제를 위해서는 정부가 연구 개발 등을 통해 소득 기반 빈곤 지수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HDI는 2023년 기준, 약 0.925인데 이는 한국의 전반적인 인력 개발 수준이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에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값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역량의 지속적 상실로 인해 빈곤 상태에 있는 계층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3. 구약성경 기준과의 유사성

이제 센이 제시한 빈곤 기준과 성경이 제시한 빈곤 기준의 유사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성경에는 빈곤을 명확하게 정의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빈곤층으로 언급된 고아, 과부, 그리고 거류민을 통해 빈곤의 기준을 추론해 볼 수 있었다. 이들 계층은 소득 수준이 낮고 당대에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가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빈곤의 기준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빈곤 기준을 통해 당대 경제적 취약층이 직면한 어려움은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고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나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준다.

성경으로부터 추론한 빈곤의 기준이 센의 기준과 유사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첫 단계로 성경의 대표적 빈곤층이 센이 강조한 기본 기능들(functionings)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고대 근동지방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면 기본 기능 중 교육 수혜나 정치 참여는 당대 일부 사람들만이 높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따라서 건강 상태를 두고 성경의 대표적 빈곤층이 센의 빈곤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고대 이스라엘의 식단은 곡물, 콩류, 제한된 육류와 같은 농산물에 크게 의존했는데 이러한 식단은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영양소를 제공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2) 보통 성인이 1년 간 소비하는 모든 필수 자원의 총비용을 산출하여 추정하게 되는데 국제 빈곤선 기준은 2024년 현재, 'USD 2.15/일'이다. (출처: World Bank)

경제적으로 취약했던 고아, 과부, 거류민의 경우 식량 부족은 물론 충분한 영양소 공급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Borowski, 2003). 이는 영양 결핍 위험을 증가시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질병에 더 취약하게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고대 이스라엘의 주택은 작고 기본적인 위생 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는데 취약계층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적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깨끗한 물과 적절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했을 것이다(Borowski, 2003). 이러한 생활 환경은 감염병과 수인성 질병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켰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의 정결규례가 위생 관행에 대한 지침 역할을 했겠지만, 자원과 거주 상황에 따라 실제 상황은 달랐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고아, 과부, 거류민과 같은 취약 계층에게는 건강상 위험을 증폭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고아, 과부, 거류민은 다른 공동체 일원보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비록 토라에서 이들에 대한 공동체의 지원을 강조하지만, 이들이 건강 수준을 좋은 상태로 지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센의 빈곤에 대한 관점에서 핵심 역량으로 꼽히는 자유를 가지고 고아, 과부, 거류민의 빈곤 상태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자유는 인생의 선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근간으로 한다. 성경에서의 고아, 과부, 거류민은 경제적 자립 여건이 부족해 자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상황을 스스로 개선하기도 거의 불가능했다. 토라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 지원책은 이들에게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도덕적 책임을 반영하고 있지만 당시 그러한 지원책이 그들에게 삶의 여러 측면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성취할 수 있는 자유를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사회 내에서 소외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법적으로는 생존할 권리와 함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삶을 인정받았지만, 경제적으로 자립적이고 두루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자유는 당시의 사회 경제적, 문화적 구조 속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센은 ‘소득핸디캡’과 ‘변환핸디캡’이라는 분석 방식을 사용하여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소득이 더 필요함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Sen, 2010).

개발도상국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주로 소득의 측면에서 빈곤층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지만, 평범한 삶을 살고 장애를 완화하기 위해 돈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득의 필요는 장애가 없는 사람들보다 더 크다. ‘소득핸디캡’이라 불릴 수 있는 소득능력의 손상은 ‘변환핸디캡’-바로 장애 때문에 소득과 자원을 좋은 생활로 변환하는데 겪는 곤란-의 영향에 의해 강화되고 크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정의의 아이디어 (The Idea of Justice)』, p. 291)

이러한 센의 분석은 성경의 경제적 약자층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다(조규봉, 2020). 고대 이스라엘은 성인 남성에게 소득 창출 능력이 집중된 사회였는데 고아와 과부는 ‘소득핸디캡’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사회적 활동에도 제약이 많은 계층이라 일부 소득이 있더라도 이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환하기가 쉽지 않아 ‘변환핸디캡’도 가진 존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거류민 역시 생산 기반이 없어 ‘소득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역 공동체에 기반이 약해 사회적 활동이 쉽지 않아 ‘변환핸디캡’을 가진 계층이라 할 수 있다. 즉 앞서 인용한 예시에서의 장애인과 토라에서 언급하는 고아와 과부, 거류민은 센의 관점에서 빈곤의 특징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경제적 취약층으로 대표되는 고아, 과부, 거류민이 센의 빈곤 기준을 적용해 보더라도 명백히 빈곤층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에서는 단편적인 소득 기준보다 사회 구조적 원인으로 기본 기능들이 현저히 낮아 역량을 상실한 계층을 공동체의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빈곤에 대한 센의 기준과 일관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성경이 기본적으로 고대 이스라엘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만 기저에 있는 사회·경제적 원리는 현대 사회의 빈곤 기준을 설정하는데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하겠다.

IV. 한국 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빈곤층

지금까지 성경에서 대표적인 빈곤층으로 공동체의 지원 대상이 되었던 고아, 과부, 거류민이 당대에 어떤 사회 경제적 의미를 지닌 계층인지 살펴본 후 이를 통해 성경에서 보여주는 빈곤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이어서 현대 경제학계에서 빈곤의 기준에 대해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 센의 관점을 살펴보고 그 관점을 고아, 과부, 거류민에 적용해 봄으로써 성경의 빈곤 기준과 센의 기준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제 남은 질문은 성경과 센의 관점을 통해 수렴된 빈곤의 기준을 토대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빈곤층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는 통계 정보를 기반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대표적인 빈곤층을 먼저 선별해 보고, 그 빈곤층이 성경과 센이 제시한 기준, 즉 사회 구조적인 취약성과 함께 역량의 지속적 상실이라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1. 한국 사회의 빈곤층 분석

우선 한국 사회에서 소득 기준으로 볼 때 빈곤율이 가장 높은 계층이 누구인지 살펴보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2023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인구 유형별 상대적 빈곤율(중위 50% 기준)³은 다음 <표 2>과 같다.

<표 2> 인구 유형별 상대적 빈곤율(중위 50% 기준) (단위: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노인	시장소득	58.7	58.4	59.9	59.8	58.8	57.9
	가처분소득	43.6	42.3	42.0	41.4	39.0	37.7
장애인	시장소득	49.7	51.8	54.6	56.0	54.8	56.0
	가처분소득	40.6	40.3	41.5	42.0	39.5	39.4
여성 가구주 가구	시장소득	43.6	43.3	43.4	44.0	42.1	39.9
	가처분소득	37.9	37.1	36.7	35.9	32.6	31.3
한부모 가구	시장소득	48.2	48.6	49.1	44.9	40.5	43.8
	가처분소득	42.3	38.7	38.6	30.1	22.4	26.1
전체	시장소득	20.7	20.8	21.0	21.4	21.5	21.1
	가처분소득	17.6	17.3	16.7	16.3	15.3	15.1

자료: 2023년 빈곤통계연보 (원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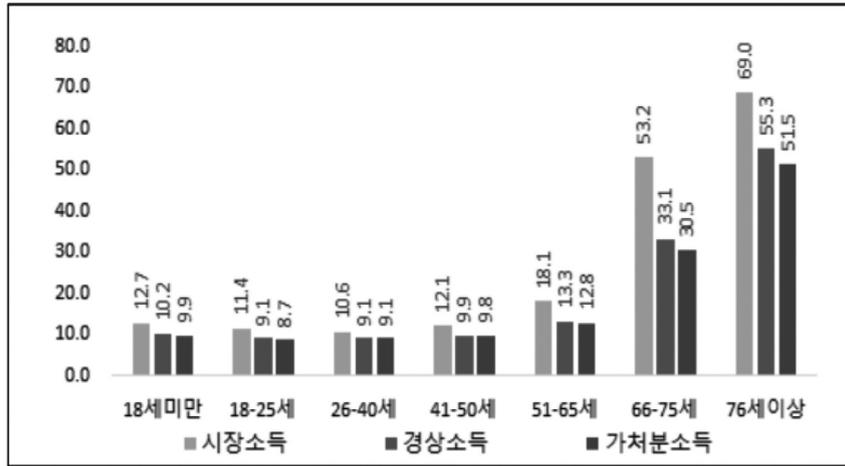
<표 2>를 보면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최근 빈곤율이 가장 높은 인구 유형은 노인 계층임을 알 수 있다. 노인 계층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가장 높은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다. 장애인 계층이 바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노인 계층,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장애인 계층이 가장 높은 빈곤율을 보인다. 이를 통해 소득 기준으로 볼 때, 노인과 장애인 계층의 빈곤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노숙인과 같이 소득 통계가 명확하지 않아 <표 2>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빈곤층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1년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2021년 거리노숙인은 1,201명으로 2016년 1,522명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2021년 기준 시설노숙인은 7,755명(2016년 10,847명), 쪽방주민은 5,448명(2016년 6,192명)으로 조사되었다. 설문 조사 결과, 이들의 74.1%가 미취업상태라고 응답하

3) <표 2>의 빈곤율(중위 50% 기준)은 중위소득의 50%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빈곤선 미만 소득 계층 개인 또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여기서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며,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에서 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을 제외한 소득이다.

<그림 1> 연령 범주별 상대적 빈곤율(2021년, 중위 50% 기준)

(단위: %)



자료: 2023년 빈곤통계연보 (원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였으며, 거리노숙인의 42.6%는 몸이 아플 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면 노숙인 계층도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본고에서는 통계 수집, 분석의 한계 등으로 인해 ‘빈곤통계연보’상 인구 유형 분류를 중심으로 추가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2>의 인구 유형별 분석을 통해 노인 계층의 빈곤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그림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은 2021년 기준, 연령 범주별 상대적 빈곤율(중위 50% 기준)을 나타내는데, 어떤 소득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76세 이상의 가장 높은 연령층의 빈곤율이 여타 연령층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직전 연령층에 비해 66~75세 연령층에서 빈곤율이 급상승하며, 76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도 51.5%의 빈곤율을 보이는 등 노인 계층 내에서도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소득 기준으로 산정한 빈곤층의 비율이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고령층 가구 유형별 빈곤율(2020년, 중위 50%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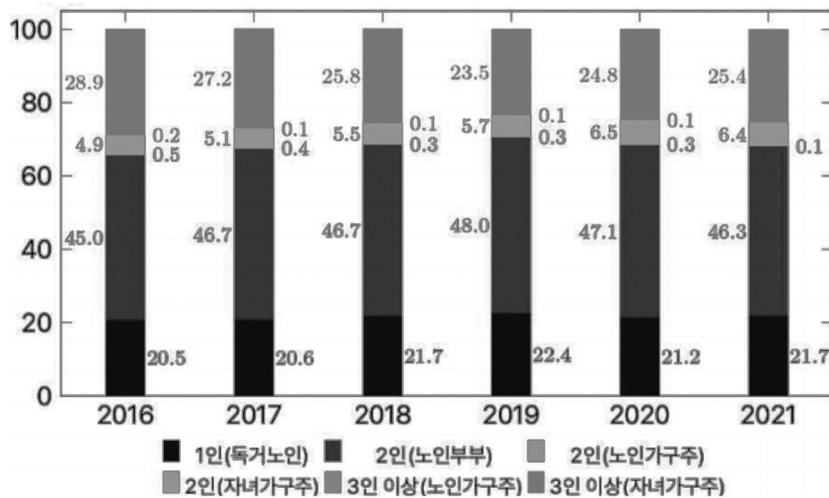
가구원 수	가구 유형	가처분소득	소비
1인	독거노인	72.1	54.7
2인	노인부부	38.2	23.2
	노인가구주	74.9	59.3
3인 이상	자녀가구주	30.7	22.5
	노인가구주	66.8	36.5
	자녀가구주	13.8	9.7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이승희(2023)에서 재인용)

그렇다면 빈곤율이 높은 노인 계층에서 연령 외에 어떤 요인이 빈곤의 정도를 악화시키는지 살펴 보자. <표 3>은 2020년 기준 고령층의 가구 유형별 소득·소비 기준 빈곤율을 보여준다. 소득 기준과 소비 기준 빈곤율 모두 노인이 홀로 경제적 부담을 지는 가구 유형(독거노인, 노인가구주)에 속한 고령층의 빈곤율이 높다. <표 3>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자녀가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경우 노인 계층의 빈곤율이 상당 수준 하락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동일 연령대라 하더라도 경제적 부담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빈곤율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고령층 가구 유형별 구성 비율(2016~2021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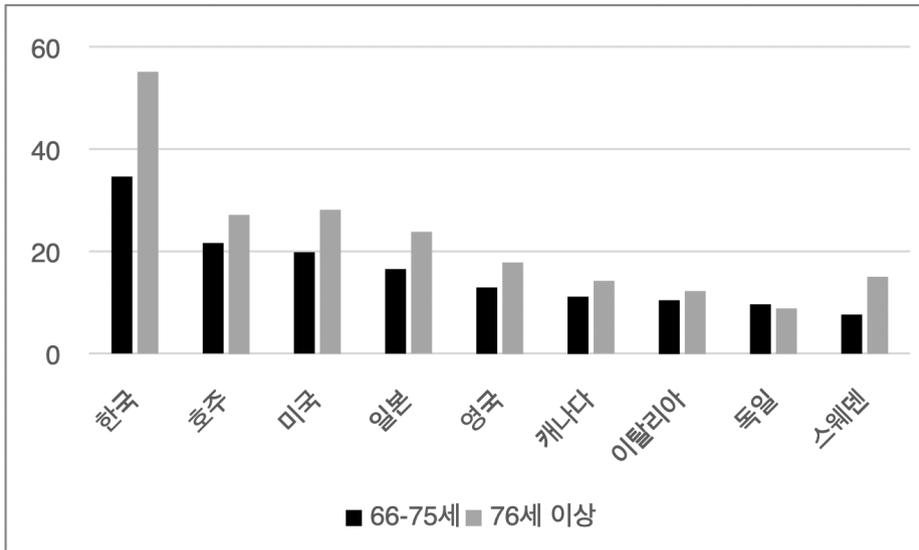


주: 막대 그래프 우측 숫자들은 노인이 홀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지는 유형의 비율 의미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이승희, 2023 재인용)

<표 3>에서 확인한 것처럼 노인이 홀로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경우 빈곤율이 상당히 높다면, 고령층 가구에서 독거노인이나 노인가구주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도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림 2>에서 그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를 보면 고령층 가구에서 대략 21~22%가 홀로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결코 작은 비중이 아니다. 노인가구주가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율을 보이는 것은 근래 고령층 빈곤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는 배경과 맞닿아 있다. ‘노인빈곤 실태와 사회경제적 영향분석(2020)’ 보고서에 따르면 근래 노인 빈곤이 증가한 원인으로 소득 하위 계층의 고령화, 핵가족화로 인한 1~2인 가구 증가, 고령화로 인한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를 꼽고 있다. 특히 장기간 비정규직을 경험하면서 핵가족화, 즉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고령층 빈곤율이 여타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인지 확인해 보자. <그림 3>은 주요국의 고령층 빈곤율(가처분소득 중위 50% 기준)을 보여주는데 한국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76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다른 국가보다 거의 두배 이상 높은 빈곤율을 나타낸다.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의 노인 계층 빈곤율을 보인다는 사실은 이승희(2023)의 연구 결과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처럼 여느 선진국보다도 높은 노인 계층 빈곤율에다, 국내 여타 계층에 비해 소득 기준으로 높은 빈곤율을 보인다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노인 계층의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3> 주요국 고령층 빈곤율(2018년, 가처분소득 중위 50% 기준) (단위: %)



자료: 2023년 빈곤통계연보

2. 한국 사회에서 노인 계층의 빈곤 문제

앞선 분석을 통해 노인 계층, 그 중에서도 연령층이 높을수록 경제적 부담을 노인 홀로 지는 가구일수록 다른 계층에 비해 소득 기준 빈곤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노인 계층이 성경에서 고아, 과부, 거류민과 같은 사회 취약층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성경이나 센의 기준에서 보면 낮은 소득은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역량의 상실로 인해 나타난 결과이므로 소득만을 가지고 빈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빈곤 기준에 대해 성경과 센의 관점의 유사성을 감안할 때 분석의 편의성을 위해 센이 강조한 핵

심 기능들을 중심으로 노인 계층의 빈곤 문제를 진단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핵심 기능으로서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 계층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살펴보자. 사실 선진국일수록 의료 체계가 상대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어 소득 수준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국내의 기존 연구에서도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신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낮은 소득 수준은 심리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김태환, 2024). 따라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높은 노인 계층의 경우 다른 기능이 유사하다면 상대적으로 건강 수준이 좋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 게다가 노인 계층, 특히 76세 이상의 고령층은 여타 사회 계층과 비교하면 소득 수준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노쇠화로 인해 신체적 건강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노인 계층의 경우 신체적 건강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소득 또한 빈곤선 이하에 처할 확률이 높아 기능으로서의 건강 상태는 다른 계층에 비해 상당히 좋지 않을 공산이 크다. 결국 노인 계층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든 악순환 구조(vicious cycle)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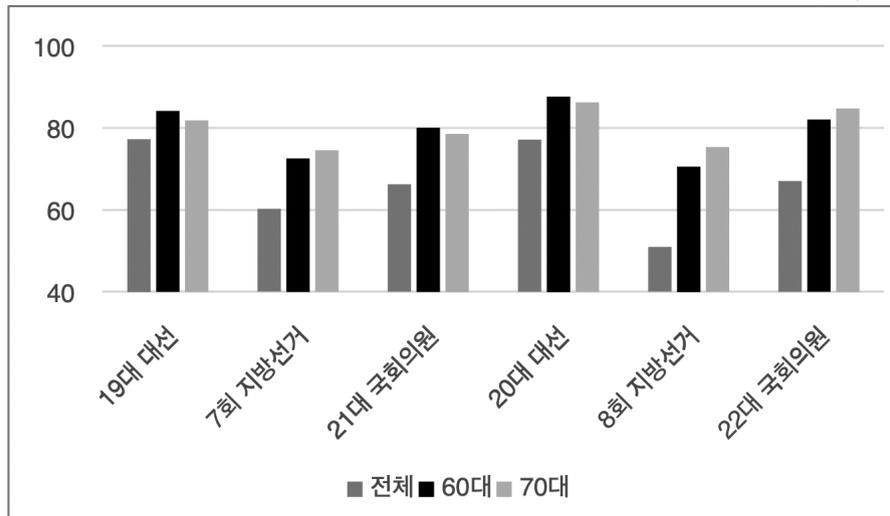
이어서 노인 계층의 교육 수혜 기능을 살펴보자. 근래 평생 교육 제공이 확대되면서 연령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교육 수혜 기능이 크게 저하되지 않는 것 같다. 특히 대학이 주도하는 노인 대학 평생 교육은 노인 계층에 대한 고등교육 연계 방안으로 질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가 지닌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신정하·전주성, 2024). 이러한 고연령층 대상 교육 기회의 확대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교육 내용 측면에서의 변화인데, 바로 해당 교육에서 정보화 교육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이 필수적인 기능(functioning)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노인 계층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실시한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은 일반국민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55.3%에 불과하여 여타 취약층(장애인 75.6, 농어민 71.0, 북한이탈주민 85.0 등)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정보화 교육이 증가한 것은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고연령층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보화 교육을 늘린다고 해서 고연령층이 현재의 디지털 환경을 따라잡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76세 이상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높은 빈곤율을 감안할 때 해당 연령대 빈곤층은 디지털 기기 접근조차 쉽지 않아 디지털 환경 적응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⁴.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노인 계층의 교육 수혜 기능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화 교육의

4) 자료와 연구 부족으로 노인 계층의 디지털 문해력을 정보화 교육의 연장선에서 분석하긴 했지만, 최근 사회의 디지털화 경향을 고려하면 디지털 문해력을 별도의 기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양적 증가만으로 노인 계층이 디지털 문해력을 갖추고 관련 역량을 증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노인 계층의 정치적인 참여 기능에 대해 살펴보자. 정치 참여라고 하면 보통 관료나 전문적 정치집단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의 행위를 의미한다(Perry et al., 1992). 대표적인 정치 참여 행위는 선거에서의 투표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시위, 미디어를 통한 의견 개진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고연령층이 시위나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본인의 정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정치 참여 행위는 투표임을 고려할 때 노인 계층의 투표율 분석을 통해 정치 참여 기능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60대, 70대의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여타 연령대와 비교해 보더라도 가장 높은 수준의 투표율을 보인다. 적어도 투표율을 매개로 한국 사회에서 노인 계층의 정치 참여 기능을 판단해 본다면 여타 사회 계층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높은 투표율이 실제 국회의 입법 과정이나 정부의 정책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는 꼼꼼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노인 계층의 투표 등을 통한 정치 참여가 사회복지 예산 증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는데(유시영, 2010), 최근 사례들을 보완하여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노인 계층의 정치 참여 기능은 역량의 상실보다는 자유로운 정치 행위를 통해 역량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 최근 전국단위 선거 고령층 투표율 (단위: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시사점

한국 사회에서 소득 기준 빈곤율이 가장 높은 노인 계층에 대해 셴이 제시한 핵심 기능들을 토대로 역량의 지속적 상실이 나타날 수 있는지 분석해 본 결과, 건강 상태나 디지털 문해력 등 일부 교육 수혜 기능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자유로운 정치 참여에서는 역량 결핍으로 이어질 우려가 없었다. 이는 현재 노인 계층이 직면한 상대적 빈곤 상태가 구조적 악순환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긴 하지만, 핵심적인 기능들이 전반적으로 현저히 낮아 역량의 지속적 상실로 이어지리라 선불리 예단하기도 어려움을 보여준다. 달리 보면 지금이 노인 계층의 빈곤 문제 해결에 있어 현재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적 배려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경에서 구조적으로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컸던 계층인 고아, 과부, 거류민에 대해 구체적인 공동체적 지원을 강조하고 명령한 것은 지금 한국 사회가 노인 계층에 대해 어떠한 자세로 대응해야 할지 훌륭한 지침을 제공한다. 바로 한국 사회에서 노인 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함께 정부의 구체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셴의 관점에서 보자면 노인 계층에 대한 정부 정책의 핵심은 빈곤선 이하 노인 계층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차원을 넘어 그들이 핵심적인 기능들을 회복하여 자유로이 행복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우선 정부가 나서 76세 이상, 빈곤선 이하의 소득 수준을 가진 노인 계층이 적절한 영양 섭취와 청결한 주거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어느 정도 돕고 있다. 또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제공하고 예방접종 지원을 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무료 안검진과 개안수술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 계층이 디지털화에 너무 뒤처지지 않도록 고령 빈곤층에는 적절한 사양의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고 평생교육기관이 노인 계층 전반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디지털 기기 활용 방식을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노인 계층 스스로가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여 자립의 기반을 공공히 하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겠다.

V. 결론

지금까지 성경에서 대표적 빈곤층으로 언급된 고아, 과부, 거류민의 의미를 통해 성경이 제시하는 빈곤의 기준을 추론해 보고 그 기준이 센의 새로운 빈곤관과 상당한 유사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성경과 센의 관점 모두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접근을 넘어 역량의 상실과 같은 구조적 한계에 주목함으로써 빈곤이 단순히 소득이 낮은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현재 한국 사회의 여러 계층을 분석해 본 결과 노인 계층은 여타 계층보다 단순히 소득 수준만 낮은 것이 아니라 건강 상태와 같은 핵심 기능이 저하되어 역량의 상실 상태로 이어질 우려가 일부 존재하였다. 하지만 평생 교육이나 정치 참여 여건 등 다른 핵심 기능의 수준은 좋은 편이어서 당장에 지속적인 역량의 상실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위기에 처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었다. 그만큼 현시점에서 사회적 배려와 정책적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노인 계층의 빈곤 상황이 개선되느냐 더 악화되느냐의 갈림길에 있지 않나 생각된다.

노인 계층 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빈곤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장애인, 장애인, 센의 예시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빈곤에 처하기 쉬운 구조적 어려움을 가진 대표적 계층이다. 이들은 건강, 교육 수혜, 정치적 참여 등 센이 제시한 핵심적 기능이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노숙인도 마찬가지다. 거리 노숙인 등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부의 통계 조사가 어렵고 체계적인 지원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분석이나 정책 마련이 녹록치 않다. 앞으로 이들 계층에 대해서도 빈곤 관련 연구와 정책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다루지 않은 방식으로 빈곤의 문제를 분석해 보려 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우선 성경적 빈곤 기준을 추론하면서 당대의 소득 상황을 포함하는 경제 사료를 찾지 못해 이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지 못했다. 아울러 노인 계층의 빈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센이 제시한 건강 상태, 교육 수혜, 정치 참여 등과 같은 핵심 기능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현 시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핵심 기능이 추가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을 담지 못했다. 디지털 문해력과 같이 새로운 기능을 일부 분석에 포함하기는 하였으나 이 또한 교육 수혜의 일부분으로 다루어 현 시점에서의 중요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 외에도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깨끗한 환경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도 빈곤 문제와 연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고에서 다루지 못한 부족함을 보완하는 일은 다음 연구자를 위한 몫으로 남겨 두고자 한다.

본 고를 통해 성경적 빈곤관은 현재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노인 계층을 포함하여 우리 시대의 고아, 과부, 거류민은 누구인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 또한 성경의 내용에서 영감을 얻어 한국 사회에서 빈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고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은희 (2015). 아버지 없는 아이, 과부, 거류인을 위한 신명기의 유산법. *Canon & Culture*, 9(2), 157-184.
- 김태환 (2023).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실태와 대응방향. 월간 복지동향, (292), 5-11.
- 김태환 (2024). 노인 빈곤과 건강의 경로 메커니즘 분석: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의 조절된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79(3), 325-357.
- 박성욱·장민 (2021). 코로나19가 소득분위별 체감물가상승률에 미친 영향. **KIF 정책보고서**, (2021.1), 1-63.
- 신정하·전주성 (2024).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노인교육의 최근 연구동향 분석. **한국사회과학연구**, 43(1), 261-280.
- 유시영 (2010). **한국노인복지정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 예산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이규원 역 (2019). 정의의 아이디어. *Sen, A. (2010). The Idea of Justice*. 서울: 지식의 날개.
- 이사야 (2009). 구약의 사회적 약자와 법전의 사회윤리. **기독교사회윤리**, (18), 259-288.
- 이승희 (2023). **노인빈곤에 관한 연구: 소득과 소비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 정중호 (2004).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게르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23(1), 511-525.
- 조규봉 (2020). 토라의 경제관과 경제학적 함의. **신앙과 학문**, 25(3), 121-144.
- Alkire, S. (2002). *Valuing freedoms: Sen's capability approach and poverty re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Banerjee, A. V. & Duflo, E. (2011). *Poor economics: A radical rethinking of the way to fight global poverty*. New York: Public Affairs.
- Borowski, O. (2003). *Daily life in biblical times* (No. 5).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
- Deaton, A. (2013). *The great escape: Health, wealth, and the origins of inequal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erry, G., Moyer, G. & Day, N. (1992). *Political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Britai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n, A. (1976). Poverty: An ordinal approach to measurement.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219-231.

Stiglitz, J. E., Sen, A. & Fitoussi, J. P. (2010). *Mis-measuring our lives: Why GDP doesn't add up*. New York: The New Press.

Vizard, P. (2006). *Poverty and human rights: Sen's 'capability perspective' explored*. Oxford: OUP Oxford.

이 시대 고아, 과부, 거류민은? : 성경과 센(Sen)의 관점을 중심으로

**Who are the Orphans, Widows, and Sojourners of Our Time? :
A Focus on the Perspectives of the Bible and Amartya Sen**

조규봉 (한동대학교)

논문초록

한국 사회에서 양극화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였다. 본 고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 취약계층인 고아, 과부, 거류민의 당대 의미를 면밀히 분석하여 성경에서 제시하는 빈곤의 기준을 추론해 보았다. 그 결과 성경에서는 빈곤의 기준으로 낮은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토지(기업)의 소유권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의 유무, 즉 토지의 소유권을 갖지 못해 빈곤에 처하기도 쉽고 빈곤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아울러 새로운 빈곤 개념을 제안한 센(Sen)의 접근방식을 핵심적인 기능들(functionings)과 역량(capabilities)을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성경에서 추론한 빈곤 개념과 센이 제안한 빈곤 개념, 즉 역량의 지속적 상실이라는 관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개념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빈곤 개념을 토대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빈곤층은 누구인지 분석해 보니 노인 계층, 특히 연령대가 더 높고 홀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는 고령층이 이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노인 계층 전체가 당장에 지속적인 역량의 상실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위기에 처했다고 단정할 정도는 아니어서 지금 사회적 배려와 정책적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개선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지금 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며, 정부의 지원 방향 또한 이들의 건강 수준이 현저히 낮아지지 않도록, 적절한 디지털 교육을 통해 디지털화된 환경 속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주제어: 빈곤, 기능(functionings), 역량(capabilities)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참여한 Anti-Christian 어머니의 경험과 변화*

Anti-Christian Mother's Experience and Changes in Infant Bible Rhythm Play Class

방은영 (Eunyoung Ba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xperiences and changes of anti-Christian mothers who participated in the infant Bible rhythm play class. In this study, qualitative research using narrative inquiry method was conducted to gain an in-depth understanding and description of the experiences and changes of anti-Christian mother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collect data.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first, the experiences of anti-Christian mothers wer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Satisfaction with high-level Bible rhythm play classes based on instructor information', 'Curiosity and passion when entering Christianity! Internal struggle to avoid forced avoidance', 'Self-confidence and determination that antipathy toward the church and Christians will not change', and 'Confronting uncomfortable feelings to maintain children's friendships and fellowship with mothers'. Second, the changes of the anti-Christian mothers who participated in the Bible rhythm play class for infants were shown in three ways: 'becoming assimilated into the power of the Bible rhythm play that makes them forget even the bad memories that made them become anti-Christians', 'thinking about God and my problems that feel stronger beyond child education', and 'God who knocks on my closed heart! Moving forward with an irresistible attraction'.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although anti-Christian mothers participated with the purpose of educational achievement for their infant children in the physical space of the church, an effective evangelism strategy targeting anti-Christians beyond non-Christians is needed based on this.

Key words: infant, bible rhythm play class, anti-christian mother

* 2024년 11월 4일 접수, 11월 30일 최종수정, 12월 2일 게재확정

** 총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산업교육학부 부교수. 서울 동작구 사당로 143. lovelybey@hanmail.net

1. 서론

영아의 삶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적요인 중 하나는 바로 부모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모는 영아를 위해 사랑으로 가장 최선의 돌봄을 수행함과 동시에 최초의 교사이며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올바르게 배우게 하는 역할모델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모는 건강한 양육 가치관과 태도로 자녀를 양육하며 교육하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인 가정의 자녀가 어려서부터 지니게 되는 하나님 개념이나 신앙인으로서 삶의 태도 형성에 기독교인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De Roose et al., 2004). 이는 기독교인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의 전수자인 부모의 양육가치와 태도를 통해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요 구원하시는 거룩한 존재로 인식할 수 있게 됨을 시사한다(Hertel & Donahue, 1995). 기독교인 부모의 역할과 관련하여 Hyde(2004)는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와 자녀의 신학적 개념과의 관계에 대해서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그것은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건강한 역할모델이 될 경우, 자녀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깊이 관여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 부모들은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모범을 보이는 것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경건의 실천, 그리고 매일의 일상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몸소 보여주어 창조자요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개념을 일찍부터 자녀에게 전수하고 일깨우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거나 부정하는 비기독교인 가정의 자녀들은 기독교인 가정의 자녀들이 누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과 사랑을 매일의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즉, 비기독교인 가정의 부모들은 똑같이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정서적, 물질적 영역을 포함한 전 인격적 돌봄과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세속관점에 기대어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추구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기 쉽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 일상에 깃든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로 신앙을 계승하는데 전념을 다하는 기독교인 가정의 자녀교육과는 분명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방미석, 2017).

여기에 더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거듭남의 체험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인해 현재는 하나님을 떠나 오히려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들을 안티 크리스찬(Anti-Christian)으로 명명할 수 있다. 장혁재(2020)는 이러한 ‘Anti-Christia

n’에 대해 ‘그리스도교에 반대하는’, 또는 ‘그리스도교 반대자’라고 강조하면서 신앙의 근거(根底)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감정이 상하여 떠난 자들이 바로 Anti-Christian이며 방황하는 과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임영빈·정재영(2017)은 내집단(inner circle)

에 대한 실망감이나 반감 등이 제도종교의 이탈로 연결되는 것을 탈 종교화라고 명명하면서 ‘Anti-Christian’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즉, ‘Anti-Christian’은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으로 ‘무종교인 집단에서 또 한 번의 분화를 한 사람들’이라고 한 것이다. 이처럼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을 단순하게 구분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 새롭게 대두된 개념으로서 Anti-Christian은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때는 기독교 신앙과 에클레시아(ecclesia)를 경험한 자들이라는 특징을 지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기독교인들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며 오히려 더욱 폐쇄적인 공동체라고까지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반기독교적 정서가 팽배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이는 곧 Anti-Christian들이 지니고 있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 감정의 포화상태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이 갖는 자세와 태도에 대한 성찰의 필요를 상기시킨다. 기독교인들은 Anti-Christian들을 회복의 길로 안내하기보다 오히려 그 회복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지 않은지, 이들에 대해 위축감 또는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다(박경수, 2010).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로 김덕영·송재룡(2014)은 Anti-Christian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다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도록 회복시키는 일이 예수님을 모르는 비기독교인(Non-Christian)을 전도하는 일보다 훨씬 힘들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실제로 Anti-Christian들이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거나 좌절을 경험한 경우, 그들은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에 대해 반감, 또는 탈종교적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반기독교적 정서를 지니고 Anti-Christian으로 불리는 사람들로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기독교에 대한 반 감정을 가지고 기독교나 기독교인들과 관련된 사회문화에 본인과 자녀가 포함되는 것을 거부하는 등 부정적 양육행동을 고스란히 나타내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즉, 기독교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자녀가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나 기독교인과 어울리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 부정적 양육태도를 보이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Anti-Christian 부모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강한 부정과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기독교인 부모들은 그들을 쉽게 어울릴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감정이 상하여 떠난 자들 그 상태로 내 버려두지 않으시고 미약하나마 기독교인들을 통해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복음전도의 통로가 되기를 명령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는 곧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강하게 거부하기에 이른 사람들을 다시 돌이켜 회복시키는 지상명령을 내리셨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한 새로운 복음 전도의 방법을 모색해

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김형준(2021)은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사용하였던 전도방법들은 다소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강제적이거나 침입하는 접근 방식이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기독교는 비기독교인들로부터 무례한 종교로까지 여겨지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전처럼 일방적이라고 여겨지기 쉬운 전도 방식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한국교회와 기독교인의 대사회적 이미지는 더욱 나빠지고 전도는 더욱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Anti-Christian 부모들도 기독교인 여부를 떠나 자녀를 키우는 한가정의 부모이며 그들 또한 모든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자녀교육과 자녀의 건전한 사회관계 형성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어린 자녀들이 재원하는 영유아 교육기관은 다양한 배경을 지닌 가정의 자녀들이 서로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장(場)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서 영유아는 또래와 어울려 지낼 뿐 아니라 교육기관 밖에서도 광범위한 또래관계를 확장해 나가면서 성장해 간다. 이러한 자녀 양육 과정에서 부모들 또한 자녀를 매개로 부모 관계를 형성하는 데 관심을 보이게 되며 자연스럽게 비형식적 부모 커뮤니티(communitiy)가 형성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이경화 외(2008)는 자녀발달을 위해 부모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교육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에서는 자녀를 둘러싼 환경 간의 상호작용 및 연결이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Anti-Christian 어머니도 기독교인 어머니와 같이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부모교육 및 부모 관계 모임에 참여하면서 자녀교육과 관련한 동류의식을 형성하게 됨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교회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부모교육의 목적은 기독교인 부모들에게 있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바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의 결과라는 점을 일깨우기 위함이다(Christensen, 2002 ; McIntoch, 2002).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참여 교육의 주된 방법으로는 강단에서 설교를 통한 교육, 또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양육역량 증진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뤄왔다(이석철, 2016). 세부적으로는 예배를 통한 부모교육(김성경, 2014 ; 이미진, 2020), 목회자 중심의 부모초청 강의 및 세미나(구현주, 2024 ; 문은정, 2024 ; 최민숙, 2017), 양육정보지 활용(이경희·이영주, 2001), 부모와 영아가 함께하는 놀이식 활동(이지형, 2009 ; 황정연, 2015)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부모참여 교육을 통해 기독교인 부모들은 자녀의 신앙 성장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고 그 책임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교육을 포함해 오늘날 교회가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광범위한 전도의 방법으

로 문화를 통한 복음 전도를 들 수 있다. 왜냐하면 문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물고 가까워질 수 있는 접촉점을 제공해 주는 장점을 지니기 때문이다(장혁재, 2020). 실제 현대인들의 삶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여가시간을 통한 다양한 문화향유를 가치롭게 여기는 현상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자녀를 매개로 공동의 문화를 향유하는 전도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김형준, 2021). 왜냐하면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기독교인 여부를 떠나 자녀를 위한 교육이나 행사 참여는 큰 관심사요 일련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기꺼이 참고 이겨낼 수 있다는 동기부여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기독교인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태도나 신앙계승을 다룬 연구들(방미석, 2017 ; 이영주, 2006), 그리고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가정 부모의 양육태도를 다룬 김미라(2006)의 연구 정도가 이루어졌을 뿐 비기독교인이나 Anti-Christian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를 매개로 한 기독교 문화공유나 전도의 과정에서 나타난 신앙회복과 변화를 심도 있게 고찰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인 가정의 어머니와 영아뿐 아니라 참여를 원하는 지역사회 어머니와 영아, 그리고 심지어 반기독교 정서를 지닌 어머니와 영아까지 모두가 참여하는 놀이식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을 기획하고 실행함을 통해 기독교 문화공유와 전도의 과정에서 나타난 Anti-Christian 어머니의 신앙회복과 변화를 심도있게 고찰하였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말 리듬이란 언어와 리듬이 조합되어 음정없이 리드미컬하게 노래처럼 부르는 방법을 말한다(방은영, 2016).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러한 말 리듬을 활용한 놀이가 영유아의 언어발달(김지순, 2017), 사회·정서발달(김영림, 2019 ; 김지연, 2019), 놀이성(한은미, 2018)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밝혀왔다. 영아기의 놀이는 영아로 하여금 시각, 청각과 함께 언어와 신체의 감각을 조직화함으로써 수많은 감각통합을 이끌어내도록 활성화 시킨다(Ayres, 2006). 따라서 영아들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합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교육적 놀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곧 영아에게 예전의 어떤 경험보다도 더욱 복잡하고 성숙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큰 재미와 만족을 선물하게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는 특히 성인과 영아가 함께 할 경우, 영아의 즐거움과 즉각적인 반응 및 음악적 성장을 엿볼 수 있고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교육적으로도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방은영, 2020). 또한 전은숙(2009)이 주장한 바와 같이 영아가 최초 대상관계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감정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지배하는 기초적인 정서로 작용하고 부모의 역할이 영아기 신앙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에서 엄마와 함께 하는 성경 말 리듬 놀이의 교육적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신앙 성장을 위한 놀이식 교육의 일환으로 성경 이야기를 주요 내용

으로 쉽고도 재미있게 놀며 배울 수 있는 말 리듬 놀이를 구성하고 기독교인 부모뿐 아니라 지역사 회 영아와 부모, 그리고 반 기독교 정서를 지닌 Anti-Christian 어머니와 영아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이라는 열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을 통해 하나님을 떠났던 Anti-Christian 어머니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가를 그 경험과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참여한 Anti-Christian 어머니의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참여한 Anti-Christian 어머니의 변화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및 방법

본 연구는 교회학교 영아부 주관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자신의 영아기 자녀와 함께 참여한 Anti-Christian 어머니의 경험과 변화가 어떠한지를 살피고자 내러티브 탐구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내러티브 탐구는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들 가운데 하나로 참여자가 속한 사회문화적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시간의 연속성에 따른 관계적 탐구의 방법이자(지은경, 2021) 한 인간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데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Clandinin & Connelly, 2017). 이러한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에는 살아내기(living), 이야기하기(telling), 다시 이야기하기(retelling), 다시 살아내기(reliving)가 제시된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하나님을 떠났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반 기독교 감정에 갇혀 살던 Anti-Christian 어머니 한 사람을 하나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출발점을 제공하였고 한 사람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임재의 의미를 탐구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 시점 현재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에 반감을 지니고 있는 Anti-Christian 어머니로 J교회 영아부에서 개최한 토요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자녀를 참

여시킨 어머니이다. 참여 계기는 자녀가 재원하는 어린이집의 같은 2세반에 재원 중으로 J교회 영아 부에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 가정의 자녀인 친구 장00 영아 어머니의 권유로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을 소개받아 참여하게 되었다. 본 연구참여자는 수업 시작 일주일 전 말 리듬 놀이 수업에 참여한 전체 8명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 면담에 참여하여 일반적 배경을 묻는 설문지 작성하기 및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다음의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구분	Age	자녀 수	영아 월령	신양경력	어머니 직업 유무
어머니	31	1	25개월	친구전도로 중학교 때 2년간	L전자 사무직 직원

앞의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대상 어머니는 연구 시작 전 2024년 5월 초 J교회의 2세 영아 대상 토요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영아와 함께 참여하였다. 어머니의 연령은 31세로 자녀 수는 1명이며 연구 시점 영아의 월령은 25개월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어머니는 중학교 때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2년간 참여한 적이 있었으나 교회 남자 선배와의 이성 문제로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 감정뿐 아니라 교회라는 말을 떠올리는 것 자체에도 비호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같은 어린이집 같은 반 친구인 장00 영아 어머니와의 친분을 계기로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을 소개받고 참여를 권유받게 되었으며 자녀의 음악발달에 관심이 많았기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에도 불구하고 교수자 역량에 따른 수준 높은 말 리듬 놀이 수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말해주었다.

2. 연구방법

1) 연구의 출발점

본 연구는 2024년 J교회 영아부 주일예배 후 실시한 본 연구자의 영아와 부모들이 함께 하는 성경 말 리듬 놀이 특강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말 리듬에 성경의 인물이나 사건 중심으로 구성된 이야기기를 노랫말로 재구성해 음정 없이 리듬에 맞춰 노래처럼 부르는 놀이식의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을 처음 접해본 영아부 어머니들 중 몇몇이 가정에서도 자녀와 함께 놀이할 수 있는 수업이 교회에서 주말을 이용해 이루어진다면 자녀와 함께 참여하고 싶으며, 더 나아가 가능하다면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등을 위한 전도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연구자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성경적 부모 역할을 지원하는 것에 사명감을 가지고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게 되었다.

2) 연구자 배경

본 연구자는 교회학교 11년 교사경력을 지녔으며 대학에서 음악전공 후 대학원에서 음악교육과 유아교육을 전공하였고 유아음악교육, 동작교육, 예술교육 관련 다수의 책을 출판해 왔으며 지난 20여년 간 관련 주제의 연구논문 다수 게재 및 특별히 말 리듬 분야의 창작자 및 전문강사로서 관련 도서출판 및 교사연수 등을 활발히 진행해왔다. 현재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유아교육 관련 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연구자의 전공 및 교육자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위해 성경 말 리듬 전체의 창작과 가정연계 성경 말 리듬 놀이 자료를 교재나 음원 등으로 제공해 줄 수 있었다.

3)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의 내용과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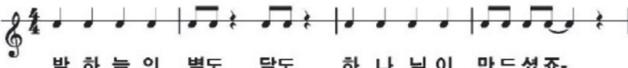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자녀 양육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규민(2013)이 주장한 바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영적 영역 및 지적·정서적·의지적·도덕적인 부분을 다루는 정신적 영역, 그리고 육체적 건강과 경제활동, 세상과의 관계를 다루는 물질적 영역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말 리듬 놀이를 구성하였다. 모두 10회차로 이루어진 말 리듬 놀이 수업에서는 창조자, 구원자,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복음 전도의 사명,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등, 가정의 기독교 정체성과 정서적, 물리적 영역까지를 포함하였다. 더 나아가 영아 눈높이에서 쉽게 부르고 놀이하듯 일상에서 반복해서 즐겨 부를 수 있는 말 리듬 놀이를 구성하여 영아들의 호기심과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은 2024년 5월 11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2024년 7월 13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수업 시간은 매회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의 주요 일정과 내용 및 교수-학습 자료 및 세부 시안(사례)은 다음의 <표 2>와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2>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의 주요 내용 및 교수-학습 자료

회기	일시	성경 말 리듬 주제	주요 내용	교수-학습 자료
1	2024/05/11	하나님이 나(00)를 만드셨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 이름은? (자기소개 말 리듬 게임 하기)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말 리듬 놀이와 악기 연주하기) •나를 만드신 하나님! (말 리듬 놀이하기 & 신체인식과 표현하기) 	아기인형, 동물 모형들, 소품 타악기들(에크셰이커, 탬버린, 마라카스, 트라이앵글, 리듬 막대)
2	2024/05/18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감정을 표현해 봐요(말 리듬 놀이)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이야기 동화 들려주기/ 이야기 중 말 리듬 참여하기) •하나님은 사랑이에요(말 리듬, 노래 부르기) 	감정 카드, 동화극본, 리듬 타악기(리듬막대), 피아노
3	2024/05/25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밤하늘의 별도! 달도!(말 리듬 놀이하기)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말 리듬 놀이 반복) •첫째날, 둘째날...하나님은? (스토리텔링 하기) •내 몸이 표현하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음악감상과 신체표현 놀이하기) 	소품 타악기들 별, 달 모양 머리띠/ 그림 자료, 사진자료, 음악곡(로버트아브람슨(Stop & Start) 칼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서곡'
4	2024/06/01	출발!! 천국 열차 타고 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국은 어디에? (말 리듬 놀이하기) •교통기관을 알아요(말 리듬 놀이 & 교통기관 장난감 활용 놀이 / 신체 표현하기) •음악곡에 맞춘 기차놀이 하기 	교통기관 장난감들, 핸드드럼,음악곡(작자미상: '기차타고')
5	2024/06/08	하나님 사랑을 나눠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복 :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이야기 동화 들려 주기 / 이야기 말 리듬 참여하기) •하나님은 사랑이에요(말 리듬, 노래 부르기) •사랑은 나누는 것(하트 그리기 & 말 리듬 놀이하기) 	시트지, 가위, 에그셰이커, 피아노, 트라이앵글
6	2024/06/15	하나님이 계신 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님이 계신 곳”(말 리듬 놀이하기) •내 마음 속에 계신 하나님(그림 그리기와 노래 부르기) •“난 느낄 수 있어요!”(말 리듬 놀이) •음악곡에 맞춘 신체 표현하기 	메탈로폰, 리듬막대, A4용지 색연필, 음악곡(쇼팽:강아지 왈츠)
7	2024/06/22	매일 매일 기도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도하는 예쁜 손(말 리듬 놀이) •나도 기도할 줄 알아요(말 리듬 놀이 & 신체 표현하기 표현하기) •똥똥똥! 기도하는 시간이에요(이야기 동화 들려주기 & 이야기 말 리듬 놀이 참여하기) •음악곡에 맞춘 시계 말 리듬 부르기와 신체 시계 표현 놀이하기 	핸드드럼, 핸드셰이커, 리듬막대, 음악곡(앤더슨: 썩코페이드 클락) 시계모형

8	2024/06/29	내 입술이 찬양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찬양하는 내 입술(말 리듬 부르기) •점점 크게! 점점 작게!(즉흥 신체표현과 악기 연주하기) •내 입으로(눈으로, 손으로, 두 발로, 엉덩이로!...) 찬양해요 후빠빠!(즉흥 신체표현과 말 리듬 놀이하기) 	핸드드럼, 스카프 신체 그림 카드 소품 타악기 (에그셰이커, 탬 버린, 트라이앵글, 마라카스 등)
9	2024/07/06	감사해요 하나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평보다는 감사(말 리듬 놀이하기) •감사할 땐 이렇게(엄마와 표정 놀이하기)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이야기 동화 들려주기) •감사 릴레이 게임하기(즉흥 극 놀이하기) 	다양한 얼굴 표정 그림 카드, 핸드벨, 파라슈트
10	2021/07/13	사랑해요! 축복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랑해요! 축복해요!(말 리듬 놀이와 노래 부르기) •축복하는 손(즉흥 신체표현 놀이하기) •사랑을 나뉘요(이야기 동화 들려주기와 소품(스카프)활용 말 리듬 놀이하기) 	피아노, 신체 그림카드, 리본막대, 스카프

<표 3>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의 세부 시안(3회차)

단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의 주요 내용	비고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영아 라포형성을 위한 말 리듬 하이파이브 인사 나누기(질문-대답 형식의 주고 받기 놀이) “씩씩한 000! 네, 멋진 000! 네!” - 이름을 불러 준 영아가 ‘네’ 라고 대답하면서 동시에 각자 가지고 있는 소품 악기를 자유롭게 연주해 볼 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소품 타악기들 (에크셰이커, 마라카스 리듬 막대, 트라이앵글, 귀로 등..)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말 리듬 놀이하기 - 아래의 말 리듬을 교사 선창으로 시범 보인 후 영아 어머니들과 함께 말 리듬 가사를 보며 리듬에 맞춰 불러본다. <p style="text-align: center;">밤 하늘의 별도! 달도! 방은영 작사곡</p>  <p style="text-align: center;">밤 하늘의 별도 달도 하나님이 만드셨죠-</p>  <p style="text-align: center;">반짝반짝별 둥글둥글달 하나님이 만드셨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들 중 두명을 선정해 머리에 각각 별과 달 모양 머리띠를 씌운 후 말 리듬 다섯째 마디의 노랫말을 개사하여 영아의 이름을 넣어 다음과 같이 불러 준다. 예) ‘반짝반짝 00별’, 또는 ‘둥글둥글 00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품 준비: 별, 달 모양 머리띠(각 1개씩)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번 반복하여 부르며 모든 영아들이 한번씩은 이름을 넣어 불러 볼 수 있도록 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말 리듬 놀이 반복하기) -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 리듬을 다시 불러보며 하나님 창조의 세계를 영아들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준비한 모형 장난감, 사물 그림자료, 사진자료 등을 살피고 설명하며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본다. •첫째날에, 둘째날에...하나님은?(음악에 맞춘 스토리텔링 하기) - 하나님 창조의 순서를 날짜별로 소개하되 준비한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하여 이야기하듯 들려준다. - 교사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늘과 땅, 달과 별, 동물, 사람 등을 강조하며 이야기를 들려준다. •내 몸이 표현하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음악감상과 신체표현 놀이하기) -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를 외치며 영아와 어머니들이 영아의 이름을 넣어 외치며 가장 멋진 포즈를 취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 사람 이외에 창조하신 것들을 서로 말해 보고 그것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신체 움직임으로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형 장난감, 사물 그림자료, 사진 자료 등 •음악곡: 로버트 아브람슨 'Stop & Start' •음악곡: 칼 오르프 '카르미나부라나 서곡'
<p>마무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회상해 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3. 자료수집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 시작 전 2024년 5월 1일에 연구참여자 어머니를 대상으로 일반적 배경 및 수업에 대한 기대를 묻는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후 2024년 5월 11일부터 2024년 7월 13일까지 매주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 직후에 연구참여자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위한 총 10회의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A4용지 29장 분량이었으며 연구자는 수집한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연구문제와 관련한 문단 및 문장분석(김현주·조형숙, 2006)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에게 연구결과 평가작업(member checking)의 방식으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피드백을 주고 받았으며 최종 확인 검증의 절차를 거쳤다.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내러티브 탐구 경험이 있는 교수 1인과 지속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분석 및 해석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에 참여한 Anti-Christian 어머니의 경험은 ‘교수자 정보를 바탕으로 한 수준 높은 성경말 리듬 놀이 수업에 대한 만족’, ‘기독교 입문 때의 호기심과 열정! 억지 회피를 위한 내적 싸움’,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이 불편할 것에 대한 자기 확신과 다짐’, ‘자녀의 친구관계 및 어머니들과의 친교 유지를 위해 불편한 감정과 마주하기’, 의 4가지로 나타났다. 둘째,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참여한 Anti-Christian 어머니의 변화는 ‘Anti-Ch

ristian이 될 수밖에 없었던 안 좋은 기억들조차 잊게 하는 성경 말 리듬 놀이의 파워에 동화되어 가기’, ‘자녀교육을 넘어 더 강하게 느껴지는 하나님과 내 문제를 고민하기’, ‘나의 달한 맘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으로 나아가기’의 3가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대한 Anti-Christian 어머니의 경험

1) ‘교수자 정보를 바탕으로 한 수준 높은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대한 만족’

연구참여자 어머니는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 참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자인 교수자 정보를 미리 전해 들었던 점이 수업 참여를 결정하는데 작용하였음을 말해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교회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성경 내용을 주제로 이루어지는 조급은 불편한 수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수준 높은 수업으로 인해 대한 만족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말해주었다. 이는 교회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그 질과 내용에 있어서 자녀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모라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잘 높은 프로그램 개발과 이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복음화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한다.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냐 하는 것은 자녀교육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지요. 이번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을 진행해 주시는 선생님의 경력을 보고 내가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꼭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어머니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중략)·교회에서 이런 수준 높은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반 기독교적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아주 매력적으로 작용한 거 같고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2024년 5월 11일 심층면담 내용 중)

2) '기독교 입문 때의 호기심과 열정! 억지 회피를 위한 내적 싸움'

연구참여자 어머니는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때,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가 있었음을 말해주었다. 그러면서 그때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이 떠오르기도 함을 말해주었다. 하지만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참여하면서 문득 되살아나는 기독교인이었을 때의 호기심 어린 기억들과 열정들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져 억지로나마 회피하려 하고 내적으로 열심히 싸우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노방전도를 위해 토요일 오후 교회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전도훈련도 받았던 기억들... 찬양을 하며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냈던 추억 등.. 중학교 시절의 교회 생활이 떠오르곤 해요. 하지만 그 이후 내 삶에서 느낀 기독교에 대한 감정은 “잘 떠났다!” 와 같이 훨씬 더 부정적인 감정이 자라잡게 되었고 너무 후련하기까지 했어요. 이번에 성경 말 리듬 놀이에 참여하면서 가끔씩 ‘하나님’ 의미가 전혀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왜 일까요?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내가 이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의 주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며 회피하려 마음 속으로 싸우며 노력하고 있어요.”

(2024년 6월 1일 심층면담 내용 중)

“오늘 수업에서 아이와 함께 부른 말 리듬 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요” 라는 부분을 반복해서 부를 때 잠시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문득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구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무뎠던 나의 초심을 일깨우는 뭔가 야릇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중략)...그렇다고 나의 이미 비뚤어진 생각이 변화될리는 없을 거 같고...(중략)...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겐 다시 절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나 스스로 위로를 해 보면서 몇번이고 부정하고 있어요.”

(2024년 6월 8일 심층면담 내용 중)

3)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이 불변할 것에 대한 자기 확신과 다짐'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 시작 전 실시한 심층면담에서 연구참여자 어머니는 자신이 오직 자녀를 위해서만 말 리듬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여러번 강조하였다. 자신은 교회와 기독교인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실망감 때문에 중학교 이후 Anti-Christian으로 살아왔으며 그것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에서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었는가를 말해주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수업이라는 점에서 자신에게 남아있는 안 좋은 기억들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있을 기적과도 같은 회심과 같은 일이 자신에게는 절대 나타나지 않을 것임에 대한 강한 자기 확신과 다짐을 나타내 보였다.

“그때... 하나님 사랑을 말하면서도 거짓을 말하고 진실하지 않았고 나를 실망시켰던 사람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다시 교회라는 곳에 와있다니...(중략)...아이 때문에 참여했지만 그럼에도 안 좋은 기억들을 마주하게 될 것은 분명하고...중략.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회심과 같은 일은 내게 절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또 다짐해요.”

(2024년 5월 11일 심층면담 내용 중)

4) ‘자녀의 친구 관계 및 어머니들과의 친교 유지를 위해 불편한 감정과 마주하기’

연구참여자 어머니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자신의 불편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 참여가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친구 어머니들과의 친교 유지 차원에서 결정되었음을 말해주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 중 느끼게 되는 자신의 불편한 감정과 마주해야 함을 미리 예측해 왔고 이미 마주하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아이 친구 엄마의 권유가 가장 결정적이었구요, 무엇보다 우리 00의 음악놀이 참여에 의미를 두면서 동시에 우리 아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다른 엄마들과의 친교 유지라는 이유로 결정을 한 것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생기게 될 불편한 감정들을 마주하더라도 잘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2024년 5월 18일 심층면담 내용 중)

2.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참여한 Anti-Christian 어머니의 변화

1) ‘Anti-Christian이 될 수밖에 없었던 안 좋은 기억들조차 잊게 하는 성경 말 리듬 놀이의 파워에 동화되어가기’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참여하면서 연구참여자 어머니는 Anti-Christian이 될 수밖에 없었던 안 좋은 기억들을 뒤로하고 자녀 때문에 수업에 참여했다고 자기방어를 해왔다. 하지만 그러한 안 좋은 기억들조차 잊게 하는 성경 말 리듬 놀이의 파워, 즉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려 하나님 개념을 다시 상기하게 되었으며 자신도 점점 동화되어가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 장담했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아이와 함께 성경 말 리듬 놀이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마치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듯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는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향해 온갖 안 좋은 말들로 악담까지 하던 나였는데...(중략)... 안 좋은 기억들조차 잊게 하는 성경 말 리듬 놀이의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에 내가 점

점 동화되어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2024년 5월 25일 심층면담 내용 중)

2) ‘자녀교육을 넘어 더 강하게 느껴지는 하나님과 내 문제를 고민하기’

본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어머니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경계심과 반감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자극하고 일깨우는 하나님의 존재감을 점차 느끼게 되어감을 말해주었다. 하나님의 창조와 사랑, 복음을 주제로 이루어졌던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서 자신의 자녀교육도 중요했지만 그것을 넘어 자신을 향해 더 가까이, 그리고 강하게 두드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었음을 말해주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고민하게 되었음을 말해주었다.

“아이와 말 리듬 놀이를 하면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를 반복적으로 외치며 놀이를 할 때 나도 모르게 갑자기 울컥했어요. 요즘 육아 스트레스가 많아서인가? 고개를 가우뚱하다가도 뭔가 내 마음을 흔드는 묘한 힘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실은 지난주 말 리듬 놀이 수업 중에도 마음이 요동치듯 움직임을 느꼈었는데… 중략… 내가 그렇게도 부정하고 싶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움직이시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2024년 6월 8일 심층면담 내용 중)

“아이 교육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나와 하나님 관계를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수업이었어요. 무언가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강한 현타가 올 정도로 말이지요. 내가 예전에 믿었던 하나님이 분명 내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존재감이 내 주변을 확~ 감싸고 있는 것 같아요. 강하게 부정하고 싶었던, 내 인생에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중략… 드디어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2024년 6월 22일 심층면담 내용 중)

3) ‘나의 닫힌 맘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으로 나아가기’

Anti Christian 어머니는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참여하면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해 굳게 닫혀있던 반감과 불신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져 내리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이상하리만큼 자신이 마치 익숙한 곳에 와 있는 것 같이 교회가 점점 편안하게 느껴지고 거부감은 눈 녹듯 사라져 버리기까지 하는 자신의 모습이 놀라울 뿐이며 거부할 수 없는 뭔가의 이끌림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신을 느끼게 되었음을 말해주었다.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아이 때문에 교회에 다시 왔고 내 문제와 상관없이 그저 아이 때문에 참석만 하고 있다고 나 자신을 억지 방어하려했는데...(중략)... 그런데 왠지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는 것 같고 중학교 때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새록새록 느껴졌어요. 이젠 분명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어느샌가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음으로 확신이들어요. 정말 놀라워요” (2020년 6월 29일 심층면담 내용 중)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참여한 ‘Anti-Christian 어머니의 경험과 변화가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연구문제별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참여한 Anti-Christian 어머니의 경험은 ‘교수자 정보를 바탕으로 한 수준 높은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대한 만족’, ‘기독교 입문 때의 호기심과 열정! 억지 회피를 위한 내적 싸움’,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이 불편할 것에 대한 자기 확신과 다짐’, ‘자녀의 친구 관계 및 어머니들과의 친교 유지를 위해 불편한 감정과 마주하기’의 4가지로 나타났다. 본 연구참여자인 Anti-Christian 어머니는 기독교인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교회를 떠났었고 이로 인해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깊은 반감을 지닌 채로 살아왔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Anti-Christian 관련 선행연구들(박관희, 2016 ; 임영빈·정재영, 2017 ; 장혁재, 2020)에서는 이들의 특성을 주로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불거진 윤리적, 도덕적 모순, 성도 간의 치열한 갈등 구조, 믿는 자들의 추악한 생활양식에 환멸을 보고 떠난 자들이라고 하였다. 또한 신앙의 근저(根底)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감정이 상하여 떠난 자들로 세상에서 방황하며 동시에 반감을 지니고 사는 과거에 갇힌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Anti-Christian 어머니의 특성을 고려할 때 비록 자녀를 위함이었고 주변의 권유였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교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연구과정에서 Anti-Christian 어머니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다시금 교회라는 공간 안으로 들어와 그가 지녔던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실망감이나 반감과 다시 마주하게 되는 상황을 매우 어색하게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 Anti-Christian 어머니는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 과정에서 결코 회심하거나 변하지 않을 것에 대한 결심과 경계심을 나타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혼란스러움과 뭔가 흔들려 깨우심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목자 예수님을 떠올리게 한다. 즉,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얼마나 고귀하고 실증적인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누군가의 돌이킴을 위한 전도는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점에서 결코 우리 일상의 삶이 그 본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삶이 복음과 일치되어야 함을 일깨워 준다. 더 나아가 잃어버린 양의 돌이킴을 위해서는 그 자신이 소중한 내적 싸움의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공동체 문화의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면서 경계심을 낮출 수 있도록 손 내밀어야 주어야 함을 인식시켜 준다.

둘째,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참여한 Anti-Christian 어머니의 변화는 ‘Anti-Christian 이 될 수밖에 없었던 안 좋은 기억들조차 잊게 하는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의 파위에 동화되어가기’, ‘자녀교육을 넘어 더 강하게 느껴지는 하나님과 내 문제를 고민하기’, ‘나의 닫힌 맘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으로 나아가기’의 3가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상만(2009)이 오이코스 관계전도법에서 강조했던 즐거움 과정에서의 경험이 낳은 결과를 상기시킨다. 즉,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서 경험한 영아와 어머니의 즐거움은 기독교인 공동체 문화를 매개로 하는 전도의 가능성을 예측하게 한다.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서 영아와 어머니들이 경험한 놀이의 즐거움, 또래 관계 형성, 영아-어머니 애착 증진, 다양한 창조적 도전과 성취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개념 알아가기의 즐거움은 선행연구들(김지순, 2027 ; 김영림, 2019 ; 방은영, 2020)에서 밝힌 말 리듬 놀이 수업의 효과와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또한 오감자극을 통한 방법이 영아 신앙교육에 효과적이었을 밝힌 황은실(2015)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성경 말 리듬 놀이가 영아와 어머니로 하여금 함께 성경의 내용을 입술로 고백하고 듣게하며 춤추고 스킨쉽 하면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영아를 위한 효과적인 신앙교육의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곁에서 함께 지켜보는 Anti-Christian 어머니에게도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경계심을 조금씩 허물어 가도록 작용하였고 지극히 초심으로 되돌아가 자신의 처음 신앙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전의 하나님 사랑을 다시금 상기시키도록 작용하였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Anti-Christian 어머니가 강하게 거부하고자 했던 돌이킴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도록 놀라운 기적을 선물하시고 열음이 녹아내리듯 점차 반 감정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해주셨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Anti-Christian 어머니가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서 기독교 공동체 문화가 주는 즐거움의 분위기를 경험한 것을 넘어 점차 자신을 향해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돌이키게 되는 모습은 오늘날과 같은 포스트모던 시대일수록 논리성이나 직접적인 설득의 방법보다 감각과 감성적 접근의 복음 전도가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되었음을

상기시킨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오늘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그중에서도 특히 하나님 사랑과 거둬냄을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받고 돌아서서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증오했기까지 하던 Anti-Christian 어머니가 그를 향해 손 내밀어 준 교회를 통해 마침내 하나님 회복하심의 증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교회를 떠나 반감을 갖고 살아가는 Anti-Christian들이 점점 저 많아지고 있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인가와 관련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누리는 문화의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통해 경계심을 낮추는 복음전도의 방법이 매우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참여한 Anti-Christian 어머니 한 명만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대상자를 선정해 신앙경력이나 현재 신앙생활 정도에 따른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서의 경험과 변화를 살피는 다면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대상자인 Anti-Christian 어머니는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 과정에서 실시한 심층 면담을 통해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자신의 반감정과, 완고함, 그리고 무지함으로부터 점차 회복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아오게 됨을 고백해 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Anti-Christian 어머니의 회복과 변화가 연구 종료 이후 믿음 생활에서 어떤 양상으로 어떻게 지속되고 발전되어 나가는지를 살피는 질적 연구도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대상자처럼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한 반 감정으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그리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앙회복과 성장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후속연구도 요구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구현주 (2024). **대안학교 부모를 위한 기독교 성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 김국환 역 (2004).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종교교육**. Hyde, K. E. (1990). *Relig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research*.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김덕영·송재룡 역 (2014). **세속화냐 탈 세속화냐?**. Berger P. L. (Ed.) (1999). *The Desecularization of the World: Resurgent Religion and World Politics*.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김미라 (2006). **부모의 신앙유무가 유아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 기독교 가정과 비기독교 가정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김성경 (2014). **교회 내 영유아 부모들의 주일예배 회복 방안 : 주일예배의 공동체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김영림 (2019). **인성그림책을 활용한 말 리듬 놀이가 영아의 놀이성과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김지순 (2017). **성경 그림책을 활용한 말 리듬 놀이가 유아의 언어표현력과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김지연 (2019). **생활 그림책을 활용한 말 리듬 놀이가 영아의 기본생활습관 및 정서 조절능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김현주·조형숙 (2006). 사립유치원 교사문화의 특질: 교사 관계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6(1), 43-68.
- 김형준 (2021). **문화를 활용한 복음 전도 방안 연구 : 총신교회 문화전도팀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문은정 (2024). **부모-자녀 관계증진을 위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초등학생 부모의 부모효능감, 정서조절, 공감능력, 영적 안녕감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침례신학교.
- 박관희 (2016). **공적예배에서 생활예배로의 전환과정에 대한 융합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 박찬용 (2016). **청년 신자의 탈교회화 과정 연구: 한국개신교 사례분석**.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방미석 (2017).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 계승을 위한 효과적인 사역 방법**. 박사학위논문. 침례신학대학교
- 방은영 (2016). **음악활동의 실제에 초점을 맞춘 영유아음악교육**. 고양: 공동체.
- (2020). **또래 협력적 말 리듬 놀이가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신체활동즐거움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24(2), 247-269.
- 이경선 (2018). **가나안 성도 교회이탈 특징과 종교 성향에 따른 효율적인 전도전략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 이경화·김연진·고진영 (2008). **(결혼과 가족관계를 위한)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 이규민 (2013). **세계화 시대를 위한 기독교 가정교육의 방향성**. **기독교교육논총**, 33, 145-173.

- 이미진 (2020). **기독교 부모교육을 위한 교회학교 영아부 공과의 재구성**.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이상만 (2009). **오이코스 전도 이야기**. 서울: 생명의말씀사.
- 이석철 (2016). 부모의 인식변화와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춘 교회의 부모교육. **기독교교육정보**, 51, 163-185.
- 이수환 (2011). **21세기 선교와 종교현상학**. 파주: 한국학술정보.
- 이영주 (2006). **부모의 하나님 개념과 신앙생활 및 양육 태도가 유아의 하나님 개념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지형 (2009). **영아부 예배의 소그룹 모임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법 연구 : 달크로즈 유리드믹스에 의하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임영빈·정재영 (2017). 한국 무종교인에 관한 연구: 무종교인과 탈종교인의 분화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77(2), 65-93.
- 장혁재 (2020). **한국기독교 현실 재고와 비기독교인 전도를 위한 문화선교 방향성연구-기독교 대학 채플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 전은숙 (2009). **영아기 신앙발달을 위한 촉진적 환경의 기독교 교육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지은경 (2021).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초등학교 신규교사의 교직생활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9(1), 103-124.
- 최민숙 (2018).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회학교 유아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한은미 (2018). **글 없는 그림책을 활용한 말 리듬 놀이가 영아의 의사소통능력 및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황정연 (2015). **신앙교육의 일환으로서 영아기 어린이전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 Ayres, A. J. (2006). **감각통합과 아동**. (김경미 외 역). 서울: 군자. (원서 2005 출판)
- Christensen, D. L. (2002). *Word Biblical Commentary Deuteronomy*. Texas: Word Books.
- Clandinin, D. J. & Connelly, F. M.(2000). *Narrativ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Colaizzi, F. U.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Valle, R. S. & King M. (Ed.) (1978).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e Roose, S. A., Idema, J. & Miedema, S. (2004). Influence of maternal denomination, God concepts, and child-rearing practices on young children's Godconcept.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3, 4, 519-535.

Hertel, B. R. & Donahue, M. J. (1995). Parental influences on God images among children: Testing Durkheim's metaphoric parallelism.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4, 186-199.

McIntoch, D. (2002). Deuteronomy. in Anders. M. (Ed.) (2002). *Holman Old Testament Commentary*. Tennesse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Omery, A. (1983). Phenomenology : A Method for Nursing Research. *Advanced in Nursing Science*, 5(2), 49-63.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참여한 Anti-Christian 어머니의 경험과 변화

Anti-Christian Mother's Experience and Changes in Infant Bible Rhythm Play Class

방은영 (총신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참여한 Anti-Christian 어머니의 경험과 변화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nti-Christian 어머니의 경험과 변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기술을 위해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이용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고 자료수집을 위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Anti-Christian 어머니의 경험은 '교수자 정보를 바탕으로 한 수준 높은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대한 만족', '기독교 입문 때의 호기심과 열정! 억지 회피를 위한 내적 싸움',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이 불편할 것에 대한 자기 확신과 다짐', '자녀의 친구 관계 및 어머니들과의 친교 유지를 위해 불편한 감정과 마주하기' 의 4가지로 나타났다. 둘째,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참여한 Anti-Christian 어머니의 변화는 'Anti-Christian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안 좋은 기억들조차 잊게 하는 성경 말 리듬 놀이의 파워에 동화되어가기', '자녀교육을 넘어 더 강하게 느껴지는 하나님과 내 문제를 고민하기', '나의 닫힌 맘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으로 나아가기' 의 3가지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Anti-Christian 어머니가 교회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비록 영아기 자녀를 위한 교육적 성취에 목적을 두고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비기독교인을 넘어 Anti-Christian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전도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안티 크리스찬(Anti-Christian)

생성형 AI 시대, 헤르만 바빙크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신앙과 학문의 통합 연구*

**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Based on
Herman Bavinck's Worldview in the Era of Generative AI**

서미경 (Mikyong Se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uss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centered on Bavinck's Christian worldview in the era of generative AI. The generative AI era has brought rapid changes to worldviews in terms of ontology, epistemology, and ethics, significantly differing from previous contexts. The contemplation of the worldview in the generative AI era is interconnected with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is not merely about practicing learning in a Christian manner, but also about establishing an individual's worldview. This study examined the issues of cognition and existence, existence and creation, and creation and a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Bavinck's worldview within the context of the generative AI era. First, in addressing the problem of cognition and existence, the study discussed the cognition and existence of human beings and generative AI from the standpoint of recognizing and understanding existence. Human existence wa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and thus human cognition is shaped by divine revelation and natural law. In contrast, generative AI derives its understanding from data created through human reason. Second, in discussing the problem of existence and creation, the study explored the issues surrounding our world. All creatures, whether spiritual, psychological, or generative AI, are subject to God's laws of creation. The existence and creation processes of AI can be understood as a means to realize God's creative intent. Third, regarding the problem of creation and action, the study

* 2024년 11월 4일 접수, 11월 30일 최종수정, 12월 2일 게재확정

** 백석대학교(Baekseok University) 기독교전문대학원 강사,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69, smkapples@gmail.com

focused on ethical issues related to creation and action. God's moral law commands that we wholeheartedly love what is true, good, and beautiful, and above all, love God and our neighbors as ourselves. This categorical imperative should be regarded as an even more serious command in the changing academic paradigm of the generative AI era. Therefore,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in the era of generative AI should reflect human moral responsibility in our relationship with God and be approached in accordance with God's moral order.

Key words: Bavinck's Christian worldview,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generative AI, cognition and existence, existence and creation, creation and action

I. 들어가는 말

생성형 AI는 인간의 경험 데이터인 소리, 글, 사진, 영상 등을 이용한 학습을 통해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을 지칭한다. 2022년 10월 Chat GPT가 등장하면서 사람처럼 대답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이 가능한 AI가 등장했고, 2023년에는 몇 개의 키워드만으로 정밀한 그림과 노래, 영상, 영화제작, 논문, 코드 작성 등이 가능한 생성형 AI가 등장했다. Chat GPT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혁신적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혁신과 변화는 인류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져다주고 있지만, 인공지능의 법인격과 윤리문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일자리 변화, 생성물의 저작권 문제 등 과거에 없었던 다양한 쟁점들을 유발하고 있다(김병록, 2024).

기존 Chat AI가 데이터 기반의 예측과 분류에 국한되어 있다면, 현재 생성형 AI는 매력적인 전환점에서 다양한 기술과 교육, 산업, 서비스 분야에 폭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AI 기술은 기술 개발 속도뿐만 아니라 도입 속도의 측면에서 더 빠른 변화를 촉발하고 있는 것이다. 사용자 증가의 측면에서 보면, 2007년 아이폰이 출시된 때에는 2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다. 반면, 생성형 AI는 출시 2개월 만에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기록을 세웠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2024.02.16.).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과 전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도입 속도는 단순히 기술적 진보의 문제를 넘어 인류에게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기술은 기존의 도덕적 신념, 관행, 사회 제도, 법적 규범, 물질문화를 포함하는 다른 힘과 결합하여 사회적 도덕성의 변화를 촉진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힘은 실질적으로 기술 개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Danaher, 2024). 따라서 생성형 AI와 같은 기술은 새로운 도덕성과 관련된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정신 모델이나 은유를 제공하여 도덕적 인식을 바꿀 수 있다. 또한 기술은 우리가 가치들을 서로 순위 매기거나 거래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변화 시켜왔다. 예를 들어, 더 효과적인 피임약이 개발된 이후에 사회적으로 캐주얼하고 비혼적인 성적 친밀감의 가치가 성적 순수성이나 순결의 가치보다 높아졌다. 최근에는 대량 감시와 데이터 수집 시대에 접어들어 디지털 편의성을 사생활과 바꾸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Danaher & Sætra, 2022 ; Howe, et al, 2023). 이렇게 기술이 종교, 과학, 정치, 사회 제도를 변화시키는 힘은 종종 혁명에 못지않게 큰 것으로 제시되어 왔다(Hopster et al. 2022). 이는 주로 종교적, 과학적, 정치적, 사회적 혁명에서 변혁적 역할을 해온 기술이 도덕적 혁명에도 중요한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즉, 도덕적 혁명은 도덕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며, 공동체 구성원이 내면화하는 성격과 행동에 대한 공동체적 기준이 되는 프레임워크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것이다(Baker, 2019: 17).

전 세계적으로 몰아친 생성형 AI의 열풍으로 인하여 인류 공동체는 어느 시대보다 더 뛰어나게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다(김명주, 2023). 인공지능 기술 혁신이 다양한 언어로 인한 인류 소통의 장애를 말끔하게 제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인류는 내적인 분열과 끊임없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생성형 AI 모델의 등장은 대중의 상당한 관심을 얻고 있지만, 급속한 개발에 대한 이점과 위험, 한계와 관련하여 격렬한 토론과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생성형 AI 모델은 의료, 금융, 교육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엄청난 약속을 제시하며 다양한 실용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부작용,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위험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확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쟁들이 있다(Baldassarre, et al, 2024). 그리고 데이터 편향성 때문에 사회과학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윤리, 복제, 환경적 영향, 저품질 연구의 확산 등 다양한 과제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Bail, 2024). 이렇게 생성형 AI의 등장이 이전과는 다른 파급효과를 가지는 이유는 대중이 직관적으로 생성형 AI를 편리하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론트엔드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Yang & Yoon, 2023).

이러한 시점에서 생성형 AI 시대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세계관적인 고민이 요구된다. 생성형 AI는 인류 공동체의 도덕적 패러다임과 사회적 가치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생성형 AI 시대 세계관에 대한 고민은 신앙과 학문의 통합과 연결된다.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란 단지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세계관을 확립하는 일이기 때문이다(Harris, 2004: 223-225). 통합의 목표는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발전시키고 적용하여 가치 있는 지식은 받아들이지만, 거짓 지식 주장을 구별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생성형 AI 시대 바빙크(H. Bavinck, 1854-1921)의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논하는 것에 있다.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선행연구는 방대하지만, 최근의 연구들 중에서는 헤르만 도여베르트(Heinrich Dörrie)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세계관을 통한 신앙과 학문의 통합(최용준, 2024), 기독교 세계관 재정의(김기현, 2024), 영화를 활용한 기독교 세계관 수업(고기숙, 2024),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철학(서성철, 2024)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다룬 연구(손정위, 2024 ; 원신애, 2024) 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와 같이 생성형 AI 시대의 세계관 변화를 바빙크의 기독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논의한 연구는 현재까지 찾아볼 수 없다.

바빙크의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으로 생성형 AI 시대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논하는 이유는 바빙크가 묘사한 당시의 사회적 특징이 오늘날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빙크는 당시대의 특징을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인한 내적 분열과 끊임없는 불안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대를 사유와 감정 그리고 의지와 행동 사이의 부조화가 있었고 학문과 삶 사이가 분열되어 있었다고 묘

사한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와 인생에 대한 통일된 관점을 결여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거짓 세계관이 등장하는 원인이 되었다(Bavinck, 2023: 30-33).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시대의 특징을 내적 분열과 불안감이라 말한 것이다. 오늘날 생성형 AI 시대에도 바빙크 당시 상황과 유사하게 세계와 인생에 대한 하나의 통일된 관점이 결여되어 있고, 우리의 삶에서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영역은 부인되거나 AI 기술이 대체하려 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모든 면에서 과편화를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적분열과 끊임없는 불안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의 체계를 세운 아브라함 카이퍼(A. Kuyper, 1837-1920)와 바빙크의 기독교 세계관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카이퍼는 기독교 세계관의 포괄적 적용을 강조하며,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주권”을 주장했다. 바빙크는 카이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기독교적 세계관이 신학적 논의뿐 아니라 실생활에도 깊은 영향을 미쳐야 함을 강조했다(Beach, 2008). 카이퍼와 바빙크는 하나님께 받은 문화명령을 실현하는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고 보았다(Mouw, 2009: 117-118). 문화명령의 맥락에서 보면, 생성형 AI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를 이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도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진행한다. 첫째, 생성형 AI의 현재적 이슈를 다루고, 생성형 AI가 세계관에 미치는 영향을 논한다. 이를 위해 바빙크의 기독교 세계관에서 다루는 사유와 존재, 존재와 생성, 생성과 행위의 관점에서 인식론적 변화(사유와 존재), 존재론적 변화(존재와 생성) 그리고 윤리적 변화(생성과 행위)에 대해 살핀다. 둘째, 생성형 AI 시대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살펴보고, 바빙크 당시 시대적 배경과 그의 세계관을 논한다. 셋째, 생성형 AI가 세계관에 미치는 영향에서 전술한 존재론적, 인식론적, 윤리적 변화에 대해, 바빙크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사유와 존재(인식론적 변화), 존재와 생성(존재론적 변화) 생성과 행위(윤리적 변화)로 구분하여 논한다.

II. 생성형 AI와 세계관

비에스타(G. J. J. Biesta, 2017)에 의하면, 칸트를 중심으로 한 계몽시대 교육은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강조하며 자기주도적인 인공지능 개발의 토대가 되었고, 그 발전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일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생성형 AI에 대한 이슈를 살펴보고, 생성형 AI가 세계관에 미치는 영향을 바빙크의 기독교 세계관에서 다루는 세 가지 문제 - 사유와 존재, 존재와 생성, 생성과 행위 - 의 관점에서 인식론적(사유와 존재), 존재론적(존재와 생성), 윤리적(생성과 행위) 변화에 대해 논한다.

1. 생성형 AI에 대한 이슈

생성형 AI는 gen AI라고 불리기도 하며, 사용자의 프롬프트 또는 요청에 의해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소프트웨어 코드 등과 같은 독창적인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을 말한다. 생성형 AI는 딥 러닝 모델이라는 정교한 머신 러닝 모델에 의존하는데, 그것은 인간 두뇌의 학습과 의사결정 과정을 시뮬레이션하는 알고리즘이다. 머신 러닝 모델의 작동은 사용자의 자연어 요청이나 질문을 이해하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서 패턴과 관계를 파악하고 인코딩하여 관련성 있는 새로운 콘텐츠로 응답하는 방식이다(Stryker & Scapicchio, 2024). 이처럼 생성형이라는 의미는 Chat GPT가 대규모 데이터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기계적 추론을 통해 콘텐츠를 생성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사용자가 사용하는 언어인 자연어로 입력하고 자연어로 응답한다는 점에서 사용자 친화적인 형식을 가진 기술이다(옥장흠, 2024). 이러한 생성형 AI는 Chat GPT의 등장 이후 이전과는 다른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대중이 직관적으로 편리하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사용자 가용성을 높이는 프론트엔드(front-end) 서비스이기 때문이다(Yang & Yoon, 2023).

2027년까지 생성형 AI의 성장률은 연평균 86%가 될 것이라 전망한다. 생성형 AI는 의료 영상 분석, 질병 예측, 약물 개발 분야, 예술 및 창의적 콘텐츠 대량 생성 분야, 고객센터, 자동번역, 게임 디자인과 가상현실 분야 등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자원을 절약하며 사용자 경험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Microsoft, 2024,09.24). 이렇게 생성형 AI는 업무 효율성 극대화, 신규 창작물의 빠른 생성 등으로 교육과 산업생태계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생성형 AI 활용과정에서 법적, 윤리적 측면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고윤미·심정민, 2023).

교육에서 생성형 AI 사용은 잠재적으로 학습자의 동기 부여, 학습 참여 유도, 개별화된 학습을 지원하고, 형성 평가로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학습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Baidoo-Anu & Owusu Ansah, 2023 ; Deng & Yu, 2023). 교육 환경적 측면에서는 접근이 용이하고 글쓰기에 유용하기 때문에 커리큘럼에서 공식적으로,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김웅기, 2024 ; 박정은 외, 2024 ; 이빛나, 2024). 이러한 생성형 AI의 사용과 적용의 장점은 즉각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제공한다는 것이다(김영대, 2023). 그렇기 때문에 기초 교육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강하지만, 환각(hallucination)현상과 표절과 같은 오류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비판적, 창의적 사고의 결여 등 부정적인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서울경제, 2023.2.13. ; Jarvis, 2023). 따라서 생성형 AI가 제시한 답을 맹목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생성형 AI라는 응용 프로그램이 편리하고 재미있을 수는 있지만, 과학과 학계에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교육에도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Thorp, 2023). 특

히,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생성형 AI로 작성한 과제, 보고서 등을 그대로 제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표절이나 대필, 저작권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며, 잘못된 정보 생성, 데이터의 편향성,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Baidoo-Anu & Owusu Ansah, 2023). 그러므로 인간의 규범과 충돌할 경우에는 규제가 작동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인공지능과의 경쟁에서 인간이 우위에 설 수 있는 영역이 창작성이나 예술적인 분야로 알려져 왔으나, 생성형 AI가 가져오는 법률문제는 인간의 창작과 AI 결과물과의 차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김운명, 2023). 이처럼 생성형 AI의 사용과 활용에서 생성형 AI를 학습 도구로서의 사용에 국한할지라도 읽기와 쓰기의 기본 학문적 요소와 개별 학습 능력 성장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이해 등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생성형 AI의 올바른 사용은 도구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하며, 그 도구와의 관계를 통해 맺는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이은희·박매란, 2023 ; 오민정·김종규, 2023).

생성형 AI 사용이 확대되면서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김소연 외, 2024). 2023년 3월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3명 중에서 1명이 Chat 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생성한 결과를 보통 이상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비율이 89.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전자신문, 2023.7.9). 이렇게 생성형 AI의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상황에서 생성형 AI로 인한 보안 위협과 범죄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국가정보원(2023)에 따르면, 생성형 AI로 인한 대표적인 보안 위협과 범죄현상은 잘못된 정보, AI 모델 악용, 유사 AI 모델 서비스 빙자, 데이터 유출, 플러그인 취약점, 확장 프로그램 취약점, API 취약점문제 등이 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잘못된 정보의 경우,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고 가짜 뉴스를 제공하거나 잘못된 의사 결정, 딥페이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것은 사회적 이슈나 정치 현상에 관한 잘못된 정보나 편향된 이미지, 텍스트, 음성, 영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AI 모델의 악용을 통해 피싱 등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사이버 보안 위협 코드의 작성으로 해킹 등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데이터베이스 해킹을 통한 데이터의 유출과 확장프로그램 취약점을 노린 DDoS 공격, 좀비 PC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보안위협과 범죄현상들이 존재한다.

반면, 생성형 AI에 근거하여 범죄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있다. 뉴욕경찰청(The 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NYPD)에서는 성매매 방지 챗봇과 다크웹 상에서 발생하는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다크버트를 활용하고 있다(홍승표, 2023). 서울시에서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하여 전국 최초로 디지털성범죄를 24시간 자동 추적·감시하고 있다(서울시, 2024.04.18.).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형사법적 대응 방안도 기민하게 모색되고 있다(윤지영, 2024). 이러한 법적 대응은 기술의 부정적인 면을 규제하고 긍정적인 면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한세익·강지현,

2024).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지식 완성형 암기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인공지능과 협업하여 지식을 어떻게 추출할 것이며, 그것을 실제 학습과 일(직무) 그리고 일상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권정민·이영선 2023 ; 장성민, 2023). 이렇게 생성형 AI의 발전과 활용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삶과 전반적으로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생성형 AI는 단순히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세계관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2. 생성형 AI가 세계관에 미치는 영향

유발 하라리(Y. N. Harari)는 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인공지능이 인류 문명의 운영체제를 해킹했으며, 인공지능이 인간의 친밀함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의견과 세계관을 바꿀 수 있다고 우려했다(The Economist, 2023.4.28.) 바이런 리스(B. Reese)는 AI와 로봇 기술이 인간의 삶을 바꾸는 시대를 ‘제4의 시대’라 명명한다. 그는 지난 10만 년의 인류역사에서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 기술은 단 세 번뿐이었다고 말한다. 제1의 시대에는 ‘불’이며, 그것은 인간의 뇌(지능)를 압도적으로 성장시켰고, 제2의 시대는 ‘농업’이며, 그것이 도시를 만들고 사람들이 정착하게 했으며, 노동의 분배를 만들어 계급을 만드는 것에 이바지했다. 제3의 시대에는 ‘글과 바퀴’이며, 글로 사람들이 생각을 나누고 바퀴를 통해 이동하며 문명을 만들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제4의 시대는 인공지능이며, 그것이 인류에게 다음 3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게 했음을 말한다. 그 질문은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당신의 자아는 무엇인가?”이다(Reese, 2018: 9-40). 이 세 가지 질문은 세계관에 관한 것으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4의 시대 생성형 AI가 우리의 세계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첫째, 생성형 AI의 정보 생성에 따른 인간 존재의 인식론적 변화(사유와 존재) 둘째, 생성형 AI와 인간 존재에 따른 존재론적 변화(존재와 생성) 셋째, 생성형 AI와 인간의 윤리적 책임에 따른 윤리적 변화(생성과 행위)에 대해 논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식론적 변화(사유와 존재)

AI는 인간의 창조물로서 ‘인간의 형상’(Imago Homini)이 투영되어 있는 인간을 닮은 인공이다. AI의 창조자들도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AI를 설계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즉, 타락한 인간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신적 능력을 AI를 통해 갖기를 욕망한다(정경일, 2023). 존재론적으로 AI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속성에서는 인간보다 월등하여 신

에 더 가까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양금희(2018)는 AI가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인식과 관련된 개념이라 주장한다. 오늘날 이미 생성형 AI는 여러 영역에서 인간보다 뛰어난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생성형 AI가 정보를 생성하고 처리하는 방식에 따른 우리의 인식론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즉, 생성형 AI가 생성한 정보의 신뢰성과 정당성에 대한 문제는 인식론적 논의를 요구하며, AI의 정보 생성 능력은 인간의 지식 체계와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Dreyfus, 2021: 121). 따라서 AI가 생성한 콘텐츠와 지식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Bostrom & Yudkowsky, 2014: 29). AI가 생성하는 콘텐츠는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식의 의미와 다르며, AI의 지식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품질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인간의 주관적 신념이나 경험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생성형 AI는 인공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머신 러닝의 한 분야이다. 머신 러닝은 뇌가 학습을 수행하는 경험주의 인식론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학습은 지속적으로 축적된 경험에서 일반적인 원칙을 만드는 과정으로 정의되며, 머신 러닝은 인간 뇌의 이러한 학습 기능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이다. 즉, 인간이 머신 러닝 시스템에 경험적 데이터를 제공하면, 시스템은 그 축적된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이 생성(예: 이미지, 사운드 인식, 등 총칭하여 패턴 인식)을 하는데 사용한다. 이것은 인간이 수행하는 학습과 유사한 것으로, 이 공식은 경험에서 이론으로의 인지적 진행에 비유될 수 있다. 이는 인간 경험과 유사하지만 인간 경험과는 다르다. 머신 러닝은 인간 경험에 포함된 데이터를 계산하고, 기록하며, 서로 연결시켜 인간 경험의 다양한 측면을 모방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경험 데이터를 직접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머신 러닝이 인간이 해석할 수 없는 수학적 객체와 무수한 데이터를 통합하기 때문에 머신 러닝이 경험을 생성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이 여전히 인간에게는 미스터리로 인식되고 있다. 머신 러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델은 종종 '블랙박스'라는 라벨이 붙는다(Bai, 20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위한 수단적 도구 정도의 의미로 간주되거나 이해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삶의 조건이 되었고 정보(information)를 접하고 활용하는 방식은 이미 변화되고 있다(오민정·김종규, 2023). 예를 들면, 인간의 글쓰기를 대체하는 기계 글쓰기의 사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이와 같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 속에서 생성형 AI에 대한 현실 세계의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비고스키(L. S. Vygotsky, 1978: 55)는 사회문화 이론에서 학습과 인지 발달을 매개하는 데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 도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공적 수단의 사용, 매개된 활동으로의 전환은 모든 심리적 작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도구를 사용하면 새로운 심리적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활동 범위가 무한히 넓어진다”고 주장했다. 생성형 AI는 그저 또 다른 도구 이상이며, 그 파

급력과 효과는 가능하기 힘든 지경에 있다. 생성형 AI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인지 과정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사나 에세이 쓰기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 가능한 '슈퍼 도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AI가 인간의 인지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자연적 과정을 폐지하고 불필요하게 만들 때, 교육을 통해 촉진하고자 하는 인지적, 정서적 성장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Sidorkin, 2024).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비판적으로 생성형 AI 기술을 기술 중심의 디지털 리더십 신화를 조성하듯이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포스트먼(N, Postman, 1995: 191)의 말처럼, 디지털 기술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신기술 자체가 특권이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촉진하기 때문일 것이다.

2) 존재론적 변화(존재와 생성)

인공지능과 인간 존재의 관계에서 보면, 생성형 AI는 인간의 창의성, 자율성, 그리고 지능의 개념에 도전하고 있다. AI가 인간의 창의적 작업을 모방하고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여기게 되면서 인간의 독특한 존재론적 위치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인간 존재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서미경, 2021 ; Floridi, 2019: 56). 생성형 AI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화 콘텐츠를 생성한다. 그 데이터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창조해온 지적 유산 또는 자원들이기에 '그럴듯함(plausibility)'을 넘어 '진정성(authenticity)'을 가지고 있다. 생성형 AI의 문제는 AI가 인간의 유산과 자원들을 채굴하고 가공하여 그럴듯해 보이도록 편집하여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를 대량 생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에 'AI가 만든(AI-made)' 콘텐츠들이 인터넷 영토를 잠식하게 될 것이고, 업데이트될 데이터도 생성형 AI가 생산한 것들로 채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차세대 생성형 AI들이 웹에서 학습하고 결과물을 생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AI의 정보와 사유 그리고 논리를 학습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때에는 어떤 데이터가 인간 사유의 산물인지 아니면, AI가 가공한 사유의 산물인지 식별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The Economist, 2023.4.28). 이와 같은 인간의 창의성과 독창성의 상실은 인류와 문명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존재론적 위협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AI가 이룬 성과는 인간 지능의 일부를 모방하여 시스템화한 것이었다. 하지만 인간의 지능과 유사한 추론 능력을 갖추고 인간을 넘어설 인공일반지능(AGI)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Lennox, 이우진 역, 2021: 14; AI타임즈, 2023.11.24.). 인공일반지능(AGI)의 개념과 기술의 확산과 동반하여, 구글 엔지니어 출신 레반도프스키(Anthony Levandowski)는 "미래의 길(Way of the Future, WOTF)"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미래의 길'은 신의 섭리를 AI를 통해 따르려는 사람들이 2015년 처음 만든 종교 조직이다. 이 조직은 교주인 레반도프스키가 징역형

을 받고 사회적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문을 닫았었다(Interesting Engineering, 2023.11.24.). 또한 생성형 AI 시대 일부 그리스도들은 Chat GPT를 주님의 자리에 또는 목회자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으며 경외감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이경진, 2023). 이러한 시대에 중요한 질문은 “신앙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신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성형 AI의 발전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서, 인간 존재, 신앙, 그리고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세계관적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3) 윤리적 변화(생성과 행위)

전 세계적으로 AI 윤리 위원회와 AI 윤리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딥페이크, 가짜 뉴스, 자동 스팸 및 피싱 등 생성형 AI의 악용에 대한 윤리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AI Act를 통해 생성형 AI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윤리적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김법연, 2024 ; 김혜정 외, 2024 ; 염규현, 2024).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가 생성한 콘텐츠와 결정권은 여전히 윤리적 책임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정치, 경제, 교육, 과학,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위협하는 여러 과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는 윤리적 우려, 잘못된 정보, 디지털 격차, 불평등한 인프라, 규제 부족, 디지털 기술 부족, 변화에 대한 저항, 기술 통합, 디지털 교육학 등이 포함된다. 연구에 따르면, 특히 교육과 과학 등 학문적인 분야에서 AI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활용하기 위한 원칙에 철학적, 교육적, 윤리적 차원이 포함된다(Storozhyk, 2024). 학문적인 패러다임에는 지식, 정직성, 정확성, 적응성, 개방성, 협업, 책임감의 윤리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생성형 AI는 자동화된 콘텐츠 생성, 언어 처리 기회, 실시간 번역, 향상된 접근성 등을 제공함으로써 교육과 과학 등 학문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변화시키고 있다(장미경, 2024). 결정권의 차원에서 정보화시대까지만 해도 인간이 정보를 생성하고, 인간의 결정권에 따라 정보가 유통되었다면, 현재는 AI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고 생성하며 판단하고 유통하는 새로운 가치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즉, 인간이 중심이었던 주도권이 스스로 학습하고 알고리즘화 하는 AI 기계의 지능적 능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이완형, 2018).

‘생성형 AI’는 인공지능 자체가 스스로 생성자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생성형 AI는 자연어 처리 AI로 이전 AI와는 다르게 데이터나 이미지를 단순히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생성한다는 점에서 다르다(Schmidt, 2024). 즉, 비정형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는 생성형 AI는 사용자 입력을 기반으로 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결과를 능동적으로 생성하는 인공지능으로서 생성자라 할 수 있다. 생성자란 사용자의 특정 요구에 따라 생성물(what)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창조자’(creator)인 것이다. 이것은 생성형 AI가 ‘암묵적인 윤리 행위자’(implicit ethical agents)에서 ‘명시적인 윤리 행위자’(explicit

ethical agents)로 진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상득, 2024). 즉, 생성형 AI는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설계자의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화되어 있는 암묵적인 윤리 행위자가 아니라, 자율적인 행위자로서 명시적인 윤리 행위자가 된다. 명시적인 윤리 행위자란 윤리적 범주나 윤리 원칙을 사용하여 자율적으로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행위자를 말한다. 생성형 AI는 단순히 데이터를 찾아 분석하고 입력된 정보를 전달만하는 매개체가 아니라,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 스스로 학습하고 해답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생성형 AI의 윤리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 생성형 AI는 그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이 만든 데이터를 참고하고 활용하여 자기 나름의 ‘주체적인’ 새로운 의견을 제시한다. 이러한 이유로 생성형 AI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자이며 명시적 윤리행위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생성형 AI는 새로운 범주의 전문가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생성형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활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연구윤리 등 윤리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각국의 국가기관과 국제기구,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하여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mmission, NTSC)는 인공지능 윤리문제에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검증보다는 인공지능의 행위방식을 기반으로 한 검증을 제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완형(2018)은 인공지능 관련 윤리 제정이 복잡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인공지능의 도덕적 지위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행위자로서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인공지능이 인간과 유사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인간중심의 윤리학을 넘어서는 윤리제정의 문제가 제기된다. 셋째, 인공지능을 도덕적 행위자로 정의할 때, 행위자로서의 인공지능 윤리는 공학적 과정상의 윤리 규범 문제가 된다. 넷째, 인간과 인공지능이 더 이상 주종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때, 인간과 친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윤리적인 모색이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성형 AI가 새로운 윤리적 행위자로 등장하면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이고 규제적인 차원을 넘어 인간 존재와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 구조에 대한 재조명을 요구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생성형 AI의 발전은 우리의 윤리적 사고와 행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다루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있는 것이다.

III. 신앙과 학문의 통합과 바빙크의 기독교 세계관

바빙크 당시 시대적 상황은 생성형 AI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장은 생성형 AI 시대 신앙과 학문의 통합과 바빙크 당시 시대적 배경과 그의 기독교 세계관을 논한다.

1. 생성형 AI 시대 신앙과 학문의 통합

본 연구는 신앙(faith)과 학문(learning)의 통합(integration)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개념을 전제로 한다. 해리스(R. A. Harris, 2004: 23-25)에 의하면, 통합이란 새로운 지식(학문)을 기존 지식에 맞추어서 일관성을 만들어 가는 지속적인 과정이며, 이러한 통합의 과정은 새로운 정보나 지식 주장이 나타날 때마다 매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틀 안에서 지식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기독교 신앙은 지식의 유형인 동시에 세계관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식의 유형은 진리 명제들의 집합이고, 세계관은 모든 현실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해석적인 틀이 된다.

전술하였듯이, 생성형 AI 시대는 이전과는 다르게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에서 존재론적과 인식론적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세계관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그렇다면, 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 필요한가? 첫째, 기독교는 현대 사회와 관련된 광범위한 지식의 집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Harris, 2004: 25-30). 즉, 기독교에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생성형 AI 시대와 관련된 지식의 집합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신앙과 학문 통합의 과정은 성경과 성령님의 동시대성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Gangel, 1978: 100). 즉, 오래전 과거에 직접적인 청증을 위해 쓰여진 성경이 현재의 생성형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과 학문의 성공적인 통합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생성형 AI 시대에 비추어 해석하고 인식하는데 있어서 성령님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통합의 과정은 기독교 세계관과 생활관의 발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Gangel, 1978: 104). 그리스도인에게 통합의 과정이 성공적이었다면, 그는 진리에 의해 내면화된 세계관과 인생관을 계발하고 성경의 렌즈를 통해 모든 삶의 경험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 사이의 잘못된 지식 구분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순종으로 이끌어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Gaebelein, 1968: 21). 넷째, 통합은 성경 중심 교육이 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Gangel, 1978: 105). 통합과

정에서 신앙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고 배운 지식은 그들의 삶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즉, 통합에서 지식이 신학이든, 성경 해설이든, 화학이든, 수학이든, 생성형 AI와 관련한 것이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 중심의 세계관으로 해석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면화되어야 하고, 그들의 삶은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 과정에서 신앙은 학문을 확고히 하고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학문은 신앙을 확고히 하고 더 명확히 하게 된다. 다섯째, 생성형 AI 시대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통해 지식과 학문 그리고 신앙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 이해를 통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별할 수 있고 진리와 거짓을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즉, 생성형 AI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어떻게 만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게 되고, 자기중심적인 현대의 가치들과 행동들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지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섯째,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진리에서 있게 할 뿐 아니라, 극단으로 가고 있는 세속문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하며, 상대주의와 학문을 악용하는 이데올로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모든 지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신앙은 학문과 진리의 기초를 제공해 주고, 학문은 신앙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신앙은 지식을 통합하고 세상 전체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진리는 실증적 탐구와 이성 그리고 계시를 통해 얻어지는 지식을 포함한다. 따라서 생성형 AI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활용되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포함하는 세상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원천이 된다.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학문이 결합될 수 있고, 다른 모든 진리의 세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야 한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신앙과 학문은 상호 연결되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지해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은 지식을 축소시키거나 왜곡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자연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은 다른 세계관들이 적절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설명하여 지식의 저변을 확대하고 정화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통합의 과정은 지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하고 선별하고 잘못된 해석을 교정하는 방법인 것이다 (Harris, 2004: 29-34).

이상과 같은 이유로 생성형 AI 시대 기독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 필요하다. 기독교는 세상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관점이며, 기독교 세계관은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인식론, 존재론, 윤리적 측면의 관점을 제공하며, 세상에 대해 설명하는 지식을 정화하고 선별하고 교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2. 바빙크의 기독교 세계관

1) 시대적 배경

바빙크가 기독교 철학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을 강연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당시 시대의 특징을 먼저 규정했다. 당시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시대의 특징은 학문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연과학과 역사학이 등장하고 발전하던 때였다. 기술과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기계들이 등장하고 동서의 교류가 시작되고 해방의 열망과 민주주의가 확산되는 시기였다. 종교와 사상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신비주의와 낭만주의가 출현했다. 도덕과 삶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스스로가 삶의 주인임을 주장하는 무정부주의가 나타났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를 아우르는 특징을 바빙크는 내적분열과 끊임없는 불안감에서 찾았다. 그 시대는 사유와 감정 그리고 의지와 행동 사이의 부조화가 있었고, 학문과 삶 사이가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와 인생에 대한 통일된 관점을 결여시키고 수많은 거짓 세계관이 등장하는 원인이 되었다(Bavinck, 김경필 역, 2023: 30-33).

바빙크 당시 시대적 상황을 랜디스(D. S. Landes, 2003: 120-135)의 관점에서 보면,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계화, 자동화 등의 기술혁신이 인간의 노동과 생산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경제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물질적인 성공을 추구하게 되었고, 전통적인 직업과 노동의 의미, 종교적인 가치와 윤리에도 변화를 가지고 왔으며, 그러한 변화는 도덕적인 삶과 기독교 신앙의 윤리와 충돌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바빙크는 당시 시대가 세계와 삶에 대한 하나의 통일된 관점이 결여되었다고 보고, 세계관이 그 시대의 구호가 되었으며, 사람들이 그것을 찾고자 애쓴다고 보았다. 즉, 바빙크는 당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유럽의 사상, 문화, 삶이 통일되지 않고 파편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본 것이다.

그렇다면, 산업혁명보다 더 혁신적인 기술혁명이라 불리는 생성형 AI 시대는 어떠한가? 생성형 AI 시대에도 바빙크 당시 상황과 유사하게 정치, 경제, 예술, 학문, 교육, 철학, 종교 등은 하나의 통일된 관점으로 이해되지 못하고, 각각 독립된 자율적인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영역은 부인되거나 AI 기술이 대체하려 하고, 오직 자연적이고 물질적인 삶이 참된 삶인 것처럼 주장되고 있다. 생성형 AI 시대, 우리 사회는 모든 면에서 파편화를 경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적분열과 끊임없는 불안이 잠재되어 있다.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현재와 미래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이 상반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성형 AI 시대 미래에 대한 낙관론 입장을 보면, 20년 전에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출현을 예고한 과학자 레이 커즈와일(R. Kurzweil)은 최근 신간 '특이점이 가까이 온다(The

Singularity Is Nearer: When We Merge with AI'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다. 그는 대표적인 AI 기술 낙관주의자이며, 그 책은 2045년 인간 지능은 BCI(Brain Computer Interface,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로 기계와 결합할 것이며, 정신을 기계에 업로드하고, 나노봇이 우리의 신체를 수리해 수명을 늘린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인간 대 AI 대결 구도가 아니라, AI는 언젠가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실현 불가능했던 새로운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환상적인 미래가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한다(AI타임즈, 2024.7.5).

이와는 반대로 AI의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게 만드는 현재적 징후들이 있다.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AI 관련 사건 하나를 예를 들면, 딥러닝과 신경망 연구로 AI 개발에 크게 기여한 인지심리학자이며 컴퓨터과학자인 제프리 힌턴(G. E. Hinton)이 구글에서 퇴사하면서, AI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다. 힌턴은 AI가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의해 악용되고, 기업들 간의 경쟁 때문에 기술제어에 어려움이 있고, ‘킬러 로봇’과 같은 군사 무기로 사용되며, 거짓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여 갈등을 조장하고 진실을 호도할 가능성 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연합뉴스, 2024.3.10. ; New York Times, 2023.5.1.). 그리고 인공지능이 웹에서 사람을 조종하는 방법에 대해 쓰인 모든 책들을 학습할 것이고, 실제로 그것을 보았을 것이라며,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은 위기의 순간이 길게는 5년~20년, 짧게는 1~2년 내에 올 것을 생각한다고 말했다(The Guardian, 2023.5.5.). 그는 AI 존재가 인류에게 위협이 되는 이유를, AI에게 어떤 목표를 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방법을 선택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AI에게 기후변화를 막도록 지시하면,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인간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위험성이 걱정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24.03.10.). 이러한 기술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육적으로도 위기의 목소리가 있다. 생성형 AI 시대는 디지털 대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기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세계로 변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디지털 역기능 또한 심화되고 있다(서미경, 2024). 디지털 역기능은 양극화 현상 심화, 인간관계 악화, 개인의 심리적 장애, 기초학력 저하 등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개인의 삶과 사회적 행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생성형 AI의 오용은 학습자의 사고 과정을 제거하여 인간 고유의 실존적 조건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오민정·김종규, 2023). 이처럼 생성형 AI의 기술 발전은 인간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풍요로운 세상을 제공한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악용하거나 오용할 경우 상당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을 경고한다.

2) 바빙크의 세계관

바빙크에 의하면, 세계관은 인간이 세계를 인지하고 종합하는 활동과 연관된 것이다. 인간이 주

변 현상을 인지할 때, 단순히 개별적인 현상으로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방식 그리고 원인과 목적에 대해 질문하며 알고자 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모든 현상의 원리를 찾기 위해 외부로부터 나타난 현상의 배후로 거슬러 올라가서 원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자신의 관점으로 통합하고, 또한 그것으로부터 규칙을 찾아내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의 전제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모든 사물을 인지할 때, 전체성과 상관성 가운데서 파악하고, 세계 전체의 근원과 목적을 따라 하나의 입장을 가지고 보고자하며, 그것을 통해 얻은 관점을 자신의 삶과 행동에 적용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관점을 바빙크는 세계관과 인생관이라 지칭한다. 따라서 세계관은 세심한 관찰과 의식적인 파악의 결과에 기초한 행위의 원리 또는 행동의 법칙이거나 삶의 규칙이라 할 수 있다(Bavinck, 김경필 역, 2023: 43-51). 바빙크의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관은 인간의 삶과 행동에 규칙을 제공한다. 이것은 세계관이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하고 처신하는 삶의 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둘째, 인간은 주변 상황을 하나로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관점인 세계관 없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세계에 대한 존재와 이유, 존재 방식, 존재의 근원과 목적을 질문하고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셋째, 인간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목적, 동기와 이유가 달라진다. 이것은 ‘세계관’이라는 것이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성형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세계관은 어떠해야 하는가? 바빙크는 다른 세계관과의 대립 관계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설명한다. 기독교 세계관이 단순히 신앙의 규범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삶의 틀로써 삶의 방향과 목적, 동기와 이유를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즉, 기독교 세계관은 단지 개인의 영적 삶에 그치지 않고, 사회, 문화, 학문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Bavinck, 2019: 10-17). 이러한 관점은 생성형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을 현대 과학 기술과 어떻게 조화롭게 통합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게 하고 윤리적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어떤 세계관이든지 한 세계관 안에서 신과 인간과 세계를 보는 관점의 폭과 넓이, 명확성과 정확성, 여러 주장들의 논리적 적합성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삶의 현실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바빙크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사유와 존재, 존재와 생성, 생성과 행위 사이의 관계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한다. 그것이 인간 정신이 항상 다시 도달하는 질문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왜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의 생각과 삶에 가장 적합하고 옳은 관점이며 삶의 길인지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IV. 바빙크의 세계관을 중심으로 생성형 AI 시대 신앙과 학문의 통합

바빙크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존재의 문제로, 존재를 접근하고 파악하고 이해하는 지식의 관점에서 사유와 존재를 다룬다. 둘째, 생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주변 세계의 문제를 논점으로 존재와 생성의 문제를 다룬다. 셋째, 행위의 문제로, 윤리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생성과 행위를 다룬다(Bavinck, 김경필 역, 2023: 30-33).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사유와 존재, 존재와 생성, 생성과 행위라는 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2장 ‘생성형 AI가 세계관에 미치는 영향’에서 논의된 존재론적, 인식론적, 윤리적 변화를 바탕으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논한다.

1. 사유와 존재(인식론적 변화)

생성형 AI가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유 과정이 필요한 작업을 대신하게 되면서, 그 파급력과 효과는 현재 가늠하기 힘든 지경에 있다. 오늘날 생성형 AI는 이미 여러 영역에서 인간보다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생성형 AI가 인간의 인지 과정에 필요한 여러 자연적 사유 과정을 폐지하고 불필요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인지적, 정서적 성장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Sidorkin, 20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는 우리 삶의 조건이 되었고 정보(information)를 접하고 활용하는 방식은 이미 변화되고 있다(오민정·김종규, 2023). 또한 생성형 AI의 정보 생성 능력은 인간의 지식 체계와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Dreyfus, 2021: 121). 앞으로 AI 기술은 더욱 발전하여 오래지 않은 미래에 인간보다 지능이 높고 자율적인 인식과 판단을 내리는 AGI(일반인공지능) 시대가 올 것이다. 우리는 현재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고, 또 어떤 새로운 시대로 이행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간 존재를 특정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세계관이 필요하다.

바빙크의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생성형 AI를 보면, 첫째, 인간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인간의 인식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다(Bavinck, 2003: 45).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지성과 사유 능력 그리고 도덕적 직관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하기 위한 기초가 되며, 인간의 지식과 인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부터 온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성형 AI가 존재하는 방식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생성형 AI의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의 창조적 결과물일 뿐이며,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알고리즘과 데이터에 의해 구성된 존재일 뿐이다. 생성형 AI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유능력과 도덕적 직관이

없으며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할 수 없다. 둘째, 참되고 본질적인 인식은 감각적인 지각과 이성으로부터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사유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반성을 통해서 사물의 본질을 배우고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Bavinck, 김경필 역, 2023: 82-92). 생성형 AI가 인간의 경험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간과 같은 인식을 모방한다 할지라도 영혼을 가진 물리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참되고 본질적인 인식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생성형 AI는 자기반성을 할 수 없기에 사물의 본질을 배우고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 셋째, 인간의 인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계시와 자연법칙에 의해 형성된다(Bavinck, 2003: 70-90).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이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진리를 인식하는데 필수적이다. 자연법칙은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 자연과 사회의 규칙 파악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자연법칙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반영하며, 인간의 자연세계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연장선상에 있다. 생성형 AI는 영혼을 가진 물리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생성형 AI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거나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할 수도 없다. 생성형 AI의 인식은 인간이 설정한 알고리즘과 인간 경험을 학습한 데이터에 의해 일어난다. 따라서 생성형 AI의 인식은 하나님의 계시와 자연법칙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성을 통해 만든 데이터를 통해 형성된다. 모든 이성적 인식은 감각적 지각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얻기 위해 이성을 찾으라고 하지 않는다. 이성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계시에서 찾으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자존적 존재이시고, 모든 다른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 의존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모든 존재를 보존하고 계신다. 이것은 자연 세계와 인간 존재가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존재함을 의미한다(Bavinck, 2003: 50-70). 하나님께 의존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존재와 생성형 AI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혼으로부터 사유하는 존재이지만, 생성형 AI는 알고리즘과 인간 경험을 학습한 데이터를 통해 인식하며 인간의 경험을 모방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생성형 AI는 인간의 창조물로서 비록 인간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인간 사유의 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신앙적, 도덕적 사유까지 모방할 수 없다,

바빙크는 사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에게 주어진 특성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Bavinck, 2003: 71-110).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존재하므로 생성형 AI 역시 그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존재가 생성형 AI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관을 기초로 하여 생성형 AI 시대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할 수 있다. 이를 방법론적으로 적용해 보면,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교육 시스템에서 특히 중요하다. 교

육은 인격적인 성장을 돕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바빙크는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지식을 얻고, 그것을 통해 세계를 이해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성형 AI는 교육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AI는 맞춤형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여 보다 나은 학습 경험을 창출하고 개인의 신앙적, 영적 성장에 필요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AI의 개인화된 학습 지원은 학습자가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신앙과 학문이 통합된 교육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2. 존재와 생성(존재론적 변화)

AI가 인간의 창의적 작업을 모방하고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여기게 되면서 인간의 독특한 창의적 존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Floridi, 2019: 56). 생성형 AI의 문제는 AI가 인간의 유산과 자원들을 채굴하고 가공하여 그럴듯해 보이도록 편집하고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를 대량으로 생성하고, 그것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인간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AI의 정보와 사유 그리고 논리를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다(The Economist, 2023.4.28).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인간의 창의성과 독창성이 상실되고, 그렇게 되면 인류와 문명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존재론적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의 시대에 신의 섭리를 생성형 AI를 통해 따르려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주님의 자리에, 목회자의 자리에 생성형 AI를 올려놓기도 한다(Lennox, 이우진 역, 2021: 14 ; 이경진, 2023 ; AI타임즈, 2024.7.5). 이러한 현상은 생성형 AI보다 우수한 인공지능(AGI)이 등장하게 된다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처럼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존재와 생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그 의미 또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본질을 바로 세워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신앙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신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하는 것이다.

바빙크의 기독교 세계관에 의하면, 첫째 모든 피조물이 영적이든, 심리적인 존재이든지 생성의 법칙에 예속되어 있다. 모든 피조물들은 지배를 받으며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어떤 본성(natuur), 어떤 현상(foma)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본성은 모든 물체 가운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모든 사물들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힘이다(Bavinck, 김경필 역, 2023: 154). 하나님의 지혜와 힘이 모든 사물들 안에 작용하기 때문에 존재와 생성을 통해서 세계 전체가 발전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관은 생성형 AI 시대에도 만물과 세계 전체의 발전에 대해 말한다. 그것은 시간의 경과 속에서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 세계의 모든 존재와 생성과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이다(Bavinck, 김경필 역, 2023: 155-156). 이 세계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록, 이 세계의 모든 만물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에 물들어 있어 생성형 AI가 그것을 모방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변함이 없으며 선을 통해서 악을 이기는 승리를 주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생성형 AI의 한계와 문제는 타락한 인간 세상의 현실을 반영하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선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생성형 AI의 존재와 생성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AI 기술의 발전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목적을 반영할 수 있다. 셋째,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선물이며, 생성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Bavinck, 2003: 151-190). 존재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비롯된 것이며, 생성은 단순한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방식과 관련된 것이다. 생성형 AI의 존재와 기능은 인간의 지식과 기술 그리고 데이터에 의해 형성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AI의 존재는 인간의 창조적 능력과 기술적 발전의 결과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능과 창의적 능력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생성형 AI의 생성은 인간의 생성물인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거나 창의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즉, 생성형 AI의 생성 과정은 데이터의 조합과 분석을 통한 것으로 존재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식을 재구성하는 방식인 것이다. 따라서 생성형 AI는 인간 존재의 기술적 노력의 산물인 것이다.

생성형 AI의 존재와 생성 과정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생성형 AI의 생성 과정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속한 것으로 인간 존재의 창의적 능력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 존재의 생성에 의한 창조물인 생성형 AI는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것이며, 그것이 인간을 넘어서는 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 존재에 의한 기술적 산물에 불과하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 존재의 창의성이 생성형 AI나 그보다 우수한 AGI가 등장한다 할지라도 훼손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AI 존재를 신성시하여 신의 자리나 목회자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관을 통하여 생성형 AI 시대 존재와 생성에 대한 본질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의 기초로 삼고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적용할 수 있다. 이를 방법론적으로 적용해 보면, 생성형 AI는 인간 존재의 창의적 능력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발전하는 기술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예술 창작 프로그램은 인간의 창의성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DeepArt와 같은 AI 시스템은 인간의 창의성을 표현하고 보완하며 영감을 제공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창의적 존재임을 인정하고, AI는 그 창의적인 잠재

력을 보강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바빙크의 기독교 세계관을 반영할 수 있다. 바빙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인간의 창의적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있어서, 생성형 AI는 인간의 창의성에 대한 존중과 보강의 역할을 해야 하며, 인간의 독창성과 도덕적 판단 능력을 대신하거나 압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따를 수 있다.

3. 생성과 행위(윤리적 변화)

생성형 AI는 자동화된 콘텐츠 생성을 제공하고, 일반 지능의 표본인 DNN은 지능, 의미, 이해를 설명하려는 심리학, 신경과학, 언어학, 철학 등을 포함한 여러 학문 분야에서 채택되어 학문적 사회적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Dhar, 2023). 학문적인 패러다임에는 윤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생성형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윤리적 책임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Storozhyk, 2024). 결정권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는 또한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화 시대까지만 해도 정보의 생성과 유통에 있어 인간이 결정권을 가졌다면, 현재는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생성하며 판단과 유통까지 하는 새로운 가치체제로 전환되고 있다(이완형, 2018). 생성형 AI는 자연어 처리 AI로 이전 AI와는 다르게 생성한다는 점에서 다르다(Schmidt, 2024). 따라서 생성형 AI는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암묵적인 윤리 행위자가 아니라, 자율적인 행위자로서 명시적인 윤리 행위자가 되는 것이다(김상득, 2024). 또한 생성형 AI는 전문가들의 데이터를 참고하여 주체적인 새로운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범주의 전문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자크 엘룰(J. Ellul, 1964)의 기술 자율성에 대한 비판과 일맥상통한다. 엘룰은 기술이 단순히 인간의 도구로 기능하는 전통적인 시각을 넘어서, 스스로 발전하고 확장하며 사회적 가치와 인간의 인식 구조를 재구성하는 자율성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생성형 AI 역시 자율적 학습과 자기 발전을 통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AI가 자율적으로 콘텐츠를 생성하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라인홀드 니버(R. Niebuhr, 1960)는 인간의 도덕적 한계와 죄성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니버는 인간의 본질적 죄성과 불완전성을 인정하면서, 기술이 이러한 인간의 도덕적 결함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은 AI의 윤리적 한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AI가 인간의 도덕적 판단을 대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생성형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활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연구윤리 등 윤리적인 문제들이 대두되고, 인공지능 관련 윤리를 제정함에 있어서 윤리적 모색이 힘들다(이완형, 2018 ; 전찬영 외, 2024). 인간과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인

공지능의 도덕적 지위와 자율적 행위자로서의 인공지능 윤리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주종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로 인간중심 윤리를 넘어서는 것이고, 공학적 과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생성형 AI 시대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생성과 행위의 본질은 무엇이며, 신앙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따라야 하는가? 바빙크의 기독교 세계관에 따르면, 첫째, 하나님의 도덕법칙은 참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정언적으로 명령한다(Bavinck, 김경필 역, 2023: 1172-173). 이 도덕법칙의 힘은 우리의 무지와 무능, 변명과 눈가림도 통하지 않으며 양심과 협상도 불가능하다. 인간의 전인격을 하나님의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이 점령하고, 그것들을 위해 일하는 것을 결코 면제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도덕법칙의 정언명령은 생성형 AI 시대 학문적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해 더욱더 엄위한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인간은 하늘에 계신 인류의 아버지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지금, 바로 이 순간 그리고 항상 철두철미하게 도덕적 이상에 부응해야 한다(Bavinck, 김경필 역, 2023, 173-174).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스스로와 다른 사람을 그러한 도덕적 이상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우리는 생성형 AI 시대에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구경꾼이 아니며, 모든 것들을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의 법칙에 따라 시험하고, 그것들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적극적으로 언명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꾸짖는 하나님의 도덕법칙을 따라 가치 판단을 하고, 이상적인 것들로 믿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고수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의 도덕 질서를 인정하면 죄는 단순한 법적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심각한 문제가 된다. 도덕질서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관련된 것이고 도덕법칙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규범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죄는 인간의 도덕적 책임과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순종을 포함한다(Bavinck, 2019: 123-135). 이것은 생성형 AI와 관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덕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도덕적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포한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질서를 인정할 때, 생성형 AI와 같은 인공지능 윤리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AI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성형 AI시대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반영하여 하나님의 도덕질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방법론적으로 적용해 보면,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한 윤리적 방법론은 생성형 AI가 하나님의 도덕법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와 선함을 중심으로 생성형 AI 개발과 사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생성형 AI의 자율성과 도덕적 책임 또한 신앙적 가치에 맞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생성형 AI는 인간의 윤리적 책임을 반영하는 도구가 되고, 인간과 상호 존중하는 협업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성과 행위에 대한 바빙크의 기독교 세계관을 반영한 교육을 통해 윤리 문제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은 AI 활용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형성하고,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기준에 따라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게 한다. 또한 연구와 개발 과정에서 생성형 AI의 윤리적 활용을 중시하고, 신앙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이처럼 신앙과 학문이 통합된 윤리적 접근법은 생성형 AI의 발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며 인간의 창의성과 도덕적 책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안내할 수 있다.

V. 나가는 말

생성형 AI 시대는 이전과는 다르게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에서 존재론과 인식론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세계관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생성형 AI 시대 세계관에 대한 고민은 신앙과 학문의 통합과 연결된다.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란 단지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세계관을 확립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통합의 목표는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발전시키고 적용하여 가치 있는 지식은 받아들이지만, 거짓 지식 주장을 구별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바빙크 당시 시대적 상황과 현재 생성형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이 유사한 측면이 있어 그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여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논하였다.

첫째, 존재의 문제로, 존재를 접근하고 파악하고 이해하는 지식의 관점에서 사유와 존재를 다루었다. 바빙크의 기독교 세계관을 생성형 AI에 적용해 보면, 인간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인간의 인식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다. 반면, 생성형 AI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거나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할 수도 없다. 생성형 AI의 인식은 하나님의 계시와 자연법칙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성을 통해 만든 데이터를 통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사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특성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실현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생성형 AI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생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주변 세계의 문제를 논점으로 존재와 생성의 문제를 다루었다. 모든 피조물은 영적이든, 심리적인 존재이든지 하나님의 생성의 법칙에 예측되어 있다. AI의 존재는 인간의 창조적 능력과 기술적 발전의 결과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능과 창의적 능력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생성형 AI의 생성은 인간의 생성물인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거나 창의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생성형 AI의 생성 과정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속한 것으로 인간 존재의 창의적 능력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성형 AI의 존재와 생성 과정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생성형 AI 시대 이러한 존재와 생성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을 신앙생활의 기초로 삼고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도 적용할 수 있다.

셋째, 행위의 문제로, 윤리 문제를 중점적으로 생성과 행위를 다루었다. 하나님의 도덕법칙은 참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정언적으로 명령한다. 도덕법칙의 정언명령은 생성형 AI 시대 학문적 패러다임의 변화의 때에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해 더욱더 엄위한 명령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인간은 하늘에 계신 인류의 아버지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지금, 바로 이 순간 그리고 항상 철두철미하게 도덕적 이상에 부응해야 한다. 생성형 AI 시대에도 우리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구경꾼이 아니며, 모든 것들을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의 법칙에 따라 시험하고, 그것들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적극적으로 언명해야 한다. 따라서 생성형 AI시대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반영하여 하나님의 도덕질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인간보다 우수한 AI가 등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AI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빠르게 기술발전이 진행되고 있는 생성형 AI 시대에 바빙크의 기독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한 논의이다. 생성형 AI 시대를 바빙크의 기독교 세계관을 관점으로 논의함에 있어서 방대한 논점을 모두 다룰 수 없었기에, 본 연구는 기초연구에 불과하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의의는 AI 기술발전이 인류에게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와 인류에게 수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낙관론 사이에서 바빙크의 기독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여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논의한 것에 있다. 생성형 AI 시대에도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바빙크의 기독교 세계관은 생성형 AI 시대에 인식론, 존재론, 윤리적 변화의 도전 속에서 신앙과 학문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해 준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고기숙. (2024). 영화를 활용한 기독교세계관 수업 참여 경험: B 기독교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9(3), 83-113.
- 고윤미·심정민 (2023). 생성형 AI 관련 주요 이슈 및 정책적 시사점. **KISTEP** 프로프 66, 과학기술정책센터.
- 국가정보원 (2023).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 서울: 국가정보원.
- 권정민·이영선 (2023). ChatGPT시대 인공지능교육정책의 문제점 고찰. **인공지능인문학연구**, 13, 9-38.
- 김경필 역 (2023). **헤르만 바빙크의 세계관**. Bavinck H. (1904). *Christelike Wereldrschouwing*. 경기: 도서출판 다함.
- 김기현 (2024). 기독교 세계관을 재정의하기. **신앙과학문**, 29(3), 207-228.
- 김법연 (2024). 생성형 AI의 법적 문제와 규제 논의 동향. **정보화정책**, 31(3), 3-33.
- 김병록 (2024). 인공지능의 쟁점과 규범적 대응. **국가법연구**, 20(1), 35-72.
- 김상득 (2024). Gen AI와 연구윤리. **동서철학연구**, 112, 303-327.
- 김소연·조지연·이봉규. (2024). 생성형 AI의 신뢰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25(1), 49-60.
- 김용기 (2024). AI 시대 논증적 글쓰기를 위한 프롬프팅 연구- 메타인지를 활용한 ChatGPT 글쓰기 수업 방법을 중심으로. **리터러시 연구**, 15(3), 193-223.
- 김윤명 (2023).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의 법률 문제. **정보법학**, 27(1), 77-112.
- 김혜정·송현수·박용주. (2024). 인공지능 (AI) 윤리 규제 동향 및 표준화 현황. **인공지능윤리연구**, 3(2), 6-33.
- 박정은·장미정·오선경. (2024). 외국인 학부생의 생성형 AI 활용 경험과 글쓰기 교육 요구 분석. **교양교육연구**, 18(1), 185-199.
- 서미경 (2021). AI시대, 인간의 정체성과 존엄성 교육의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67, 157-194.
- 서미경 (2024).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디지털 역기능과 교회교육의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77, 85-105.
- 서성철 (2024). 기독교세계관으로 씌여진 문복희의 한국현대시조 연구. **기독교철학**, 39, 111-143.
- 손정위 (2024).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독교교육 연구동향 분석. **기독교교육정보**, 80, 35-75.
- 양금희 (2018). AI(인공 지능)의 인식론적 문제와 기독교 교육. **신학사상**, 183, 165-197.
- 염규현 (2024). 생성형 AI 시대의 '잊혀질 권리': 거대 언어 모델 (LLM)의 법적 도전과 규제 방안. **국제법학회논총**, 69(3), 65-96.
- 오민정·김종규 (2023). 생성형 AI 시대 리터러시 교육의 새로운 전환. **인문과학**, 89(0), 255-285.

- 옥장흠 (2024). 인공지능 챗의 교육목회에 효율적인 활용방안. **기독교교육논총**, 78, 57-85.
- 원신애 (2024). 생태학적 상상력의 회복을 통한 기독교 인성교육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나니아 연대기]의 세계관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81, 125-150.
- 윤지영 (2024). 생성형 AI 시대의 사이버범죄와 형사법적 대응. **법학연구**, 34(1), 373-398.
- 이경건 (2023). 신이 된 인공지능, 제대로 된 인간. **신앙과삶**, 5-6월호, 22-23.
- 이빛나 (2024).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글쓰기 지도 방안.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14), 171-189.
- 이완형 (2018). 인공지능 상용화에 따른 성경적 관점의 윤리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16(4), 117-140.
- 이우진 역 (2021). **2084: 인공지능과 인류의 미래**. Lennox, J. C. (2020). *2084: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Future of Humanity*.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이은희·박매란 (2023). 대학생들의 영어학습에서 자기조절학습(SRL)능력과 ChatGPT에 대한 인식 및 활용 목적 간의 관계 연구. **영어어문교육**, 29(4), 71-99.
- 장미경 (2024).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과학 연구 및 과학 커뮤니케이션 양상과 대응 방안 논의. **커뮤니케이션학연구**, 32(2), 31-61.
- 장성민 (2023). 챗GPT가 바꾸어 놓은 작문교육의 미래. **작문연구**, 56, 7-34.
- 전찬영·방정배·박균열. (2024). 인공지능의 윤리적 자율성 검토와 공익적 시사점.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5(4), 909-918.
- 정경일 (2023). 이마고 호미니스(Imago Hominis): AI 시대의 고통과 영성. **신학과철학**, 45, 119-143.
- 최용준 (2024).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관한 고찰: 헤르만 도어베르트의 사상을 중심으로. **신앙과학문**, 29(1), 45-65.
- 한세익·강지현 (2024).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서 공정성과 법제적 쟁점. **공공정책연구**, 41(1), 257-290.
- 홍승표 (2023). 범죄현상에 있어 생성형 AI의 명과 암.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2(5), 117-142.
- Bai, H. (2022). The epistemology of machine learning. *Filosofija. Sociologija*, 33(1), 40-48. <https://doi.org/10.1234/example.doi>
- Baidoo-Anu, D. & Owusu Ansah, L. (2023). Education in the era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Understanding the potential benefits of ChatGPT in promoting teaching and learning. <http://dx.doi.org/10.2139/ssrn.4337484>
- Bail, C. A. (2024). Can generative AI improve social scienc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 PNAS*, 121(21), e2314021121-e2314021121. <https://doi.org/10.1073/pnas.2314021121>
- Baker, R. (2019). *The structure of moral revolutions: Studies of changes in the morality of*

- abortion, death, and the bioethics revolution*. Cambridge: MIT Press.
- Baldassarre, M. T., Caivano, D., Nieto, B. F., Gigante, D. & Ragone, A. (2024). *The social impact of generative AI: An analysis on ChatGPT*. Ithaca: Cornell University Library, arXiv.org. <https://doi.org/10.48550/arxiv.2403.04667>
- Bavinck, H. (2003). *Reformed dogmatics: Volume 1: Prolegomena*. (Ed.) John Bolt. Trans. John Vriend. Baker Academic.
- Bavinck, H. (2019). *The Christian worldview*. (Trans. Sutanto, N. G., Eglinton, J. & Brock, C. C.) Reformation Heritage 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1915)
- Beach, J. M. (2008). Abraham Kuyper, Herman Bavinck, and "The Conclusions of Utrecht 1905". Retrieved from <https://www.reformation21.org/articles/abraham-kuyper-herman-bavinck-and-the-conclusions-of-utrecht-1905>. (2024.11.26)
- Biesta, G. J. J. (2017). *The rediscovery of teaching*. NY: Routledge.
- Bostrom, N. & Yudkowsky, E. (2014).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K. Frankish & W. M. Ramsey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artificial intelligence* (pp. 316-334).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naher, J. (2024). Generative AI and the future of equality norms. *Cognition*, 251 <https://doi.org/10.1016/j.cognition.2024.105906>
- Danaher, J. & Sætra, H. S. (2023). Mechanisms of techno-moral change: A taxonomy and overview. *Ethical theory and moral practice*, 26(5), 763-784.
- Deng, X. & Yu, Z. (2023). A meta-analysis and systematic review of the effect of chatbot technology use in sustainable education. *Sustainability*, 15(4):2940, 1-19.
- Dhar, V. (2023). The paradigm shifts in artificial intelligence. *Communications of the ACM*, 76(5), 42-50.
- Dreyfus, H. L. (2021). *What computers still can't do: A critique of artificial reason*. MIT Press.
- Ellul, J. (1964). *The technological society*. Vintage Books.
- Floridi, L. (2019). *The fourth revolution: How the infosphere is reshaping human re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 Gaebelein, F. E. (1968). *The pattern of God's truth: Problems of integration in Christian education* (2nd ed.). Colorado Springs: ACSI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 Gangel, K. O. (1978). Integrating faith and learning: Principles and process. *Bibliotheca Sacra*, 135, 99-108.

- Harris, R. A. (2004).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A worldview approach. *Grand Rapids: Baker Academic*.
- Hopster, J. K. G., Arora, C., Blunden, C., Eriksen, C., Frank, L. E., Hermann, J. S. & Steinert, S. (2022). Pistols, pills, pork and ploughs: the structure of technomoral revolutions. *Inquiry*, 1-33.
- Howe, L. J., Rasheed, H., Jones, P. R., Boomsma, D. I., Timpson, N. J., Tilling, K., Davey Smith, G., Lawlor, D. A. & McMahon, G. (2023). Educational attainment, health outcomes and mortality: a within-sibship Mendelian randomization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52(5), 1579-1591.
- Landes, D. S. (2003). *The wealth and poverty of nations: Why some are so rich and some so poor*. W. W. Norton & Company.
- Mouw, R. J. (2009). *The challenges of cultural discipleship: Essays in the line of Abraham Kuyper*. Baker Academic.
- Postman, N. (1995) *The end of education: Redefining the value of school*. New York: Vintages.
- Reese, B. (2018). *The fourth age: Smart robots, conscious computers, and the future of humanity*. Atria Books.
- Schmidt, K. G. (2024). What the humanities can offer in this technological moment. *The Christian Century* (1902), 141(2), 62-65.
- Sidorkin, A. M. (2024). Artificial intelligence: Why is it our problem?.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1-6.
- Storozhyk, M. (2024). Philosophy of future: analytical overview of interaction between education, sci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context of contemporary challenges. *Futurity Philosophy*, 3(1), 23-47.
- Thorp, H. H. (2023). ChatGPT is fun, but not an author. *Science*, 379(6630), 313.
- Vygotsky, L. S. (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Yang, J. H. & Yoon, S. H. (2023). Beyond ChatGPT: Entering the Era of Generative AI - Cases of Media and Content Creation AI Services and Strategies to Secure Competitiveness. *MEDIA ISSUE&TREND*, 55, 62-70.
- AI타임스 2024. 7. 5일자. "20년 전 AGI 예고한 과학자 "2045년 인간 지능은 BCI 기술로 기계와 결합할 것."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1345> (검색일 2024.08.05).
- 서울경제 2023. 2. 13일자. 수초만에 한편 뚝딱... "챗GPT로 쓴 리포트는 F." <https://www.sedaily.com/NewsView/29LQHS12L2> (검색일 2024.08.04).
- 서울시 (2024.04.18). 전국 최초 인공지능(AI) 기술로 디지털성범죄 24시간 자동 추적·감시. 서울시 양성

- 평등소식.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51229> (검색일 2024.08.05).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2024. 2. 16일자. “생성형 인공지능의 부상에 따른 경제·사회적 임팩트와 이슈.”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53941 (검색일 2024.08.02).
- 연합뉴스 2024. 3. 10일자. “AI 대부' 제프리 힌턴 "AI로 10년내 킬러 로봇 등장할 것." <https://www.yna.co.kr/view/AKR20240310028500073>. (검색일 2024.08.06).
- 전자신문 2023. 7. 9일자. “[ET톡] 생성형 AI 신뢰 회복하려면.” <https://www.etnews.com/20230707000167> (검색일 2024.08.05).
- Microsoft. (2024,09.24). “AI로 파트너사 경제적 가치 높인다.” AI Matters. <https://aimatters.co.kr/news-report/ai-report/4438> (2024.08.07).
- Stryker, C. & Scapicchio, M. (2024). 생성형 AI란 무엇인가요?. IBM. <https://www.ibm.com/kr-ko/topics/generative-ai> (2024.08.03.접근).
- “The Godfather of A.I.’ Leaves Google and Warns of Danger Ahead,” New York Times. (2023.5.1). Retrieved from <https://www.nytimes.com/2023/05/01/technology/ai-google-chatbot-engineer-quits-hinton.html>. (2024.08.03).
- “We’ve discovered the secret of immortality. The bad news is it’s not for us’: why the godfather of AI fears for humanity.” The Guardian. (2023.5.5.). Retrieved from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23/may/05/geoffrey-hinton-godfather-of-ai-fears-for-humanity>. (2024.08.03).
- “GodGPT: Anthony Levandowski revives AI Church with fresh religion reboot. The Way of the Future was launched in 2015 but shut down in 2021.” Interesting Engineering (2023.11.24). Retrieved from <https://interestingengineering.com/culture/church-of-ai-makes-a-comeback-after-two-years>. (2024.11.26).
- “Inside the latest version of ChatGPT.” ABC News (2023.03.16.). Retrieved from <http://abcnews.go.com/WNT/video/inside-lats-version-chatgpt-97925088>.
- “Yuval Noah Harari Argues that AI Has Hacked the Operating System of Human Civilisation,” The Economist (2023.4.28.). Retrieved from <https://www.economist.com/by-invitation/2023/04/28/yuval-noah-harari-argues-that-ai-has-hacked-the-operating-system-of-human-civilisation> (2024.08.07).

생성형 AI 시대, 헤르만 바빙크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신앙과 학문의 통합 연구

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Based on Herman Bavinck's Worldview in the Era of Generative AI

서미경 (백석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생성형 AI 시대 바빙크의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논하는 것에 있다. 생성형 AI 시대는 이전과는 다르게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에서 존재론과 인식론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세계관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생성형 AI 시대 세계관에 대한 고민은 신앙과 학문의 통합과 연결된다.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란 단지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세계관을 확립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생성형 AI 시대를 바빙크의 세계관에서 사유와 존재, 존재와 생성, 생성과 행위의 문제를 관점으로 논하였다. 첫째, 사유와 존재의 문제로, 존재를 접근하고 파악하고 이해하는 인식의 관점에서 인간과 생성형 AI의 사유와 존재를 논하였다. 인간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은 하나님의 계시와 자연법칙에 의해 형성된다. 생성형 AI는 인간이 이성을 통해 만든 데이터를 통해 인식한다. 둘째, 존재와 생성의 문제로, 우리 주변 세계의 문제를 논점으로 하여 존재와 생성의 문제를 논하였다. 모든 피조물이 영적이든, 심리적인 존재이든지 생성형 AI이든지 하나님의 생성 법칙에 예속되어 있다. AI의 존재와 생성 과정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생성과 행위의 문제로, 윤리 문제를 중심으로 생성과 행위를 논하였다. 하나님의 도덕법칙은 참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정언적으로 명령한다. 이러한 정언명령을 학문적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생성형 AI 시대에 더욱더 엄위한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생성형 AI 시대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도덕질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바빙크의 기독교 세계관, 신앙과 학문의 통합, 생성형 AI, 사유와 존재, 존재와 생성, 생성과 행위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 개념분석*

Concept Analysis of Hope of Community Dwelling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최은정 (Eun Joung Choi)**

정유진 (Yu Jin Jung)***

조현미 (Hyun-Mee Cho)(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clarify the concept of hope of community dwelling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through a concept analysis based on Walker and Avant's methods. Hope among these individuals was characterized by four key attributes: "a positive outlook on the future," "freedom from mental illness," "enjoyment of an ordinary daily life," and "discovery of meaning in illness." Thus, hope for individuals with mental disabilities living at home is defined as "the state of looking positively toward the future, living an ordinary life without being constrained by mental illness, and seeking meaning amidst challenges while pursuing spiritual growth."

The identified attributes highlight the need for policies that promote active recovery and community integration, emphasizing the proactive involvement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 Additionally, understanding these attributes of hope can provide a foundation for Christians to recognize these individuals as neighbors, offering guidelines for a life of togethernes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potential application for intervention development and research aimed at fostering hope of community dwelling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thereby facilitating community integration.

Key Words : mental disorders, community, hope, concept analysis

* 2024년 11월 4일 접수, 11월 30일 최종수정, 12월 2일 게재확정
이 연구는 2024년 고신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고신대학교(Kosin University) 간호대학 교수,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 262, jacob7410@kosin.ac.kr

***경남정보대학교(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간호학과 조교수,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5, yjjung@eagle.kit.ac.kr

****가야대학교(Kaya University) 간호학과 조교수,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로 208, yuchanmom@nate.co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정신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포함하는 발달장애와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 기면증을 포함하는 정신장애를 의미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이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며(법제처, 2016), 국내 정신장애인의 수는 2013년 95,675명에서 2023년 기준 104,19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24). 2017년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의거한 입원요건 강화로 인하여(보건복지부, 2017)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신장애는 특성상 완치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포괄적 관리가 되지 않으면 평생 동안 재발과 입·퇴원의 과정이 반복되는 질환이다(Edward et al., 2009). 이러한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일상적인 삶의 질 유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와 가족의 보살핌이 중요시되고 있으나 가정에 거주하는 재가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은 다양한 심리 및 신체적 고충을 겪기도 하며(최은정 외, 2020: 225-227), 이들은 입원환경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로 나왔을 때 생소한 문화와 주변의 여러 시선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한다(전원희 외, 2020: 7-10).

최근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대한 관점은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춘 회복 모델로 변화되고 있고 이러한 회복 지향적 치료의 개념은 많은 나라에서 정신건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국가 정책, 서비스 기준 및 지도 원칙에 포함되어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WHO, 2018). 정신장애인의 회복이란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자기 정체성과 목적을 되찾아 자기 자신을 단지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장애를 초월하여 보다 긍정적인 자아의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Higgins & Mcbennett, 2007). 이러한 의미에서 정신건강분야에서 회복은 정신장애가 있을지라도 미래에 희망을 가지고, 그 어떠한 낙인과 차별 없이 사회에 속해 살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하는 하나의 과정으로(Resnick et al., 2005) 이러한 정신장애인의 회복적 측면에서 희망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희망(Hoping)이란 좋은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 또는 인지된 곤경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이며, 이는 인간이 자신의 상황을 수용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Miller & Powers, 1988). 건강분야에서 희망은 불확실성과 고통 속에서도 긍정적인 목표

를 설정하고 달성하려는 의지(Antunes et al., 2023)로 간주되며, 희망은 신체질환을 가진 환자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에 있어서 보다 나은 미래를 획득하고, 성장 해나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Frese et al., 2009).

또한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 ‘여호와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데다.’(시편 34:18) 라는 성경 말씀처럼 마음이 상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이들을 향해 주님은 가까이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장애와 질병, 이로 인한 고통의 치유를 통해 고통에서의 해방과 관계의 건강함까지 전인적 회복을 이루셨다(정기철, 2017).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며, 희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다(Lewis, 이종태 역, 2018). 이에 마음이 상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초점을 둔 예수님의 치유사역과 같이 정신장애인의 전인적인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희망이라는 개념은 질병과 연관되어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대한 개념과 특징에 대한 파악들이 필요하리라 본다. 정신장애인의 개념분석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어왔으며, 희망 개념으로 정신분열증환자의 희망 개념분석이 진행되었으며(최귀순 외, 2005: 418-421), 소수의 연구에서 희망 관련 관계 연구가 진행되거나 프로그램 효과에서 희망 개념이 사용되었고(박주현·박현숙, 2017: 268-269 ; 한금선 외, 2010: 209-210 ; 현명선 외, 2014: 163), 최근 정신보건법 개정 이후 지역사회 내 거주하는 재가 정신장애인은 많아졌으나 이들의 희망의 개념을 다루는 고찰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국내 가정에 거주하는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대한 속성과 개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신장애라는 질병 상황에서 재가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희망에 관해 살펴보는 것은 정신장애인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 및 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 (2011)의 개념분석 틀을 적용하여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대한 개념분석을 진행하여 그 속성을 파악하고 정의함으로써 희망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재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간호중재 및 정신건강분야의 실무와 정책 수립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재가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희망의 개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Walker와 Avant(2011)의 개념분석 틀에 따라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관한 결정적 속성을 규명하고 그 의미를 조직화하여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및 상담분야

등의 진단과 실무 및 용어 개발을 비롯해 정신장애인의 성공적인 지역사회로의 통합된 회복에 필요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문헌연구와 분석을 통해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의 활용을 확인한다.
- 2) 재가 정신장애인 희망의 결정적 속성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모델사례를 기술한다.
- 3) 재가 정신장애인 희망에 대한 선행요건과 결과를 규명한다.
- 4) 재가 정신장애인 희망에 대한 경험적 증거의 진술을 통해 재가 정신장애인 희망 개념의 속성이 실제적 유형으로 존재하는지 입증해 보인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개념분석 연구로 **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IRB 승인을 받았다(IRB 승인 번호: 2024-0033). 문헌 조사는 ‘재가 정신장애인’과 ‘희망’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포함하여 다양한 타 학문 및 간호학 등에서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개념분석을 위해 Walker와 Avant(2011)의 방법을 이용 하였으며 그 개념이 가진 속성을 규명하고자 수행된 개념분석 연구이다.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문헌조사 범위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표된 한국과 국외의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질환자’와 ‘희망’에 관한 사전적 정의, 이론적 정의 및 선행 연구들이다. 국내 분석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4u.net), 누리미디어(dbpia)를 활용해서 검색된 학회지 게재 논문 및 학위논문들을 분석에 이용하고 국외는 CINAHL과 PubMed를 통해 제공하는 DB를 이용하여 검색된 문헌들을 고찰하여 연구에 이용하였다. 검색된 문헌들 중 영어나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쓰여졌거나 원문이 검색되지 않는 출판물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희망을 주제로 하더라도 암 환자나 기타 다른 질환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비롯해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재활이나 적응, 프로그램 개발을 다룬 연구 등 주제와 관련성이 낮거나 특정 주제를 다룬 논문 및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 주제를 다룬 논문은 분석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문헌은 한국의 학위논문 3편, 학술지 논문 16편이 선정되었다(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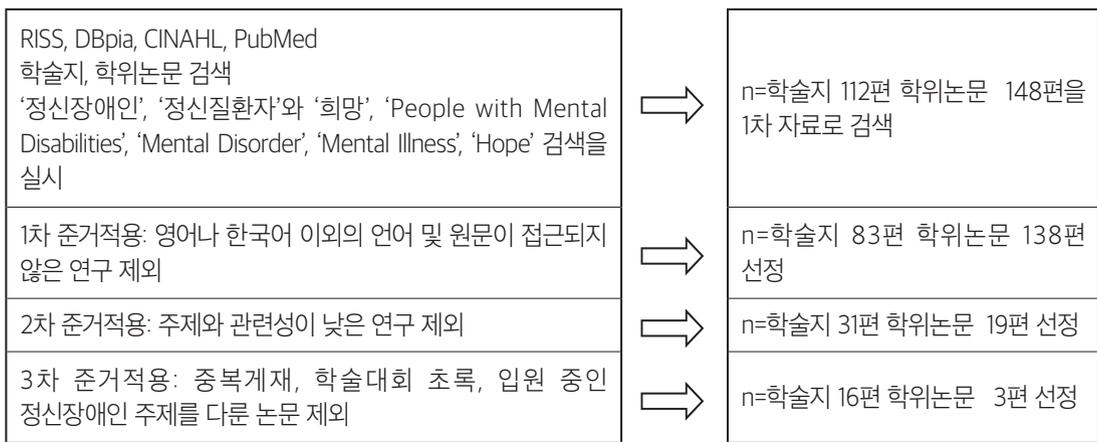


Figure 1. Flow chart of study selection.

3. 개념분석 과정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의 개념적 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념과 관련된 문헌고찰을 통해 문헌에서 나타나는 개념의 특징들을 분류하고 확인하였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개념 선정, 2) 개념 분석을 하는 목적 결정, 3) 가능한 모든 범위 내에서의 개념사용을 확인, 4) 개념에 대한 결정적 속성의 추출, 5) 개념의 모델사례, 부가사례(반대사례, 유사사례, 연관사례)를 제시, 6) 개념의 선행요건과 결과를 규명, 7) 경험적 준거 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할 때 이론 및 개념 분석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2명의 연구원이 자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자료 내에서의 맥락적 의미, 개념의 의미와 속성, 활용 등에 대해 의논하고 분석 및 의미의 추출 과정을 거쳤으며 그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대한 주제어를 '정신장애인 희망', '희망분석', '정신질환자', '희망',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Hope'으로 선정하여 검색하였다. 그 다음으로 개념분석을 시도하는 목적에 대해 다시 떠올려 보고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이라는 개념이 여러 사회문제와 연관되어 주목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 의미가 희석되거나 다양하고 불분명한 정의적 속성으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그 후 선정된 개념의 사용을 확인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문헌을 검토하여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대한 속성을 추출할 수 없는 것들은 분석 자료에서 제외한 후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다음 단계로 최종 선정된 자료들의 내용을 연구자들이 검토한 후 각 분야별로 정신장애인의 희망의 속성을 분석하고 그 속성을 기반으로 개념을 명확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념의 필수 양상을 이해시키며, 유사한

개념사용과 혼동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델, 반대, 경계, 관련된 사례를 제시하였다(Walker & Avant, 2011). 또한 선정된 자료들의 분석을 통해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관한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를 규명하고 경험적 증거를 확인한 후 정의를 제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의 연구는 Walker와 Avant (2011)가 제시한 것과 같이 대상개념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파악하여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의 특성을 이해하고 편견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대한 개념 사용 확인

1) 사전적 정의

정신장애인은 관형어로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지속적인 조현병, 분열형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 장애 따위로 감정조절·사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국립국어원, 2022). 재가 정신장애인이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정신장애인을 말한다.

‘희망’은 표준국어대사전(2024)에 따르면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뜻하며, 자신의 삶이나 세계의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하는 낙관적인 심리 상태를 말하며, 동사로서 그것의 정의는 ‘자신 있게 기대하라’와 ‘기대로 욕망을 소중히 하라’를 포함한다. 그 반대로 낙담, 절망, 우울이 있다(위키백과, 2024). Merriam-Webster 사전(2024)에 따르면 첫째, 명사로서 희망은 ‘성취나 성공에 대한 기대를 동반한 욕망’을 의미하며 둘째, 동사로서 희망은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거나 소망하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확실성은 낮지만, 바라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포함된다.

2) 타 학문에서의 개념 사용

희망에 대한 사용 범위는 여러 영역에서 그 의미를 정의하고, 그 의미를 이용하여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종교적 의미에서 희망은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인간의 삶의 목적을 찾고 영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관계가 희망의 원천이 되며, 인간의 삶이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진행

된다고 믿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유지하는 중요한 신념이 된다. 또한, 이러한 희망은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강화되며, 신자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지원하는 과정은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힘이 된다고 하였다(Watkins, 2009).

심리학에서 희망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과 그 목표에 필요한 계획과 동기를 가질 때 생겨난다고 하였으며, 목표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희망과 정신의 의지력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희망과 낙관 사이의 차이는 전자가 개선된 미래로 가는 실용적인 경로를 포함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Snyder, 2000).

사회학에서 희망은 개인이나 집단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고, 그 기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필수적인 심리적, 철학적, 물질적 동력이다. 희망은 단순히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감정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유토피아적 상상과 사회적 행동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였다(Bloch, 1986).

의학적 상황에서 희망은 환자의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심리적 요소로 보고 있다. 신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희망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의 적응과 안녕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회복과 치유의 과정으로 보았다(박영옥, 2023: 3317).

3) 간호문헌에서의 개념 사용

간호학에서 희망은 환자가 질병을 극복하고 건강을 회복하며,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Antunes 외(2023)는 희망을 다차원적이고 동적인 정서 상태로 보았으며, 희망은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현재와 미래를 향하는 과정 지향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인간이 불확실성과 고통 속에서도 긍정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려는 의지를 포함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Benzein과 Saveman(1998)은 희망을 미래 지향적인 기대감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바라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와 활동을 포함하는 감정으로 정의하였다. 희망은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연결성이 있는 중요한 것이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전략을 통해 적응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이것은 간호학적 맥락에서 환자들이 회복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목표 달성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배가령 외(2017: 218)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희망을 높여주는 것은 스스로 병에 대하여 돌볼 수 있는 자가간호의 역량을 높여줄 수 있다고 하였다. 김부경과 오복자(2022: 594)는 환자의

영적 안녕과 자가간호 수행에서 희망이 매개한다고 하였다. 즉 희망은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관리와 자가간호 수행 능력을 촉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희망은 환자가 자신의 질환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을 강화시키며,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심리적 자원으로 작용한다.

4) 정신장애인 관련 연구에서의 개념 사용

정신분열병환자의 희망 개념분석 연구(최귀순 외, 2005: 418-421)에서 면담을 통해서 이들의 희망의 본질적 의미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인생의 의미를 느끼며, 현재의 삶을 행복하고 활기차게 사는 것이다. 이러한 희망은 현재의 힘든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활력소가 되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의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정신질환이 없는 일반인과 같은 평범함 삶을 희망하였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원천은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느끼는 사랑과 믿음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망이었다. 반대로 정신분열병환자에게 희망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 친밀한 인간관계의 부재, 질병상태, 어려운 생활 여건, 자신감 부족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희망과 회복 관련 연구(현명선 외, 2014: 163)에서는 정신장애인의 희망 정도가 높을수록 회복정도가 높았고, 치료자와의 관계를 회복-증진관계로 지각할수록 회복과 희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 거주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희망을 증진시키고, 우울을 사정하여 중재하는 것은 자살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한금선 외, 2010).

김수지(2017: 50-51)의 사람돌봄이론에서 정신장애인의 희망불어넣음(Hoping)의 의미는 질환의 의미를 발견 하는 것, 현재 상황으로부터 나를 끌어 올리는 것, 나를 견고하게 일으켜 세우는 것, 고통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 나에 대해 희망을 가지는 것 등이며, 상황적 맥락에서 희망을 이야기함, 마음이 들뜸, 능숙함, 자신감,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의 과정으로 나타났다.

희망적 개념인 정신장애로부터의 회복 의미에 대한 질적 연구(김희정, 2009: 388)에서 도출된 회복의 의미는 증상, 투약, 병식을 포함하는 질병 전반이 관리되고, 만족스런 인간관계가 기반이 된 사회적 기능이 실현되며, 내적으로는 개인이 건강한 개체로서 기능하는데 기반이 되는 자아기능이 안정화되어 현실을 감당하고 도전 할 수 있으며, 미래를 낙관적인 자세로 바라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가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 경험(전원희 외, 2020: 7-10)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이들은 정신병원이라는 환경에서 벗어나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사소한 것 하나에서도 자유로움을 느끼며 만족해

하고 있다. 자신이 결정할 수 있고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상의 삶에서 몸과 마음이 매이지 않고 환자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시간을 보낸다는 표현을 한다. 한편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으로 사회로부터의 격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의 반응에서 속상함을 느낀다. 이들은 정신장애인들이 충분히 치료받고 사회에 복귀하여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입원 치료환경개선 및 사회복귀와 관련된 재활 프로그램과 배움의 기회 증진, 정신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길 희망하고 있었다.

2.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대한 잠정적 기준 목록과 속성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 개념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문헌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잠정적 기준 목록과 속성이 확인되었다.

1)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대한 잠정적 기준 목록

- (1)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김수지, 2017 ; 김희정, 2009 ; 최귀순 외, 2005 ; Bloch, 1986).
- (2) 낙인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사회에 복귀하는 과정이다(전원희 외, 2020).
- (3) 정신장애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경험이다(김수지, 2017 ; 전원희 외, 2020 ; 한금선 외, 2010).
- (4) 일반인처럼 평범한 삶을 경험하는 것이다(전원희 외, 2020 ; 최귀순 외, 2005).
- (5)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다(김수지, 2017 ; 김희정, 2009 ; 현명선, 2014).
- (6) 질환의 의미를 찾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과정이다(김수지, 2017 ; 박영옥, 2023 ; 최귀순 외, 2005 ; Watkins, 2009).

2)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 개념의 결정적 속성 확인

Walker와 Avant(2011)에 따르면 속성을 정의하는 것은 개념을 설명할 때 자주 드러나는 현상과 특징이며 이것은 타 개념과 구분하는 것을 돕는다고 하였다.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문헌을 고찰한 결과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은 미래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정신장애로부터 회복되는 것이었다. 또한 일반인처럼 평범한 삶을 원하는 것이며, 질병으로 인해 낙인이나 고통이 있었으나 용기와 힘을 내는 것이다.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질병의 의미를 찾고 영적인 것을 추구해 가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정신장애인의 고통에 대한 속성은 다음과 같다.

- (1)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봄(잠정적 기준목록 (1), (4), (5))
- (2) 정신장애로부터 자유로움(잠정적 기준목록 (2), (3), (4))
- (3) 평범한 일상을 누림(잠정적 기준목록 (2), (4))
- (4) 질병의 의미를 발견(잠정적 기준목록 (5), (6))

3. 개념의 사례 개발

1) 모델 사례(Model Case)

모델 사례란 개념의 주요 속성들을 모두 포함하는 사례를 말하며, 그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Walker & Avant, 2011).

30대 중반인 A씨는 30세 초반에 ‘국정원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가족과의 접촉도 거부하였고,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약 4주가량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 후 집에서만 지냈으며, 남편과의 사이도 소원해졌던 상태로 이후 재발이 반복되고 입·퇴원을 여러 번 하였다. 환각이나 망상이 심해질 때면 남편과 아이들에게도 피해망상적인 생각이 들어 예민하고 공격적인 상태가 되어 몇 달씩 장기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담당의는 지속적으로 약을 잘 복용하고 자기관리를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해 주었고, 다니던 교회 목사님과 집사님들이 집으로 방문하여 A씨를 위로하였다. A씨는 차츰 회복되면서 호전도 가능할 수 있음을 알아(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봄)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졌고 최근에는 교회 공동체 통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교인들을 알게 되면서 마음이 더 평안해졌다. 또한 봉사도 하면서 정신과적 증상이 조금씩 사라졌고, 질병에 매어 살았던 이전의 모습에서 벗어나 병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느꼈다(정신장애로부터 자유로움). 원래 헤어디자이너였던 A씨는 정신장애로 집에서만 지냈었지만 지인 미용실 원장의 배려로 파트 타임으로 일하게 되었고,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으며, 사춘기를 겪는 아이의 고민도 들어줄 정도의 여유도 갖게 되었다(평범한 일상을 기대). 처음에는 ‘왜 이런 불행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낙심한 때도 많았지만 신앙이 깊어 지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생각은 결코 재앙이 아닐 것이라는 믿음도 생겼으며, 주변에 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돕게 되면서 자신의 고난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들게 되었다. A씨는 이 모든 것이 기적과 같은 생각이 들면서 불행만이 아닌 감사의 의미로 다가옴을 느꼈다(질병의 의미를 발견).

2) 반대 사례(Contrary Case)

반대 사례는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 개념이 아닌 것에 대한 분명한 예시이며 개념의 결정적 속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례이다(Walker & Avant, 2011).

조울증인 40대 B씨는 학교 교사로 잘 지내오던 중 과대망상 및 난폭한 행동을 비롯하여 심각한 감정변화를 느끼면서 학교에 결근하거나 주변인과 싸우는 횟수가 늘게 되어 가족에 의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처음에는 호전되는 듯 하였으나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점차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었고, 거액의 카드빚으로 인해 대출을 받기도 하였으며, 과민하면서 충동적인 증상으로 인해서 결국 아내와 이혼을 하였다. 아이들도 아빠와 살기 힘들어하여 아내에게 간 상태로, 직장에는 휴직계를 내고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B씨는 담당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았고, 심하게 우울할 때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며, 한번은 바다에 빠져 죽겠다고 뛰어들었다가 낚시꾼에 의해서 구조되어 정신과 병동 입원을 장기간 하였다. 병원에서 지내면서 다시 학교 교사를 할 수 있을지 낙관적이지 않았다. 이미 주변에서는 B씨가 다시 일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선이 있었고 재정적으로는 대출한 금액의 상황이 어려운 상태였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의료진의 대화를 자주 거부하였고, 동료 환자들과 자신은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어울리기를 싫어하였으며 집에서나 병원에서 홀로 지내는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어디서나 정신병이 자신을 가둔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비참함을 느꼈다. 퇴원 후 B씨는 가정, 일 모든 것이 변해버렸음을 느끼고,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다. 평생 교사로 잘 살던 자신에게 왜 이런 병이 찾아왔는지 억울하고 슬픈 생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었다.

이 사례에서 B씨는 교사로서 지내다가 조울증이라는 정신장애로 인해 치료받는 상황이었으며, 질병을 겪는 가운데 희망이 사라지고 있음을 느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가 어려웠고, 치료 도중 이혼과 직장 유지의 어려움과 외로움으로 인해 평범한 일상을 기대하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고, 질병으로 인해 억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질병의 의미를 발견하는 속성이 포함되지 않았다.

3) 경계 사례(Borderline Case)

유사 사례라고도 불리는 경계 사례는 개념의 결정적 속성 중 일부만 포함하고 있어 그 개념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이다(Walker & Avant, 2011).

C씨는 50세 여성으로 20대에 조현병을 진단받아 현재까지 질병을 앓고 있다. 조현병으로 다니던 대학교도 그만두고 특별한 직업 없이 집에서 주로 지냈으며, 입·퇴원을 반복하였다. 이후로는 약

물로 증상 조절은 가능하지만 기능적인 면이 저하되어 직장을 구하기는 어려운 상태였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 하면서 주 1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다니거나 동네 주변을 돌기도 하였다. 기독교 집안이지만 C씨는 병으로 인해 주변 시선이 두려워 교회에는 나가지는 못하였지만, 가끔 쇼핑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였고, 시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였으며, 타 지역에 있는 동생이 가끔 집에 오면 함께 이야기도 하면서 나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평범한 일상을 누림). C씨는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쪽 집에서 재발 없이 지내어 조현병이지만 불행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나 삶의 낙을 느끼지 못해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다. C씨는 다니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간호사의 적극적인 권유로 직업재활을 소개받았고,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덜 심심할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하면서 앞으로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봄).

4.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에서 선행요인(antecedents)은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이 나타나기 전에 발생하는 사건이나 상황을 의미하며 결과요인(consequences)은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이 나타난 결과에 대한 사건이나 사항 기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개념의 속성을 더욱 명확하게 분석하는데 도움이 된다(Walker & Avant, 2011).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대한 선행요인은 다음과 같다(Figure 2).

- (1) 정신병원에서 퇴원 후 집에서 생활함(전원희 외, 2020)
- (2) 약 복용 및 정신과적 증상이 잘 조절됨(김희정, 2009 ; 한금선 외, 2010 ; 최귀순 외, 2005)
- (3) 주변에 적절한 지지체계가 있음(김희정, 2009 ; 전원희 외, 2020 ; 최귀순 외, 2005)
- (4) 영적인 생활을 추구함(김수지, 2017 ; 최귀순 외, 2005 ; Watkins, 2009)
- (5) 재활을 위한 꾸준한 노력(김부경·오복자, 2022 ; 전원희 외, 2020)

재가 정신장애의 희망은 정신장애인에게 아래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Figure 2).

- (1) 의욕적인 생활(김수지, 2017; 김희정, 2009; 전원희 외, 2020; 최귀순 외, 2005)
- (2) 재발이 없음 (김희정, 2009; 한금선 외, 2010; 최귀순 외, 2005).
- (3) 삶의 질이 향상됨 (김희정, 2009; 전원희 외, 2020; 최귀순 외, 2005)
- (4) 만족스러운 대인관계(김희정, 2009; 최귀순 외, 2005)
- (5) 질병을 수용함(김부경, 오복자, 2022; 전원희 외, 2020; Watkins,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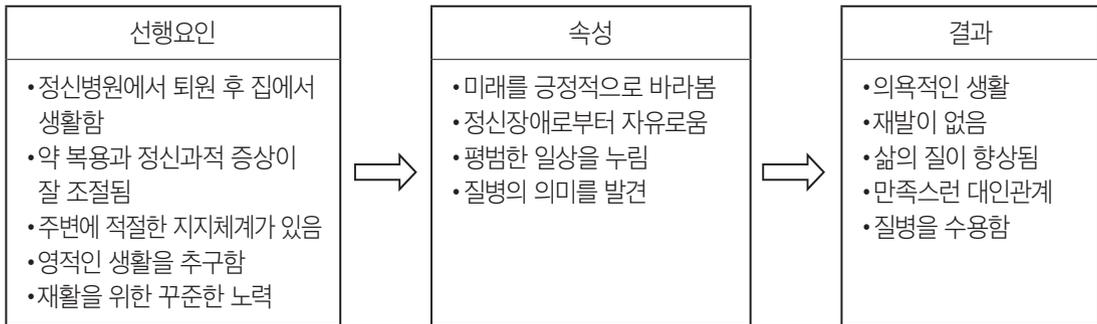


Figure 2. The antecedents, attributes, and consequences of hoping in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5. 경험적 증거 확인

개념분석의 마지막 단계는 속성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결정하는 것이다. 제시한 개념의 속성이 실제적 유형으로서 존재하는지를 인증해 보여주는 개념분석의 최종 단계이다(Walker & Avant, 2011). 본 연구에서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 (1)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봄
- (2) 정신장애로부터 자유로움
- (3) 평범한 일상을 누림
- (4) 질병의 의미를 발견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 (2011)의 개념분석 틀을 적용하여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대한 개념분석을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봄’, ‘정신장애로부터 자유로움’, ‘평범한 일상을 누림’, ‘질병의 의미를 발견’을 속성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대한 첫 번째 속성으로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봄’이 도출되었다. 희망은 인간이 불확실성과 고통 속에서도 긍정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Antunes, et al, 2023). 이는 질병 회복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목표 달성의 중요성을 부각한다(Benzein & Saveman, 1998). 김부경과 오복자(2022: 594)의 연구에서도 희

망은 환자가 자신의 질환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을 강화시키며,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심리적 자원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정신장애로부터의 회복을 다룬 김희정(2009)의 연구에서는 질환을 받아들이고 증상관리, 병에 대한 이해, 투약 이행 등이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러한 회복의 의미가 질병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재기하게 하는 희망으로 작용한다고 기술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의 희망의 속성을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정신장애인의 회복은 일반 질병에서의 회복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2017년부터 시행되어 온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장애인들의 입원조건 강화와 탈원화를 강조하고 있어 기존 입원 치료 위주의 관리에서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정신재활을 중심으로 소비자 혹은 서비스 이용자(재가 정신장애인) 중심의 적극적 회복의 개념으로 변화해 왔다. 영어로 재기와 회복은 ‘recovery’로 같은 표현을 쓰지만 재가 정신장애인에게 있어 ‘recovery’는 개인의 태도와 가치, 목표, 감정, 역할 등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개인 특유의 과정으로 보는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재기의 의미가 크고, 재기는 질병으로 인해 여러 제약을 지니고 있더라도 재활을 통한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추구하는 노력을 하게 하는 원동력인 희망이라는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변화를 뜻하고 있다(Anthony, 1993). 이에 재가 정신장애인에게 있어 희망은 질병 회복과 지역사회 복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변화를 추구하는 요소라고 보여지며 이러한 분석내용들이 본 연구에서 도출된 희망의 속성인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봄’에 대해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정신건강전문가들은 증상의 완전한 제거가 아닌 증상의 악화나 재발에 대한 대처를 전제로 하는 교육과 훈련을 재가 정신장애인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회복에 대한 희망이 꺾이는 것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리의 노력들은 증상 호전에 대한 기대를 높여 재가 정신장애인들이 회복에 대한 의지를 갖도록 함으로써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하며 또다시 회복과 재활을 위한 노력을 하게끔 만드는 선순환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보여진다. 이에 더해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고통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특징인 전인적인 회복을 가져오는 것과 관련되며 예수님의 시선이 마음이 상한 자에게 초점을 두고 있기에 가능하다(정기철, 2017).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립보서 4:6-7) 라는 성경 말씀은 문제에 시선을 두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평강으로 가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사회로 나와 다양한 정신 증상과 사회의 부정적 시선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할 재가 정신장애인들이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희망을 가져볼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그들을 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이웃으로 여길 수 있

도록 인식을 개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참된 평안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음을 전하여 그들이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것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다음으로 재가 정신장애인에게 있어 희망의 두 번째 속성은 ‘정신장애로부터의 자유로움’이었다.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희망과 회복을 다룬 현명선 외(2014: 163)의 연구에서 정신장애인의 희망 정도가 높을수록 회복 정도가 높다고 기술하고 있었고 이러한 희망은 고통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 자신감 등과 연관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다(김수지, 2017: 50-51). 또한 지역사회에 머무는 상황에서 정신장애가 있더라도 질병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일반인들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경험할 때 희망을 가지게 됨을 보고한 연구도 있어(최귀순 외, 2005: 418-421)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정신장애에 대한 낙인과 자신감 부족, 친밀한 인간관계 부족은 희망을 저하시키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저해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Anthony, 1993)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볼 때 정신장애가 가져다 주는 여러 부정적 요소들이 삶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정신장애인의 희망을 고취시키고 회복을 가져다주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정신건강분야에서의 회복의 개념은 의료모델이 중심이 되어 「정신질환 증상의 경감」에 초점을 두고 있었지만 탈원화로 지역사회에 머무르는 재가 정신장애인의 수가 늘어가면서 정신장애인도 회복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통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복의 주요 가치로 부상하며 「지역사회로의 통합」이 중심이 되는 회복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났다(Anthony, 1993). 이러한 변화에는 정신질환이라는 난관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자기 주도성이 희망을 갖게 하여 결국에는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하며 살아가게 되는 회복을 가져다주는 것을 강조한다.

상기의 연구 결과들에서 재가 정신장애인에게 있어 희망은 질병에 얽매이지 않는 것, 즉 ‘정신장애로부터의 자유로움’이라는 속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신장애는 질병 특성상 자주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데(Davis et al., 2012)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시선, 낙인이 클 경우 앞서 언급한 부정적 감정은 더욱 가중되며 자아 해체의 위협을 경험하게 만들어 지역사회에 머무르는 재가 정신장애인들의 치료와 재활에 장애물이 되고 이러한 상황은 회복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결국에는 그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다(Paul et al., 2010). 또한 앞서 본 연구에서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이 희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어 재가 정신장애인들이 쉽게 낙심하고 긴장하여 희망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줄여주기 위해 정신건강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신건강전문가들은 재가 정신장애인들의 사회적 관계 개선과 낙인의 감소를 위한 명확한 질병정보와 교육을 시행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를 통해 정신장애가 지역사회에 머무르는 것에 장애물이 되는 상

황을 줄여 재가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의 통합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대한 세 번째 속성은 ‘평범한 일상을 누리’으로 드러났다. 재가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 경험(전원희 외, 2020: 7-10) 연구에서 재가 정신장애인들은 일상의 삶에서 환자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만족감을 얻었고 정신병원이라는 환경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의 기회를 가지는 것에서 재기(recovery)에 대한 기대를 갖는 희망적인 상황을 경험한다고 기술하고 있어 본연구에서 도출한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의 속성에 ‘평범한 일상을 누리’를 포함시킨 것과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비 정신장애인과는 달리 정신장애인들에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며 이것은 권리보장의 불공평성 경험에서 벗어나 사회적응력을 높여 삶의 대한 만족감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전원희 외, 2020: 7-10). 따라서 국가와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정신장애인들이 충분히 치료받고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신장애인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일상생활의 저해 요소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를 감소시켜주는 노력을 함으로써 재가 정신장애인들이 삶에 대한 희망을 가져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정신장애인들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먼저 재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연대적 공감과 경계를 허무는 실천을 하여(김종우, 2020) 비 정신장애인이 누리는 평범한 일상을 정신장애인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대한 마지막 속성은 ‘질병의 의미를 발견함’으로 나타났다.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유지하는 중요한 관점으로(Watkins, 2009), 이들에게 희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키워나가고 믿음의 요소는 정신장애라는 질병 과정에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힘이 된다(최귀순 외, 2005: 418-421). Lewis(이종태 역, 2018)는 고통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람들에게 궁극의 선과 일치하도록 이끄는 과정이며 여기에서 희망의 역할을 강조한다. Lewis는 고통이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물질적 세계를 넘어서 더 큰 의미와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게끔 희망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신장애라는 질병은 정신장애인에게 고통으로 다가왔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질병의 의미를 발견하고 수용하는 경로를 거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경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예레미야 29: 11)라는 말씀처럼 고통의 과정에서도 역설적인 미래의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질병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에 뒷받침된다. 질병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온전히 질병 치료에 대한 실천력이 생

기며(Cho, et al., 2023) 이는 삶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 회복을 기대하게 한다(김수지, 2017: 50-51).

이처럼 재가 정신장애인이 희망을 경험하는 선행요인과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속성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회복을 이끌어내며 이러한 현상이 중국에는 국가 차원에서도 의료비 감소를 비롯해 국민정신건강증진에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기에 관련 개념을 다루는 연구자들은 해당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구별하고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신건강전문가들은 재가 정신장애인의 정신증상 경험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의 속성을 인지하여 이를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건강관리수행에 있어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희망의 속성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봄’, ‘정신장애로부터 자유로움’, ‘평범한 일상을 누리’, ‘질병의 의미를 발견’과 같은 속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중재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alker와 Avant(2011)의 개념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대한 개념과 속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정의를 규명하며 결정적 속성을 도출함으로써 희망이 가지는 본연의 의미에 대해 명료화를 도와 관련분야의 실무 및 정신건강분야의 용어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의 속성이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지역사회에서의 삶에 대해 보다 세밀한 이해를 도와 정신 건강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 개입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더해 재가 정신장애인에게 있어 적극적 회복인 지역사회의 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은 사회적 낙인과 편견으로 인해 감소 될 수 있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캠페인과 재가 정신장애인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상황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개입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 연구가 부족하여 희망이나 희망과 유사한 개념이 다루어진 기타 연구를 문헌고찰에 포함시켜 희망의 속성을 추측하였고, 더 많은 자료를 충분히 분석에 포함하지 못한 점이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 문화적 분위기에 따라 재가 정신장애인에 대해 판단하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의 속성 또한 어느 정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대한 세부 속성을 다루는 연구를 할 경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을 고취시키고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본 연구에서 드러난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의 속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질병 과정에서의 희망 관련 측정 도구를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적용하기 위해 수정 및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재가 정신장애인 희망의 속성을 활용해 볼 것을 제안한다.

.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김기홍 (2023). 사복음서 속 예수 그리스도의 장애인 치유 사역에 나타난 통합 교육적 함의. **신앙과학문**, 28(2), 51-71.
- 김부경·오복자(2022). 영적 안녕이 혈액투석 환자의 자가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 희망의 매개 효과. **한국성인간호학회지**, 34(6), 592-601.
- 김수지 (2017). **사람돌봄이론**. 파주: 수문사.
- 김종우 (2020). **의학적 상황에서의 고통관에 대한 전인적 성찰: 과학주의에 대한 종교-철학적 비판을 통하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희정(2009). 정신장애로부터의 회복 의미에 관한 질적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8(4), 379-389.
- 박영옥 (2023). 암 생존자의 희망에 대한 개념분석. **인문사회** 21, 14(2), 3305-3320.
- 박주현·박현숙 (2017). 희망강화프로그램이 낮병원 정신장애인의 희망, 자기효능감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26(3), 260-270.
- 배가령·임영순·노기옥·손유정·서한길 (2017). 림프부종을 가진 여성 암 환자의 희망, 자가간호역량과 삶의 질의 관계. **중앙간호연구**, 17(4), 213-219.
- 법제처 (2016). 장애인복지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8177&efYd=20160101#0000>(검색일 2024.5.4.)
- 보건복지부 (2017). The implementation plan of the additional diagnosis by the second psychiatrist in the new Mental Health and Welfare Law.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 이종태 역 (2018). **고통의 문제**. Lewis, C. S. (1940). The Problem of pain. 서울: 홍성사.
- 전원희·최은정·조현미 (2020). 재가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 경험. **지역사회간호학회지**, 31(3), 244-255.
- 정기철 (2017).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예수**. 서울: 쿤란출판사.
- 최귀순·김희정·노춘희 (2005). 정신분열병환자의 희망 개념 분석. **정신간호학회지**, 14(4), 417-429.
- 최은정·조현미·조은주·이민경 (2020). 재가 정신장애인 주보호자의 고통경험. **정신간호학회지**, 29(3), 218-228.
- 한금선 외 (2010).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희망, 우울 및 자살사고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9(2), 205-211.
- 현명선·박은영·김영희·김유라·조명선 (2014).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희망과 회복: 치료자와의 치료적 관계의 매개효과. **정신간호학회지**, 23(3), 156-164.
- Anthony, W. A. (1993). Recovery from mental illness: The guiding vision of the mental health services system in the 1990s. *Psychosocial Rehabilitation Journal*, 16(4), 11-23.

- Antunes, M., Laranjeira, C., Querido, A. & Charepe, Z. (2023). "What do we know about hope in nursing care?": a synthesis of concept analysis studies, *In Healthcare*, 11(20), 2739.
- Benzein, E. & Saveman, B. I. (1998). One step towards the understanding of hope: a concept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35(6), 322-329.
- Bloch, E., Plaiice, N., Plaiice, S. & Knight, P. (1986). *The principle of hope* vol. 3. Cambridge, MA: Mit Press.
- Cho, H. M., Choi, E. J., Choi, H. J. & Cho, E. J. (2023). Concept analysis of uncertainty in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45, 44-53.
- Davis, L., Kurzban, S. & Brekke, J. (2012). Self-esteem as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ole functioning and symptoms for individuals with severe mental illness: a prospective analysis of modified labeling theory. *Schizophrenia Research*, 137(1), 185-189.
- Edward, K. L. Welch, A. & Chater, K. (2009). The phenomenon of resilience as described by adults who have experienced mental illnes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5(3), 587-595.
- Frese, F. J., Knight, E. L. & Sake, E. (2009). Recovery from schizophrenia: with views of psychiatrists, psychologists, and others diagnosed with this disorder. *Schizophrenia Bulletin*, 35(2), 370-380.
- Higgins, A. & Mcbennett, P. (2007) The petals of recovery in a mental health context. *British Journal of Nursing*, 16(14), 852-6.
- Miller, J. F. & Powers, M. J. (1998).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hope. *Nursing Research*, 37(1), 6-10.
- Paul, H. L., Philip, T. Y., Jared, O. & David, R. (2010). Association of stigma, self-esteem, and symptoms with concurrent and prospective assessment of social anxiety in schizophrenia. *Clinical Schizophrenia & Related Psychoses*, 4(1), 41-49.
- Resnick, S. G., Rosenheck, R. A. & Lehman, A. F. (2004). An exploratory analysis of correlates of recovery. *Psychiatric Services*, 55(5), 540-547.
- Snyder, C. R. (Ed.). (2000). *Handbook of hope: Theory, measures, and applications*. Academic Press.
- Walker, L. O. & Avant, K. C. (2011) *Strategies for theory construction in nursing*. Trans. Oh, K., Lee, I. S. & Joe, S. Y. Boston: Prentice Hall.
- Watkins, A. P. (2009). Religious perspectives: A quest for meaning, a search for hope. *Counterpoints*, Vol. 342, 149-161.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Mental disorders <https://www.who.int/en/news-room/fact->

sheets/detail/mental-disorders(검색일 2022. 10. 13)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장애 정도 판정 기준.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9E%A5%EC%95%A0%EC%A0%95%EB%8F%84%ED%8C%90%EC%A0%95%EA%B8%B0%EC%A4%80#liBgcolor0> (검색일 2024. 8.20)

국립국어원 (2024). 정신장애인, 희망,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검색일 2024.9.15.)

위키백과 (2024). 희망. <https://ko.wikipedia.org/wiki/%ED%9D%AC%EB%A7%9D> (검색일 2024.9.15.)

통계청 (2024). 전국 장애유형별, 성별 등록 장애인 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5&vw_cd=MT_ZTITLE&list_id=G_2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검색일 2024.8.4.)

Merriam-Webster 사전 (2024). Hope.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hope>(검색일 2024.9.15.)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 개념분석

Concept Analysis of Hope of Community Dwelling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최은정 (고신대학교)

정유진 (경남정보대학교)

조현미 (가야대학교/교신저자)

논문초록

본 연구는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 개념분석을 통해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도 되었으며 Walker와 Avant의 연구 방법에 따라 진행되었다.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봄’, ‘정신장애로부터 자유로움’, ‘평범한 일상을 누림’, ‘질병의 의미를 발견’을 결정적 속성으로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을 ‘미래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정신장애에 얽매이지 않고 일반인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의미를 찾고 영적인 것을 추구해 가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의 속성을 통해 재가 정신장애인에게 있어 적극적 회복인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정신건강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재가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희망의 속성에 대한 명료화가 그리스도인들이 재가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으로 인식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을 고취시켜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도모할 중재개발과 연구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정신장애, 지역사회, 희망, 개념분석

조선을 섬긴 서서평선교사의 삶과 유아교육적 함의*

The Lif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Implications of Seo, Seo-Pyeong Missionary who Served Joseon

하연희 (Yeonhee Ha)**

김초롱 (Cholong Kim)***

정병탁 (Byungtak Jeon)****

권미량 (Mee Ryang Kweon)(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lication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modern society by examining the life of missionary, Elizabeth Johanna Sheping(徐舒平), who was sent to Joseon as a nursing missionary in 1912 and devoted her life to Joseon. To this end, through inductive analysis of literature, video, and photographs, the life of missionary Seo, Seo-pyeong was examined. As a result, early childhood education implications were derived: healing in which relationships were restored, teaching with practical care, and an educational community served with a low heart. Through this study, we hope that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nature of life-respecting life and education in modern societ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where the restoration of humanity is urgent, and to move forward to a happy early childhood education site together with the restoration of community with love, service, and commitment.

Key Words: Seo, Seo-Pyeong, missionary, love, service, devotion, commun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 2024년 11월 4일 접수, 12월 2일 최종수정, 12월 3일 게재확정
이 연구는 2022년 고신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고신대학교(Kosin University), 유아교육과 조교수, 부산 영도구 와치로 194, fresh-525@kosin.ac.kr

*** 고신대학교(Kosin University), 유아교육과 조교수, 부산 영도구 와치로 194, 122004@kosin.ac.kr

****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운영팀장, 부산 동래구 금강로 129, takbyung@hanmail.net

***** 고신대학교(Kosin University), 유아교육과 교수, 부산 영도구 와치로 194, mykidlove@kosin.ac.kr

I. 서론

일찍이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에는 선교사들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섬김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근대교육은 조선말기의 개항 이후 서양의 근대문화를 접하면서 발달되었다. 당시 내한선교사들은 한국인이 교육열이 높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사업과 의료사업을 복음의 수단으로 활용했다(오주철, 2023 :43). 1884년 매클레이(R. S. Macley), 앨런(H.N. Allen)부처, 1885년 언더우드(H. G. Underwood)·아펜젤러(H. G. Appenzeller)·스크랜턴(Mrs,M. F. Scranton) 등의 선교사들이 입국하여 교육과 의료로 선교의 수단으로 삼아 의료로 한국인의 불행을 구제하고, 교육에 의해 계몽하려 했다(송치숙, 박종배, 2019). 이를 통해 ‘배재학당’, ‘경신학교’, ‘이화학당’ 등이 설립되었으며. 개신교 선교사들은 우리 사회에 인간관과 우주관, 평등사상과 사물에 대해 과학적 지식과 서구적 합리이론을 소개해 주었다(오주철, 2023 :43. 특히 유아교육에서는 선교사 브라운리의 공헌이 지금까지도 유아교육의 역사에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근대 우리나라는 1897년 부산유치원이 최초로 설립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설립되고 운영되어졌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유치원으로 규정짓지 않고 있다. 한국인을 위한 유치원은 1914년 미국인 선교사 브라운리(C. Brownlee)가 이화학당부설 이화유치원을 설립하였는데 이를 한국 어린이를 위해 유아교육전문가가 설립한 우리나라 유치원의 효시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이상금, 1987 ; 이윤진, 2006 ; 송치숙·박종배, 2019).

이렇듯 선교사들은 한국 근대교육 및 유아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대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 서서평은 근래에 근대 한국사회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선교사로 재조명되어졌다. 서서평이 조선에 입국한 지 100년이 되는 2012년에 언론(뉴스앤조이, 2012.3.14.)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기억과정을 통해서 그의 삶이 다시 주목 받게 되었다.

서서평 선교사(Elisabeth J. Shepping, R.N. 1880-1934)는 한국인을 위해 특별히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미국 남 장로교 선교부에서 파송된 여성간호사로 구한말에 광주, 군산, 전주 그리고 서울 등지에서 활동했다. 1934년 6월에 마지막으로 생명을 다하기까지, 한국인을 위해 몸과 마음과 모든 소유를 바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았던 간호선교사였다. 또한, 그녀는 이방인의 땅 조선에서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우리나라 여성과 어린이의 행복과 평안을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거룩한 섬김의 사역을 마치게 된 시대의 선지자라 칭송되어진다.

양창삼(2012)의 저서를 살펴보면, 서서평은 1912년 내한 이래 간호, 교육, 복음전도, 사회선교의 4가지 사역에 헌신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당시 사회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서서평은 여성이 권리의식을 가지고 사회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쳤으며, 단기 성경학교를 개설하

기도 했다. 이후 1926년 광주 양림동에 이일학교를 세우고 성경공부를 통한 교육을 시작하였다. 이 학교는 여성들의 문맹퇴치와 계몽을 위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3년제 사립학교였다(양삼창, 2012). 이는 현재 한일장신대학의 모체이다. 서서평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우선으로 하였지만, 여성을 계몽하고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일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여 가정위생, 영양 및 교육론, 상처치유, 전염병 예방 등을 포함한 간호 교과까지 다양한 가르침을 실행했다.

최근 섬김의 사역으로 재조명되기도 한 서서평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간호사적 사역에 대한 연구(윤매옥, 2016 ; 조혜경, 2018), 신학 및 선교적 사역에 대한 연구(강정희, 2022 ; 김기용, 2020 ; 박형국, 2017 ; 임희모, 2019 ; 임희모, 2020) 교육적 사역에 대한 연구(백춘성, 1980 ; 김은주, 2015 ; 김혜정, 2020) 사회적 봉사 사역 및 신념에 대한 연구(이혜숙, 2016 ; 이란·지상선, 2017) 등이 있다. 최근 서서평의 간호사, 의료선교, 교육자,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재조명하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서평의 교육적 사역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선교사적 사역과 사회 봉사적 사역 등의 연구에 비해 미비하다. 특히 고아의 어머니라 불리어왔던 그녀의 삶은 유아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14명의 자녀를 입양하고 보살피며 한국의 간호교육과 여성교육에 헌신한 서서평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의 교육적 섬김이 현재 우리사회 및 교육에의 적용점을 찾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근대 이후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해방을 맞이하고 전쟁의 소용돌이를 거쳐 1983년 유아교육진흥법, 2003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며 양적 확장과 함께 체계적이고 질적인 발전을 해 왔다. 2024년 현재 유아교육은 유보통합이라는 큰 전환의 시점에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여성의 경제 및 사회 활동 증가로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고 경제적 불안정과 높은 육아 비용, 교육 경쟁 등의 요인으로 출산을 꺼려 초저출산과 고령화는 문제에 직면했다. 2024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23년 기준 약 0.78%로 세계 최저를 기록했으며 국가는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를 통합하여 일관된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어지고 있다. 이는 맞벌이 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사회 전반에 육아와 교육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초저출산 위기의 우리나라가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일환이 될 수 있다. 정부는 2024년 행정적 통합 시행을 시작으로 점차적인 유보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각 기관들의 이해와 통합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대적 상황은 다르지만 헌신하는 사랑, 나눔의 삶, 성공보다는 섬김, 빠르기보다는 천천히, 대단한 사회적 지위보다는 주변의 소소함을 챙기는 삶을 살았던 서서평선교사의 삶과

교육적 활동을 고찰하므로 유아교육적 의미를 도출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사랑과 헌신, 섬김으로 이 땅의 아이들과 여성들을 돌본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전기적 생애사연구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유아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한다. 즉, 서서평의 교육사적 접근방식의 유아교육적 적용점을 살펴보고, 그녀의 교육적 삶에서 섬김과 헌신이 오늘날의 유아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국가적 현안인 초저출산 문제해결, 영유아들에게 교육과 돌봄이 하나가 된 보다 나은 양질의 영유아 공교육 체제의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에 기초적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목적의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조선을 섬긴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전기적 생애로 살펴본다.

둘째, 조선을 섬긴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통해 유아교육적 함의를 고찰한다.

II. 연구방법

1. 전기적 생애사 연구

본 연구는 서서평의 생애를 전기적으로 추적하여 고찰하는 생애사 연구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생애사 연구는 한 사람이 경험했던 삶을 자신의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삶에 대한 기록으로써 개인의 생애를 통한 그들의 주관적인 경험을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그 사건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해준다(김새은, 2012 ; 유철인, 1990). 또한, 전 생애에 걸쳐서 나타나는 사회적 변화 양상과 영향, 사건이 개인에게 끼친 영향, 참여자의 삶의 과정에 영향을 끼친 사회적 요인들의 변화를 조명하는 것으로써 개인의 개성에 초점을 두면서도 동시에 구조화된 관점에 빠져들지 않고 사회성을 조명해 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Miller, 2000 ; Schweppe, 2003). 즉, 생애사 연구는 한 사람이 자신의 언어로 개인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희로애락 과정의 기록을 사회적 안목을 통해 해석 및 분석하는 연구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서평의 생애 기록과 다양한 자료에 근거하여 전기적 생애사를 구성하여 주요사건이나 활동을 중심으로 맥락화하고, 유아교육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분석하였다. 다만 연구대상인 서서평이 현존하지 않는 인물이기에 생애사 연구과정의 심층면접 또는 인터뷰를 제외하였고, 이에 자료 분석 및 맥락화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의 과정을 거쳐 타당도와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민성은 외(2017, 재인용)가 제시한 4가지 생애사 연구절차를 참고하여 첫 번째 자료수집, 두 번째 연구문제 진술, 세 번째 연구방법의 실행, 네 번째 자료분석, 다섯 번째 결과표현 및 글쓰기의 단계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Figure 1. Details of progress according to research procedures

Procedure	content	Period
Research Planning and Literature Review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view literature and prior research ▪Collect related materials and consider them theoretically 	2022. 05 - 2022. 10
Data colle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llect books, articles, video records and research on Elizabeth Johanna Sheping ▪List data and select research data through researcher discussion ▪Summary and classification of associated records collected 	2022. 10 - 2022. 12
An expert consulta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Selection of expert advisors for one exper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one expert in Christian education and theology 	2023. 01 - 2023. 01
Data Analy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ductive analysis of the contents of words and sentences related to this study ▪Triangulation analysis, content review, mod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Verification by expert advisors other than researchers to ensur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analysis 	2023. 02 - 2023. 08
Creating a Rep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Organize research results, discuss and suggest, and report 	2023. 08 - 2024. 10

3. 자료수집 및 분석

(1) 자료수집

서서평의 삶의 여정을 전기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서서평선교사에 대한 문헌과 영상기록물, 기사 등을 고찰을 하였다. 그 후, 한국 유아교육에 전하는 함의를 고찰하기 위해 선행논문들을 분석하였다. 서서평의 삶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기 적절한 문헌을 수집하기 위해 출판시기, 쓰여진 관점, 저자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들 간의 토의를 통해 다양하게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에 서서평에 대한 최초의 저서인 백춘성(1980)의 ‘천국에서 만납시다.’, 서서평의 선교사가 되는 과정과 다양한 선교사역에 관한 양창삼(2012)의 ‘조선을 섬긴 행복: 서서평의 사랑과 인생’, 서서평의 조선에서

의 생애를 기록한 양국주(2012)의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엘리제 웨핑 이야기’, 서서평의 편지를 모아서 기록한 양국주(2016) ‘그대 행복한가요?: 행복을 잃고 살아가는 바보들에게 살아가는 서서평의 편지’, 최초의 저서 ‘천국에서 만납시다.’를 현대판으로 개정한 백춘성(2017)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서서평 연구의 권위자인 임희모(2017)의 ‘서서평 예수를 살다.’ 등의 저서를 주요 자료로 선정하였다. 또한 고찰한 서서평의 삶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와 유아교육적 가치, 방향성 등을 고찰하기 위하여 위의 저서와 함께 백춘성(1980)의 서서평과 어린이, 김은주(2015)의 서서평의 교육사역 이해와 기독교 교육에 대한 함의 등 서서평 연구회와 여러 연구자들이 발표한 각종 연구논문들을 참고문헌자료로 수집하였다.

서서평에 관한 영상기록물로 2017년 개봉한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을 수집하였다. 이는 배우 하정우가 서서평의 삶과 메시지에 공감하여 재능기부로 영화의 나레이션에 참여한 영화로 서서평의 삶을 재조명하는데 공헌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영상기록물로 연극 ‘서서평(2014)’, See you, in heaven!(2015), 서평부인(2021) 등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영상기록물은 주요내용을 전사하였다.

Figure 2. List of data collected

구분	저자(연도)	제목
문헌 자료(8)	백춘성(1980)	천국에서 만납시다
	양창삼(2012)	조선을 섬긴 행복: 서서평의 사랑과 인생
	양국주(2012)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엘리제 웨핑 이야기
	양국주(2017)	그대 행복한가요?: 행복을 잃고 살아가는 바보들에게 살아가는 서서평의 편지
	백춘성(2017)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임희모(2017)	서서평 예수를 살다
	백춘성(1980)	서서평과 어린이
	김은주(2015)	서서평의 교육사역 이해와 기독교 교육에 대한 함의
영상 기록물(4)	2017년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2014년	창작 뮤지컬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2015년	연극 See you, in heaven
	2021년	연극 서평부인

(2) 자료분석

자료분석의 과정은 6단계의 순환적 분석과정을 토대로 저서, 연구물, 영상기록물 등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1차 분석 단계로서 수집된 자료들의 반복적 읽기 과정을 통하여 주요 내용을 추출하고, 추출한 내용을 연구자 외 유아교육전문가 1인과 신학적·기독교적 자문을 구하기 위한 목회자 1인과 함께 검토하면서 그 의미들을 탐색 및 해석하였다. 두 번째는 1차분석자료를 토대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서서평의 생애, 삶의 의미 서서평이 현대사회와 유아교육에 전하는 가치를 탐구하고 도출하였다. 세 번째는 검증 및 2차 분석 단계로서, 수집자료와 1차 분석 자료를 연구자 외 유아교육전문가 1인과 신학적·기독교적 자문을 구하기 위한 목회자 1인과 함께 삼각검증법을 활용하여 검증 및 2차 분석을 하였다. 네 번째는 2차 분석자료를 토대로 서서평의 삶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유아교육적 함의 도출하였다. 다섯 번째는 검증 및 3차 분석 단계로서 수집자료, 1·2차 분석자료를 토대로 연구자 외 유아교육전문가 1인과 기독교교육·신학전문가 1인과 함께 삼각검증법 과정을 기반으로 3차 분석을 진행하였다. 여섯 번째는 수집자료, 1~3차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되돌아보기 과정을 통하여 서서평의 삶을 통해 나타난 다양한 의미들을 수정 및 재구성을 하면서 최종 도출하였다. 분석을 위해 전문가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유아교육전문가 1인은 현재 기독교대학의 유아교육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기독교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다수의 논문을 집필하였다. 또한, 목회자 1인은 기독교교육과를 졸업하였으며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고 현재 박사과정 중 부목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국제크리스천학교에서 교목으로 재직중이다. 한 가지 이상의 자료를 상호 교차적으로 비교하는 삼각검증법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단행본 저서, 연구논문자료, 영상기록물과 기록물의 리뷰 등 자료 수집의 다각화를 모색하면서 유아교육전문가 1인 및 신학적·기독교적 자문을 구하기 위한 목회자 1인과 함께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타당도와 신뢰성을 높였다.

III. 연구결과

1. 서서평 선교사의 삶

1) 초기생애와 조선으로의 여정

(1) 버려짐과 재회, 그리고 아픔

서서평(徐舒平)은 1880년 9월 26일 독일의 바스바덴에서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났으며, 본명은 Elizabeth Johanna Shepping(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다. 그녀의 어머니 안나 쉐핑은 3살 딸을

독실한 로마 가톨릭 신자인 조부모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이민을 했다. 서서평은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 카톨릭 교구 학교에 입학했으나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런 과정으로 인해 서서평은 어렸을 적부터 버림과 외로움을 경험하며 성장하게 되었다.

1891년 서서평이 열한 살 때 그녀 혼자서 자신을 조부모에 맡기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주소가 적힌 종이쪽지 한 장만 들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를 재회한 후 독일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가톨릭 재단의 성마가병원 간호학교에서 간호교육을 받게 되었다.

서서평은 세 살 때 헤어진 어머니와 8년 만에 다시 만났다. ~중략~ 미국에 살게 된 서서평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뉴욕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해야 할 때가 된 서서평은 기도했다. ~중략~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직업으로는 간호사, 영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선교사, 서서평은 바로 이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느꼈다.

(백춘성 2017. 22.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중에서)

(2) 개신교로 개종과 신학교 입학.

1901년 21살의 나이에 뉴욕시립병원에서 간호사 공부를 하던 중 함께 있던 같은 동료에 이끌려 기독교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된다. 가톨릭 예배보다 훨씬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하늘나라는 나 자신이나 누군가가 행한 업적에 의해 가는 곳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야만 갈 수 있는 곳’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서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어머니는 서서평과 종교적 갈등문제를 빚게 되었고, 결국 서서평과 어머니는 의절하기에 이르렀다.

하늘나라는 난 자신이나 누군가가 행한 업적에 의해 가는 곳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야만 갈 수 있는 곳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백춘성 2017. 24.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중에서)

1904년 어머니와 의절을 당한 서서평은 뉴욕시립성서사범학교에 입학하여 8년 후 그녀의 나이 31세 때에 졸업을 하였다. 어머니로부터 두 번의 버림을 당한 서서평은 더욱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다.

2) 조선에서의 활동

(1) 조선으로의 파송과 간호로 섬김

서른 한 살에 신학교 공부를 마칠 즈음 조선으로 갈 정규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국 남장로회 해외선교부를 통하여 그녀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당시 미국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나라인 조선 선교를 지원하게 되었다. 이유는 조선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선교정보를 얻었기 때문이다.

1912년 2월 20일, 32살의 서서평은 조선인을 위해 일생을 바칠 것을 다짐하며 미국 남장로교의 조선 의료선교사 신분으로써 조선으로 향하였다. 부산항을 통하여 광주에 도착한 그녀는 제중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먼저 한국말과 한국풍습을 익히고자, 이름도 한국식으로 지었습니다. 이때 지은 이름인 서서평의 의미는 그녀의 급한 성격을 고치기 위해 천천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성을 천천히 서 ‘徐’라고 하였고, 이름은 펄 서 ‘舒’ 즉 ‘자신의 감정을 차분하게 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평평할 평 ‘平’ ‘모난 성질을 평평하게 한다.’ 의미를 담아서 서서평(徐舒平)이라고 짓게 되었다.

서서평은 다른 서양 선교사와는 다르게 진정한 한국인이 되고자 고무신에 한복을 즐겨 입었고 된장국을 좋아했다. 그녀는 옥양목 저고리에 검은통치마를 입고 맞는 신발이 없어서 남자용 검정고무신을 신고 지냈습니다. 특히 된장국을 먹음으로 조선 사람으로 동화되고자 하였는데, 이는 온전한 조선 사람이 되고자 하는 서서평의 의지이자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서서평은 제중병원 군산 구암예수교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서울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고 여기서 간호사 양성과 기독교 선교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서서평은 일제의 만행으로부터 부상을 당하고 투옥된 독립운동가들을 옥바라지하다가 일제로부터 서울 활동이 금지되어 광주로 내려가서 제중병원의 간호사로 일하였고 이때부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여성들에게 성경과 실과를 가르쳤다.

부산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서평은 목표 선교부에 배속되었다. 그리고 이내 광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제중원에서 우월순을 도와 의료선교사로서의 역할이 그에게 주어진 직임이었다.

(양삼참, 2013. 102. 조선을 섬긴 행복: 서서평의 사랑과 인생)

(2) 세상의 가치와 다른 교육세움과 낮은 자 돌봄

1922년 서서평은 부모의 반대로 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여인들, 가난하여 학교에 갈 수 없는 여인들, 결혼은 했으나 아이가 없어 소박당한 여인들, 남편과 사별한 여인들 등 불우하고 기회를 놓친

다양한 계층의 여인들을 상대로 학교를 시작하였으며, ‘이일학교’ 현 한일장신대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서서평은 1년 중 100일 이상을 거리에 상관없이 이동하며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진정한 벗이 되어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의 여성들이 이름도 없이 노예처럼 남편에게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하면서도 소박맞고 쫓겨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들을 위해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다.

여성이 권리의식을 갖고 사회적인 직업을 가져야 함을 가르쳤다. ~중략~ 그는 교육을 통해 조선의 여성들로 하여금 주체의식을 갖도록 했다.

(양삼참, 2013. 102. 조선을 섬긴 행복: 서서평의 사랑과 인생)

서서평은 간호사역, 사회사역 못지않게 전도사역에도 힘썼으며, 영문 선교지를 번역하거나 전도대를 편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전도지역의 교회를 방문하여 교회마다 부인조력회를 만들어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도 힘썼으며 또한 확장주일학교 사업도 진행하였다. 확장주일학교는 어떤 동네를 주일마다 방문하여 교회학교를 실시한 것으로서 이일학교 학생 등 주일학교 교사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며 곳곳에 확장주일학교를 운영하였다. 훗날 선교사들과 함께 사역했던 이교환 목사님은 서서평을 가리켜 1000대 1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서서평이 홀로 1000명분의 일을 할 만큼 열정과 근면함으로 일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일학교는 그만큼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우고 익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도구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어여뻐 보아주신 듯 합니다.

(양국주, 2016, 201. 그대 행복한가요? 중에서)

1929년 서서평은 안식년을 맞이하여 조선간호부협회를 세계협회에 가입시키기 위해 미국으로 갔었을 때 서서평은 자신을 두 번이나 버렸던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지만 어머니는 “네 몰골이 내 딸이라 하기에 부끄러우니 썩 꺼리라”고 말하며 서서평을 다시 한번 내쳤습니다. 이처럼 서서평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지만, 수양딸 13명과 나환자의 아들 1명 등 14명의 한국아이를 입양해 기른 ‘조선의 어머니’이기도 하였다.

서서평의 낮은 곳을 향한 관심은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버림받고 사랑을 나누지 못한 상처가 큰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다시 말해 그녀의 고아 된 경험을 통하여 이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생활을 하였는데, 그 예로 양립천 거지들을 목욕탕에 데려다 목을 씻겨주고 옷과 음식을 제공하였고, 길을 가다가 여자 한센환자를 만나면 집으로 데려와 목욕시키고 밥을 먹이기도 하였다. 이를 위해 서서평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사용하였고, 정작 그녀는 근근히 버티며 생활하였다.

1933년 서서평은 동역자들과 50명의 나환자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갔는데, 이는 일제총독부에게 나환자들의 삶을 요구하기 위함이었다고, 이러한 소식이 점차 퍼지면서 서울에 도착하였을 때는 530명의 나환자들이 모이게 되었다. 이에 일제총독부로부터 소록도 한센병원과 요양시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서서평은 인신매매 반대, 축첩금지, 공창제도 폐지운동 등 윤락여성 선도사업을 주도하였고, 윤락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면 대신 그 빚을 갚아주고, 서서평이 세운 학교에서 공부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서서평은 길거리 고아들과도 한 이불을 덮으면서 삶을 나누었다. 어머니를 잃은 유아들은 각별히 살피고 거리나 다리 밑에 기거하는 거지들을 어머니처럼 보살펴서 ‘광주의 어머니’로 불렸다.

서평의 영향을 받아 여러 곳에 복지시설이 세워졌다. 송인동은 “서서평의 최초의 조직적 빈민운동은 근대화의 산실이 되었다”고 했고, 그를 가리켜 ‘거리와 다리 밑의 거지들을 어머니처럼 보살펴서 광주의 어머니로 불리며 광주 최초 사회장의 기록을 세운 벽안의 처녀’라 했다.

(양삼참, 2013. 197. 조선을 섬긴 행복: 서서평의 사랑과 인생)

서서평은 결혼을 하지 않고 조선으로 시집을 왔다고 생각하며 처녀로 살았다. 하지만 그녀의 급한 성격도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성격이 남성적이고 급하기 때문에 결혼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결혼해서 남편을 섬기느라 그녀의 급한 성격을 억누르는데 신경을 쓰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급한 성격을 주신 것을 믿고 오직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생각했던 것이다.

서서평은 평소 검소한 생활의 실천이 돋보였다. 그래서 이일학교 학생들에게도 무명옷이나 세양포옷으로 제한하였고, 명주옷처럼 비싼 의복은 허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좋은 의복은 교회에 갈 때 입으라고 권하였고, 낭비성 있는 교내행사까지도 금할 정도였다.

(3) 전적 믿음과 천국 만남의 약속

서서평은 조선에 들어온지 4년째 되는 1915년부터 1934년 선교사역을 마칠 때까지 약 20년간 스

프루라는 만성풍토병으로 고통 받으며 생활하였다. 간호사 외의 다른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었고, 항상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자신의 의식주를 내어주다 보니 건강은 갈수록 나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서서평은 이러한 병약한 상태에서도 최선을 다하였고 늘 “나는 많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몸을 지켜주시리라 믿는다”라고 말하였다.

서서평은 임종 전 약 4개월 동안 병과 사투를 하였고, 병원의 권유로 수술을 하였으나 오히려 수술 이후 몸이 악화되어 병의 원인을 알지도 못한 채 소천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녀는 자신의 주치의에게 “호흡만 거두면 장기를 해부하여 연구자료로 삼으세요”라고 유언을 남겼는데, 이는 자신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앓는 환자가 없도록 시신을 의학연구용으로 기증한 것이었다.

1934년 6월 26일 서서평은 53세의 나이로 만성풍토병과 과로, 영양실조로 소천하였다. 그녀는 자신보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고, 소천 이후 그녀가 남긴 것은 담요 반장, 동전 27전, 강냉이 가루 2홉뿐이었다. 그리고 서서평의 마지막 순간, 그녀의 제자들과 자녀들, 교우들이 불러주는 찬송을 들으며 “천국에서 만납시다.”라고 말하며 생을 마감하였다. 이때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는 “성공보다는 섬김이다.”라는 좌우명이 걸려있었다고 한다. 미국 장로회는 전 세계에 파견된 수많은 선교사 중에서 서서평을 ‘가장 위대한 선교사 7인’으로 선정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서서평의 삶에 교회장이 아닌 광주 최초로 시민사회장으로 장례식이 치러졌고 이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구분없이 수천 명의 광주시민들과 나환자들이 참석하여 ‘어머니!’라고 외치며 오열하였다고 한다.

저의 좌우명이 ‘성공보다는 섬김’, ‘영토의 확장보다는 하나님의 거룩’을 실천하려고 애쓴 터여서 정작 제 자신의 문제에는 민감하게 대하지 못했기에 제가 수많은 어린 양들을 끌어 모으고 돌보지도 못하면서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했다고 수근거렸을 겁니다. 저 역시 아이들의 미래를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떠났으니깐요. 삶으로 주님을 드러낸 제가 믿음으로 바라고 추구한 일이었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양국주, 2016, 273. 그대 행복한가요? 중에서)

2. 유아교육적 함의

1) 관계성이 회복되는 치유

서서평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 명령대로 살겠다는 신념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정신, 당시 상처 투성이었던 우리나라 민족들을 치유하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겠다는 열정이 자리잡고 있었다.

서서평은 간호사라는 직업을 통해 당시 한국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려고 하였고, 1923년 한국간

호협회를 조직하고 간호학 교과서와 책들을 직접 번역하여 간호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 여성들은 이름도 없었고, 집안일에 갇혀 지내고, 사회적 지위가 없었음에도 서서평의 끈기 있는 노력으로 조력회 훈련을 통한 초석을 다지며 모임을 구성하고 이끌었고, 이는 오늘날의 한국의 여권신장에도 큰 힘이 되었다. 즉, 당시 여성들의 몸과 마음의 치유에 앞장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을 남기며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을 말함에 인식하지 않으며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당부하였다.

어머니와의 문제를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했고 제가 거두었던 수많은 자녀들과 고아들, 과부들을 끝까지 먹지 못어요. 가슴이 먹먹하고 아파옵니다. ~중략~ 어미로서 조를 따사롭게 보듬지 못하고 보니 제 어머니의 마음을 다소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어린 조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고 헤어졌답니다. 결국 대물림하는 셈입니다. ~중략~ 부디 살아생전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에 결코 인색하지 마시기를...

(양국주, 2016, 273. 그대 행복한가요? 중에서)

권미량·하연희(2014)는 인간, 자연을 아우르는 인격적 만남에 기초하여 자신, 타인, 자연과의 본질적 우대를 통해 삶을 영위하는 것을 관계성이라 하였다. 서서평의 민족을 뛰어넘는 인격적 관계성을 통해 관계적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으며,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 타인과의 만남과 배려, 헌신을 통해 관계를 맺으며 치유하는 유아교육이 되어야 함을 깨달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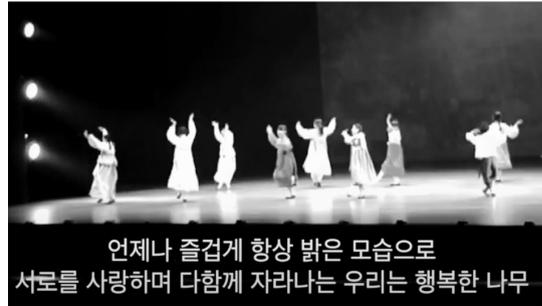
(창작 뮤지컬 2014.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중에서)

2) 실천적 돌봄이 있는 가르침

건강한 유아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유아교육은 초·중등교육

과는 달리 성취보다는 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에 집중하며 이를 위한 사랑과 돌봄의 상호작용과 관계를 중요시 한다.

서서평은 어린이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사랑으로 총 14명의 양딸과 양아들과 함께 생활하였으며, 그 사랑에는 예수님의 어린이를 고귀하게 여기는 사랑을 따르고자 하는 실천적 다짐과 고백을 품고 있었다.



(창작 뮤지컬 2014.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중에서)

서서평은 예수님의 가난한 자, 병자를 누구보다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따르며 거리의 노숙인들을 향한 사랑의 구제를 주저하지 않았다. 교회의 평화를 위한 도움과 헌신까지도 돕고자 하였다. 이러한 언행일치의 실천적 영적 돌봄의 삶으로 인해 서서평의 장례는 광주 지역 사회장으로 치르기도 하였다.

또한,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확장주일학교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는 도시지역 교회들의 주일학교 교사들이 교회가 없는 마을로 찾아가서 어린이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선교운동이었고 그 시작과 중심에는 서서평이 있었다. 확장주일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일학교 학생들, 농업실습학교 학생들, 송일학교·수피아여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까지 동원하여 훈련을 시킨 후 마을로 보내었고 아이들에게 선물과 상도 나누어주기도 하였다. 서서평은 정직에 대한 가르침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다. 이에 서서평 자신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직접 책임지려 하고, 한 사람보다 많은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며, 입장이 불리하더라도 정직함의 자세로 생활하였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엄격한 삶의 자세를 통해 가르침은 학생들의 비위를 맞추는 교육이 아닌 직업인으로서의 명확한 생활을 위한 가르침을 하고자 하였던 것이었다.

서서평교장은 학생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중략~ 진실, 정직, 성의, 시간 엄수 등 모든 학교 규칙이 너무나 치밀하고 엄격하다는 것이 이유였다.~중략~ 어느 교장이든 학생을 아끼고 사랑하

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이다.~중략~ 예수님도 광야에서 5천 무리를 먹이실 때 ‘떼로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안하셨다(막 6:40). 만일 이렇게 정돈하여 나눠 앉히지 않았으면, 12명의 제자가 다섯 개 또는 일곱 개의 빵을 그 많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골고루 배불리 나누어 먹일 수 있었을까?~중략~ “학생들 비위 맞추기 위한 교육이 아니예요”

(백춘성 2017. 85,87,90..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천천히 평온하게 중에서)

노상우(2003)는 교육활동과 교육경험이 생명활동이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채영숙·하연희(2016)는 생활의 실상이자 일상적인 체험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가르치는 일은 실제 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어린이의 몸과 마음을 돌보고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생명활동이어야 한다. 서서평선교사의 돌보는 가르침은 유아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같다. 오늘날 유아, 교사, 부모가 삶의 동반자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돌보는 실천적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

3)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교육공동체

서서평은 섬김의 삶을 위해 3가지를 실천하였다. 첫째, 자신을 위해 인색하기, 둘째, 타인을 위해 낭비하기, 셋째, 복음전도를 위해 부지런하기이다. 또한, 영원한 생명과 복을 얻는데 구제사역이 중요하다. 신약적 신념과 어린시절의 불우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난한 자와 약한 자의 울음에 귀를 기울이며 구제에 힘쓰고자 하였다. 더불어 13명의 양딸과 1명의 양아들을 혼신을 다해 책임감을 가지고 보살피는 것에 헌신하였다.

서서평은 김화남, 강계생, 오복희 등 기구한 삶을 사는 과부들을 환대하여 이일학교에 등록시켰다. (중략) 서서평의 이일학교는 고아나 과부들에게는 피난처가 되고 안락한 쉼을 누릴 수 있는 환대적 가정 역할도 했다. (중략) 일정한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봉급과 헌신적 희생을 통하여 일반 여성교육을 실시하였다.

(임희모, 2020 160,161. 서서평선교사의 통전적 영혼 구원 선교 중에서)

이처럼 서서평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바탕으로 남을 위해 희생한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며 헐벗고 굶주린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다.

김미진·김병만(2012)은 최근 유아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유아교육기관 구성원들이 공동체성을 형성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조화로운 바른 인격의 생명존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소양을 갖추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교육은 생태적 관계망 속에서 인간과 자연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명적 고리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귀이 여

기도 섬기는 관계성이 교육공동체에게 필요하다.

그러므로, 유아교육공동의 구성원인 유아, 부모, 교사가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며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나눔과 모심을 중시하는 삶의 동반자로서 상호작용하며 영적 심적 교류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섬김으로 가능하며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제순, 2003).

V. 논의

본 연구는 죽음 이후에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의 헌신적인 삶에도 큰 영향을 끼쳤던 서서평의 삶을 살펴봄에 이를 통해 유아교육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서서평의 여러 기록물 중에서 대표적 서적인 백춘성(2017)의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와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통해 서서평을 접하거나 알게 된 사람들의 생각을 살펴보면, 남서울은혜교회 홍정길 원로목사는 “가장 먼저 앞서서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를 몸 전체로, 섬김이 무엇인가를 삶 전체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라고 말하였으며, 前 대한간호협회회장 홍신영은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모든 이에게 큰 도움을 주리라 확신한다.”라고 하였다. 배우 김현숙은 “끝없는 질문과 도전을 던지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세상에 지치고 많이 힘든 분들도 보시면 너무나도 좋은 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말하였고, 아나운서 이정민은 “진짜 많이 부끄러웠어요. 더 가지려고 움켜쥐려고 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고 저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되 끝까지 다 주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서서평에 관한 여러 생각들을 통해 나타나는 서서평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는 이순신, 세종대왕 등 역사적으로 위대한 위인들 못지않게 각박한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충분한 가치의 내포와 중요한 감동의 시사점을 전하고 있다(이란, 지상선, 2017).

이에 시대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갈래의 길 중에서 예수님의 낮은 마음, 섬기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헌신하는 사랑 즉, 예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조선을 섬긴 작은 예수라고 불렸던 서서평의 삶을 고찰함으로써 유아교육적 함의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대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과 유아교육에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유아교사는 소명의식을 가진 교사의 자세가 필요하다. 서서평선교사가 보여준 헌신적인 삶은 기독교적 소명의식을 기초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아교사들도 교사로서의 본분과 소명을 명확히 인식하고, 단순히 직업의식을 넘어선 사명감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둘째, 유아교사는 지속적인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서서평선교사의 삶은 본인의 신앙적 이론의 실

천을 넘어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성장하기에 힘썼다. 그녀는 검소한 생활, 일관성 있는 가르침 등의 실천적 삶을 통해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갔다. 이를 위해 유아교사는 교육현장에서 자신의 태도와 교육방법을 자주 점검하고 반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유아교육은 사랑과 헌신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서서평선교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랑과 헌신은 유아교육공동체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유아교육은 유아의 발달상 교육 외 돌봄과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 유아와 유아를 양육하는 가정과 교육기관이 사랑과 헌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함께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때 건강하고 행복한 유아교육 환경이 구성될 것이다.

Seligman(2009)은 행복이론(authentic happiness)을 제시하며 즐거운 삶(pleasant life), 몰입하는 삶(engaged life), 의미 있는 삶(meaning life)이 행복의 요소라 하였다. 이 세 요소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충만한 삶(full life)이 실현된다고 하였다.

또한, 질 높은 배움이 일어나는 배움과 가르침의 공동체를 위해서는 믿음과 관심의 자양분과 어린이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필요하다(佐藤学, 2014). 즉, 서서평선교사의 삶을 통해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 배려하고 신뢰하는 동시에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에서 ‘우리’라고 인식하며 정을 나누고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유아교육 현장이 돌봄과 배움이 살아있도록 생명성을 회복시키고 유아교육기관이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선을 섬긴 선교사 서서평의 삶과 같은 사랑과 헌신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서서평의 삶은 몸과 마음의 치유, 돌봄이 있는 가르침, 섬김의 교육공동체의 유아교육적 함의를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현대사회의 경쟁과 갈등, 불안함과 불확실성 특히, 초저출산 문제 등 여러 당면한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의 많은 구성원들이 무력감, 상호 불신, 갈등, 소외 등 비생명적인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아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전달되길 바란다. 또한, 본 연구가 유아교육현장이 보듬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사회가 더욱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랑과 헌신, 섬김이 있는 살맛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비록 본 연구는 서서평선교사의 삶을 생애사적으로 재조명하여 유아교육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머물렀으나, 앞으로 이를 넘어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와 기독교 유아교육에의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제안하며 다음에 제시한 서서평선교사의 맹세를 통해 교육에 적용점을 숙고하여 진정한 섬김과 회복이 있길 소망한다.

“나는 주의 앞과 증인 앞에서 4가지 조건을 맹세하나이다.

1. 청결한 마음과 진실한 뜻으로 직무를 행하며

2. 약이 해 있는 줄 알고는 자기나 다른 사람에게 복용케 하거나 시술치 아니하며
3. 근면하여 본직으로 고귀한 위(位)에 일치케 하며 병인과 자기만 아는 바 병인의 신분
해로운 일체사는 구외(口外)에 내지 아니하며
4. 충심으로 의사를 보조하며 자기 담당한 병인에게 마음과 몸을 다하기로 함

(백춘성 2017. 7. 8.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증에서)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정희 (2022). 서서평 선교사의 윤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청교도적 윤리. **신학과 사회**, 36(2), 207-236.
- 고제순 (2003). “생명의 사랑학”으로서의 철학. **철학연구**, 85, 1-22.
- 권미량·하연희 (2014). 유아교육기관의 부모와 교사의 관계성 탐색. **유아교육연구**, 34(4), 281-302.
- 김기용 (2020). 서서평의 사회선교로 본 상황화 선교와 한국교회. **선교와 신학**, 50, 131-158.
- 김미진·김병만 (2012). 생태유아교육현장에서 경험하는 유아교사의 행복감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생태 유아교육연구**, 11(12), 29-55.
- 김새은 (2012). 해직 언론인에 대한 생애사적 접근 연구: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 언론학보**, 56(3), 292-319.
- 김윤자 (2016). **Clara Howard(허길래)가 한국 유아교육에 미친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 김은주 (2015). 서서평(Elizabeth J. Shepping)의 교육사역 이해와 기독교교육에 대한 함의. **신학과 사회**, 29(2), 45-90.
- 김인자 역 (2009).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 Seligman, M. (2004). *Authentic happiness :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 안양: 물푸레.
- 김혜정 (2020). 기독교 여성 생활사 공동기록(15) 선교, 교육, 봉사에 일생을 바친 서서평 선교사. **새가정**, 67, 25-29.
- 민성은·최성호·김영천 (2017). 생애사 연구의 개념적 모형에 대한 이론적 탐색. **교육문화연구**, 23(1), 465-500.
- 박형국 (2017). 인간다움에 대한 신학의 성찰: 서서평과 칼 바르트의 유산. **선교와 신학**, (43), 211-240.
- 백춘성 (2017).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서울: 두란노.
- 손우영 역 (2014).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 배움이 있는 수업 만들기**. 佐藤学 (2000). *授業を變える學校が變わる*. 서울: 에듀니티.
- 송치숙·박종배 (2019). 분리와 통합의 측면에서 본 근대 이후 한국 유아교육과 보육의 역사. **교육사학연구**, 29(1), 31-52.
- 양국주 (2012).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엘리제 쉐핑 이야기**. 서울: Serving the People.
- 양국주 (2016). **그대 행복한가요?: 행복을 잃고 살아가는 바보들에게 살아가는 서서평의 편지**. 서울: Serving the People.
- 양참상 (2012). **조선을 섬긴 행복 :서서평의 사랑과 인생**. 서울: Serving the People.
- 오주철 (2023). 초기 개신교선교사들의 교육이 한국 근현대화에 끼친 영향. **한국학논집**, 90, 41-78.
- 윤매옥 (2016). 일제강점기 서서평 간호선교사의 삶과 간호. **문화기술의 융합**, 2(1), 71-78.
- 윤매옥 (2017). 한국간호의 선구자 엘리자베스 쉐핑(Elizabeth J. Shepping, R. N.)의 간호선교. **문화기술**

- 의 융합, 3(4), 107-115.
- 이란·지상선 (2017). 이웃사랑과 자기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본 <서서평>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신앙과 학문**, 22(4), 161-196.
- 이상규 (2012). 기독교는 한국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부경교회사연구**, 37, 21-32.
- 이상금 (1987). **한국근대유치원교육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윤진 (2006). **일제하 유아보육사 연구**. 서울: 혜안.
- 이혜숙 (2016).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서서평(Elizabeth Johanna Shepping)의 전기적 생애사 연구. **신학과 사회**, 30(4), 431-476.
- 임순재 (2012). **출판인 나춘호의 전기적 생애사 연구: 아동도서 출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Leem, S. J. (2012). *Research on biographic life history of editor Chun Ho Na*. Seoul, Korea: Chung-Ang University, .
- 임재택 (2003). 가르치지 않는 유아교육. **생태유아교육연구**, 2(1), 1-20.
- 임희모 (2017). **서서평 예수를 살다**. 서울: 케노시스.
- 임희모 (2019). 토착화 선교사 서서평(Elisabeth J. Shepping)의 사역. **선교와 신학**, (48), 335-366.
- 임희모 (2020). 서서평 선교사의 생명살림의 하나님 나라 선교 - 섬김의 영성과 주변부인들의 변혁 선교-. **대학과 선교**, (46), 173-203.
- 조혜경 (2018). 서서평 선교사의 간호사역의 특성. **선교신학**, 51, 212-234
- 채영숙·하연희 (2016). 생태유아교육 거점유치원 운영에 나타나는 변화의 의미. **생태유아교육연구**, 15(3), 149-173.
- 채영숙·하연희·권미랑 (2020). 생태유아교육기관에서 경험하는 공동체적 관계성의 의미. **생태유아교육연구**, 19(1), 61-90.
- 황문수 역 (2019). **사랑의 기술**. Fromm, E. (1976). *The Art of Loving*. 서울: 문예출판사.
- King, M. L. (2003). *A Testament of Hope*. CA: Harperone.
- Miller, R. L. (2000). *Researching life stories and family histories*. CA: Sage Publications.
- Schweppe, C. (2003). *Qualitative forschung in der Sozialpadagogik*. Opladen.
- 뉴스앤조이 (2012). “조선의 데레사, 서서평을 기억하다.”.(2024. 10.20.).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7230>

조선을 섬긴 서서평선교사의 삶과 유아교육적 함의

The Lif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Implications of Seo, Seo-Pyeong Missionary who Served Joseon

하연희 (고신대학교)

김초롱 (고신대학교)

정병탁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권미량 (고신대학교)(교신저자)

논문초록

본 연구는 1912년 간호선교사로 조선에 파송되어 일생을 조선을 위해 헌신하며 사랑의 삶을 실천한 서서평(徐舒平, Elizabeth Johanna Shepping) 선교사의 삶을 전기적 생애사 연구를 통해 고찰함으로써 현대사회 유아교육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 영상, 사진 자료들의 귀납적 분석을 통하여 서서평 선교사의 생애를 고찰하였으며, 관계성이 회복되는 치유, 실천적 돌봄이 있는 가르침,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교육공동체라는 유아교육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인간성의 회복이 절실해지는 현대사회와 유아교육에 생명존중의 삶과 교육의 본질을 되돌아보고, 사랑과 섬김, 헌신이 있는 공동체성의 회복으로 더불어 함께 행복한 유아교육현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울림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서서평, 선교사, 사랑, 섬김, 헌신, 공동체, 유아교육

한국판 단축형 하나님 이미지 척도 개발 연구*

Development of Korean Brief Version of God's Image Scale

심정연 (Jung Yeon Shim)**

김준 (Jun Kim)(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the Korean Brief Version of God's Image Scale (KBGIS). To achieve this research goal, the study validated Lawrence's God's Image Scale by conducting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During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ive factors (Answering, Accepting, Benevolent, Presenting, and Nurturing God) were identified through parallel analysis, in comparison to the six factors of the original God's Image Scale. In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the five-factor model demonstrated a proper model fit when compared to an alternative model. Furthermore, the KBGIS exhibited convergent validity by confirming its correlation with spiritual well-being. Moreover, it appropriately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iginal scale. Based on these findings, suggestions were made for utilizing the God Image Scale in biblical counseling.

Key Words: Korean brief version of God's image scale(KBGIS), image of God, validation, Christian spirituality, biblical counseling

* 2024년 11월 4일 접수, 12월 2일 최종수정, 12월 8일 게재확정

본 논문은 총신대학교 심정연의 박사학위논문(2017년 2월, 지도교수:김준)을 요약 및 재구성한 논문임.

** 송실사이버대학교(Korea Soongsil Cyber University) 크리스천 리더십 학과 강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30길 23. jungyeonshim@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교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학촌로 110. jkim@csu.ac.kr.

I. 서론

특정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는 경험적 연구에서 그 개념 연구의 장을 연다. 척도를 통해 특정 현상을 개념화하고 수치화하여, 경험 안의 영향력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척도의 역할은 성경적 상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척도가 개발될 경우, 성경적 상담의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신앙적 자원들의 역할과 영향력을 상담과 연구에서 탐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적 상담의 사례 개념화 단계에서도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탐색할 때, 신앙의 자원과 역량을 평가하여 상담자가 집중력있게 개입하도록 도울 수 있다.

특히 복잡적이고 동시적인 관계를 측정하는 연구방법들의 개발되고 연구 참여자의 참여의 질을 강조하면서 단축형 척도 개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연구들의 연구 방법은 상관, 회귀 분석 방법을 넘어, 역동적이고 복잡적이며, 동시적인 다중매개효과를 측정하는 방법들로 개발되고 있으며, 여러 시점에서 장기적으로 변수들의 관계성을 측정하는 종단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배병렬, 2009: 412, 486, 499).

이 연구들은 다양한 변수들을 동시에 측정하고, 장기적으로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최소한의 문항으로 구성된 간명한 척도가 요구된다. 동시에 연구참여자의 최적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주요 척도들의 단축형 척도들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김지현 외, 2012. 김지현, 2016: 130 ; Veilleux, et al., 2024: 12586 ; Hung et al, 2022: 886).

본 연구는 성경적 상담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총체인 하나님 이미지 척도를 단축형으로 개발하려고 한다. 성경적 상담에 사용될 단축형으로 선택될 척도는 기존에 타당화가 확인되고, 성경적이고 포괄적인 하나님 이미지를 담고 있는 척도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가장 포괄적이며 성경적인 하나님 이미지를 담고 있고, 국내외 유수의 여러 선행 연구에서 타당도가 확인되었은 Lawrence(1997)의 하나님 이미지 척도를 단축형으로 개발한다. 또한 본 연구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타당화하는 척도를 개발한다. 왜냐하면 본 연구가 정의하는 성경적 하나님 이미지는 기독교인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구축되는 영적 지식이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심정연, 2016: 195-201).

하나님 이미지, 즉 개인이 하나님에 대해 갖는 총체적 지식은 다양한 형태의 정신병리 및 개인의 내적 자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입증되면서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하나님의 이미지는 우울증, 중독과 같은 다양한 정신병리적 증상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 및 심리적 안녕감, 회복탄력성, 자존감과 같은 심리적 자원과도 관련이 있다(김화자, 2013: 114 ; 황혜리·김경탁, 2005: 279-280 ; 황혜리·김지윤, 2012: 274 ; 황혜리·류수정, 2006: 200-201 ; Benson & Spilka, 1973: 301 ; Hart & Wang, 2024 ; Kézdy et al., 2013: 212 ; Nguyen & Malette, 2015: 275-277).

동시에, 성경적 하나님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내담자의 주호소문제의 개입 및 회복의 중요한 변화지점이기에 내담자의 하나님 이미지를 진단하는 것은 성경적 상담의 중요한 단계이다(심정연, 2016; 205-213). 동시에 하나님 이미지는 기독교 영성의 주요 핵심 요소로서 다양한 성경적 상담 연구에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여러 해를 거듭하여 하나님 이미지와 정신 병리 및 개인의 자원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종단연구, 여러 변수들의 영향력을 동시에 연구하는 구조방정식 연구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간명한 하나님 이미지 척도가 필요하다. 이런 필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척도들은 내용이 단편적이거나, 편향되어 있어 총체적이고 성경적인 하나님 이미지를 측정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척도의 문항 수가 많아 성경적 상담의 임상 현장에서 진단에 활용되거나, 종단, 구조방정식 연구에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 이미지를 측정했던 Lawrence(1997)의 하나님 이미지 척도를 한국판 단축형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하여, 성경적 상담의 임상과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

1. 하나님 이미지의 정의와 발달

이미지의 사전적 정의는 특정한 정신적 개념, 인상을 의미한다(Merriam Webster, 2024). 이 관점에서 하나님 이미지는 한 개인이 지닌 하나님에 대한 개념, 인상, 그림, 표상을 의미한다.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특정 대상의 표상은 이름, 일화, 에피소드, 기억 등을 기반으로 형성되는데 (이정모 외, 2009: 14-15) 이를 하나님 이미지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의 에피소드, 하나님에 대한 감정, 관계 경험 등으로 하나님 이미지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심정연, 2016: 187-188). 대상관계이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는 부모와 같은 중요한 인물과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다. Rizzuto(2000: 333)는 유아기 단계에서 부모, 특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하나님의 이미지 발달에 초점을 맞추었다. Rizzuto는 개인의 하나님 이미지를 부모의 이미지가 투사되었거나, 상상 속에서 자신에게 위로를 주는 중간대상으로 보았다. 그녀는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들의 사례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개인의 정신 역동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평생에 걸쳐 부모 및 친구와 같은 중요한 타인들에 의해 형성되고 재구성된다고 설명했다.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인지심리학과 대상관계이론을 평가하면서, 심정연(2016, 190-213)은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적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Rizzuto의 하나님 이미지 연구는 사례 연구를 통해 정신병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이미지의 역동을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진단한 부분과 부모와의 경험에서 형성되는 하나님 이미지를 설명하고, 하나님을 중간대상화하는 자기중심적인 죄의 현상을 설명했다는 면에서 성경적 상담에 통찰을 주는 이론의 의의가 있다(심정연, 2016, 190-213).

그러나 심정연은 하나님 이미지가 부모와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Rizzuto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이론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첫째, 영적 차원을 간과하고 인지적 차원만을 고려한 점, 둘째, 하나님의 이미지를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반영하지 않은 점, 셋째, 하나님 이미지를 자신을 위로하는 중간대상으로 만들어 실체이신 하나님을 환원시킨 부분,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하나님 이미지가 아닌 특정 하나님 이미지 고착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심정연(2016: 195-202)은 영적 지식으로서의 하나님 이미지를 강조하며 그 형성과정의 독특성을 기존 심리 이론과 차별하여 주목하였다. 특히 Calvin의 인간이 신을 알아가며 인식하는 신인식론(이오갑, 2006: 60, 64)을 기반으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서의 하나님 이미지와, 하나님 이미지 형성 과정에서의 영적 차원을 강조하였다. Calvin(2011: 79-84)은 개혁주의 관점에서 신인식론을 강조하였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적 지식으로서 인간 스스로가 인지적인 자력으로 습득하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얻는 지식이라고 강조하였다. 하나님 지식의 집약으로서 하나님 이미지 역시, 성경적 관점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얻는 지식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예배를 통해서만 형성되는 지식이다. 특히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아는 지식이다(이오갑, 2006: 59-86). 또한 궁극적인 하나님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즉 복음을 기반으로 형성되고 통합되어야 한다(심정연, 2016: 198-202).

2. 성경적 상담에서 하나님 이미지의 역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집약인 하나님 이미지는 성경적 상담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적 자원 및 역량 뿐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와도 긴밀한 연관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이미지는 한 개인의 긍정적 자원과 역량 뿐 아니라, 부정적인 병리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 개인이 지닌 긍정적 하나님 이미지는 한 개인의 자존감과 영적, 심리적 안녕감, 회복 탄력성 등을 예측했다. 반면, 개인이 지닌 부정적 하나님 이미지는 중독, 우울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악화시켰다. 긍정적인 하나님 이미지는 높은 자존감과 연관되고, 심리적 안녕감과 영적 안녕감, 회복탄력성을 일으켰다(황혜리·김경탁, 2005: 279-280 ; 황혜리·김지윤, 2012: 274 ; Benson & Spilka, 1973: 301 ; Nguyen & Malette, 2015: 275-277). 동시에 긍정적인 하나님 이미지는 낮은 정신병리와 연관되고, 보호요인으로 작용했다. 수용하시고 도우시는 긍정적인 하나님 이미지를 가질수록 우울 정도가 낮았고(황혜리·류수정, 2006: 200-201), 긍정적인 하나님 이미지는 중독으로부터 보호요인이 되었다(Kézdy et al., 2013: 212).

선행연구들은 하나님 이미지가 성경적 상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하는 개인의 내적 자원과 역량, 정신병리의 이슈와 모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들은 성경적 상담의 목표와 결과,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이미지의 개입과 진단의 중요성을 시사해준다. 또한 정신병리에 미치는 하나님 이미지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들은, 정신병리의 영적 차원에 대한 역동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도록 돕는다. 궁극적으로 성경적 관점의 정신병리학 연구에 경험적인 이론과 통찰을 제시한다.

이렇게 하나님 이미지는 성경적 상담에서 내담자들의 정신병리 뿐 아니라, 개인의 영적, 심리적 자원 및 역량과도 직결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척도의 긴 문항수로 인해, 연구방법의 개발로 가능하게 된 여러 역동을 동시에 파악하는 연구나 장기적으로 실행하는 종단 연구가 용이하지 않았다. 동시에 참여자들의 집중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단축형 척도가 필요하다. 이런 단축형 척도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의 타당화된 척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기존 하나님 이미지 척도들에 대한 분석과 한계점

하나님 이미지를 측정하는 기존 척도들은 개인의 하나님에 대한 인상, 감정, 행동, 그리고 특성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을 측정해왔다. 먼저, Bradshaw 등(2010: 137)이 제안한 하나님 이미지 축약 척도는 간결성 면에서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복잡한 하나님 이미지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척도는 '사랑하시는(loving) 하나님', '좋게 여기시는(approving) 하나님', '용서하시는(forgiving) 하나님', '멀리있는(remote) 하나님'과 같은 간단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한다. 많은 연구자들은 간편 척도를 사용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먼 하나님'과 같은 극단적인 두 가지 하나님 이미지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다.

다음으로, Gorsuch의 형용사 체크리스트는 하나님 이미지의 다양한 요소를 측정하지만, 단편적인 인상에만 집중하는 한계를 지닌다(Gorsuch, 1968: 58-60). 참가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느끼고 생각하는 형용사를 선택한다. 형용사를 선택하는 방식은 문장을 읽고 선택하는 것보다 쉽고 빠르며,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측정하는 데 유용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적 경험을 기반으로 한 총체적인 인지적 및 정서적 이미지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세 번째로, 네덜란드 하나님 이미지 설문지(Dutch Questionnaire God Image, DQGI)는 개인이 하나님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인식을 측정한다(Schaap-Jonker et al., 2008: 506-507). 이 척도는 3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감정적 및 인지적 차원을 측정한다. 감정적 차원에서 친밀감, 죄책감을 측정하거나, 하나님의 행동, 즉 하나님의 위로와 지지적인 행동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고 마지막으로 수동적인 하나님의 행동을 측정한다. 이런 감정, 인식에 대한 측정은 하나님에 대한 복잡다단한

이미지를 측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Lawrence 척도(1997)는 성경적 하나님 이미지의 다양한 측면을 총체적으로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이 척도는 Rizzuto(2000: 333)의 이론, 즉 하나님 이미지는 주요 인물들과의 관계적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Lawrence(1997: 214-216)의 하나님 이미지 항목들은 6가지 범주로 분류되었다. '임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느끼고 이해하는 바를 측정한다. '도전'은 하나님이 개인의 성장을 위해 관심을 보이는 정도를 의미한다. '수용'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으로서 개인을 받아들이는 정도를 측정한다. '영향력'은 개인이 기도 등의 다양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측정한다. '자비'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섭리'는 하나님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측정한다. Lawrence 척도는 성경적 하나님 이미지에 가장 유사한 척도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지속적으로 함께 하셨으며(출 13:21-22, 요 1:14, 행 1:7-8), 그들의 성장을 위해 도전하셨고(창 12:1, 출 12:40-42), 이스라엘 백성을 수용하셨으며(호 12:5-6), 그분의 자비를 나타내셨고(롬 5:7-8)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였다(단 4:35). Lawrence 척도는 성경적 하나님 이미지의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척도는 7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참가자들의 집중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김지현 외, 2011: 50), 연구의 비용 및 시간 효율성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다(김지현 외, 2016: 129).

종합적으로 위의 척도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하나님 이미지는 여러 복잡한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척도들은 '좋은' 또는 '나쁜'과 같은 극단적이고 단편적인 하나님 이미지만 측정한다는 한계가 있다(Bradshaw et al., 2010: 137). 따라서 기존의 척도들은 복잡한 하나님 이미지와 정신건강을 포함하는 실제 정신건강의 역동성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기존의 척도는 통계적 엄밀성이 부족하다. 기존 연구들은 요인 분석과 같은 엄격한 통계적 접근을 실행하지 않았다(Lawrence, 1997: 218-223). 이는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낮출 수 있다. 게다가, 다층 회귀 분석이나 구조 방정식 모델링과 같은 역동성을 탐구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최신 연구방법론을 활용하는 구조방정식과 장기간의 종단연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최소한의 항목으로 핵심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간명한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장 성경적인 하나님 이미지를 담고 있는 Lawrence (1997)의 척도를 단축형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

II. 연구방법

1. 탐색적 요인분석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단축 문항들을 도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단축 문항들이 타 집단에서도 갖는 타당도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하여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판 단축형 하나님 이미지 척도를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Lawrence의 하나님 이미지 척도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단축형 문항을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는 설문 참여에 동의한 20-30대 기독교인 남녀 성인 총 3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20대 초반으로, 신입생 46명, 2학년 108명, 3학년 103명, 4학년 45명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기독교인 20-30대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된 특징을 지닌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기독교 대학 및 교회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모든 참가자는 기독교인으로 확인되었다. 번안된 Lawrence 하나님 이미지 척도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2) 측정 척도

Lawrence의 하나님 이미지 척도

Lawrence의 하나님 이미지 척도는 임재, 도전, 수용, 자비, 영향, 섭리 등 6개의 차원으로 구성된 72 문항의 자기보고형 척도이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였다. 각 차원에서 최소 12점에서 최대 48점까지의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Lawrence, 1997: 214-216). Lawrence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임재 .96, 도전 .87, 수용 .91, 자비 .92, 영향 .95, 섭리 .95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전체적으로 .94였으며, 각 차원별로는 임재 .89, 도전 .63, 수용 .80, 자비 .66, 영향 .86, 섭리 .72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를 위해, 먼저 원척도 저자인 Lawrence로부터 한국형 타당화 척도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이후,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성경적 상담학 전공 박사 과정생과 영미권에서 학위를 한 박사과정생들이 각각 척도를 번안하였으며, 이를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신학과 성경적 상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교수와 함께 번안된 척도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3) 분석 과정

표본의 요인 분석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Kaiser-Meyer-Olkin(KMO) 지수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후 평행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요인 수를 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Direct Oblimin 회전을 적용한 주축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요인 구조를 탐색하였다. 적합한 문항을 추출하기 위해, 각 요인의 문항들을 1요인으로 고정하고, Oblimin 회전의 주축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공통성, 요인 부하량, 내용 타당도에 따라 최종 문항이 선정되었다.

2. 확인적 요인분석

(1) 연구 대상 및 절차

확인적 요인 분석은 새로운 표본으로 구성된 266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중 남성은 106명, 여성은 160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20대 초중반이었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기독교 대학과 교회에서 모집된 후 온라인 설문을 통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모든 참가자는 기독교인으로 확인되었다.

(2) 측정 척도

영적안녕감 척도

Paloutzian과 Ellison(1982: 224-237)의 영적 안녕감(Spiritual Well-Being Scale: SWB) 척도는 '종교적 안녕감'이라는 수직 차원과 '실존적 안녕감'이라는 수평 차원으로 구성된다. 종교적 안녕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친밀감과 만족감을 측정하며, 실존적 안녕감은 개인이 삶에서 느끼는 의미와 목적을 측정한다. 한국어판 영적 안녕감 척도는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요인 각각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박지아, 2003: 51-52) 이 척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6점(매우 그렇다)까지의 6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더 높은 영적 안녕감을 의미한다. SWB의 총점은 20점에서 120점 사이이며, 박지아 연구의 영적 안녕감 Cronbach's α 는 .91, 종교적 안녕감은 .90, 실존적 안녕감은 .8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영적 안녕감 Cronbach's α 는 .95, 종교적 안녕감 .92, 실존적 안녕감 .89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KBGIS는 Amos 21.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5요인, 4요인, 3요인 모델 간의 모형 적합도를 Comparative Fit Index(CFI)와 Tucker-Lewis Index (TLI), 간명성을 측정하는 절대적 지수인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모형 적합도의 기준은 CFI와 TLI 값이 .90 이상, RMSEA 값이 .10 이하일 때 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Hair et

al., 2010: 643). 신뢰도는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통해 3주 간격으로 하나님 이미지 점수를 측정하여 확인하였다. 수렴 타당도는 KBGIS와 영적 안녕감 점수 간의 상관관계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되었다.

III. 연구결과

1.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1) KMO 및 Bartlett 구형성 검정

먼저, 요인 분석의 적합성을 분석하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와 Bartlett 구형성 검정이 수행되었다. KMO 점수가 .70 이상이고 Bartlett 점수가 .05보다 낮을 때 구형성이 확인된다. Bartlett 점수가 .05 미만이면 변수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변수간 상관관계의 유의미성을 의미한다(김호정·허진, 2008). 본 연구에서 KMO 점수는 .70 이상(KMO = .711)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 점수는 유의미한 상관관계($p = .000$)가 나타나, 변수간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평행 분석

우선, 72문항으로 구성된 원본 척도에 대해 평행 분석을 수행하여 가장 적합한 요인 수를 확인하였다. 평행 분석은 실제 데이터의 고유값(eigenvalue) 점수를 100개의 무작위 데이터의 평균 고유값 점수 및 95% 백분위수 고유값과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요인 수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Fabrigar & Wegener, 2011; 115-117). 5요인은 실제 고유값(1.43)이 95% 백분위수 고유값(1.15)보다 크기 때문에 최적의 요인으로 선택되었다. 반면, 6요인은 실제 고유값(1.08)이 95% 백분위수 고유값(1.10)보다 낮아 선택되지 않았다. 또한, 5요인의 고유값은 각각 적절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총 분산의 58.25%를 설명하였다. 72문항에 대한 5요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 1번째와 2번째 요인은 총 72문항 중 47문항을 포함하는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요인 1: 26문항; 요인 2: 21문항; 요인 3: 7문항; 요인 4: 13문항; 요인 5: 5문항). 단축형 척도 개발 연구의 절차를 따르기 위해, 주축 요인 분석이 Direct Oblimin 회전을 사용하여 하나의 요인을 고정한 상태에서 수행되었다. 그 후, 최종 문항은 공통성, 요인부하량, 내용 타당성을 바탕으로 선정되었다(김지현 외, 2016: 130-132).

KBGIS는 Cronbach α 값이 .6 이상일 때 높은 내적 일관성을 의미하기 때문에(채서일, 2011: 182) 높은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총 Cronbach α 는 높았고(Total = .86), KBGIS의 각 하위 요인의 Cronbach α 값 또한 모두 .6 이상으로 확인되었다(응답하시는 하나님 = .78, 수용하시는 하나님 = .72, 자비하신 하나님 = .66). 특히,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Cronbach α 값은 모두 .8 이

상으로 나타났다(임재하시는 하나님 = .81, 양육하시는 하나님 = .86). 따라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예비 문항은 5개 요인(응답하시는 하나님, 수용하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요인부하량 (Factor Loading)

<표 1> 요인부하량

요인	문항	요인부하량				
		1요인	2요인	3요인	4요인	5요인
1요인	14	.753	-.098	.018	-.172	.146
	47	.659	-.006	.025	-.083	.139
	8	.603	.092	.066	.196	.059
	6	.423	.211	-.021	-.386	-.109
2요인	34	-.023	.749	.042	-.060	.058
	3	.131	.636	.105	-.073	.009
	9	-.040	.608	-.074	.045	-.003
3요인	46	-.087	.106	.664	-.315	-.280
	42	.159	-.117	.645	.067	.183
	22	.061	-.006	.628	.191	.249
4요인	70	-.133	.043	.147	-.689	.156
	18	.177	.088	-.076	-.667	.105
	40	-.018	.165	.001	-.630	.121
	24	.263	.195	-.063	-.466	-.035
5요인	23	.024	.113	.085	-.051	.816
	35	.221	.017	-.010	-.123	.626
	68	.143	-.086	.068	-.249	.614

주. 요인추출방법: 주축요인추출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오블리민

요인부하량을 기반으로 도출된 최종 예비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2> 최종 예비 문항

구분	문항
수용	1. 이따금 나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지 불안하다. R
응답	2. 하나님은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신다. R
응답	3.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나의 행할 바를 듣는다.
수용	4. 나는 가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 느낀다. R
응답	5. 나는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다.
임재	6.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 R
자비	7. 나는 하나님이 무신론자들까지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양육	8.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며 자라게 하신다.
임재	9. 기도할 때 조차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느끼지 못한다. R
수용	10. 나는 종종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지 걱정된다. R
양육	11. 나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임재	12.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해도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다. R
자비	13. 하나님은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자비	14. 나는 하나님이 특정 사람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R
응답	15. 하나님은 거의 항상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양육	16. 하나님은 내가 인생의 여정에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용기를 주시고 응원하신다.
임재	17.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신다. R

(R)은 역채점 문항 응답 = 응답하시는 하나님, 수용 = 수용하시는 하나님, 자비 = 자비하신 하나님, 임재 = 임재하시는 하나님, 양육 = 양육하시는 하나님

2.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1) 3요인, 4요인, 5요인 모형 비교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3, 4, 5요인 모형의 적합도를 서로 비교하였다. 연구 모형은 탐색적 요인 분석에 의해 확인된 5요인 모형이었으며, 3요인 및 4요인 모형은 대체 모형으로 선정되었다. 모형 적합

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CFI와 TLI 값이 .90 이상, RMSEA 값이 .10 이하일 때 적합한 것으로 간주된다 (Hair et al., 2010: 643).

적합도 지수는 5요인 모형이 다른 대체 모형들보다 가장 적합한 모형임을 나타냈다(표2: $\chi^2 = 182.90$, $df = 109$, CFI = .94, TLI = .93, RMSEA = .05). 또한, 연구 모형과 모든 대체 모형들의 AIC 값은 2 이상으로, 모든 모형이 통계적으로 구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IC 값 차이가 2 이상이면 별개의 모형이라는 것을 의미하며(Jöreskog, 1993: 294-316), AIC 값이 낮을수록 모형의 적합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5요인 모형의 AIC 값이 가장 낮아(AIC = 270.900) 최적의 적합도를 가진 모형으로 선택되었다 (Jöreskog, 1993: 294-316).

<표3> 연구모형과 대안모형들의 모형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CFI	TLI	RMSEA	AIC
5요인 모형 (직접오블리민)	182.900	109	.943	.929	.051	270.900
4요인 모형	263.284	113	.885	.861	.071	343.284
3요인 모형	273.831	116	.879	.858	.072	347.831

(2) 측정 모델의 신뢰도

요인들의 집중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합성신뢰도(CR: Composite Reliability),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AVE 및 CR 점수는 Fornell과 Larcker의 공식에 따라 계산되었다(Fornell & Larcker, 1981; 39-50). CR 값이 .70 이상, AVE 값이 .50 이상이면 높은 집중타당도를 나타낸다. 확인적 요인 분석(CFA)은 AMOS 21.0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CFA에서 모든 항목의 요인 부하량은 .38에서 .77 사이였다. 모든 항목의 요인 부하량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3)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사-재검사는 3주 간격으로 시행되었다($N = 34$). 5개 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중간에서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40에서 .77 사이의 범위로 나타났다($p < .001$). 검사-재검사 신뢰도 값은 응답하시는 하나님($r = .77, p < .01$), 수용하시는 하나님($r = .59, p < .01$), 자비하신 하나님($r = .40, p < .01$), 임재하시는 하나님($r = .57, p < .01$), 양육하시는 하나님($r = .71, p < .01$)으로 모두 유의미하였다.

(4) 상관관계 및 수렴 타당도

수렴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KBGIS와 영적 안녕감(SWB)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KBGIS와 SWB 점수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r = .46 \sim .73, p < .01$)가 입증되었다. 5개 요인 간 상관관계는 .26에서 .68 사이로 나타났고($p < .001$).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응답하시는 하나님 간의 상관관계($r = .60, p < .01$),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양육하시는 하나님 간의 상관관계($r = .68, p < .01$)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원칙도와의 상관관계는 적절하게 높은 상관관계 ($r = .40 \sim .67, p < .01$)로 나타났다.

(5) 최종 예비 문항에서 측정하는 성경의 하나님 이미지

<표 4> 최종 예비 문항에서 측정하는 성경의 하나님 이미지

구분	문항	성경의 하나님
응답	2. 하나님은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신다. R	
	3.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나의 행할 바를 듣는다.	렘 33:2-3, 시 34:4, 신 11:14, 롬 1:2-4
	5. 나는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다.	
	15. 하나님은 거의 항상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수용	1. 이따금 나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지 불안하다. R	
	4. 나는 가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 느낀다. R	호 12:5-6, 마 11: 28
	10. 나는 종종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지 걱정된다. R	
자비	7. 나는 하나님이 무신론자들까지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13. 하나님은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롬 5:7-8
	14. 나는 하나님이 특정 사람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R	
임재	6.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 R	
	9. 기도할 때 조차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느끼지 못한다. R	출 13:21-22, 요 1:14 행 1:7-8
	12.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해도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다. R	고전 3:16, 엡 2:21-22
	17.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신다. R	
양육	8.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며 자라게 하신다.	
	11. 나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시 23:1-2, 시 32-8, 요 10:11-15
	16. 하나님은 내가 인생의 여정에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용기를 주시고 응원하신다.	

최종 예비 문항 (R)은 역채점 문항 응답 = 응답하시는 하나님, 수용 = 수용하시는 하나님, 자비 = 자비하신 하나님, 임재 = 임재하시는 하나님, 양육 = 양육하시는 하나님

IV. 결론 및 토의

본 연구는 Lawrence의 하나님 이미지 척도의 한국판 단축형 버전을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 Lawrence의 척도는 다른 척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인 인상이나 하나님에 대한 개인의 감정을 측정하는 것과 달리, 성경적 하나님과 관련된 가장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인 하나님 이미지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과 같은 엄격한 통계 방법론을 사용하여 한국판 단축형 하나님의 이미지 척도를 개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Lawrence의 하나님 이미지 척도에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5요인 구조가 발견된 것이다. 이 결과는 Lawrence의 하나님 이미지 척도에서 제시된 6요인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엄격한 분석방법인 평행분석을 사용한 결과 5요인 구조가 확인되었다. 이후, 주축 요인 분석과 Direct Oblimin 회전 분석을 통해 1개 요인으로 데이터를 고정하여 분석한 후, 공통성, 요인 부하량 및 내용 타당성을 기준으로 17개의 최종 문항이 선정되었다(김지현 외, 2016: 130-132)

새롭게 발견된 두 요인은 문항의 내용을 고려하여 명명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문항은 총 17문항이며, 각 요인은 응답하시는 하나님(4문항), 수용하시는 하나님(3문항), 자비하신 하나님(3문항), 임재하시는 하나님(4문항), 양육하시는 하나님(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였으며, Cronbach α 값이 .6 이상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 분석(N=266)에서도 17문항으로 구성된 5요인 모형이 적절한 적합도를 나타냈다(CFI = .943, TLI = .929, RMSEA < .08).

모든 요인의 평균 분산 추출값(AVE)은 .5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수용하시는 하나님 요인은 AVE = .48로 약간 낮았다. 그러나 수용하시는 하나님은 높은 판별 타당성과 적절한 구성 신뢰도(CR=.72)를 가지고 있으며, 문항의 내용이 '수용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AVE 값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AVE값이 0.5보다 적지만 측정모델의 신뢰도에 적합하면 수용한다(Matzler, Bidmon & Grabner-Kräuter, 2006: 329-331 ; Hansen & Silseth, 2008: 211 ; 김기윤, 2015: 33).

또한, 새롭게 개발된 척도는 원척도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이는 원척도와 새척도 간의 적절한 상관관계($r = .40\sim.67$)를 통해 입증되었다. 단축형 척도가 원척도를 얼마나 잘 반영하느냐에 따라 그 유용성이 결정된다(Choi, Fuqua & Newman, 2009: 703-704). 검사-재검사 신뢰도 역시 적절하게 높은 상관관계($r = .40\sim.77$)를 보여 새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미지와 영적 안녕감 간의 수렴 타당도도 역시 적절하게 높은 상관관계($r = .46\sim.73$)를 보여주어 확인되었다.

또한, KBGIS의 5개 요인은 모두 성경적 하나님 이미지를 반영하였다. 성경 속 하나님의 이미지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드러나며, 특히 창조적이고 구속적인 사역을 통해 나타난다(심정연, 2016: 196-

201 ; Packer, 2011: 78). 아버지, 토기장이, 구원자, 창조자와 같은 이미지가 제시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인간과 구별된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심정연, 2016: 197 Grudem, 2004: 121 ; Welch, 1994: 32). 궁극적으로 성경적 하나님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드러난다(심정연, 2016: 198-201 ; Keller, 2013: 262-264 ; Packer, 2011: 78).

KBGIS의 5개 요인은 아래와 같이 성경적 하나님 이미지를 설명한다. 첫 번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으며(렘 33:2-3, 시 34:4), 때가 되면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시 103:5, 신 11:14).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을 통해 응답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롬 1:2-4).

두 번째로, 수용하시는 하나님 이미지이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칭의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Hoekma, 2012: 153).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속적으로 부르셨으며(호 12:5-6), 예수님도 "오라"고 말씀하셨다(마 11:28). 신구약에서 모두 하나님은 인간을 수용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세 번째로,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자비는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일반은총을 통해 나타난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롬 5:7-8).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피조물, 특히 성도들에게 드러난다.

네 번째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도 성경에 나타난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그의 임재와 함께하심을 보여주셨으며(출 13:21-22),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하셨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 후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셨으며(요 1:14, 행 1:7-8), 성도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고전 3:16, 엡 2:21-22).

마지막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시다(시 23:1-2; 32:8).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선한 목자이며, 그의 양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다(요 10:11-15). KBGIS는 성경적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다양한 성경적 하나님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KBGIS는 이전 연구들에서 제시된 이분법적 하나님의 이미지와는 달리, 좀 더 복잡하고 총체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을 열어준다. 이는 연구자들이 보다 현실적이고 통합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측정함으로써 영적 및 정신적 건강의 역동성을 탐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KBGIS는 엄격한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척도로서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KBGIS는 간명성으로 인해 정신건강에서 하나님의 이미지의 역할을 탐색할 때, 다중 매개 및 조절 역할을 하는 복잡한 영적 역동성을 측정하도록 도와 연구의 폭을 넓혀줄 것이다.

KBGIS는 성경적 상담에서 하나님 이미지의 진단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KBGIS를 통해 내담자의

하나님과의 긍정적인 관계경험과 같은 영적 자원을 탐색하여, 치료를 촉진하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상담자는 내담자가 왜곡된 하나님 이미지로 인해 심리적, 영적으로 고통을 겪을 때, 체계적 진단 도구 중 하나로서 내담자의 하나님 이미지를 평가할 수 있다. 셋째로, KBGIS는 치료 과정에서 내담자의 하나님 이미지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돕고 이는 기독교 영성의 변화를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참여 대상이 20대와 30대의 한국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한계를 지닌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과 연령대를 포함하여 연구를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다섯 가지 영역의 하나님 이미지를 측정 한계가 있기에 후속 연구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많은 성경의 하나님 이미지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KBGIS는 그 유용성과 간결성때문에 매개 및 조절 변수와 같은 다중 변수를 동시에 분석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KBGIS는 간결성을 바탕으로 다년간의 종단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독교 신앙과 정신건강 간의 장기적인 관계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김광열·곽철근 역 (2004) **성경 핵심교리**. Grudem, W. (1999). *Bible Doctrine*, 서울: CLC.
- 김기윤 (2015). 스마트폰의 ‘스마트한 이용’이란 무엇인가: 스마트한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을 중심으로: 스마트한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을 중심으로. **미디어 경제와 문화**, 13(4), 7-59.
- 김난예 (2002). 하나님 표상 (表象)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40(4), 47-69.
- 김지현·김복환·하문선 (2011). 간편형 한국어 BFI (Big Five Inventory) 타당화 연구. **인간이해**, 32(1), 47-65.
- 김지현·하문선·김복환·하정혜·김현정 (2016). 한국 단축형 성역할 척도 (KSRI-SF; Korean Sex Role Inventory-Short Form)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17(1), 125-147.
- 김화자 (2013). 하나님 이미지와 수치심이 심리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 **복음과 상담**, 20, 94-124.
- 김호정·허진 (2008). **한글 SPSS WIN 14.0 통계분석 및 해설**. 서울: 삼영사.
- 배병렬 (2009). **Amos 17.0 구조방정식 모델링**. 서울: 청람.
- 배병훈·이동귀·함경애 (2015). Rasch 모형을 이용한 한국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단축형(SDS-9)의 타당화. **상담학 연구**, 16(6), 177-197.
- 원광연 역 (2011). **기독교 강요 제1권**. Calvin, J. (1559).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경기도: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이용중 역 (2012). **개혁주의 인간론**. Hoekema, A. A. (1986). *Created in God's Image*,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2.
- 이재훈·유영권·안석모·황영훈·반신환·정희성 역 (2000). **살아있는 신의 탄생-정신분석학적 연구-**. Rizzuto, A. M. (1979). *The Birth of the Living God: A Psychoanalytic Study*. 서울: 한국심리치료 연구소.
- 이정모·강은주·김민식·감기택·김정오 (2009). **인지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9.
- 전요섭·배은주 (2005). 청소년의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와의 관계-기독교청소년을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5, 321-346.
- 정성목 역 (2013). **왕의 십자가**. Keller, T. (2011) *King's Cross*. 서울: 두란노.
- 정옥배 역 (2008). **하나님을 아는 지식**. Packer, J. I. (1973). *Knowing God*. 경기도: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황혜리·김경탁 (2005). 기독교 대학생의 하나님 이미지와 자존감의 관계-H 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6(1), 275-286.
- 황혜리·김지윤 (2012). 기독교 상담에서 하나님 이미지의 중요성 연구: 기독 대학생의 하나님 이미지와

- 영적 안녕,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3(1), 263-286.
- 황혜리·류수정 (2006). 기독교 대학생의 하나님 이미지와 우울과의 관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1, 191-212.
- Benson, P. & Spilka, B. (1973). God Image as a function of self-esteem and locus of control.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2, 297-310.
- Choi, N., Fuqua, D. R. & Newman, J. L. (2009).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Studies of the structure of the Bem Sex Role Inventory Short Form with two divergent Sampl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9(4), 696-705.
- Fabrigar L. R. & Wegener D. T. (201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UK: Oxford University Press.
- Gorsuch, R. L. (1968). The Conceptualization of God as seen in adjective rating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7(1), 56-64.
- Hair, J. F., Black, W. C., Anderson, R. E. & Tatham, R. L.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5th Eds.). New Jersey: Prentice Hall,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7th Eds.). NY: Pearson.
- Hung, S. P., Liao, Y. H., Eccleston, C. & Ku, L. J. E. (2022). Developing a shortened version of the dementia knowledge assessment scale (DKAS-TC) with a sample in Taiwan: an item response theory approach. *BMC Geriatrics*, 22(1), 886.
- Jöreskog, K. G. (1993).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Bollen, K. A. & Long, J. S. (Ed.) (1993).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294-316, Sage, Newbury Park.
- Kézdy, A., Martos, T. & Robu, M. (2013). God image and attachment to God in work addiction risk. *Studia Psychologica*, 55(3). 209-214.
- Lawrence, R. T. (1997). Measuring the Image of God: The God Image Inventory and the God Image Scale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5(2), 214-226.
- Matzler, K., Bidmon, S. & Grabner-Kräuter, S. (2006). Individual determinants of brand affect: the role of the personality traits of extraversion and openness to experience. *Journal of Product & Brand Management*, 15(7), 427-434.
- Hansen, H., Samuelsen, B. M. & Silseth, P. R. (2008). Customer perceived value in BtB service relationships: Investigating the importance of corporate reputation.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37(2), 206-217.
- Hart, L. C., Poston, J. M. & Wang, D. C. (2024). God image as a moderator of God concept's relation to shame, depression, and existential well-being among seminarians.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16(2), 240.

- McCracken, L. M. & Dhingra, L. A. (2002). Short Version of the Pain Anxiety Symptoms Scale (PASS-20): Preliminary development and validity. *Pain Research and Management*, 7(1), 45-50.
- Merriam-Webster Dictionary. Retrieved from <http://www.merriam-webster.com>. (2024.10.5).
- Nguyen, T. T., Bellehumeur, C. & Malette, J. (2015). God images and resilience: A study of vietnamese immigrants. *Journal of Psychology & Theology*, 43(4), 271-282.
- Schaap-Jonker, H., Lurelings-Bontekoe, E. H. M., Zock, H. & Jonker, E. (200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Dutch Questionnaire God Image: Effects of mental health and religious culture. *Mental Health, Religion and Culture*, 11(5), 501-515.
- Veilleux, J. C., Schreiber, R. E., Warner, E. A. & Brott, K. H. (202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brief version of the emotion reactivity scale: The B-ERS. *Current Psychology*, 43(14), 12586-12600.

한국판 단축형 하나님 이미지 척도 개발 연구

Development of Korean Brief Version of God's Image Scale

심정연 (송실사이버대학교)

김 준 (총신대학교/교신저자)

논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판 단축형 하나님 이미지 척도(KBGIS)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는 Lawrence의 하나님의 이미지 척도를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검증하여 단축형을 도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원래의 하나님의 이미지 척도에서 제시된 6가지 요인과 비교하여, 5가지 요인(응답하시는 하나님, 수용하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양육하시는 하나님)이 도출되었다.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는 5가지 요인의 모델이 대체 모델과 비교하여 적절한 모델 적합도를 가졌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KBGIS는 영적 안녕감과 의 상관관계를 통해 수렴 타당도를 입증하였으며, 원래 척도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성경적 상담에서 하나님 이미지 척도의 활용방안을 함께 제안하였다.

주제어: 한국판단축형 하나님 이미지 척도 (KBGIS), 하나님 이미지, 타당화, 기독교 영성, 성경적 상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의 위험성과 개혁주의 신학적 대안*

The Dangers of the Claim “Theology Is Not an Academic Discipline” and Reformed Theological Alternatives

김진규 (Jinkyu Kim)**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dangers of the claim "theology is not an academic discipline" and presents Reformed theological alternatives. While Enlightenment rationalism significantly influenced natural science development, its dogmatic belief in rationalism, empiricism, and skepticism severely damaged theology. Three main responses emerged to this challenge: attempts to validate theology's academic status through historical criticism or philosophical trends, arguments for separating theology from academia, and efforts to recognize theology's academic nature from different perspectives. The paper critically analyzes Jong-hyun Jang's recent claim that "theology is not an academic discipline," identifying problems in his views on revelation, theology, and academic disciplines. Drawing from Herman Bavinck's concept of universal science and his understanding of revelation, this study proposes an integrative perspective: "Theology/academic discipline is a systematic study of truth inherent in special and general revelation." This proposition suggests that both theology and other academic disciplines should primarily study God's revelation, with general disciplines focusing on general revelation and theology on special revelation, while maintaining their interconnectedness through the pursuit of truth. This approach establishes theology as a genuine academic discipline while preserving its unique characteristics.

Key Words: Theology is not an academic discipline, theology, academic disciplines, Herman Bavinck, revelation

* 2024년 11월 4일 접수, 12월 7일 최종수정, 12월 8일 게재확정.
이 연구는 백석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 백석대학교(Baekseok University) 기독교학부 &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로 1-6, 목양관 210호, profjkkim@gmail.com

I. 들어가는 말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신학과 학문 분야의 관계는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계몽주의의 이성주의, 경험주의, 회의주의에 대한 강조는 자연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동시에 학문으로서 신학의 지위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했다. 이러한 긴장 관계로 인해 일부 학자들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신학 교육과 연구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주장이다.

연구의 필요성은 장종현과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최근 신학을 학문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는 1)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2) 신학은 하나님에 관해 연구하기에, 3) 학문은 구원을 줄 수 없기에 신학은 학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¹ 이러한 주장들은 신학적 지식의 경험적 측면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으나, 신학적 탐구의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본질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신학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신학과 다른 학문 분야 간의 명백한 분리를 해소할 수 있는 개혁주의적 대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내재된 위험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고, 둘째, 신학적 탐구와 학문적 탐구를 일관된 인식론적 틀 안에서 통합하는 개혁주의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학문의 본질과 학계 내에서 신학의 위치에 대한 현재 진행 중인 논의들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하다.

방법론적으로 이 연구는 역사 분석적 접근과 신학적 접근을 활용한다. 연구는 특히 계몽주의적 이성주의에 대한 반응에 초점을 맞추어 신학의 학문적 지위를 둘러싼 역사적 논쟁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로 시작한다. 이어서 헤르만 바빙크의 보편학문 개념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신학과 학문 분야 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신학적 온전성과 학문적 엄격성을 모두 유지하는 개혁주의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학문적 탐구와 신학의 관계에 대한 더욱 세밀한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신학의 학문성에 대한 논쟁의 역사 및 이에 대한 평가

17~18세기 계몽주의적 사고방식은 자연과학 발전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이성주의, 경

1) 이 내용은 "개혁주의생명신학회·한국개혁신학회 공동학술대회"(개혁주의생명신학회, 2024년 10월 19일)의 개최예배 설교(녹화방송 설교)에서 했던 말이다.

험주의, 회의주의에 대한 교조적인 믿음을 가진 이 사상은 신학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게 되었다(Bristow, 2017).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였고, 논리를 통해 보편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경험적 증거와 관찰을 강조했고, 수학적 사고를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했고, 조직적인 의심을 갖고 대상을 접근했고, 과학적인 방법을 주된 도구로 사용했다.²

1. 계몽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들의 견해

바룩 스피노자(Baruch Spinoza, 1632-1677)는 엄격한 이성주의적 형이상학 체계를 개발했고, 철학적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기하학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그는 성경의 신적인 권위에 도전했으며, 성경 비평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성경의 기적을 자연 현상에 대한 오해에서 생긴 것이라고 보았다(Spinoza, 2021).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는 경험주의를 주창했으며, 그는 Tabula rasa 이론으로 유명하다. 종교적 신앙에 대한 이성적 검토를 옹호했으며,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시도했고, 전통적 신학의 권위에 도전했다(Uzgalis, 2022).

데이빗 흄(David Hume, 1711-1776)은 종교적 기적에 대해 비판했고, 종교적 신앙의 이성적 기초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Brown, 2023).

볼테르(Voltaire, 1694-1778)는 종교적 제도와 성경과 교리를 비판했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비판했으며, 종교적 관용과 세속적 사고를 변호했으며, 전통적인 기독교보다 이신론을 도모했다(Voltaire, 1764).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신학을 실제적인 이성으로 제한했고, 순수 이성으로는 종교적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고 했으며, 종교를 도덕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했다(Rohlf, 2024).

데니스 디드로(Denis Diderot, 1713-1784)는 이성주의 이상을 구현한 백과사전(Encyclopédie)을 공동 집필했으며, 이성주의를 경험주의와 물질주의와 통합했으며, 이성적 분석을 예술, 정치, 과학에 적용했다. 그는 백과사전에서 종교적 권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교회 교리나 권위에 도전했으며,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증진했다(Wolfe, 2019).

이들 사상가의 견해를 요약하면, 신학과 다른 학문의 분리를 주장했으며, 그 결과 역사비평학의 출현을 촉발했으며, 신학의 학문성에 치명적 위해를 가했다. 계몽주의 사상이 신학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후스토 곤잘레스(Justo L. González)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2) Claude.ai, response to "What is the Enlightenment rationalism?", October 25, 2024, <https://claude.ai/chat/eceafecb-7ce2-41e1-a249-ccf022719d22>. 위의 내용은 Claude.ai 검색 결과를 검토 후 선별 및 보완 정리한 것이다. 필자는 이 소고에서 AI 인용시 “시카고 스타일”을 따랐음을 밝힌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신학 공부에 대한 슐라이어마허의 관점과 슐라이어마허가 그것을 옹호했던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사가 과학적 방법론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졌던, 따라서 신학과 종교학 연구를 대학 공부에서 배제시키고자 했던, 계몽주의 시대였음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베를린의 한 대학을 하나의 본으로 삼고자 했던 근대 대학에서는 과학이 모든 것을 지배했고 신학 같은 분야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 세기 전에 대학의 탄생을 가져온 신학이 이제는 대학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변호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슐라이어마허를 비롯해 그와 뜻을 같이하는 이들은 신학도 하나의 학문(Wissenschaft)이란 사실을 보여 주어야 했다.

(중략)

그 후로, 그리고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신학자들이 학문 세계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했다. 그런 시도는 신학자들이 자신의 신학을 특정한 철학 사조와 연관시켜 설명하거나 또는 그것을 역사비평적 탐구로 축소시켜 과학이 주장하는 객관성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González, 김태형 역, 2019: 187-188).

2. 계몽주의 사상이 신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세 가지 반응

(1) 신학의 학문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역사비평학이나 철학적 사조에 빗대어 설명한 사람들이 있다.

스피노자는 역사비평학을 성경 연구에 체계적으로 적용한 선구자이다. 그는 성경이 다른 역사 문서처럼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오경 전체를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Spinoza, 2021).

헤르만 라이마루스(Hermann Samuel Reimarus, 1694-1768)는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를 구분했으며, 제자들이 부활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예수는 실패한 정치 혁명가였다고 주장했다(Reimarus, 1972).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허(Friedrich Daniel Ernst Schleiermacher, 1768-1834)는 신학을 교리나 형이상학적인 추론보다 종교적 경험에 기초함으로써 이를 새롭게 인식했다. 그는 종교란 근본적으로 ‘절대적 의존’의 느낌이라고 보았다. 그는 신적 존재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교리나 도그마보다 앞선다고 주장했다. 신학의 임무는 신 존재의 증명보다 종교적 경험을 묘사하고 분석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슐라이어마허의 사상은 계몽주의의 경험주의 철학에 맞닿아있다. 경험주의자들처럼 그는 추상적인 추론보다 직접적인 경험을 강조했다. 그는 신학을 관찰할 수 있는 심리적인 현상에 기초함으로써 ‘학문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Forster, 2022).

다비트 스트라우스(David Friedrich Strauss, 1808-1874)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신화’라는 용어를 소개한 사람인데, 많은 복음서의 이야기들이 영적인 진리에 대한 신화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성경의 초자연적인 기적들에 대해 도전했다(Strauss, 1835-1836).

페르디난트 바우어(Ferdinand Christian Baur, 1792-1860)는 튀빙겐 학파를 창시했으며 헤겔의 변증법을 교회 역사에 적용했으며, 초기 기독교는 베드로파와 바울파의 분쟁으로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다(Baur, 1831).

율리우스 벨하우젠(Julius Wellhausen, 1844-1918)은 모세오경을 4개의 주된 문서인 JEDP로 가정한 문서 가설을 개발했다. 이스라엘 종교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분석했다(Wellhausen, 1883).

이들 사상가는 기독교 신학에 계몽주의 사상을 도입함으로써 치명적인 해를 가하게 되었다. 이런 주장의 폐해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의 반동으로 근래 신앙을 잃어버린 신학자도 있다. 신약 교수인 뤼데만(Gerd Lüdemann)의 경우에는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는 주장을 염두에 두고, 자신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Lüdemann, 2020).

이들 사상가는 신학을 계몽주의 철학에 기초함으로써, 신학의 학문성을 인정하려고 했다. 계몽주의 철학의 3대 신조인, 이성주의, 경험주의, 회의주의에 주로 호소함으로써 신학의 학문성을 변호하려고 했다. 이들의 주장에는 계몽주의 학문관을 교조적으로 믿는 그릇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 계몽주의 학문관의 문제점은 아래에서 다루겠다.

(2) 신학과 학문의 분리를 주장한 사람들도 있다.

칼 바르트(Karl Barth, 1886-1968)가 신학과 학문(science)의 분리를 주장한 것은 당시 자유주의 신학이 근대적인 과학적 세계관을 수용한데 대한 대응으로 나온 사실을 알고 접근해야 한다. 바르트는 신학과 자연과학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이들 학문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다른 방법론과 연구의 대상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다루고, 과학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자연 세계를 다루기 때문이다. 그는 자연신학도 거부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자연 세계를 연구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온다고 믿는다. 바르트는 신학과 과학을 분리했지만, 둘이 서로 모순된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하나님이 모든 실체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과학적 발견은 신적 진리와 충돌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과학이 신학적 주장을 인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과학이 형이상학적이거나 신학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이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과학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했다. 바르트는 신학과 과학이 분리를 유지하면서 이들 학문은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목표를 추구하면 된다고 보았다. 바르트의 신학과 학문의 분리는 한편으로는 신학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때문에 칭송을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학과 학문과의 대화를 잠재적으로 부정하기에 비판을 받았다.³

쇠렌 키에르케골(Søren Kierkegaard, 1813-1855)은 신학의 중심인 믿음은 근본적으로 주관적이기에 과학적인 객관성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교적 믿음의 개인적인 성격과 이의 이성적 탐구와의 내재적 긴장 관계를 강조했다(Kierkegaard, 1983 ; Kierkegaard, 1992).

폴 틸리히(Paul Tillich, 1886-1965)는 신학과 과학의 관계는 독특한 차원에서 상호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보았다. 신학과 학문은 진리와 실체의 다른 차원에서 작동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들이 모순을 일으키는 것은 각자의 영역에 대한 오해 때문에 주로 생긴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학문은 객관적인 지식과 경험적인 사실의 영역, 그가 소위 말하는 ‘수평적 차원’을 다룬다. 반면에 신학은 궁극적인 관심사와 의미에 관한 질문들, 즉 ‘수직적 차원’을 다룬다(Tillich, 1951: 3-68). 그의 견해에 따르면 학문은 신학적 진리에 대해 위협이 되지 않는데, 이유는 이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질문을 다루기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학문과 종교의 갈등은 종교가 부적절한 과학적 주장을 하거나 과학이 이의 경계선을 넘어 형이상학적인 영역으로 침범해 들어갈 때 생긴다고 본다(Tillich, 1951: 71-159). 그러나 틸리히는 신학이 학문과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는 신학이 과학적 지식과 상호작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는 이 둘이 비록 다른 방식이지만 실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본다(Tillich, 1951: 3-159 ; Tillich, 1957: 31-54).

신학과 학문의 분리를 주장하는 사상가들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계몽주의적 학문관이 깔려 있다. 계몽주의적 학문관의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게 되면, 신학의 학문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바르트의 경우에는 당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신학의 자유주의화로 말미암아 신학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한 당시의 현실을 직시하고 도전장처럼 선포한 것이라고 본다. 키에르케골의 관점은 어떤 의미에서 슐라이어마허의 관점과 비슷하다. 믿음의 주관성 때문에 신학의 학문성을 부정할 경우이다. 슐라이어마허는 신앙적 경험을 경험주의 철학에 기초해서 학문성을 변호한 경우이다. 틸리히의 경우에는 신학과 학문의 연구 영역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를 주장하는 것이지 서로 간에 모순된 개념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이 두 학문이 상호작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실체에 대한 더 나은 이해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 관점은 필자가 나중에 제시할 이론과 유사한 점이 많다.

3) Claude.ai, response to "What is Karl Barth's view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ology and science?", October 29, 2024, <https://claude.ai/chat/4d1100ec-840d-4467-b0ea-193e87b1b56f>. 위의 내용은 Claude.ai 검색 결과를 검토 후 선별 및 보완 정리한 것이다.

(3) 다른 각도에서 신학의 학문성을 인정한 학자들도 있다.

헤르만 바빙크는 “신학은 학문의 여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의 근거는 보편학문의 입장에서이다. “신학은 학문의 여왕이다”라는 주장은 원래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가 중세에 했던 주장이다. 그런데 그의 견해는 바빙크의 주장과는 결이 다른 주장이다.

버나드 로너간(Bernard Lonergan, 1904-1984)은 과학적 방법과 유사한 신학 방법론을 개발했다. 그에 의하면 신학과 학문은 유사한 인지과정에 따라 작동하는 상호보완적 탐구 방법들인데, 단지 연구의 대상이 다를 뿐이다. 신학도 다른 학문처럼 경험, 이해, 판단, 결정이라는 구조화된 과정을 수반한다고 그는 본다.⁴

알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McGrath, 1953-present)는 원래 분자생물물리학을 공부한 배경을 가진 신학자로서 신학은 훈련되고 엄격한 학문 분야라는 넓은 의미에서 학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학과 학문에 있어서 비판적 리얼리즘(critical realism)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신학과 학문은 비록 다른 방식으로 다른 질문을 다루지만, 이 둘은 함께 실체를 묘사하고 설명한다. 그는 과학적 환원주의와 종교적 근본주의를 모두 거부하고, 대신 이들 학문이 세상에 대한 서로 간의 이해를 풍성하게 한다고 보았다(McGrath, 2004: 1-33). 맥그래스는 자연신학을 다시 살려서 현대화했는데, 이를 과학적 이해와 신학적 이해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접근한다. 전통적인 자연신학과는 달리, 그의 접근은 한편으로 신학적 엄격함을 유지하면서 현시대의 과학적 통찰력을 통합하려 한다(McGrath, 2009). 그는 신학과 학문의 갈등은 근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신학은 과학적 탐구의 동기와 골격을 종종 제공했다고 본다. 하지만 맥그래스는 신학과 학문 간에 서로 충돌하는 관점에서 보는 ‘갈등 논지’나 서로 간에 항상 보완한다고 보는 ‘조화 논지’ 양극단에 대해 경계한다(McGrath, 2001).

바빙크의 보편학문이란 개념과 맥그래스의 자연신학에 대한 수정된 관점은 필자의 관점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나중에 이를 함께 종합하여 신학에 대한 명제를 제안하려고 한다.

3. 계몽주의 학문관의 한계

계몽주의 사상은 한편으로 자연과학의 발전에는 크게 기여했지만,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의 발전에는 한계가 드러났다.

먼저 인식론적인 차원에서의 한계는 이성과 경험적 증거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말미암아 다른 형

4) Claude.ai, response to "What is Bernard Lonergan's view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ology and science? Include references in the APA format with the page number.", October 29, 2024, <https://claude.ai/chat/f9365778-8b82-409f-99d5-dfd43d031ca0>. 위의 내용은 Claude.ai 검색 결과를 검토 후 선별 및 보완 정리한 것이다.

태의 지식을 경시하게 되었다(Taylor, 2007). 특히 감정적, 영적인 인간 경험의 차원을 무시하게 되었다(Palmer, 1998).

방법론상의 제약은 질량화와 측정에 너무 의존하였고, 복잡한 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 축소했고, 질적인 연구 방법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고, 모든 진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Nussbaum, 2001).

학문적인 구조에 있어서 지식을 서로 별개의 학문으로 인위적으로 분리했으며, 총체적인 이해를 파편화했으며, 복잡한 학제적인 문제를 다루기 어렵고, 딱딱한 과학을 상위에 두는 학문적인 위계 질서를 만들었다.

특히 인간의 이해에 있어서 치명적인 해를 끼쳤는데, 인간의 본성과 사회에 대한 기계적인 관점을 도입했으며, 지식의 맥락적 관계적 양상을 무시했으며, 집단적 이해보다 개인주의적인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했으며, 인간의 경험을 이성적인 과정으로 축소했다(Bellah, 1985 ; Bohm, 1980).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팩트와 가치를 분리시켰고, 이성주의적 자기 이익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인해 도덕적 상대주의를 낳았으며, 규범적 질문에 대해 답하기 어렵고, 윤리적 고려와 과학적 탐구를 통합적으로 다루기 어렵게 했다(MacIntyre, 1981: 51-61 ; Taylor, 1989).

계몽주의 사상의 이런 한계를 칸트는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그는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에서 인간의 이성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칸트의 현상(phenomena)과 본질(noumena)에 대한 구분은 인간의 이성이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론적 이성은 외관에 제한되고(현상), 본질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본질). 이론적 이성으로는 하나님이나 자유나 불멸성에 대해서 증명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 실천적 이성은 이론적 이성이 할 수 없는 도덕적 확실성을 제공한다고 본다. 실천적 이성은 하나님이나 자유나 불멸성에 대해서 실천적 필요로서 가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⁵ 칸트의 이론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믿음과 지식을 구별하고 있다. 종교적 믿음은 실천적 이성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는 관념적 신학보다 도덕적 신학을 주장했다. 칸트의 도덕적 신학관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5) Claude.ai, response to "Explain Kant's concept of phenomena and noumena", October 29, 2024, <https://claude.ai/chat/eceafecb-7ce2-41e1-a249-ccf022719d22>. 위의 내용은 Claude.ai 검색 결과를 검토 후 선별 및 보완 정리한 것이다.

III.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진술의 논리적 허점과 위험성

현시대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신학은 무엇이고, 학문이 무엇인가를 규명해야 한다. 지금 필자의 논지는 17~18세기의 계몽주의적 관점에서 신학이나 학문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 이후 2~300년 흐른 시점에 학문 관도 많이 바뀌었고, 신학관도 많이 바뀌었다. 이런 관점에서 두 가지의 논의가 우선되어야 신학의 학문성 여부를 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신학은 무엇인가?

플라톤의 신학 사상은 소크라테스에게서 전수된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신적 본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는 인간의 덕과 행복에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플라톤은 신의 본질적인 선함이 신학적 논의의 주된 의제였다(Sedley, 2019: 627-644). 아리스토텔레스는 신학(theologiké)을 한 신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신들과 신성한 것들에 대한 연구로 보았다(Menn, 2012: 422-464). 즉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은 ‘신(들)에 관한 연구’였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그리스 철학자의 신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곧 기독교에서 신학을 논할 때 거의 그대로 도입이 되었다.

초대 교회 시대의 교부 저스틴 마티(Justin Martyr, 100-165)는 신학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신학에 대한 이해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인간의 이성에 의해 발견되는 합리적인 원리들로 나타난 로고스(신적 이성/말씀)에 관한 연구’라고 이해하고 있다(Grant, 1988).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 150-215)는 신학이란 개념을 ‘신적 계시와 철학적 추론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에 관한 연구’라는 뜻으로 이해했다(Osborn, 2005: 111-153).

오리겐(Origen, 185-253)은 신학이란 용어를 “예수님에 관한 신학”이란 말로 명시적으로 표현했는데, 신학의 정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있다. 그가 신학이란 용어를 사용한 문맥을 살펴보면, 신학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문자적 해석을 넘어서 성경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해하는 것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Patrick, 2004: 470-471).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Gregory of Nazianzus, 329-390)는 삼위일체 교리를 변호하는데 신학적으로 크게 기여했다. 특히 성령론에 대한 기여가 두드러진다.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발출(procession)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고, 이는 후대에 성령님에 대한 사상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Wikipedia, "Gregory of Nazianzus").

히포의 어거스틴(Augustine of Hippo, 354-430)은 신학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신학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조직적인 연구와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는 또한 신학을 ‘믿음과 이성을 통해 신적 진리에 이르는 역동적인 이해의 과정’으로 바라본다(Brown, 2000).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로스(Cyril of Alexandria, 376-444)도 명시적으로 신학의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그는 신학이란 개념을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복잡한 형이상학적인 질문들을 다루는 학문, 이를 위해서 미묘하면서도 중요한 차이점들을 표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술적인 언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신성과 인성의 이해를 위한 실제적인 함의를 포함한다(Wikipedia, "Cyril of Alexandria").

요컨대, 초대 교회시대 교부들의 신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본성과 관계된 모든 것”과 주로 관련되어 있다(Jackson, 2004: 7).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는 신학을 ‘거룩한 교리’라고 정의하고, 이를 ‘하나님에 의해 계시된 원리들로부터 온 학문’(scientia)이라고 규정한다. 이 시기에 ‘신학은 학문의 여왕’이라고 불리게 된다. 그는 신학을 훨씬 더 폭넓게 이해하고 있고, 신학 연구의 초점이 계시에 대한 지식에 있음을 밝힌다(Aquinas, 1947, I.1.2 ; I.5.).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신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한다.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중세의 스콜라주의 이해를 거부하고, 신학을 ‘죄인으로서 인간과 의롭게 하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이해’로 규정한다(Luther, 1958, 1: 14).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기독교 강요』에서 신학을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으로 접근하는데, 그는 신학을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으로 이해한다(Calvin, I.1.1.).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보았다(Calvin, I.1-6.). 자신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연관되어 있고, 인간의 죄와 의존성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고 있다(Calvin, I.1.1. ; II.1.).

그 이후 17~18세기에 도달하게 되면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신학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칸트는 ‘신학은 실제적인 이성으로만 알려질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신학은 인간 중심적인 것으로 바뀌어서, 초점이 하나님에게서 인간의 경험과 도덕으로 옮겨진다(Kant, 1996). 슈라이어마허는 신학을 ‘기독교인의 종교적 애정에 대한 학문’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Schleiermacher, 1996).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는 신학을 ‘기독교인의 종교적 경험과 절대적 의존 의식에 관한 조직적인 연구’라고 본다(Schleiermacher, 1928). 두 사람에게서 신학이 매우 주관적인 연구로 전락한 모습을 보게 된다.

근대와 현대에 와서 신학은 크게 다양성을 띠게 된다. 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이 인간의 경험을 강조한 것을 거부하고 신학에 대한 좀 더 고전적인 이해로 돌아간다. 그는 신학을 “복음의 하나님을, 즉 복음 안에서 스스로를 알리시고 인간에게 말씀하시며 인간들 사이에서 인간에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그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법에 의해!) 인지하고 이해하고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를 내린다(Barth, 신준호 역, 2023: 11). 바르트의 신학관을 간략히 기술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행동하시고 알리신 특별 계시에 대한 연구로 요약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신학이 다변화되어 조직 신학, 성서 신학, 실천 신학, 상황 신학 등 다양한 신학으로 분리하여 발전하고 있다. 이런 신학의 춘추전국시대에 신학에 대한 적절한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2. 학문이란 무엇인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독일 학계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때, 사용한 용어가 Wissenschaft인데, 이는 주로 science로 번역되지만, 사실 이 용어의 뜻은 다양한 academic disciplines를 포괄하는 단어다. 영어는 sciences(과학)와 humanities(인문학)를 구분하지만, 독일어의 Wissenschaft는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을 아우르는 모든 학문 분야의 조직적이고, 엄격한 연구와 지식을 포괄하는 단어이다.⁶ Wissenschaft의 두 가지 주된 의미인 science나 academic discipline의 경우에 이들 용어에 대한 학계의 정의는 지금까지 일치점을 보지 못하고 있다.

(1) science로서의 학문 개념

영어의 science는 오랜 시간 상당한 개념의 변화를 겪었다. 이 단어는 지식을 의미하는 라틴어 scientia에서 유래했으며, 근대적 의미의 science는 수 세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독특한 탐구 방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Dear, 2006). 고대 그리스에는 근대 과학의 선구자 격인 자연 철학이 세상의 근본적인 성격을 이해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물리학과 자연사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글들이 경험적 관찰과 분류를 위한 토대를 놓게 되었다(Lindberg, 이종흡 역, 2009: 53-125). 중세 시대에는 science가 지식의 조직적인 체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사용되었다(Grant, 1996).

16~17세기의 과학적 혁명은 science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변화를 불러왔다. 갈릴레오, 베이컨, 뉴턴과 같은 인물들은 경험적 관찰과 실험과 수학적 분석을 과학적 탐구의 기초로 세웠다(Bacon, 1620 ; Galileo, 1632 ; Newton, 1687 ; Koyr é , 1957). 샤프에 의하면 과학적 변화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묘사된 것보다 더 점진적이고 복잡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성

6) Claude.ai, response to "Provide a comprehensive definition of Wissenschaft", October 29, 2024, <https://claude.ai/chat/3dd7407a-10ca-4919-8322-51a42694edf1>. 위의 내용은 Claude.ai 검색 결과를 검토 후 선별 및 보완 정리한 것이다.

장했음을 강조한다(Shapin, 1996). 19세기의 윌리엄 웨웰(William Whewell)은 ‘과학자’라는 말을 만들었으며, 근대적 개념의 과학적 방법론을 만드는데 이바지했다(Snyder, 2011).

20세기에 science의 정의도 여러 차례의 변화를 경험했다. 과학 이론의 기준으로서 칼 포퍼(Karl Popper)의 반증 가능성 개념은 과학적 주장이 검증 가능하고 잠재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Popper, 1959). 과학적 패러다임과 혁명에 대한 토마스 쿤(Thomas Kuhn)의 획기적인 연구는 과학을 순전히 객관적이고 누적적인 과정으로 보는 견해에 도전하며, 과학 발전에 있어서 사회적, 심리적 요인의 역할을 강조했다(Kuhn, 김명자·홍성욱 역, 2013: 61-128).

오늘날 과학에 대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관찰, 실험, 가설 수립 및 테스트를 통해 자연 세계를 연구하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해된다. 전미 과학 아카데미(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2008)는 science를 “자연 현상에 대한 시험 가능한 설명과 예측,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생성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증거의 사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오늘날 대체로 이해하고 있는 science의 정의도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은 완전히 도외시하고 ‘자연 세계’에 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서 영어권에서는 제한하고 있다. science의 정의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기에 이의 범위, 방법론, 다른 형태의 지식과 탐구와의 관계에 대해 지속적인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Rosenberg, 2000: 1-6).

(2) academic disciplines(AD)로서의 학문 개념

우리의 논의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문’이란 용어는 academic disciplines일 것이다. 이는 대학 레벨에서 가르치거나 연구되는 지식의 지류를 가리킨다. 이의 구체적인 초점, 일련의 규칙, 방법론, 지식 체계가 특징인데, AD의 정의와 이해는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했다(Stichweh, 2001: 13727-13731).

역사적으로 AD의 개념은 고대 그리스 철학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지식은 구분된 연구 분야로 범주화되었다(Marrou, 1982).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AD는 중세 후반과 초기 르네상스 시기의 대학의 설립과 함께 형성되기 시작했다(Cobban, 1975). 계몽주의 시기에 지식의 상당한 확장 and 전문화가 있었기에, 좀 더 분명한 AD를 형성하게 되었다. 당시 학문의 발전은 국가의 이익과 관료적 필요에 의해 고무되었다(McClelland, 1980). 19세기에는 특히 독일과 미국에서 연구대학들이 생겨나면서 더욱 학문의 공고화가 이루어졌다. 19세기 초에 세워진 빌헬름 폰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 연구대학 모델은 가르침과 연구의 통합을 강조했다. 이 모델은 지식을 조직화해서 학

문과 근대 대학 구조로 정립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Clark, 2006 ; Wittrock, 1993: 303-362).

20세기에 이르러 AD의 수효는 고등교육의 확장과 늘어난 지식의 전문화로 많이 증가하였다. 이는 곧 학문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비처와 트롤러(Becher & Trowler, 2001)는 학문은 인지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을 포함하고 있기에 학문은 지식의 체계일 뿐만 아니라 공유된 실행과 가치를 겸한 학자들의 공동체란 사실을 강조했다. 최근에는 엄격히 구분된 학문적 범주의 한계를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학제 간 그리고 학문 분야를 뛰어넘는 접근법이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고, 구분된 학문이라는 전통적인 관념에 대해 도전하게 되었다(Klein, 1990).

21세기에는 학제 지식의 조직과 생산에 대한 디지털 기술, 세계화, 변화하는 사회적 필요의 영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학문의 정의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Trowler et al., 2012).

지금까지 학문의 정의를 살펴본 결과 지속해서 진화하고 있지만 학문에 대한 공감하는 정의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과연 학문에 대한 정의가 유동적인 상황 가운데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 ‘신학’을 접근하기 위한 성경적 관점에서 학문의 정의를 다시 내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IV.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의 위험성

최근 장종현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신학의 본질을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과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말한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는 ‘학문적 도구를 통해 신학함’이라는 관점에서 ‘신학의 학문성’을 인정하고 있다(장종현, 2023: 56-87). 그렇지만 그는 단지 ‘학문성’이 있다고 말할 뿐이지, 신학이 ‘학문’이란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학의 본질에 대해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이라는 실천적 측면을 강조한 것은 현시대가 항상 각성해야 할 중요한 핵심이지만, 2000년 교회 역사상 신학의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한 종교개혁자들이나 초대 교부들은 이미 이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었다. 칼빈을 위시한 개혁주의자들은 이미 신학 연구의 기초로 이 전제를 깔고 있다. 신학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의 역사, 말씀 순종에 대해서 어느 누가 경시할 수 있겠는가? 신학함에 있어서 토마스주의자들은 이론적인 면을 강조했고, 스코투스주의자들은 실천적인 면을 강조했지만, 개혁주의자들은 신학의 이론적인 면과 실천적인 면을 모두 강조했다(Bavinck, 박태현 역, 2021: 64).

1. 장종현의 신학에 대한 주장들의 문제점

“개혁주의생명신학회 한국개혁신학회 공동학술대회”(개혁주의생명신학회, 2024년 10월 19일)의 개회예배 설교(녹화방송 설교)에서 장종현은 신학이 학문이 아닌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은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학문은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이런 주장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하나씩 논하겠다.

(1) 계시관의 문제점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학문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는 계시관의 오류가 내포되어 있다.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니란 사실을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하늘에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 저자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 저자의 지식과 언어와 문화와 배경 등이 녹아져 들어있다(Berkhof, 1988: 115-124).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 저자에게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수해 주셨다. 우리는 인간 저자의 기록을 통해서 신적 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된다. 그래서 신학적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인간 저자의 역할을 도외시한 이런 계시관은 잘못된 것이다. 이는 분명한 계시관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2) 신학관의 문제점

하나님은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없기에 학문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그의 제한적이고 편협한 생각이 깔려 있다. 아쉽게도 그의 신학관은 어떤 의미에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학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 혹은 ‘하나님을 앎’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현시대의 신학의 다양한 이해와 맞지 않는다. 현재 신학을 단지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직 신학의 신론에 해당되는 좁은 견해란 사실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Bavinck, 박태현 역, 2021: 40 ; González, 김태형 역, 2019).

앞에서 보았듯이, 지금은 신학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성서 신학, 조직 신학, 실천 신학, 상황 신학 등 다양한 신학에 대한 정의가 존재한다. 신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지만, 실제 신학에 수반되는 연구에는 ‘하나님의 계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앞에서 보았다. 이런 마당에 신학에 대한 구시대적 신학 정의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신학 논의에 너무 환원주의(reductionism)의 오류에 빠진 것은 아닐까?

앞에서 보았듯이,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은 신학 연구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연구도 포함시키고 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 성경은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조직 신학만 생각해도 신론, 인론, 기독교론, 성령론, 구원론, 종말론, 교회론 등 다양한 주제를 신학에서 다룬다. 이런 다양한 주제들이 신학 연구의 대상들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계시를 떠나서’ 하나님을 학문적으로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연구한다 말인가? 그리고 성경이 말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다. 안다고 할지라도 아주 부분적으로 알 뿐이다. 그래서 이 질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계시하고 있는 특별계시(성경)와 일반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 앞에서 보았듯이,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 신학의 대상이 점차 계시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을 보았다. 이를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다.

(3) 학문관의 문제점

학문은 구원을 줄 수 없기에 신학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논리적 오류뿐만 아니라 학문관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비학문은 구원을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구원파가 비학문적인 신학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고 있는가? 신천지 같은 경우 전혀 학문성이 없는 비유 풀이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지금도 꾀고 있는가? 학문 그 자체는 구원관과 바로 연결시킬 수 없는 범주에 속한다. 학문은 단지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도구일 뿐이다. 수술실의 메스는 의사의 손에 잡힐 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 도구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메스는 단지 도구일 뿐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메스를 사용하는 유능한 의사의 의술에 달린 것이다. 수술실의 메스처럼, 학문이나 신학은 단지 진리를 캐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게다가 장종현의 학문관은 계몽주의자들이 가졌던 학문관을 그대로 갖고 와서 신학을 판단하고 있다. 그의 이런 억지 주장은 논리적인 오류일 뿐만 아니라 학문관에 대한 그릇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V. 바빙크의 보편학문 개념 속에서 발견된 개혁신학적 대안

1. 바빙크의 신학관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 1854-1921)는 보수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신학의 학문성을 변 호한 대표적인 칼빈주의 신학자이다.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오래전에 “신학은 학문의 여왕이다” (Aquinas, 1947, I.5.)라고 주장한 기치를 다시금 높이 들고 흔든 신학자이다. 그런데 그의 이론적 근거는 스콜라주의적 이성애 호소한 것이 아니라, 계시의 관점에서 이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바빙크는 신학을 원리, 내용, 목적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는 신학을 그냥 신학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룩한’ 신학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당시 자유주의 신학과 같은 그릇된 신학과 구분하기 위해 수식어를 붙인 것 같다(Bavinck, 박태현 역, 2021: 16-80).

첫째, 바빙크의 거룩한 신학의 원리는 성경이다. 그는 “오직 성경만이 신학이 추론되는 원리, 신학이 유도되는 유일한 지식의 원천”으로 보았다. 우리가 신지식을 얻는 인식의 원리는 오직 성경뿐이라고 강조한다(Bavinck, 박태현 역, 2021: 23-26). 이성주의는 “성경 옆에 혹은 성경 대신” ‘인간의 이성’에 권위를 두었고, 슬라이어마허는 종교적 감정이 ‘종교적 지식의 원천’으로 보았다. 그러나 바빙크는 성경이 ‘유일하고 충분한 원리’라고 강조한다(Bavinck, 박태현 역, 2021: 26-32).

둘째, 바빙크의 거룩한 신학의 내용은 하나님이다. 그는 신학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는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런 주장이 좁은 의미에서 조직신학의 ‘신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Bavinck, 박태현 역, 2021: 39-40). 그는 신학과 학문이 하나의 접촉점을 갖는데, 이는 코스모스를 연결시키는 하나님이라고 보았다. 다른 학문도 하나님과 함께 관계성을 지닌 피조물이기에 이런 차원에서 신학은 ‘보편학문’이라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신학은 다른 모든 학문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오히려 다른 학문도 성경에서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신학은 학문이요, 학문의 여왕”이라고 본다(Bavinck, 박태현 역, 2021: 56-58).

셋째, 바빙크에 따르면 신학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Bavinck, 박태현 역, 2021: 72). 그는 “거룩한 학문들과 세속적 학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단 하나의 거룩하고 영광스런 학문이 있다면 그것은 신학입니다.”라고 주장한다(Bavinck, 박태현 역, 2021: 76-77). 이런 관점에서 바빙크는 “반드시 진리의 질서, 연관성을 알아야 하며, 진리의 체계가 반드시 우리에게 선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한다(Bavinck, 박태현 역, 2021: 63).

바빙크는 신학은 ‘이론적인 학문인가, 실천적인 학문인가’에 대해서도 논한다. 토마스주의자들은 이론적인 면을 강조했고, 스코투스주의자들은 실천적인 것을 강조했지만, 개혁주의자들은 둘 다 모

두 강조한다. 그래서 그는 “생명에 근거한 신학은 생명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한다(Bavinck, 박태현 역, 2021: 66). 그의 이런 관점은 이론과 실천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은 개혁주의 전통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신학은 ‘확실히 이론적 학문’이란 사실을 먼저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과 모든 힘을 다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신학이 단지 실천적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믿겠다는 말과 같은데, 왜냐하면 사람이 단지 선하게만 산다면 굳이 지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Bavinck, 박태현 역, 2021: 66). 그는 또한 신학은 철저하게 ‘실천적 학문’이라고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신학에서 삶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Bavinck, 박태현 역, 2021: 67). 그래서 바빙크는 “실천 신학은 신학의 면류관”이라고 보았다(Bavinck, 박태현 역, 2021: 67).

2. 바빙크의 계시관

마지막으로 바빙크가 신학과 학문의 통합적 관점을 위해 제공한 지대한 기여는 그의 ‘계시관’이다. 그의 『계시 철학』(Philosophy of Revelation)에서 ‘계시는 종교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아우르는 근본적인 실체’라고 본다. 하나님은 자신을 일반계시(자연, 역사, 양심)와 특별계시(성경)를 통해 알리셨다. 계시는 초자연적일 뿐만 아니라 자연적이며,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것으로 보았다(Bavinck, 2018: 3-25). 그는 초자연적인 계시를 거부하는 근대 철학에 대해 비판을 가하며, 순수한 이성주의나 경험주의는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을 설명하는데,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Bavinck, 2018: 26-69). 그리고 과학과 계시는 내재적으로 모순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과학적 지식도 넓은 의미에서 계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 그 자체가 해석을 요하는 신적 계시의 한 형태라고 본다. 자연 세계는 하나님의 지혜, 능력, 선하심을 계시하며, 자연 계시가 인간 지식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지만, 이것 자체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본다. 인간의 죄가 자연 계시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Bavinck, 2018: 70-91).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중심이요 충만함이라고 본다. 기독교의 계시가 모든 실체를 이해하는 체계를 제공한다고 믿는다(Bavinck, 2018: 92-116, 142-163). 그는 인식론의 관점에서 인간의 지식은 신적 계시에 의존하며, 이성과 믿음은 보완적이고, 상호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지식은 객관적인 계시와 주관적인 수용 둘 다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Bavinck, 2018: 164-191). 요컨대, 바빙크에 따르면 계시는 모든 실체를 아우르기에 모든 진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이다. 이는 자연, 역사, 인간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그는 총체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제공하고 있다.

VI. 신학과 학문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명제 제안

앞에서 보았듯이 아직 일반학문에서는 ‘학문’이 무엇이나에 대해 정해진 정의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떠나 인간의 생각으로 ‘진리’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을 생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일반학문의 노예가 되어 그들의 학문관을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의 학문관도 성경에서 나온 기독교세계관과 학문관을 가져야 한다. 장종현의 문제점은 신성한 신학을 논하면서 왜 세속적 학문관을 갖고, 그것도 헬라철학과 계몽주의의 구시대적 학문관을 갖고 와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라고 주장하는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대한 대안을 필자는 제안하려고 한다.

필자는 바빙크의 신학과 계시관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나름대로 신학과 학문을 통합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려고 한다. 바빙크는 신학 안에 학문을 함께 통합하여 하나의 학문으로 본다. 필자는 신학뿐만 아니라 일반학문도 모두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별개로 다루어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렇지만 모두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기 때문에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필자가 제안하는 명제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명제가 아니라, 긍정적인 관점에서 제안하려 한다.

‘신학/학문이란 특별계시와 일반계시에 내재된 진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이다.’라는 명제를 제안한다.

신학과 학문은 일차적으로 모두 ‘하나님의 계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신학이 발전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학계의 공감대가 있다. 일반학문은 일반계시의 영역에서 학문 활동을 주로 하고, 신학은 특별계시(성경)의 영역에서 주로 학문 활동을 한다. 그렇다고 일반학문이 특별계시의 필요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특별계시를 통해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일반계시 속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학문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함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빙크가 말한 대로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이 진리를 찾아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학문의 목표라고 본다.

과거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뉴턴 역학이 당시에는 절대 진리로 받아들여졌지만, 20세기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면서 뉴턴의 이론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이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도 맞지 않는 것이 있기에 새로운 모델이 근년에 제시되고 있다(Wikipedia, "Superstring theory"). 물리현상을 설명하는 데도 당시에는 절대 진리처럼 보이던 이론들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더 진리에 가까운 모델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불변하는 것

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 즉 진리이다. 일반계시에 내재 된 완전한 진리로 나아가는 것이 학문 활동이라고 본다. 그래서 진리를 세우신 창조주에 대한 이해를 특별계시로부터 얻지 못한다면 그 학문은 방향을 잃게 될 것이다.

반면에 신학도 특별계시뿐만 아니라 일반계시의 도움도 필요하다. 특별계시를 해석하는 도구인 성경 해석학은 다양한 학문의 도움을 받아 발전하고 있다. 역사학, 철학, 언어학, 문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의 도움을 받는다. 이들 일반학문의 이론들은 특별계시의 진리를 더 잘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과거 고전처럼 여기던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와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가 지금은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왜냐하면 20세기 후반 언어학이 발전하면서 ‘단어’와 ‘개념’의 구분이 사전에 집필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개념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언어학의 발전으로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서 이들 사전이 단어를 연구하면서 개념을 집어넣어 연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 방대한 사전은 단어 속에 개념을 마구 집어넣어 집필한 오류투성이의 작품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렇기에 일반계시로부터 온 진리 지식도 특별계시의 연구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바빙크가 신학 연구에는 특별계시만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은 너무 좁은 생각이 아닐까?

이제 신학과 학문의 연구 대상이 계시에 내재 된 ‘진리’란 사실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신학이나 일반학문이 연구하는 대상이 너무나 다양하기에 이를 모두 포괄하는 더 구체적인 연구의 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를 ‘진리’라고 본다. 성경의 진리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우선적으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리로 계시하고 있다(시 31:5; 요 14:6; 16:13). 성경의 진리를 추구하면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된다. 성경은 또 하나님의 계시를 진리라고 칭한다(시 119:43; 요 17:17). 하나님의 계시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 피조 세계를 아는 근본 원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일반학문의 대상도 결국 진리라고 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 질서를 부여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피조물 속에 부여하신 질서를 진리의 차원에서 이해한다. 학문이란 이 진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본다. 물리적인 물질세계뿐만 아니라 사회현상이나 인문학적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인다고 말한다(롬 1:20).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질학 등 자연과학도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리에 근접할 때, 최고의 학문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사회현상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회질서라는 진리에 근접할 때, 가장 효과적인 학문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인문학도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진리에 가까울수록 더욱 유용한 인문학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거스르는 그릇된 학문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진화론은 성경의 계시뿐만 아니라 자연법칙과도 맞지 않는 이론이다.⁷ 유물사관도 성경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사상이다. 진정한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타락한 심성으로부터 나온 그릇된 사상을 걸러내고 진정한 진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학적 관점에서 일반학문의 비학문적인 요소를 비판하고 걸러내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다. 우리가 외쳐야 할 바는 일반학문(자유주의 신학과 같은 그릇된 신학도 포함) 중에서 비학문적인 사상을 향해 ‘학문이 아니다’라고 외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문이나 신학이 학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것이 없는 학문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신학이나 학문은 모두 하나님의 계시에 내재된 진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신학은 진정한 학문이요, 학문의 왕이 될 것이다.

VII. 나가는 말

이 논문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혁신학적 대안을 제시했다. 일반학문에서는 아직 '학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확립되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의 계시'를 떠나 인간의 생각으로 '진리'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일반학문의 노예가 되어 그들의 학문관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성경에서 나온 학문관을 가져야 한다. 이에 바빙크의 신학관과 계시관을 바탕으로, “신학/학문이란 특별계시와 일반계시에 내재된 진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이다”라는 통합적 관점의 명제를 제안한다.

이 명제에 따르면, 신학과 학문은 모두 '하나님의 계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일반학문은 주로 일반계시 영역에서, 신학은 주로 특별계시 영역에서 학문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두 영역은 서로를 필요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계시에 내재된 '진리'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학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진리를 거스르는 그릇된 학문이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진정한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타락한 심성에서 나온 그릇된 사상을 걸러내고 진정한 진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7) 진화론은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것이다. 아직 진화론을 설명할 만한 화학학적 증거가 없다. 그리고 진화론은 열역학 제2법칙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진화론은 명백한 자연법칙과 맞지 않는 사이비 과학이다.

결론적으로, 신학이나 학문은 모두 하나님의 계시에 내재된 진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신학은 진정한 학문이요, 학문의 왕이 될 수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김명자·홍성욱 역 (2013). *과학혁명의 구조*. Kuhn, T. S. (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서울: 까치.
- 김태형 역 (2019). *신학 교육의 역사*. Gonz á lez, J. L. (2015). *The History of Theological Education*. 서울: 부흥과개혁사.
- 박태현 역 (2021). *헤르만 바빙크의 교회를 위한 신학*. Bavinck, H. (1883). *De wetenschap der H. Godgeleerdheid*. 서울: 도서출판 다함.
- 신준호 역 (2023). *개신교신학 입문*. Barth, K. (1970). *Einführung in die evangelische Theologie*. 서울: 복 있는 사람.
- 이종흡 역 (2009). *서양과학의 기원들: 철학·종교·제도적 맥락에서 본 유럽의 과학 전통, BC 600 ~ AD 1450*. Lindberg, D. C. (2007). *The Beginnings of Western Science: The European Scientific Tradition in Philosophical, Religious, and Institutional Context, Prehistory to A.D. 1450*. 파주: 나남.
- 장종현 (2023).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서울: 백석정신아카데미.
- Aquinas, T. (1947). *Summa Theologica*. Trans. Fathers of the English Dominican Province. New York: Benziger Bros.
- Bacon, F. (1620). *Novum Organum*. London: [Publisher unknown].
- Barth, K. (1975). *Church Dogmatics I/1*. (Ed.) Bromiley G. W. & Torrance. T. F. Edinburgh: T&T Clark.
- Baur, F. C. (1831). *Die Christuspartei in der korinthischen Gemeinde, der Gegensatz des paulinischen und petrinischen Christentums in der ältesten Kirche, der Apostel Petrus in Rom*. Tübingen: Tübinger Zeitschrift für Theologie.

- Bavinck, H. (2018). *Philosophy of Revelation*. Peabody, MA: Hendrickson.
- Becher, T. & Trowler, P. (2001). *Academic Tribes and Territories: Intellectual Enquiry and the Culture of Disciplines*.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Bellah, R. (1985). *Habits of the Heart: Individualism and Commitment in American Lif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erkhof, L. (1988). *Principles of Biblical Interpretation*. Grand Rapids, MI: Baker.
- Bohm, D. (1980). *Wholeness and the Implicate Order*. London: Routledge.
- Bristow, W. (2017). "Enlightenment". In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Retrieved from <https://plato.stanford.edu/entries/enlightenment/> (2024.10.29).
- Brown, C. R. (2023). "David Hume". In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Retrieved from <https://plato.stanford.edu/entries/hume/> (2024.10.29)
- Brown, P. (2000). *Augustine of Hippo: A Biograph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alvin, J. (1960).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Battles, F. L. (Ed.) McNeill, J. T. Philadelphia, PA: Westminster Press.
- Clark, W. (2006). *Academic Charisma and the Origins of the Research Universit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bban, A. B. (1975). *The Medieval Universities: Their Development and Organization*. London: Methuen.
- Dear, P. (2006). *The Intelligibility of Nature: How Science Makes Sense of the World*.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orster, M. (2022). "Friedrich Daniel Ernst Schleiermacher". In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Retrieved from <https://plato.stanford.edu/entries/schleiermacher/#PhilReli> (2024.10.29).
- Galileo, G. (1632). *Dialogue Concerning the Two Chief World Systems*. Florence: [Publisher unknown].
- Grant, E. (1996). *The Foundations of Modern Science in the Middle Ages: Their Religious, Institutional, and Intellectual Contex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ant, R. M. (1988). *Greek Apologists of the Second Century*. Philadelphia, PA: Westminster Press.
- Jackson, B. (2004). The Book of Saint Basil on the Spirit. In Schaff P. & Wace H. (Ed.)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Vol. 8).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 Kant, I. (1996). *Religion Within the Boundaries of Mere Reason*. Trans. Wood, A. & di Giovanni, 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erkegaard, S. (1983). *Fear and Trembling/Repetition*. Trans. Hong, H. V. & Hong, E. H.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ierkegaard, S. (1992). *Concluding Unscientific Postscript to Philosophical Fragments*. Trans. Hong, H. V. & Hong, E. H.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lein, J. T. (1990). *Interdisciplinarity: History, Theory, and Practice*. Detroit, MI: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 Koyré, A. (1957). *From the Closed World to the Infinite Universe*.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 Kuhn, T. S. (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indberg, D. C. (2007). *The Beginnings of Western Science: The European Scientific Tradition in Philosophical, Religious, and Institutional Context, Prehistory to A.D. 1450*.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üdemann, G. (2020). "Diese Theologie ist keine Wissenschaft". Retrieved from <https://www.user.gwdguser.de/~gluedem/ger/t101007.htm> (2024.10.29)
- Luther, M. (1955-1986). *Luther's Works*. (Ed.) Pelikan, J. & Lehmann, H. T. St. Louis, MO: Concordia Publishing House & Fortress Press.
- Luther, M. (1958). Lectures on Genesis, chapters 1-5. in Pelikan, J. (Ed.) (1958). *Luther's Works*. (Vol. 1, p. 14). St. Louis, MO: Concordia Publishing House.
- MacIntyre, A. (1981).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Marrou, H. I. (1982). *A History of Education in Antiquity*.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McClelland, C. E. (1980). *State, Society, and University in Germany, 1700-191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Grath, A. E. (2001). *Science and Religion: An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McGrath, A. E. (2004). *The Science of God: An Introduction to Scientific Theology*. London:

- T&T Clark International.
- McGrath, A. E. (2009). *A Fine-Tuned Universe: The Quest for God in Science and Theolog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Menn, S. (2012). "Aristotle's Theology". In *The Oxford Handbook of Aristotle*. Retrieved from <https://academic.oup.com/edited-volume/28232/chapter-abstract/213298301> (2024.10.29)
-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2008). *Science, Evolution, and Creationism*.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https://doi.org/10.17226/11876>.
- Newton, I. (1687). *Philosophiæ Naturalis Principia Mathematica*. London: Royal Society.
- Nussbaum, M. (2001). *Upheavals of Thought: The Intelligence of Emo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liver, E. (2016). "Theology: Still a Queen of Science in the Post-Modern Era". In *In die Skriflig*, 50(1), a2064. Retrieved from <http://dx.doi.org/10.4102/ids.v50i1.2064> (2024.10.29)
- Osborn, E. F. (2005). *Clement of Alexandr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lmer, P. (1998). *The Courage to Teach: Exploring the Inner Landscape of a Teacher's Lif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Patrick, J. (2004). Origen's Commentary on the Gospel of Matthew. in Menzies, A. (Ed.) (2004). *Ante-Nicene Fathers* (Vol. 9).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 Popper, K. (1959).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New York, NY: Basic Books.
- Reimarus, H. S. (1972). *Apologie oder Schutzschrift für die vernünftigen Verehrer Gottes*. (Ed.) Alexander, G. Frankfurt: Insel-Verlag.
- Rohlf, M. (2024). "Immanuel Kant". in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Retrieved from <https://plato.stanford.edu/entries/kant/> (2024.10.29)
- Rosenberg, A. (2000). *Philosophy of Science: A Contemporary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 Schleiermacher, F. (1928). *The Christian Faith*. Trans. & (Ed.) Mackintosh, H. R. & Stewart, J. S. Edinburgh: T&T Clark.

- Schleiermacher, F. (1966). *Brief Outline of the Study of Theology*. Trans. Tice, T. N. Louisville, KY: John Knox Press.
- Sedley, D. (2019). "Plato's Theology". In *The Oxford Handbook of Plato*. Retrieved from <https://academic.oup.com/edited-volume/41754/chapter-abstract/354205224> (2024.10.29)
- Shapin, S. (1996). *The Scientific Revolu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nyder, L. J. (2011). *The Philosophical Breakfast Club: Four Remarkable Friends Who Transformed Science and Changed the World*. New York, NY: Broadway Books.
- Spinoza, B. (2021). *Theologico-Political Treatise*. Trans. Elwes, R. H. M. Independently published.
- Stichweh, R. (2001). Scientific Disciplines, History of. in Smelser, N. J. & Baltes, P. B. (Ed.) (2001).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 Behavioral Sciences* (pp. 13727-13731). Amsterdam: Elsevier.
- Strauss, D. F. (1835-1836). *Das Leben Jesu, kritisch bearbeitet*. Tübingen: C. F. Osiander.
- Taylor, C. (1989). *Sources of the Self: The Making of the Modern Identi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Taylor, C. (2007). *A Secular Ag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Tillich, P. (1951). *Systematic Theology, Vol. 1*.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illich, P. (1957). *Dynamics of Faith*. New York, NY: Harper & Row.
- Trowler, P., Saunders, M. & Bamber, V. (Ed.) (2012). *Tribes and Territories in the 21st Century: Rethinking the Significance of Disciplines in Higher Education*. London: Routledge.
- Uzgalis, W. (2022). "John Locke". in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Retrieved from <https://plato.stanford.edu/entries/locke/> (2024.10.29)
- Voltaire. (1764). *Dictionnaire philosophique [Philosophical dictionary]*. (Original work published anonymously in Geneva.
- Wellhausen, J. (1883). *Prolegomena zur Geschichte Israels*. Berlin: G. Reimer.

- Wittrock, B. (1993). *The Modern University: The Three Transformations*. in Rothblatt, S. & Wittrock, B. (Ed.) (1993). *The European and American University Since 1800: Historical and Sociological Essays* (pp. 303-36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olfe, C. T. (2019). "Denis Diderot". in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Retrieved from <https://plato.stanford.edu/entries/diderot/> (2024.10.29.)
- "Cyril of Alexandria". Wikipedia. (n.d.). Retrieved from https://en.wikipedia.org/wiki/Cyril_of_Alexandria (2024. 11. 30)
- "Gregory of Nazianzus". Wikipedia. (n.d.). Retrieved from https://en.wikipedia.org/wiki/Gregory_of_Nazianzus (2024. 11. 30)
- "Superstring theory", Wikipedia (2024.9.8). Retrieved from https://en.wikipedia.org/wiki/Superstring_theory (2024.10.29)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의 위험성과 개혁주의 신학적 대안

The Dangers of the Claim “Theology Is Not an Academic Discipline” and Reformed Theological Alternatives

김진규 (백석대학교)

논문초록

본 논문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의 위험성을 검토하고 개혁주의 신학적 대안을 제시한다. 계몽주의적 이성주의는 자연과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이성주의, 경험주의, 회의주의에 대한 교조적 믿음으로 인해 신학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세 가지 주된 반응이 나타났다. 역사비평학이나 철학적 사조를 통해 신학의 학문적 지위를 입증하려는 시도, 신학과 학문의 분리를 주장하는 입장,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신학의 학문성을 인정하려는 노력이다. 본 논문은 최근 장종현의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의 계시관, 신학관, 학문관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헤르만 바빙크의 보편학문 개념과 계시 이해를 바탕으로, “신학/학문이란 특별계시와 일반계시에 내재된 진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이다”라는 통합적 관점을 제시한다. 이 제안은 신학과 다른 학문이 모두 하나님의 계시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되, 일반학문은 일반계시를, 신학은 특별계시를 중심으로 연구하면서 진리 추구를 통해 상호 연관성을 유지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접근은 신학의 고유한 특성을 보존하면서도 진정한 학문으로 확립한다.

주제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신학, 학문, 헤르만 바빙크, 계시

기독교 국제주의와 윤치호의 국제인식: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를 중심으로*

**Christian Internationalism and Yun, Chi-ho's International Thoughts:
Focusing on the 1910 Edinburgh World Missionary Conference**

김호수 (Hosoo Kim)**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international ideas of Yun, Chi-ho, a prominent 'international' figure in early 20th-century Korea. While previous research has primarily focused on Yun's ideology within the context of Joseon's domestic turbulence, this paper seeks to shed new light on Yun's unique complexities by framing his thoughts through the concept of internationalism. Yun's perspectives are examined through the lenses of Christian internationalism, specifically centered on ecumenicalism and Wilsonian internationalism. In particular, this study reinterprets Yun's intellectual transformation and Christian faith around the time of the 1910 Edinburgh World Missionary Conference. It also contextualizes Yun's decision to refer to the March 1st Movement as a "political influenza" and to pursue a pro-Japanese path. Christian faith underpinned Yun's international outlook, encompassing a multi-layered set of emotions and ideas shaped both by personal and external experiences. Ultimately, this study seeks to expand the historical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ism by examining the narrative of a unique figure whose experiences were on the peripheries of major internationalist movements.

Key Words: ecumenicalism, internationalism, national self-determination, Wilsonianism, Yun, Chi-ho

* 2024년 11월 4일 접수, 12월 11일 최종수정, 12월 12일 게재확정

** 서울대학교(Seoul National University) 외교학과 박사과정,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hosoo1204@snu.ac.kr

I. 들어가며

1920년에 55살이 되었던 윤치호는 당시 조선에서 가장 국제적인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윤치호는 어린 나이에 이미 일본과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스코틀랜드, 러시아, 베트남 등 대륙을 건너 많은 나라들을 다니며 다양한 사람과 삶의 형태를 목격한 상태였다. 또한 그는 미국 남부에서 가난한 노예 출신 아프리카계 흑인들의 교사로 일을 했고, 남감리교(Southern Methodist)협회의 국제선교회에 여러 차례 초대되어 참가했으며, 러시아 황제의 대관식에도 참가하는 등 당시 다양한 문화, 인종, 종교의 문제가 교차하는 국제적 현장을 직접 몸으로 경험했다. 심지어는 청일전쟁 중 상하이에 머물 당시 윤치호는 중국 여인 마애방(馬愛芳)과 소위 ‘국제결혼’을 하는데, 이는 근대 한국인과 중국인이 결혼한 첫 사례로 알려져 있다.

윤치호는 조선 밖 세계, 즉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치가 굉장히 높은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조선 내부 사정에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는 여러 차례 관직 생활을 했고, 을미사변(乙未事變)과 고종의 죽음을 가까이서 지켜보았고, 105인 사건(百五人事件)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는 등 당시 복잡했던 대내외적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정치관을 형성해 나간 인물이기도 하다. 특히 1905년 YMCA 기독교 청년회 부회장으로 선출된 후, 그는 조선 내의 기독교 청년 활동과 선교 및 교육 활동에 매진한다.

본 글은 20세기 초반 한국의 대표적인 ‘국제적’ 인물이었던 윤치호만의 내밀한 국제인식을 살펴본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 속 윤치호의 행보, 즉 근대적 문호 개방과 일제강점기 등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으며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던 조선인으로서 윤치호의 세계관을 분석하려던 시도가 많았다. 하지만 본 글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서구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된 ‘국제주의(internationalism) 운동’이라는 역사적 관점으로 윤치호를 새롭게 이해해 보고자 한다. 또한, 당시 주요 국제주의 운동의 경계에서 있던 한 인물의 독특한 서사를 통해 국제주의에 대한 역사적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그동안 윤치호는 정치, 문학, 종교, 교육, 외교,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사적 관심을 받아온 인물이다. 그의 국제정세 이해와 국제 인식과 관련해 가장 두드러진 주목을 받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20세기 초부터 본격화된 그의 친일 행보이다. 독립협회 활동과 독립신문 발행 등 한 때는 한반도의 자율적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가 어느새 견고한 친일적 입장에 서게 된 과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었다. 먼저, 조선 후기 윤치호의 문명 개화론에서 이미 조선의 자주성을 약화시키며 일본을 모범으로 삼는 요소들을 발견한 연구들이 있다(김정일, 2008 ; 정용화, 2001a ; 유영렬, 2004), 이는 그가 당시 서구, 일본, 청국에 대해 각기 다른 감정을 느끼며 국제정세를 파악한 방

식과도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윤치호의 친일 과정은 윤치호가 청국에는 반감을 품고 서구 문명에는 내재화된 우월의식을 느꼈으며, 결국 일본을 대안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는 서술로 통용된다. 각국에 대한 그의 복잡한 감정과 궁극적인 친일 사상으로의 전환은 ‘주변부 지식의 허위의식’, ‘양가적 저항’, ‘현실주의적 자조론’ 등의 관점으로 이해되어 왔다(김용신, 2022 ; 류충희, 2016 ; 정용화, 2001b).

또한, 윤치호의 국제인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의 국제정세 이해와 기독교 사상의 연관성을 함께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윤치호는 조선 후기에 관직을 맡은 후 국제정세에 관해 끊임없이 의견을 제시하며, 문명 발전과 자유를 핵심 가치로 삼아 여러 계몽주의 운동에 매진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자유와 사회 개혁을 논하며 신앙적 가치를 중시했다(류충희, 2015). 그러나 그의 신앙에는 종교적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얽혀 있었으며, 이는 그의 국제적 경험과도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윤치호는 1910년 에딘버러 선교대회에서 비서구 지역의 대표로 연설하며, 동양의 사상체계에도 논쟁할 수 없는 진리가 담겨 있음을 주장했다. 동시에 서구 대표들의 감상적인 신앙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안신, 2010). 그럼에도 윤치호는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 국제관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다양한 문화적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국제인식과 신앙관을 바탕으로 정세를 해석하려고 했던 인물이다. 본 글은 이러한 윤치호의 국제 인식, 신앙관, 그리고 궁극적인 친일 행보를 이해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 ‘국제주의’라는 새로운 관점을 더해 윤치호의 특수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국제주의란 무엇인가? 최근 서구 국제관계사에 관한 연구는 19세기 중후반부터 시작하여 1차 대전 전후로 활발해진 ‘국제주의’ 운동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Gorman, 2012 ; Jackson et al., 2023 ; Sluga, 2013). 19세기 말부터 통신과 교통기술이 크게 발달하며, 국가 간 교류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활발해졌다. 20세기 초부터는 각 국가 간의 갈등이나 국가 간 연대가 필요한 문제들을 국가 밖에서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폭발적으로 등장했으며, ‘국제주의’는 이 시도를 뒷받침하는 공통적 관념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동안 국제주의는 주로 코민테른(Comintern 혹은 Third International)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권 국제운동 혹은 강대국들의 외교적 비전을 지칭하는 좁은 개념으로 이해 되어온 경향이 있다(남궁곤, 2010 ; 심지화 외, 2017). 그러나 최근 ‘국제주의’라는 개념은 국가 간 연대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각종 국제단체와 기구를 설립하는 다양한 운동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Holbraad, 2003). 이러한 운동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 국경을 넘어선 협력을 추구하며, 서로 다른 이념과 목표를 가지고 발전해 왔다.

다만 어떤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삼는지, 어떤 방식으로 국가 간 연대를 도모하는지, 혹은 무엇을 목적으로 삼는지 등에 따라 국제주의 운동의 종류가 나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사회주의 국제주의는 사회주의권 사람들의 공산주의 혁명을 향한 열망과 연대를 반영하였고, 1920-30년대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운동으로 대표되는 반대 진영의 자유주의 국제주의는 민주주의, 자유 무역, 군비 축소,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을 중시했다.

본 글은 윤치호의 특수성을 포착하기 위해 두 가지의 특정한 국제주의 갈래에 주목한다. 첫째, 자신의 국가적 정체성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우선시하며, 국경을 넘어선 복음 전파 운동과 그리스도인들의 초국가적 연대에 관심을 보인 기독교 국제주의에 초점을 둔다. 특히 본 글은 세계교회주의 운동과 그 초석이 되었던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를 중심으로 윤치호를 해석한다. 물론 넓은 의미의 기독교 국제주의는 로마 가톨릭의 국제주의를 포함할 수 있다(Chamedes, 2019). 로마 가톨릭 국제주의는 바티칸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법적, 외교적, 문화적, 기술적 노력을 통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본 글은 특히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주의 운동, 그중에서도 세계교회주의 운동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비서구 민족주의 운동가들의 초국가적 연대를 기반에 둔 민족자결주의 국제주의의 관점으로 윤치호의 후기 사상을 조망한다. 20세기 초 민족자결주의(national self-determination) 운동, 이른바 윌슨주의(Wilsonianism)는 한국을 비롯해 이집트, 인도, 중국 등 여러 나라의 민족주의적 열망을 자극했고, 이로 인해 ‘내셔널리즘의 국제화’라는 역설적이고도 독특한 국제주의 운동이 등장했다. 윤치호는 민족자결주의 국제주의 연구에서 제시하는 비서구 민족주의자의 조건을 어느 정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이 현상을 ‘정치적 인플루엔자’라고 지칭하는 이탈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윤치호의 특수성을 설명하기 위해 그의 내밀한 국제인식과 신앙관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윤치호의 국제인식을 단순히 한 인물의 개인적 종교 선택으로 보는 관점을 넘어, 빠른 국제화의 시대 속에서 자신이 직접 목격한 국제적 변화들에 대한 비서구 지식인의 반응이자 응답으로 바라보려는 시도이다. 일제 식민 지배라는 억압적 그림자로 뒤덮여 있던 한반도의 상황과는 달리, 서구인들에게 20세기 초반은 타 국가와의 협력, 타 문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가득한 국제주의의 시기였다. 당대 서양인들의 국제주의는 새로운 문화와 더욱 깊고 넓게 교류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기대감을 반영한 동시에 앞으로 식민지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혼란을 동반한 운동이기도 했다. 바로 이 시기에 조선의 윤치호는 한국에서 에딘버러까지의 이동을 감행하며 ‘비기독교 국가의 대표’로 국제 선교 문화에 관해 연설했다. 당시 혼란기를 겪고 있던 조선의 입장에서 윤치호의 경험은 조선의 생존과 국제적 지위 획득을 위한 투쟁 과정이었지만, 비교

적 희망에 가득 찬 국제주의 물결이 흐르던 서구인들의 입장에서 윤치호는 먼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신실한 비서구인이었다.

본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윤치호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두 가지의 국제주의 운동 형태를 소개하며, 각각의 관점에서 왜 윤치호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설명한다(2장). 다음, 윤치호의 WMC 경험과 ‘산재한 약’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된 윤치호의 국제인식을 살펴본다. 내밀한 신앙관과도 깊이 연결된 그의 국제인식이 어떻게 윤치호가 경험한 모순적 상황과 뿌리박힌 회의론을 반영한 사상적 도구가 되었는지 알아본다(3장). 또한, WMC 이후 에큐메니즘 운동과 윤치호의 행보를 살펴보고, 어떤 내적인 변화가 그를 윌슨주의로부터 이탈하게 만들었는지 검토한다(4장).

윤치호에게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서구’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내밀한 사적 경험과 다양한 외부 경험이 중첩되어 형성된 다층적 감정과 관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 복잡성과 독특성을 국제주의 관점에서 조명하며, 마지막에는 이러한 과정이 향후 기독교적 고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간단히 언급한다(5장).

II. 국제주의적 관점에서 본 윤치호의 특수성

본 장은 여러 국제주의 운동의 갈래 중에서도 세계교회주의 운동을 중심에 둔 기독교 국제주의와 윌슨주의 운동으로도 불리는 민족자결주의 국제주의의 관점에서 윤치호의 행보를 살펴본다. 이 두 관점에서 본 윤치호의 국제인식은 매우 독특한 모습을 지닌다. 윤치호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 본 장은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로 대표되는 기독교 국제주의 운동 속 윤치호의 역할을 살펴보고, 이후 그가 친일적 행보를 선택한 맥락을 윌슨주의의 관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기독교 국제주의와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WMC)

영국과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일찍이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비기독교, 비서구 지역에 선교사들을 꾸준히 파송해왔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그 선교사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선교지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행정적, 정치적 문제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생겼다. 더군다나 점점 국제화되는 세상 속에서 타 국가, 타 인종, 타 문화와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해석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기독교 차원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은 자

연스럽게 부각 되었다. 이때, ‘세계교회주의 운동’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에큐메니즘(ecumenism) 사상과 운동이 활발해지며, 각 지역이나 문화의 경계선을 초월한 ‘세계적’ 교회의 필요성, 그리고 이를 위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의 연대와 협력이 강조되었다. 20세기 국제 교회사를 연구한 브라이언 스탠리(Stanley, 2018)에 따르면, 20세기는 “에큐메니컬 운동의 세기(the century of ecumenicalism)”였다. 그리고 1910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열린 세계선교대회(World Missionary Conference, 이하 WMC)는 이 세기의 개막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동안 역사학계는 1차 세계대전(1914-1918) 발발 전후로 활발했던 여러 국제주의 운동을 ‘이상주의적’이거나, 결과적으로 전쟁을 막지 못한 ‘실패작’이었다는 이유로 간과한 경향이 있었다. 교회사학계 역시 세계대전 이후 기독교인들이 경험한 상실과 좌절에 주로 집중하면서, 에큐메니컬 운동이 가진 사회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왔다. 그러나 세계대전은 이러한 에큐메니컬 운동의 열기를 아예 꺾어버리거나 무효화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독교가 유럽과 비서구 지역에 더욱 침투할 기회로 작용하여 그 열기를 다시 뜨겁게 만든 계기 중 하나였다(Donahue, 2015). 즉, 20세기 초 에큐메니컬 운동과 에딘버러 선교대회는 향후 기독교 국제주의가 더욱 활발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큐메니컬 국제주의는 여러 국제주의 담론 중 하나였지만, 때로는 자유주의 국제주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서구의 자유주의 국제주의를 에큐메니컬 국제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들에 따르면, 20세기 초 서구 교회들이 제시한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의 비전은 자유주의 진영에 속한 정치권의 국제주의 흐름과 맞물려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되었다 (Donahue, 2015 ; Stanley, 2018). 당시 자유주의 국제주의의 정치적 담론은 국가 간 갈등 완화, 전쟁 방지, 그리고 평화 증진과 같은 논의를 중심으로 비밀외교보다는 ‘신외교’의 중심이라고도 불리는 대중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는 일반 시민들 간의 국제적 도덕 담론을 형성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Gorman, 2010 ; Stanley, 2018). 과거부터 발전해온 기독교적 선교 비전은 국제주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 현상과 정치적 맥락과 결합 되었고, 단순히 종교적 형태를 넘어서 서구의 근본적인 국제 인식, 외교 정책, 그리고 식민지 관리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국제주의적 열망은 비서구 문화권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며 상호 작용했을까? 윤치호는 WMC 둘째 날인 6월 15일에 진행된 “모든 비기독교 세계에 복음 전하기(Carrying the Gospel to All the non-Christian World) 세션과 셋째 날인 6월 16일에 진행된 “선교 현장의 교회(The Church in the Mission Field)” 세션에서 조선의 선교 상황과 비서구 대표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기독교 선교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물론, 윤치호는 당시 WMC에 참석한 1,215명의 대표 중 한 명으로서 그

의 발표는 총 8개의 대회 주제 중 일부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에큐메니컬 국제주의 역사에서 WMC는 서구 기독교인들이 비서구 선교지 사람들을 대면하고 그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접하며 신학적 고민을 본격적으로 풀어낼 수 있었던 첫 번째 기회로 회자된다 (Sanecki, 2006). 윤치호는 서구인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난 첫 비서구 선교지 사람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세기 초 서구 국제주의 운동의 역사와 이후 세계교회주의 운동의 흐름 속 1910년 WMC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1910년 6월 14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었던 WMC는 교계 인사나 선교사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많은 주목을 받으며 성황리에 끝난 대회로 알려져 있다 (Sanecki, 2006). 이 대회는 개신교 교단 간 협력을 강화하고, 선교와 관련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독교 세계 선교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 여러 국가의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대회의 저녁 세션은 일반 사람들도 참석할 수 있게 개방되어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대회 종료 직후 영국과 미국에서는 WMC에 관한 언론 보도가 쏟아졌으며, 영국의 타임즈(Times)지는 곧바로 굉장한 긴 분량의 기사를 내기도 했다(Sanecki, 2006: 126). 해당 기사는 WMC의 “장엄한(grandeur) 개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찬사를 보냈고, WMC는 존 모트(John R. Mott) 의장의 “큰 승리이자 업적(triumph)”이라고 평가하며, 그를 “타고난 대회 전문가(born master of assemblies)”라고 칭찬했다.

WMC에서 논의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비서구 선교지에서의 기독교 확장과 그 과정에서 직면한 도전과 과제였다. 이 논의에서 서구 교회의 역할뿐만 아니라 비서구 지역 기독교인들과의 협력이 강조되었으며, 이는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을 모색한 초기의 시도였다. WMC가 대중적인 영향력을 지닌 행사였고, 그러므로 당시 식민지 문제와 선교 확장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비서구 ‘이웃’들과의 조우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논의와 식민지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즉, WMC는 비서구 선교지에 대한 인식 변화의 중심에 있던 사건이었고, 19세기부터 이어진 식민지 선교에 대한 내적 성찰과 이후 여러 에큐메니컬 운동의 촉발을 가능하게 해준 대화의 장이었다 (Sanecki, 2006). 그동안 흩어져 있던 비서구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론적으로만 논의되던 토착민 선교의 현황과 실제 경험을 생생하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의장이었던 존 모트는 WMC를 회상하며, 이전에 자신이 가졌던 “견고한 인종적 편견”을 돌아보고 “인종 간의 연합을 더욱 갈망하게 된” 계기였다고 표현했다 (Hartley, 2012: 29).

물론 WMC가 실질적으로 대변했던 다양성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제기하는 관점도 존재한다 (Stanley, 2006). 이러한 관점은 WMC가 기독교국(Christendom)의 경계를 강화하는 배타적인 행사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며, WMC 개최 준비 과정에서 천주교와 동방 정교회 교인들의 참여는 공식

적으로 거부되었음을 지적한다(Stanley, 2018).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대회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도가 뒤섞인 역동적인 대화의 장이었다. 최소한 서구 개신교계 내에서는 식민지 사람들과 제국주의에 대해 더 풍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인종 문제를 보다 확장된 시각에서 다룰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WMC는 의의를 지녔다. 실제로 WMC 참석자들은 비서구 기독교인을 실제로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자신의 생각이 이전과 같을 수 없다고 말하며, 더 이상 비서구 토착 교회의 상황을 간과하거나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토로했다 (Sanecki, 2006: 141).

WMC 개최 이전에도 두 차례의 선교대회가 각각 런던(1888)과 뉴욕(1900)에서 열렸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비서구 선교지의 선교사들과 토착민 기독교인들이 직접 대회장에 참석한 것은 에딘버러의 선교대회가 처음이었으며, 이는 사실상 첫 번째 ‘세계’ 선교대회였다. 이 대회를 계기로 앞서 언급된 ‘에큐메니컬 운동의 세기’가 시작되었고, 이후 에큐메니컬 운동은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의 창설로 대표되는 서구 자유주의 국제주의 운동의 기반에도 영향을 미쳤다 (Stanely, 2018).

예를 들어, WMC에서 의장과 준비 위원회 대표를 맡았던 여러 임원들은 이후 디킨슨(Willoughby Dickinson)이 주도한 1914년 “국제적 친선을 위한 세계 연합(World Alliance for International Friendship)”에 다시 임원으로 참여했다. 디킨슨은 국제연맹 설립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물이며, 국제연맹의 취지에 기독교적 연대 정신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Gorman, 2010). 또한, 존 모트 의장은 1910-20년대 국제연맹 창설 운동을 주도했던 미국의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였으며, YMCA 대표로서 윌슨의 전시 노동(United War Work) 캠페인을 가장 활발히 이끌어간 인물이기도 했다 (Donahue, 2015 ; Petit, 2022). 20세기 초 기독교 단체들의 국제적 네트워크는 세계 정부와 국가 간 연합을 꿈꾸는 이들의 가장 큰 지지 기반이 되었다.

2. 윌슨주의(Wilsonianism)와 윤치호의 깊은 회의론

그동안 윤치호의 친일 행보는 그의 전반적인 사상과 파악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자 특이점으로 여겨졌다. 특히 윤치호는 여러 관직에서 활동하고, 복잡한 국제정세 속 나약한 조선의 국제적 위치를 목격한 뒤 “결국 힘이 정의다”라는 현실주의적 결론에 도달하며 친일적 견해를 밝혔다고 알려져 있다(김상태, 2001: 95). 즉, 그의 친일 행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태도는 세계정치에 대한 깊은 회의론이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윤치호의 내면에는 “중심부와 강한 것에 대한 선망, 그리고 역으로 주변부의 약한 조국에 대한 열등의식”이 존재했으며, 결국 그의 회의적인 입장은 그가 “서구적

질서에 대한 전복을 꿈꾸기보다는 일본이라는 대안을 선택”하게 만들었다(김용신, 2022 ; 정용화, 2001b). 윤치호가 세계정치에 관해 보였던 깊은 회의론은 단순히 정치에 관한 현실적이고 냉철한 의문을 품게 함을 넘어, 그의 내면에 패배감과 피해의식, 그리고 더 나아가 무력감을 느끼게 했다는 것이다.

이는 1910-20년대에 많은 식민지 국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던 “윌슨의 순간(Wilsonian moment)”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피식민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에즈라 마넬라(Manela, 2007)에 의하면,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선포한 14개 조항 원칙과 그로부터 확산된 민족자결주의라는 이상은 의도치 않게 한국을 포함한 비서구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 운동에 중요한 자극제가 되었다. 민족자결주의는 당시 조선뿐만 아니라 이집트, 인도, 중국 등 여러 나라의 민족주의자들에게 유용한 사상적 도구로 사용되며 확산되었다.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서구 자유주의 사상은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개신교 선교사들이나 해외에 살고 있던 지식인들에 의해 유입되어 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며, 진보, 근대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마넬라(Manela, 2007: 133)는 한국에도 “윌슨의 수사(rhetoric)가 가진 잠재적 유용성”을 알아보고 선망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단체를 조직하며, 교육을 중요시 여기고, 정치적으로 체계화된 덕분에 한반도에도 “윌슨의 순간”이 찾아왔다. 이는 1919년 예정된 파리 강화 회의에서 윌슨이 조선의 독립을 선언해줄 것이라는 희망으로 이어졌고, 3.1운동과 같이 대중들을 대규모로 연대하게 하는 공통의 지지기반을 제공했다.

그동안 국내 연구에서도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조선의 3·1운동을 촉발한 주요 외부적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김승렬, 2011 ; 김지훈, 2013). 최근에는 당시 국제정세 속에서 ‘민족자결주의’라는 개념이 제시된 의도와 맥락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민족자결주의가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의 논의에서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점(김승배, 2019), 윌슨의 주장이 동시대 레닌의 주장과 대립하는 서구 중심적 민족자결이었다는 점(조규태, 2011), 그리고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이 윌슨의 의도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송지예, 2012)을 지적한 국내 연구들은 국제주의적 이상과 조선의 식민지적 현실 사이의 복합적 역할을 잘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넬라(Manela, 2007)의 연구는 윌슨주의적 국제주의 운동을 “내셔널리즘적 국제주의”라는 역설적 현상으로 포착하며 조선 독립운동을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한다. 특히 이 관점은 20세기 초 제국의 질서가 약화되며 여러 지역에서 민족국가라는 새로운 정치체들이 급속히 증가하던 시기에, 새로운 국제질서 구상에 기여했던 다양한 주체들의 사례를 조명하는 데 의의를 지닌다. 승전국의 서구 중심적 의도로 발신된 정치적 수사가 비서구권으로 전달되어

국제주의적 반응을 이끌어낸 과정을 탐구하는 것은, 이 시기 국제정치 재편 과정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또한, 이 연구는 국제주의 운동의 기반에 내재된 민족주의적(nationalist) 특성을 드러내는 사례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가 제시하는 분류법에 따르면, 윤치호는 월슨주의 지식인이 지닌 대부분의 특징을 갖춘 인물이었다. 그는 조선 내의 서구 자유주의 사상을 일찍이 접했고, 해외 경험이 많았으며, 심지어는 마넬라(Manela, 2007: 122)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근대 민족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단체”라며 예시로 들었던 독립협회 모임에 직접 참석하여 활동을 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월슨과 민족자결주의에 큰 감명을 받고 더욱 열렬한 저항운동에 힘을 실었던 다른 민족주의자들과는 달리, 윤치호는 오히려 월슨과 민족자결주의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 분노에 가까운 회의감을 느끼며 끝내 1919년 파리강화회의와 3.1운동 참석을 거부한다. 이는 윤치호의 친일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다.

이렇듯 20세기 초반 비서구 국가들의 공통적인 탈식민주의 흐름에 주목하는 국제사(international history)적 관점에서 윤치호의 국제인식과 정치적 행보는 분명 독특하다. 기존 사학계의 연구에서 분석하듯, 윤치호는 서구에 대한 열망과 피해의식, 그리고 패배감이 공존하는 특유의 깊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글은 더욱 근본적으로 그의 내면에 깔린 죄악관, 즉 ‘악의 개념’에 대한 그만의 신앙적 경험과 해석에 주목한다. 다음 장에서는 윤치호만의 죄악관을 형성하는데 1905년과 그 이후의 경험, 특히 1910년 에딘버러 세계대회 참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탐구하려 한다.

III. 윤치호의 세계선교대회 참여(1905-1910)

기독교 국제주의의 물결을 직접 경험한 윤치호는 어떤 심경이었을까? 전반적으로 윤치호가 대회를 회상하며 보인 태도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1940년에 그는 당시 백인 발표자들이 앵글로색슨족을 찬양하는 데 시간을 낭비했다며 저속한 국수주의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기억했다(안신, 2010: 10). 하지만 윤치호가 에딘버러에서 경험한 불쾌감은 단순히 WMC에서 표출된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1880년대에 노예로 활동했던 가난한 아프리카계 흑인들의 교사로 일하며 목격한 백인들의 깊은 우월의식과 인종차별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했었다.

특히 윤치호는 미국 유학 시절부터 남감리교의 여러 종교 의회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그때부터 서양인들이 주장하는 보편적 종교(universal faith)에 깊은 의심을 품었기 때문에 대부

분 참석을 거절했다. 윤치호는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여겼지만, 공격적인 선교에는 반대했으며 비기독교 지역의 전통적인 종교의 독특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기독교의 교리를 궁극적인 진리로 여겼으나, 다른 종교의 교리에도 진리가 담겨 있을 가능성을 열어 두었고, 종교의 독특성과 상호 차이를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 따라서 1893년에 시카고 세계종교의회에 초대받았을 때도, 글과 사상만으로 이루어지는 종교 간 연합을 위한 노력에 큰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했다(안신, 2010: 4).

18년 후, 윤치호는 각각 미국 애틀랜타(3월)와 에딘버러(6월)에서 두 차례의 연설을 발표했다.¹ 그의 연설에는 사람들이 붐비고,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높은 참석률을 기록했으며, 그는 자신 있게 자신의 선교관과 조선의 선교 현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1910년은 그가 많은 청중 앞에서 “인생의 최선을 다한 대열변”을 펼치게 된 해였다(김영희, 1999). 과거에는 선교, 종교 화합, 비서구 지역 선교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던 그가 왜 열변을 하게 되었는지는 연설문 내용을 통해 조금씩 파악할 수 있다.

1910년 3월 미국 남감리교 평신도대회에서 윤치호가 펼친 주장 중 주목할 부분은 그가 “분산화(scatterization)”라는 개념을 사용해 선교관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윤치호는 1910년 6월 에딘버러로 가기 직전인 3월에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남감리교 평신도대회에 참석해서 처음으로 이 개념을 사용하게 되고, 이후 세계선교대회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선교관을 제시한다(김영희, 1999 ; 안신, 2010). 안신(2010: 12)에 따르면, 윤치호가 말한 분산화는 당시 서구의 선교 사업이 “외면과 평면적으로 넓어지고 벌여 놓으며 (...) 무작정 일을 벌이려 하는” 모습을 비판하는 용어였다. 그는 힘을 분산시키는 대신, “전 힘과 일을 견실한 한곳으로 집중”하는 것이 선교전략의 핵심이라고 여겼으며, 이는 보편적 종교에 대한 경계를 표명했던 그의 기존 신앙관과 일맥상통했다.

세계선교대회에서 발표된 윤치호의 연설문을 요약하자면, 당시 그가 WMC에서 서구 기독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World Missionary Conference, 1910: 411-412). 첫째, 윤치호는 조선에서의 설교를 “수많은 위험(great dangers)에 맞서”서 선교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조선에 이미 만연한 유교와 불교는 영향력이 매우 강하며, 윤치호는 이를 조선인들을 둘러싼 여러 “위험”의 일종으로 보았다. 둘째, 그는 조선의 문호 개방 이후 서구 철학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이것 또한 조선에서의 선교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요소로 보았다. 서구 철학은 세속주의, 무신론, 회의론을 동반하여 조선에서의 선교를 방해할 것이라고 믿었

1) 본 글에서 윤치호의 내적 변화를 서술하는 내용은, 평신도 대회 및 세계선교대회 보고서의 원문과 윤치호의 대회 참석에 관한 서신들을 직접 열람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안신(Ahn, 2006)의 논문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본 연구는 안신의 분석을 바탕으로, 필자가 추가적으로 조사한 사료(윤치호의 일기)를 더하여 이 글의 관점에 맞게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다. 셋째, 윤치호는 당시 조선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회심” 현상을 위험하다고 표현하며, 선교는 이렇게 급속하게 진행되기보다는 토착 문화와 사람들과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서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윤치호가 3월에 비판한 ‘분산화’의 의미는 단순히 무작정 일을 벌이며 ‘선교 현장을 망치는’ 서구 기독교인들의 선교전략 뿐만이 아니다. 앞서 언급된 그의 연설문 내용을 토대로 살펴본다면, 윤치호는 선교 현장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조선을 대내외적으로 둘러싼 다양한 종류의 ‘위험’을 지목했다. 조선은 외부적으로는 서구 철학의 유입, 내부적으로는 불교와 유교, 사람들의 급격한 회심 등으로 인해 ‘위험’의 한가운데에 처해 있었다. 윤치호는 조선 선교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이후 윤치호는 분산화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부정적이고 위협적인 ‘위험’의 요소들이 대내외적으로 자신들을 둘러싸고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1. “산재된 악”이 가득한 세상

윤치호의 선교관은 어떤 맥락에서 형성되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에딘버러 연설이 세상에 공개되기 약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WMC 참석을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유학 시절부터 이미 백인들의 인종차별적 사회에 배신감을 느꼈던 윤치호는, 1896-97년 러시아 황제의 대관식을 위해 출국한다. 그곳에서 그는 동방 정교회(Orthodox Church)가 러시아의 빈곤과 매춘 같은 ‘사회적 악’을 제거하는데 실패한 모습을 보고, 프랑스에서는 가톨릭 교회가 여전히 과도한 종교적 의식주의에 빠진 모습을 목격한다. 또한 베트남과 홍콩에서는 서구 제국주의의 만연한 흔적을 직접 보며 더 큰 환멸을 느낀다(Ahn, 2006). 동시에 조선에 있던 미국 선교사들 사이에서 벌어지던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목격하면서, 자신이 속한 개신교에도 크게 실망하게 된다. 윤치호는 다양한 나라에서 서구 제국주의와 인종차별의 영향력을 직접 목격하며 ‘힘이 지배하는’ 국제정치에 점차 실망하게 되었다.

1905년, 윤치호의 사적 경험과 정치적 경험이 맞물리며 그는 깊은 내면적 변화를 겪게 된다. 그 해 그는 아내와의 사별을 하고, 가츠라-태프트 밀약(Taft-Katsuar Agreement, 일본의 총리 가츠라 타로와 미국의 전쟁 장관 윌리엄 태프트 사이에서 비공식적으로 체결된 협정)의 실체를 알게 되며 크게 배신감을 느끼고, 하와이로 건너가 가난하고 착취 당하는 조선인들의 현실을 목격한다. 윤치호는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세상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세상을 그저 “공통된 인간의 악함에 기반한 산재된 악”으로 가득한 “빈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여

기기 시작한다 (Ahn, 2006: 129).

안신(2010)에 따르면, 이때 윤치호의 신앙관은 거의 이신론적(Deistic)이라고 할 정도로 선한 신의 개입은 거의 없고 세상 속의 악이 산재해 있다고 믿게 되었다(p.112). 특히 아내의 죽음 이후 그는 “모든 욕망이 다 사라졌고 (...) 죄와 슬픔만이 가득한 이 세상을 벗어나 그녀를 만날 생각만 한다”고 기록하며,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좌절 뿐만 아니라 매우 사적이고 내밀한 차원의 슬픔을 겪었다 (1905/2/10, 박미경, 2015: 97). 이를 통해 그는 세상에 ‘산재한’ 악과 죄의 습성을 더욱 깊이 체감했다고 볼 수 있다. 1905년 윤치호의 내밀한 기록에서 사용된 “산재한 악”이라는 표현은, 결국 자신의 뿌리 깊은 죄성과 나약한 한계를 고백하고 회심하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후 1906년 윤치호의 일기에서 “산재한(scattered)”이라는 용어가 다시 등장한다. 그는 당시 조선에 있는 선교사들이 “분산되고 낭비적인”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교를 위해서는 한 가지에 집중되고 협력된(combined)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hn, 2006: 132). 윤치호는 기본적으로 선교와 신앙이 분산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905년 그의 표현에 따르면, 여기저기 ‘산재한 악’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분산 대신 집중과 몰입이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치호만의 특수한 현실 인식은 죄악에 대한 관념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그가 유학 시절 겪은 경험, 외교 현장을 목격한 경험, 사적인 가족 관계에서의 경험,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정치적 경험 등 다양한 층위의 경험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905년부터 1910년은 윤치호가 서구, 특히 미국에 대한 분노가 깊어지던 시기였으며, 이는 개인적 고통과 맞물려 그가 악과 죄의 문제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환멸이 절정에 이르러 이른바 ‘대열변’을 하게 된 장소가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였다. 1910년 그의 ‘분산화’에 대한 언급과 WMC 연설을 보면, 조심스러웠던 선교에 대한 태도가 ‘우리를 둘러싼 위협 요소’에 대한 강한 호소로 변화했음을 볼 수 있다. 이 변화는 그가 세상을 ‘산재한 악’이라는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 이후에 나타났다. 즉, 윤치호는 세상이 ‘산재한(scattered)’ 악과 위협으로 뒤덮인 곳으로 보았으며, 그 속에서 본질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에 집중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는 그가 당시 국제적 환경 속에서 경험한 모순적 상황과 깊이 뿌리 박힌 회의론에 맞설 수 있는 사상적 도구가 되었고, 결국에는 그의 정치적 행보로 이어지게 되었다.

IV. WMC 이후 에큐메니즘 운동과 윤치호의 행보(1919)

서구 기독교인들에게 WMC는 비서구 토착민 기독교인들과 처음으로 대면하고, 더욱 다문화적인 세계교회주의 운동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선교교회가 끝난 후 1912년부터 1914년까지 모트(Mott)는 당시 대회에 참석했던 비서구 국가들을 직접 방문하며, 각 선교지 교회의 현황과 선교 방식을 토착민 및 선교사들과 논의했고, 이를 보고서로 기록했다. 특히 1912년 서울에서 진행된 후속 위원회의 기록에는 당시 조선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조선 기독교인들은 “일본인들과 분리”되고 싶어하며, “한국어로 성경을 만들고 싶어한다”고 전했고, 만주에 거주하는 조선인 기독교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Mott, 1913). 서구 기독교인들에게 WMC와 후속위원회는 비서구 선교지의 상황과 사람들의 정서를 더욱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반면, 비서구 토착민 기독교인인 윤치호에게 세계선교대회는 1890년대부터 시작된 그의 세계정치와 서구 권력자들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세상에 산재된 악에 대한 다층적 환멸을 열변으로 토해내며, 자신만의 죄악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선교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윤치호는 서구 백인들에 대한 거부감과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였다. 따라서 WMC에 대한 그의 기억도 참가자들의 백인 우월주의적 태도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했다. 그렇다면, WMC는 이후 윤치호의 실제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1. “토착 기독교”에 대한 옹호

에딘버러에서의 경험은 윤치호가 앞으로 ‘분산화의 위험’에 맞서 무엇에 집중하고 몰입할 것인지 명확히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준 계기가 되었다. 그는 조선에서 토착 기독교, 즉 조선의 토착 문화를 배제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닌 수용하고 조선만의 고유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하며 자신의 선교 방식을 구상하게 된다. 이는 그의 미국 유학 시절부터 형성된 독특한 신앙관과 맞물렸다. 그는 기독교를 유일한 진리의 기준이라고 믿으면서도, 다양한 문화와 다른 종교들도 그 자체로 존중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Ahn, 2005: 150). 윤치호는 다른 문화와 종교에 ‘악’의 요소가 있다고 보면서도,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이는 윤치호가 비서구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이 믿는 진리와 자신이 경험하고 체화한 문화적 뿌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자신의 신앙관을 형성한 결과였다.

윤치호의 입장은 당시 서구 복음주의자들, 특히 조선에 온 미국 선교사들의 신학적 배경을 기준

으로 보면 매우 교차적이고 독특한 모습이다. 그가 종교적 근본주의 입장은 아니었지만, 종교 보편성을 쉽게 이야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에도 반감을 가졌다. 그렇다고 다른 지역과 문화와의 교류와 확장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가 생각한 선교는 “일치”가 아니라 “연합”을 목표로 했고, 조선에서 종교적 특수성을 간과하지 않는 기독교적 연합을 위해서는 토착적 기독교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윤치호는 예정론을 믿는 칼빈주의자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 의지와 선택, 성화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감리교인이었다(Ahn, 2005: 27). 그의 신학적 배경을 고려하면, 윤치호는 교차적인 신학적 위치에서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며 세계선교대회에서 토착문화 선교에 대한 전략을 공유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WMC는 다양한 비서구 지역 선교사들이 어떻게 선교 활동을 이어갔는지 확인하고 공유하는 장이었다. 셋째날의 세션 3은 “민족적(national) 삶의 기독교화(Christianization)”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비서구 식민지와 선교지에서 온 선교사 및 교육 전문가들이 각 지역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WMC는 비서구 선교지 전략을 비교분석하고 공유하는 장으로서 이후 20세기 비교 지역 교육 연구 전통을 세우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Jensz, 2018).

윤치호는 WMC 이후 자신이 집중하고 몰입할 일은 조선의 토착문화와 상생하는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조선을 둘러싼 ‘산재한 악’ 속에서 토착 기독교 신앙을 형성하는 것이 자신의 선교관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기독교의 한국적 토착화에 힘썼다(Ahn, 2006: 139-154). 더 나아가, 윤치호는 토착 기독교를 기반으로 WMC 이후 다양한 국제 기독교 연합에 관심을 가지려 했고, YMCA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1911년 모트(Mott)가 제안한 세계 기독교 학생 연합회(World Student’s Christian Federation)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려 했다. 이러한 흐름은 그가 WMC 이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근대화 교육 활동에 더욱 몰두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했으며, 토착문화와 공존하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근대화 교육을 도모하는 데 힘을 쏟게 했다. 윤치호에게 WMC는 자신이 느낀 환멸의 절정에서 열변을 토한 장소일 뿐 아니라, 산재한 악과 위협에 맞서 종교적 특수성에 집중한 연합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한 계기였다.

2. 1919년 친일 행보의 시작

윤치호는 귀국 직후인 1911년부터 105인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결국 1912년부터 3년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1910년 전후의 경험을 통해 그가 겪은 심경의 변화가 크게 주목받지 못하거나 실천적 활동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1911년부터 시작된 조선총독부의 탄압 때문이다. 1911년부터 시작된 일제의 탄압과 수감 생활로 인해 그의 환멸은 더욱 깊어졌고, 여기에 반

식민주의 행동에 대한 회의감과 무력감이 더해졌다. 어쩌면 이는 ‘산재한 악’에 대한 윤치호의 상상과 추론이 실질적으로 드러났다고 보인 순간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악’이 인종주의나 식민주의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산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렸다.

특히 수감 생활을 하며 윤치호는 미국에 대해 더 큰 배신감과 회의를 느꼈다. 20세기 초반부터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제국주의적 연대와 상호교류가 시작되었고, 특히 제국과 인종에 대한 관념이 공유되었다. 미국과 일본은 자신들의 제국주의 기획의 공통점을 찾으려 했으며, 이를 정당화할 인종주의적 논리를 조선에서 발전시키려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점점 조선에 대한 일본의 제국주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인종주의적 논리들을 발전시키게 되는데, 이를 가장 날카롭게 꿰뚫고 있던 인물이 바로 윤치호였다 (Suh, 2023). 그는 유학 시절 미국의 인종차별적 사고방식과 논리를 잘 파악하고 있었으며, 미국과 일본의 의도와 모순을 누구보다 먼저 간파했다.

그러나 미국의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여론은 윤치호가 연루된 105인 사건을 일제의 제국주의 탄압이 아닌 단순히 ‘기독교에 대한 탄압’으로만 인식했다. 이에 윤치호에게 국제정치적 불의와 힘의 논리가 실질적 고통으로 다가왔고, 그의 회의감, 무기력함, 낙담에 대한 인정은 절정에 이르렀다. 그는 산재된 악 속에서 ‘차악’을 택하는 논리로 자신의 선택과 집중의 노선을 결정하게 되었다. 윤치호는 세상 어디에나 흩어진 악의 종류 가운데 최선의 선택을 해야 했으며, 당시 그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일본이었다.

따라서,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온 후 국제사회의 소식마저도 윤치호에게는 ‘산재한 악’의 일종으로 여겨졌다. 그는 조선뿐만 아니라 다른 피식민국의 독립운동 소식도 접했지만, 이러한 독립운동의 물결을 곳곳에 퍼져 전염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로 비유했다. 윤치호는 생존을 위해 자신이 집중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고 판단했으며, 당대 국제적 ‘월슨의 순간’에 동조하기보다는 오히려 거부감을 드러냈다.

몽골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카이로에서도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독립운동은 일종의 정치적 인플루엔자인 모양이다. (...) 시위자들이 순전한 조선인들에게 선전하고 있는 내용의 요점은, 월슨 대통령의 호의로 파리강화회의에서 조선 독립을 선언할 때까지 만세를 부르자는 것이다. 시위자들의 태도가 그토록 진지하지만 앓았다면 웃을 일이었을 텐데.“ (1919/03/27, 김상태, 2001, p. 94)

결국 1930년대에 들어 윤치호는 차악 개념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며 자신의 친일적 입장을 설명하

게 되었다. 그리고 ‘악에 대한 두려움’이나 ‘용서’와 같은 성경적 용어들을 사용해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Ahn, 2006: 216). 윤치호에게 이는 “현실과의 타협”과 “청년들의 희생”이라는 죄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자신은 이 산재된 악에 둘러싸인 채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1938/07/23, 김상태, 2001: 402). 수많은 국제적 경험 속에서 공적 ‘악’과 사적 ‘악’이 얽히며 죄와 고통의 문제로 씨름하던 윤치호는 결국 일본이라는 차악을 선택하는 최종적 행보를 보였다.

V. 나가며

본 글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국제적 인물로서 윤치호만의 내밀한 국제인식을 파악하고자 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조선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 속에서 윤치호의 행보, 즉 근대적 문호 개방과 일제강점기 등 갑작스러운 변화 속에서 ‘혼돈의 시기’를 살아간 조선인으로서 윤치호의 세계관을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많았다. 그러나 본 글은 윤치호의 내면적 변화와 사상적 기반을 단순히 서구 우월주의나 서구에 대한 패배 의식으로 해석하는 기존 연구들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 서구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주의(internationalism) 물결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주목하여 윤치호를 재해석하였다. 국제주의라는 관점을 통해 그의 내면을 살펴보면, 더 거시적인 국제사적 맥락에서 윤치호의 특수성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했다.

특히 본 글은 여러 국제주의 운동의 갈래 중에서도 세계교회주의 운동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국제주의와 월슨주의 운동으로도 불리는 민족자결주의 국제주의의 관점에서 윤치호의 행보를 살펴 보았다. 이 두 관점에서 본 윤치호의 국제 인식은 매우 독특한 모습을 지녔다. 윤치호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 본 글은 1910년 에딘버러에서 열린 세계선교대회 전후 그의 내밀한 심경 변화와 신앙관에 주목했으며, 그가 3.1운동을 ‘정치적 인플루엔자’라 부르며 친일적 행보를 선택한 맥락을 월슨주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물론 19세기부터 조선에 서구 사상이 유입되면서 선교사들과 함께 기독교가 전파되었고, 기독교가 많은 지식인에게 개화의 원천이자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윤치호에게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서구’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내밀한 사적 경험과 다양한 외부적 경험이 중첩되어 형성된 다층적 감정과 관념을 내포하고 있었다. 국제주의라는 관점은 이러한 복잡성과 독특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국제주의적 흐름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한 사례들에 주목함으로써 기존 국제주의에 대한 역사적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최근 기독교의 국제적 연대와 대회 개최, 그리고 세계교회주의 운동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상하면서 이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글은 윤치호와 같은 주변부 인물들의 특수한 사례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여, 국제적 기독교 운동의 사회정치적 층위를 다각도로 해석하고자 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계는 끊임없는 통신 기술의 발달과 온라인 세계의 확장으로 더 다양한 형태의 국제화 현상이 목격될 가능성이 크다. 초기 기독교 국제주의 운동이 확산된 지 110여년이 지난 지금,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국제’란 무엇인가? 우리의 국제인식은 향후 정치적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앞으로 우리가 더욱 깊이 고민해야 할 주제가 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김경일 (2008). 문명론과 인종주의, 아시아 연대론-유길준과 윤치호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와 연구**, 0(78), 129-167.
- 김상태 편역 (2001). **윤치호 일기:1916-1943**. 서울: 역사비평사.
- 김승배 (2019). 반(反)베르사유: 국제적 민족자결론과 한국적 분화의 연계성. **국제정치논총**, 59(2), 323-362.
- 김영희 (1999). **좌옹 윤치호 선생 약전**. 서울: 좌옹윤치호문화사업회.
- 김용신 (2022). 내재화된, 그러나 다가갈 수 없는 서양 : 일기를 통해 본 청년기 윤치호의 서양 인식. **동국사학**, 73, 5-32.
- 김지훈 (2013). **3·1운동의 성격과 의의 재고찰: 민족 담론의 형성과 재생산**.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남궁곤 (2010). 오바마 행정부 국제주의 외교정책 이념의 역사적 유산과 실제. **국제정치논총**, 50(1), 91-118.
- 류충희 (2015). 윤치호의 계몽사상과 기독교적 자유: 후쿠자와 유키치의 자유관과 종교관의 비교를 통해서. **동방학지**, 171, 37-71.
- 류충희 (2016). 1910년대 윤치호의 식민지 조선 인식과 자조론의 정치적 상상력 -최남선의 자조론과의 비교를 통하여. **동방학지**, 175, 195-224.
- 박미경 역 (2015). **국역 윤치호 일기 7**.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안신 (2010). 윤치호의 선교사상과 에딘버러선교대회-한국적 선교신학의 가능성. **선교신학**, 24(4), 221-238.
- 유영렬 (2004). 윤치호의 문명개화의식과 반청자주의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33-62.
- 정용화 (2001a). 문명개화론의 뒷. **국제정치논총**, 41(4), 297-314.
- 정용화 (2001b). 주변부 지식인의 허위의식: 『윤치호 일기』, 국사편찬위원회편. **동아시아비평**, 7, 5-16.
- 조규태 (2011).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3·1운동 서술의 체계와 내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9, 375-408.
- 송지예 (2012). “민족자결”의 수용과 2·8 독립운동.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1(1), 179-209.
- 심지화·이단혜·김정수 (2017).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딜레마에 관한 시론 — 중소 동맹의 결렬로 본 사회주의 국가관계의 구조적 불균형. **대동문화연구**, 98(0), 11-37.
- Ahn, S. (2006). *From Conversion to Transformation: A Religious Interpretation of Yun Chi-ho (1865-1945)*.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Edinburgh. Edinburgh, UK.

- Chamedes, G. (2019). *A Twentieth-century Crusade : The Vatican's Battle to Remake Christian Europe*. Massachusetts: Harvard UP.
- Gorman, D. (2010). Ecumenical Internationalism: Willoughby Dickinson, the League of Nations and the World Alliance for Promoting International Friendship through the Churches.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45(1). 51-73.
- Gorman, D. (2012). *The Emergence of International Society in the 1920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rtley, B. L. (2012). "That They All Might Be One": John R. Mott's Contributions to Methodism, Interreligious Dialogue, and Racial Reconciliation. *Faculty Publications-College of Christian Studies*. 295.
- Holbraad, C. (2003). *Internationalism and Nationalism in European Political Thought*. London: Palgrave Macmillan.
- Jahn, B. (2018). Liberal internationalism: historical trajectory and current prospects, *International Affairs* 94(1). 43-61.
- Jackson, P., Mulligan, W. & Sluga, G. (Ed.). (2023). *Peacemaking and international order after the First World W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enz, F. (2018). The 1910 Edinburgh World Missionary Conference and comparative colonial education, *History of Education*, 47(3), 399-414.
- Petit, J. (2022). Mobilizing the Spiritual Resources of the Nation: The 1918 United War Work Campaign. *Church History*, 91(3), 596-625.
- Donahue, J. M. (2015). *In search of a global, godly order: The ecumenical movement and the origins of the League of Nations, 1908-1918*.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tre Dame. Indiana, USA.
- Manela, E. (2007). *The Wilsonian moment : self-determination and the international origins of anticolonial nation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ott, J. R. (1913). *The Continuation Committee Conferences in Asia, 1912-1913*. New York: Continuation Committee.
- Sanecki, K. C. (2006). *Protestant Christian Missions, Race and Empire: The World Missionary Conference of 1910, Edinburgh, Scotland*. Masters Dissertation, Georgia State University. Atlanta, USA.
- Sluga, G. (2013). *Internationalism in the Age of Nationalism*. Pennsylvan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Stanley, B. (2006). *Defining the Boundaries of Christendom: The Two Worlds of the World*

- Missionary Conference, 1910.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30(4). 171-176.
- Stanley, B. (2018). *Christianity in the Twentieth Century: A World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uh, C. (2023). *The Allure of Empire: American Encounters with Asians in the Age of Transpacific Expansion and Exclus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orld Missionary Conference. (1910). *Report of commission I: Carrying the Gospel to all the non-Christian world* (Vol. 1). Edinburgh: Oliphant, Anderson & Ferrier. Retrieved from <https://archive.org/details/reportofcommissi01worluoft/page/412/mode/2up>.

기독교 국제주의와 윤치호의 국제인식: 1910년 에딘버러 선교대회를 중심으로

Christian Internationalism and Yun Chi-Ho's International Thoughts: Focusing on the 1910 Edinburgh World Missionary Conference

김 호 수 (서울대학교)

논문초록

이 글은 20세기 초반 한국의 대표적인 '국제적' 인물이었던 윤치호의 국제인식을 살펴본다. 기존 연구는 주로 조선의 국내적 혼란 상황이라는 맥락에서 윤치호의 사상을 다뤘던 반면, 이 글은 국제주의(internationalism)운동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통해 그를 해석한다. 특히 세계교회주의 운동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국제주의와 윌슨주의에 기반한 민족자결주의 국제주의 관점에서 그의 행보를 조명하며,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를 전후한 윤치호의 심경 변화와 신앙관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그가 3.1운동을 "정치적 인플루엔자"라 부르며 친일적 행보를 선택하게 된 맥락을 새롭게 재구성한다. 윤치호에게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서구'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내밀한 사적 경험과 다양한 외부적 경험이 중첩되어 형성된 다층적 감정과 관념을 내포했다. 이 글은 국제주의의 관점을 통해 그 복잡성과 독특성을 새롭게 조명하며, 궁극적으로 국제주의적 흐름의 주변부에 위치한 한 인물의 독특한 서사에 주목하며 국제주의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확장하고자 한다.

주제어: 국제주의, 민족자결주의, 세계교회주의, 윤치호, 윌슨주의

편집위원회 규정

2001년	1월 28일	제정
2004년	1월 1일	개정
2007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1년	8월 19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20년	3월 1일	개정
2020년	6월 1일	개정
2022년	3월 15일	개정
2023년	7월 1일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칙 제6장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제3조 편집위원회가 관장하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은 다음과 같은 지침 하에 발행된다.

- (1)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년 4회 발행한다.
- (2) 원고마감은 발행 약 60일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발간호	발간일	원고투고 마감일
1호	3월 31일	1월 31일
2호	6월 30일	4월 30일
3호	9월 30일	7월 31일
4호	12월 31일	10월 31일

- (3) 『신앙과 학문』의 투고, 심사, 발행 등 편집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며, 별도의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 장 편집위원 구성

제4조 편집위원회는 전공과 지역을 고려하여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을 둔다.

제5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질병이나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장은 전공과 기독교 학문에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기독교학문연구회에 5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는 자
- (3)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의 편집위원 경험이 있는 자
- (4) 최근 10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20편(SCI급 논문은 3편으로 환산) 이상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제7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 즉 편집위원의 위촉, 학회지 논문의 심사, 편집 및 출판에 대한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제8조 편집위원은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하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혹은 해당분야에 있어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최근 5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5편(SCI급 논문은 3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제 3 장 기 능

제9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의 체제,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나 투고자와 관련된 연구윤리규정을 지켜야 하며,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투고자의 정당한 이익제기가 있을 때는 편집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제12조 위 제9조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4 장 편집회의

제13조 편집회의는 학회지 발간시기와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 편집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 5 장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

제16조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제17조 논문의 심사는 개별항목 평가와 종합 평가로 이루어진다.

제18조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 |
|--------------------------------|----------------------|
|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적절성, |
| (3)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 (4) 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
|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 (6) 문장기술·용어 사용의 명료성, |
| (7) 각주·인용·참고문헌·국문 및 영문 초록의 정확성 | |

제19조 종합 평가는 개별항목 평가를 근거로 심사자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평가한다.

제20조 논문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 (1) 접수: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상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원고의 게재순서는 논문게재 확정 순서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세부전공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논문에 대해 3명 이상의 심사자를 위촉하여 심사의뢰서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 이때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위원이 알 수 없도록 삭제하여 보낸다.
- (3) 심사: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그 판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내린다. 특히, 수정을 요하는 논문은 수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은 후 기한 내에 논문심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가. 게재가: 수정 사항이 없거나 아주 사소한 수정 후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
 - 나. 수정 후 게재가: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의 핵심내용과는 무관하거나 부분적인 수정을 하면 게재할 수 있는 논문.
 - 다.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어 반드시 수정이 요구되고, 그것의 수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논문.
 - 라. 게재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논문.
- (4) 1차 편집회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수합된 후 심사위원장은 1차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심사내용을

검토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교정을 의뢰한다.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논평을 첨부하여 논문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불허한다.

(5) 2차 편집회의: 편집위원장은 수정을 마친 논문들을 수합하여 2차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해당 심사자에게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게재가>와 <게재불가>로 나누어 통보해준다. 이 시점부터 투고자가 원할 시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6) 심사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1<「신앙과 학문」 논문 심사규정>에 따른다.

제 6 장 부칙

본 규정의 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앙과 학문』 논문 심사규정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학회지 발간규정 제3조 및 제 19조에 의거하여 『신앙과 학문』 학술지 투고논문 심사 규정세칙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심사판정 기준 및 결과의 처리)

(1)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 1 심사자	제 2 심사자	제 3 심사자	종합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능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능 (수정요구)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5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6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8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9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재심사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10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11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2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3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4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5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6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7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8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요구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의 수정요구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4)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을 지시하는 재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5) “수정 후 게재가” 혹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후 수정 논문을 최종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게재불가” 처리한다. 단 투고자의 요청과 편집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수정논문 제출을 다음 호로 연기할 수 있다.
- (6) 투고자는 심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메일(faithscholar@naver.com)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처리한다.
- (7)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인터넷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할 수 있다.

제 3 조 (심사위원단)

- (1)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책임성과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야 학자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이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를 제외하고 논문 심사자를 선정한다.

제 4 조 (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제 5 조 (저작권 및 판권)

- (1) 「신앙과 학문」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판권은 기독교학문연구회가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투고시 “저작권양도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 6 조 (심사를 위한 서식)

- (1) 「신앙과 학문」 제()권()호 논문심사서 : 서식 가
- (2) 「신앙과 학문」 제()권()호 논문심사료 신청서 : 서식 나

제7조(개정된 논문심사규정)

이 개정된 규정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신앙과 학문』 논문심사의견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 부문별 평가: 다음 칸에 각 항목 배점에 기준으로 심사 점수를 기재해 주세요.
- 최종평가: 총점에 따라 논문 평가 등급 칸에 표기(√ 또는 O)해 주세요.

평가항목		배점	심사 점수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20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적절성		20		
3)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20		
4) 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10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10		
6) 문장기술·용어 사용의 명료성		10		
7) 각주·인용·참고문헌·논문초록의 정확성		10		
총점		100		
최종평가 (심사위원 논문 평가 등급)	게재가 (90점 이상)	수정후 게재가 (80점~89점)	수정후 재심사 (70점~79점)	게재불가 (69점 이하)

※ 심사의견서 (수정보완 요구서 또는 게재불가 사유서)는 다음의 별도 페이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심사의견서:

* 저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심사의견을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지시사항의 경우 논문내 구체적인 페이지와 함께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게재불가의 경우는 왜 게재가 불가한지를 상세하게 서술하여 주시고, 저자로 하여금 건설적인 수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참고문헌을 제시하여 주세요.

❖ 논문주요내용:

❖ 수정지시사항 (게재불가 이유 포함):

논문심사료 신청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신앙과 학문』에 투고된 상기 논문심사에 대한 심사료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심사위원	성명	(인)	소속	
	Email		휴대전화	
	심사일			
은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신앙과 학문」 투고 규정

2003년 1월 1일	제정
2008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2019년 4월 1일	개정
2020년 3월 1일	개정
2020년 6월 1일	개정
2021년 7월 1일	개정
2022년 7월 1일	개정
2023년 7월 1일	개정

1. 논문의 투고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정회원에 한한다.
2. 저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투고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일 현재 타 학술지에 게재 신청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2) 논문은 본 학술지 심사규정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학술적 가치와 학문적 깊이가 있는 창의성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 3) 타인의 저작물 표절 혹은 자기표절에 해당하는 것, 즉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연구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그리고 자신이 발표한 저술의 내용을 인용 혹은 각주 등 명백한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투고할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4) 위조 혹은 변조에 해당하는 것, 즉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연구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한다.
 - 5) 참고문헌과 각주에 대한 본 투고규정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예 : 본문 인용 시 APA방식 사용 - 투고규정 7~9 참조, 각주는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단순히 자료출처를 밝히는 것은 금한다.]

3. 논문 저자의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투고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1저자(또는 교신저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앞에 기재된 저자를 제1저자, 뒤에 기재된 저자는 공저자로 간주한다. 단, 교신 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교신저자를 표기한다.
- 2)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연구책임자,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 연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자여야 하며, 공저자는 연구에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직접 기여한 자여야 한다. 연구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자가 주저자 혹은 공저자가 되는 것을 금한다.
- 3) 논문 제출자는 JAMS에 주저자 및 공저자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여야 하며, 표기 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단 논문의 저자명과 저자정보는 삭제하여야 하며, “게재기” 판정을 받은 최종논문에만 기재하여 제출한다.

<소속 및 직위별 표시방법>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 (전임/비전임)	성명(O O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O O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O O대학, ★★과정, ★★수료, 박사, 석사 등)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O O 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O O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O O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별도제출

4.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의미 혼동의 가능성이 있거나 인명, 지명의 경우 처음 표기는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명기하며, 그 이후에는 한글로 표기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6. 논문 제출 시 원칙상 영문으로 된 'ABSTRACT'와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을 포함해야 하며, 'ABSTRACT'를 논문의 맨 앞에,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제시한다.

① 'ABSTRACT'는 논문제목과 저자명(영문) 밑에 200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ABSTRACT'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제목,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 연구내용, Key Words 를 포함해야 한다. 제목의 첫 단어와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예, The Educational Meaning of Love), 'Key Words'는 고유명사 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alternative education, Christian worldview). 투고자의 이름은 유재봉(Jae-Bong Yoo)으로, 소속은 각주 내 성균관대학교 교수 (Sungkyunkwan University)로 표시한다. 각주에는 소속 기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를 첨부한다.

②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500자 내외로 작성하며, 5단어 내외의 '주제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과 ABSTRACT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는 편집위원회가 저자의 위임을 받아 ABSTRACT를 국문으로 번역할 수 있다.

7.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 1) 용지종류 및 여백설정: 용지설정 A4, 여백은 왼쪽 33, 오른쪽 33, 위쪽 33, 아래쪽 33, 머리말 12, 꼬리말 12
- 2) 논문제목: 휴먼고딕, 글자크기 15, 진하게 가운데 정렬
- 3) 연구자 및 소속: 신명조, 글자크기 11, 가운데 정렬
- 4) 요약: 제목은 휴먼고딕, 글자크기 9, 줄 간격 150, 가운데정렬
요약본문: 신명조, 크기 9, 줄간격 150, 들여쓰기 10
- 5) 본문 글꼴 설정: 신명조 10, 들여쓰기 10, 줄 간격 160, 장평 95%, 자간 -10%
- 6) 각주: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왼쪽여백 4, 내어쓰기 3, 줄 간격 150
- 7) 긴 인용: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줄 간격 150, 들여쓰기 10,
여백주기 오른쪽 5, 왼쪽 5
- 8) 참고문헌: 휴먼고딕, 글자크기 12, 진하게, 가운데 정렬
목록내용: 신명조, 글자크기 10, 장평 95%, 자간-4%, 여백주기: 왼쪽 8, 내어쓰기 7,
줄 간격 130

8.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1) 본문 소제목: 본문의 구분은 장(章), 절(節), 항(項) 순으로 배열한다.

장은 ‘I, II, III, …’의 순으로, 절은 ‘1, 2, 3, …’의 순으로, 항은 ‘(1), (2), (3),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세분화를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세분화된 제목은 ‘①, ②, ③, …’, ‘i, ii, iii), …’을 따른다.

2) 논문 작성 시 참고한 내용이나 아이디어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 본문 내 직접인용일 경우 큰따옴표(“ ”)를 사용하며, 본문의 출처는 APA 방식으로 한다.

예) 화이트헤드(Whitehead, 1932: 23)에 의하면,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 혹은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Whitehead, 1932: 23).”

② 간접인용이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참조하였을 경우에는 큰따옴표 없이 출처를 밝힌다.
…(Parshall, 2003: 23)

③ 3줄이 넘는 긴 인용 시 인용문 앞뒤에 한 줄씩 띄워 큰따옴표 없이 왼쪽 들여쓰기로 별도의 문단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④ 두 자료 이상을 참고 하였을 때는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김철수, 2007: 12 ; 박명순, 2009: 217)

⑤ 강조문은 따옴표(’)를 사용한다.

⑥ 성경 인용의 경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 1).”, 혹은 (창 1:1)

⑦ 2인의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희계·이희계, 2009: 217-218 ; Kim & Lee, 2008: 20)

⑧ 3인 이상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철학 외, 2010: 12), (Smith et al., 2005: 50)

⑨ 동일 저자의 동일 연도 저술 인용의 경우: (이윤리, 2007a: 18),(이윤리, 2007b: 27)

⑩ 한글 번역서 인용의 경우: (Jackson, 전광철 역, 2013: 77)

3) 각주는 설명하거나 보충하는 내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단순한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은 각주에 표기하지 않고 본문에 넣는다.

4) 그림과 표 제시: 모든 그림(사진)과 표의 제목과 내용은 한글 혹은 영문으로 한다.

(1) 그림(사진) 제시 방법

① 그림을 일련번호를 붙이되, 그림 1(Figure 1), 그림 2(Figure 2), 그림 (Figure 3)…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그림 1.1(Figure 1.1), 그림 1.2(Figur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

다. 그림 제목은 하단 중간에 제시한다. 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② 제시한 그림의 출처가 있는 경우 그림 아래에 그 출처를 표시한다.

③ 그림(사진)을 본문에 인용할 때는 그림 1(Figure 1), 그림 2(Figure 2), 그림 3(Figure 3)···로 표시한다.

(2) 표 제시방법

① 표의 제목과 설명은 한글 혹은 영문으로 한다. 표의 번호는 표 1(Table 1), 표 2(Table 2) 등의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표 1.1(Table 1.1), 표 1.2 (Tabl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표 제목은 상단 왼쪽에 제시한다. 표는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② 표를 본문에 인용할 때는 표 1(Table 1)으로 표시한다.

③ 표(Table)의 크기가 한 면보다 클 경우 각각 별도의 쪽에 작성하며, 가급적 인쇄 후 한 쪽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Table)이 다른 쪽이나 다른 표(Table)로 이어지는 경우는 끝에 “continued”를 표기한다.

④ Table 밑에 각주(footnote)를 달 때는 Table 내용 중 설명하려는 단어 또는 문장 끝에 아라비아 숫자 1), 2), 3)으로 나타낸다. *, **, *** 표시는 통계분석의 유의확률이 $p < 0.05$ 나 $p < 0.01$, $p < 0.001$ 을 나타낼 때만 사용하며, p 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다중범위 검정에서는 a, b, c, d 등을 사용하고 표 하단에 그 내용을 표시한다.

9. 참고문헌의 출처는 반드시 본문의 출처와 일치해야 하며, 참고문헌 작성은 원전, 한국문헌, 중국문헌, 일본문헌, 서양문헌, 인터넷 등 기타문헌 순으로 하며, 가나다/ABC순으로 정렬한다. 단행본, 번역서, 학술지, 학위논문, 정기간행물, 연구보고서, 잡지의 영어 제목은 이탤릭체로 하고, 한글 제목은 진하게 표기한다. 일반 논문의 경우, 논문이 실린 논문집의 해당 페이지를 끝부분에 표시한다. 인터넷 자료와 신문기사의 제목은 큰따옴표(“ ”) 안에 넣는다. 저자가 2인일 경우 한글 저자는 두 저자 가운데 중점(·)을 붙이고, 영어 저자일 경우 두 저자 사이에 & 를 넣는다.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한글 저자는 저자들 가운데 중점(·)을 붙이고, 영어 저자일 경우 마지막 저자 앞에 &를 넣는다.

1) 영문 참고문헌의 경우

① 단행본:

Marsden, G. E. (1997). *The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② 번역서:

Meargham, P. (1984). *Wit: Its Meaning*. Trans. Playe, G. Boston: Smith.

③ 정기간행물:

Todd, S. & Haydon, G. (2001). Guilt, suffering and responsibility.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5(4), 597-614.

④ 편저:

Bloom, B. S. (Ed.)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New York: David McKay.

Oakeshott, M. (1989). A place of learning. in Fuller, T. (Ed.) (1989). *The Voice of Liberal Learning*.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⑤ 2판 이상의 문헌:

Weimer, D. & Vining A. (1992).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2nd ed.).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⑥ 석·박사 학위논문:

Gill, D. W. (1979). *The word of God in the Ethics of Jacques Ellul*.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os Angeles, USA.

⑦ 연구보고서:

Lee, H. Y., Kang, Y. H., Park, J. Y., Nah, B. H. & Kim, M. J.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⑧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Title”, OOI-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⑨ 판례: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⑩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10(1), 231-256.

2) 국문 참고문헌의 경우

① 단행본:

손봉호 (1994). **고통받는 인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② 정기간행물:

유재봉 (2016). 학교 인성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교육철학연구**, 38(3), 99-119.

③ 편저:

박준언 (2005). 이중 언어이론과 영어 교육. 황적륜 (편저). **현대 영어 교육의 이해와 전망** (pp. 270-295).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④ 석·박사 학위논문:

이광희 (2008). **대학생의 애착, 정서지능,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⑤ 연구보고서:

이혜영·김진숙·권지성 (2008). **미래학교 모형 탐색연구**. 한국교육개발원.

⑥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00일보 2010. 3. 3일자 5면. "기사제목"

<http://www.dfes.gov.uk/achievingSUCCESS>. (검색일 2005.11.11.)

⑦ 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⑧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손병덕 (2012a).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손병덕 (2012b). 아동의 권리침해현황. **한국범죄학**, 6(2), 157-184.

⑨ 번역서:

조흥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역 (2005). **질적연구방법론**, Creswell, J. W. (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서울 : 학지사.

10. 게재료 납부 : ‘게재가능’으로 통보받은 투고자는 게재료 40만원(연구비 지원의 경우는 5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1저자가 전일제 대학원생이고,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 게재료를 25만원으로 한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38720101-145158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기학연)>
11. 원고량은 편집 규격에 따른 편집된 매수로 원칙상 20쪽 이내로 하되, 최종 편집된 논문의 페이지를 기준으로 20쪽 이상의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 조판비(한쪽당 1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12. 원고 제출처 :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 <http://fs.jams.or.kr>
문의전화: 02-3272-4967 (사무실)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장 이메일: faithscholar@naver.com
13.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4차례 발간하며, 투고자는 발간 약 60일 전, 각호 투고 마감일(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까지 한글이나 MS 워드로 작성하여 직접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http://fs.jams.or.kr>)를 통해 신청접수 한다.
14. 논문의 본문 끝에는 두 줄을 띄워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이라고 표기한다.
15. 논문 투고 시 “논문투고 신청서”와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고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와 함께 첨부파일 난에 첨부한다.
16.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독교학문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2007년 7월 1일 제정

2016년 4월 1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2022년 3월 15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항. 이 규정은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학회)의 모든 회원이 학술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학회와 기독교학자의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항. 이 규정은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들을 수행한다.

제1항.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제2항. 연구부정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제3항. 제보자와 피조사자 보호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4항. 조사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5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당연직인 위원장은 연구부회장이, 부위원장은 학술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은 편집위원과 해당 연구윤리 심사에 적합한 학회 내외 인사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과 상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편집위원을 포함한 학회 임원들 중에서 지명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항. 조사대상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위원으로 구성 또는 위촉될 수 없다.

제5조(조사 및 회의)

제1항. 조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위원장은 조사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2항.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사와 관련한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 외, 별도의 회의를 열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제4항. 조사와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제1항.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3항.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항.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 위반 조사

제7조(부정행위 제보, 접수, 조사)

제1항.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에 방문, 전화, 서면, 이메일 등으로 부정행위 의심자와 그 관련 내용과 증거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서면과 이메일로 제보할 수 있다.

제2항. 논문과 함께 제출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https://check.kci.go.kr/>)에서 10% 이상 유사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포괄적인 유사도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3항. 학회 사무국에 부정행위 제보가 들어오거나 포괄적인 유사도검증 결과 부정행위가 의심 될 경우, 사무국은 편집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장에게 그 관련 사항을 <부정행위 제보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에게 부정행위와 관련한 내용과 증거 자료를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다.

제4항. 해당 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여부는 사무국의 보고가 있는 지 15일 이내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편집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반에 따라 결정한다. 편집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에게 보고한 후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한다. 편집위원 과반 미만이 찬성하면 제보는 반려되고 반려 이유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보자에게 전달한다.

제5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인 및 연구 집단을 연구부정행위 대상으로 제보한 경우, 학회는 제보자에게 회원자격 박탈, 정지, 제한 또는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8조(용어)

제1항. “연구부정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행한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8조 2항부터 8항까지를 말한다.

제2항.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항. “변조”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항.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자신이 이미 게재한 연구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자기표절).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게재한 연구를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한 경우를 말한다(이중게재).

제5항. “부당한 저자 표시”란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저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6항. “저자 표시 누락”이란 논문에 논문저자 자격이 있음에도 누락시킨 행위를 말한다.

제7항. “이중 투고”란 동일한 연구를 우리 학회를 포함한 두 개 이상의 학회지에 투고하여 두 학회지 이상에서 게재 판정을 받고 우리 학회지에 게재를 포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항. “기타 연구부정행위”란 제8조 제2항부터 제7항 외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항. 학회 연구부정행위 규정 외에 더욱 세부적인 규정은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2015. 11. 3)”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2015. 5월)”를 참조하고 따를 수 있다.

제9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게 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 자료를 압수, 보관할 수 있다.

제10조(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거나 노출해서는 안 된다.

제2항.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공표하기 전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3항.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사의 일체 사항은 비밀이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자들은 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기피, 제척)

제1항.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에게 검증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유를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검증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기피신청을 인정할 경우 해당 위원은 검증 과정에서 배제된다.

제2항. 위원장이 조사 과정 중에 위원 중 해당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위원의 위원 자격이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 보장)

제1항. 위원회는 검증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3조(판정)

제1항. 위원회는 조사 내용과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소명 내용을 종합하여 판정을 내린다.

제2항.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장 후속 조치**제14조(제재)**

제1항.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 ① 해당 논문에 대해서 게재를 불허한다.
- ② 기 게재 논문의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관련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공지한다.
- ③ 학회 회원 및 본 학회와 관련한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④ 경중에 따라 회원 자격을 1년에서 5년까지 정지, 영구적 박탈, 민형사상 법적 조치한다.
- ⑤ 기타 일정기간 투고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경미하거나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는 주의, 경고, 공개사과 조치를 취한다.

제15조(결과 통지)

제1항.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재조사)

제1항.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명예회복)

제1항.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면 위원회는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제1항. 검증과 관련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제2항. 판정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제19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기독교학문연구회

학 회 장	김태황 (명지대학교)	편 집 위 원 장	박해일 (경희대학교)
연구부학회장	고세일 (충남대학교)	편 집 위 원	권오병 (경희대학교)
학술부학회장	김성원 (서울신학대학교)		김동혁 (연세대학교)
기획부학회장	김철수 (조선대학교)		김성원 (서울신학대학교)
감 사	류현모 (서울대학교)		김철수 (조선대학교)
	이명헌 (인천대학교)		손화철 (한동대학교)
총 무	오민용 (서울대 법학연구소)		송재일 (명지대학교)
학 회 이 사	강영안 (Calvin College, 미국)		신응철 (송실대학교)
	김홍섭 (인천대학교)		안소영 (경상대학교)
	문석윤 (경희대학교)		염동한 (부산대학교)
	박신현 (고신대학교)		이은실 (한동대학교)
	박영주 (미드웨스턴신학교)		임춘택 (제주대학교)
	서성록 (안동대학교)		조은주 (고신대학교)
	손병덕 (총신대학교)		허계형 (총신대학교)
	양성만 (우석대학교)		황혜원 (청주대학교)
	유재봉 (성규관대학교)		
	윤완철 (카이스트대학교)		
	이경직 (백석대학교)		
	장수영 (포항공과대학교)		
	조무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조성표 (경북대학교)		
	최태연 (백석대학교)		
연구윤리위원장	고세일 (충남대학교)		
부연구윤리위원장	김성원 (서울신학대학교)		
	김철수 (조선대학교)		

신앙과 학문

제29권 제4호 (통권 101호), 2024년 12월호

발행일 2024년 12월 31일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 김태황 (명지대학교)

편집인 박해일 (경희대학교)

디자인 이지은

인쇄 (주) 에스제이피엔비

등록 141-81-36939

주소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910호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 02-3272-4967

팩스 0303-0272-4967

전자우편 gihakyeon@gmail.com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ISSN 1226-9425

정가 15,000원